

전국 청소년 생활실태 조사 연구

연구책임자 : 이종원 (한국청소년개발원 연구 위원)

공동연구자 : 주동범 (한국청소년개발원 책임연구원)

서정아 (한국청소년개발원 연구 원)

한국청소년개발원



요 약

본 연구는 우리사회 청소년들의 일상적인 생활·의식의 실태와 구조를 주기적·종합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청소년관련 연구와 정책수립에 활용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사업 첫해인 올해에는 먼저 향후 조사에서 지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표준화된 조사표를 개발하였고, 이를 토대로 전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전국단위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전국의 만 10세 이상 20세 이하의 남녀 청소년 5,500명을 대상으로 학급단위 집단조사(초·중·고등학생)와 개별 면접조사(대학생, 취업·무직청소년)의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자료검증 작업을 거쳐 최종분석의 대상이 된 유효표본은 5,262매였다.

이번 조사를 통해 확인된 청소년 생활·의식의 주요 특성을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생활만족도: 청소년들은 자신의 친구관계에 가장 만족하고 있는 반면, 사회현실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다. 청소년들의 생활영역별 만족도의 순위를 보면, 친구관계- 가정생활- 국가(한국인)- 지역사회- 직장생활- 학교생활- 여가생활- 사회현실의 순이다. 가정과 더불어 청소년들의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직장과 학교생활에 만족하는 청소년은 절반에도 못미쳤고, 특히 우리사회 현실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2할 미만으로서 기성세대가 주도하는 현 사회의 전반적 질서에 대하여 강한 불신감을 나타내고 있다.

가정생활: 가정에서 부친의 역할과 영향력은 매우 미약하여 모친에 편중된 자녀지도가 행해지고 있다. 청소년들은 어머니와 더 자주 대화를 나누고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자신을 더 많이 이해한다고 생각하며 고민이 있으면

주로 어머니와 상의한다. 이와 같은 모친중심의 부모-자녀관계는 친척관계에도 반영되어 청소년들은 친·외가 구분없이 거의 대등하게 접촉하고 있으며, 서울·상위계층 청소년들은 외가쪽 친척과의 접촉빈도가 더 높다.

학교생활: 청소년들은 학교공부가 입시준비에나 도움이 될 뿐 인격형성이나 적성·소질개발에는 별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한다. 초·중학생의 학업부담과 스트레스는 고등학생과 거의 대등한 수준으로서 학원수강률, 개인적인 공부시간에서는 초·중학생이 고등학생을 오히려 앞서고 있다. 학생 청소년들이 학급친구에게 느끼는 경쟁의식이 취업청소년들이 직장동료에게 느끼는 경쟁의식보다 더 높다.

직장생활: 청소년들은 일보다는 여가생활을 더 중시하고 있으며, 일을 하는 목적이 사회적 역할수행이나 자기자신의 발전보다는 돈을 벌기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대다수의 취업청소년들이 기회가 주어지면 직장을 옮기기를 원하고 있으며 현직장을 평생직장으로 생각하는 청소년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사회·국가: 청소년들의 일상생활에서 지역공동체의 역할과 영향력은 점차 와해되고 있다. 청소년들의 대다수가 사회·국가 현실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지만, 자신이 한국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대부분 만족을 느끼고 있다.

여가생활: 청소년들은 여가시간의 7할 가량을 TV시청으로 보내고 있으며 TV는 컴퓨터와 더불어 청소년 여가활동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매일같이 컴퓨터를 이용하는 청소년이 전체의 1/2, 일주일에 한번 이상 인터넷에 접속하는 청소년이 7할을 넘고 있다. 이와 같은 급속한 정보화의 이면에 청소년 하위집단간의 정보격차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교우관계: 청소년들은 친구가 부모보다 자신을 더 잘 이해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고민이나 걱정거리도 부모보다는 주로 친구와 상의하고 있다. 청소년들의 교우관계는 이성보다는 동성친구, 동네보다는 학교친구에 편중되어 있다.

차 례

요 약

I. 서 론.....	19
II. 조사의 개요.....	21
1. 조사의 대상.....	21
2. 조사의 내용.....	22
3. 조사의 방법.....	25
1) 조사방법.....	25
2) 표집방법.....	25
3) 통계분석.....	27
4. 표본의 구성.....	28
III. 조사의 결과.....	33
1. 가정생활.....	33
1) 가족구성.....	33
2) 가정생활.....	43
3) 가족관계.....	49
4) 가족가치관.....	61
5) 가정생활 만족도.....	70
2. 학교생활.....	78
1) 학업관련 활동.....	78
2) 학교내 인간관계.....	84
3) 교육현실 인식.....	96
4) 학교생활 만족도.....	102

3. 직장생활	111
1) 직업 · 노동관.....	111
2) 직장생활 일반.....	120
3) 직장내 인간관계	125
4) 직장생활 만족도	135
4. 지역사회	142
1) 지역여건 · 환경	142
2) 지역사회 활동	146
3) 지역내 인간관계	150
4) 지역사회 선호도	153
5. 사회 · 국가관.....	159
1) 사회 · 국가 현실인식	159
2) 사회현실 만족도	163
3) 한국인으로서의 만족도	167
4) 통일관	169
6. 여가 · 생활 일반	172
1) 생활시간.....	172
2) 여가활동 일반.....	179
3) 여가생활 만족도	186
4) 교우관계.....	190
5) 정보화 실태	197
7. 개인 · 자아관.....	205
1) 자아에 대한 인식.....	205
2) 고민 · 걱정거리	209
3) 전체적인 행복감	211

8. 종합적 분석.....	213
1) 생활영역별 인간관계.....	213
2) 생활영역별 만족도와 전망.....	219
3) 생활영역별 만족도와 행복감.....	221
IV. 요약 및 논의.....	225
1. 요약.....	225
1) 가정생활.....	225
2) 학교생활.....	228
3) 직장생활.....	230
4) 지역사회.....	232
5) 사회·국가관.....	234
6) 여가·생활 일반.....	235
7) 개인·자아관.....	238
8) 종합적 분석.....	239
2. 논의.....	241
보 론: 청소년 생활·의식 국제비교.....	253
1. 서 론.....	253
2. 생활만족도와 사회유형.....	254
3. 가정생활.....	257
4. 학교·직장생활.....	270
5. 사회·국가관.....	281
참고문헌.....	293
부 록: 조사표의 구성.....	297

여 백

표 차 례

II. 조사의 개요

표 1- 1: 조사대상 인원 및 설문지 회수량	21
표 1- 2: 조사영역의 범주	22
표 1- 3: 조사영역 및 조사항목	23
표 1- 4: 조사대상 유형별 조사방법	25
표 1- 5: 전체 표본의 구성 - 주요배경변인별	28
표 1- 6: 전체표본의 구성 - 사회경제적 지위변인별	29
표 1- 7: 계층변인의 설정기준·표본의 계층별 분포	30
표 1- 8: 연소청소년 집단 표본구성	31
표 1- 9: 연장청소년 집단 표본구성	32

III-1. 가정생활

표 3-1- 1: 부모님 생존여부 - 전체	34
표 3-1- 2: 부모님 생존 여부 - 유형별	34
표 3-1- 3: 부모님 생존여부 - 지역·계층별	35
표 3-1- 4: 부모님 동거여부 - 전체	35
표 3-1- 5: 부모님 동거여부 - 유형별	36
표 3-1- 6: 부모님 동거여부 - 지역·계층별	36
표 3-1- 7: 가족내 형제순위 - 전체	37
표 3-1- 8: 가족내 형제순위 - 유형별	38
표 3-1- 9: 가족내 형제순위 - 성·지역·계층별	38
표 3-1-10: 조부모 동거여부 - 전체	39
표 3-1-11: 조부모 동거여부 - 유형별	40
표 3-1-12: 조부모 동거여부 - 성·지역·계층별	40
표 3-1-13: 자주 접촉하는 친척 - 전체	41
표 3-1-14: 자주 접촉하는 친척 - 유형별	42
표 3-1-15: 자주 접촉하는 친척 - 성·지역·계층별	42

표 3-1-16: 집안일 돕기 - 전체.....	44
표 3-1-17: 집안일 돕기 - 회전된 요인행렬표.....	44
표 3-1-18: 집안일 돕기 변인 평균값.....	45
표 3-1-19: 집안일 돕기 변인별 평균값 - 유형별.....	45
표 3-1-20: 집안일 돕기 변인별 평균값 - 성 · 지역 · 계층별.....	46
표 3-1-21: 집안일 돕는 양 - 전체.....	47
표 3-1-22: 집안일 돕는 양 - 유형별.....	47
표 3-1-23: 집안일 돕는 양 - 성 · 지역 · 계층별.....	48
표 3-1-24: 부모와의 대화빈도 - 전체.....	49
표 3-1-25: 부모와의 대화빈도 - 유형별.....	50
표 3-1-26: 부모와의 대화빈도 - 성 · 계층별.....	51
표 3-1-27: 부모의 자녀이해도 - 전체.....	52
표 3-1-28: 부모의 자녀이해도 - 유형별.....	52
표 3-1-29: 부모의 자녀이해도 - 성 · 지역 · 계층별.....	53
표 3-1-30: 부모와의 대립경험 - 전체.....	54
표 3-1-31: 부모와의 대립경험 - 유형별.....	54
표 3-1-32: 부모와의 대립경험 - 성 · 지역 · 계층별.....	55
표 3-1-33: 이상적인 부모상 - 유형별.....	56
표 3-1-34: 이상적인 부모상 - 성 · 계층별.....	57
표 3-1-35: 이상적인 부모상 - 전체.....	58
표 3-1-36: 이상적인 부모상 - 유형별.....	58
표 3-1-37: 이상적인 부모상 - 성 · 지역별.....	59
표 3-1-38: 역할모델로서의 부모.....	60
표 3-1-39: 역할모델로서의 부모 - 유형별.....	60
표 3-1-40: 역할모델로서의 부모 - 성 · 계층별.....	61
표 3-1-41: 부모님 부양의사 - 전체.....	62
표 3-1-42: 부모님 부양의사 - 유형별.....	62
표 3-1-43: 부모님 부양의사 - 성 · 지역별.....	63
표 3-1-44: 가족가치관 - 전체.....	65
표 3-1-45: 가족가치관 - 회전된 요인행렬표.....	66
표 3-1-46: 성별역할관 평균값 - 유형별.....	67

표 3-1-47: 성별역할관 - 성 · 지역 · 계층별.....	67
표 3-1-48: 위계적 가족관 - 유형별.....	68
표 3-1-49: 위계적 가족관 - 성 · 지역 · 계층별.....	68
표 3-1-50: 결혼 · 이혼관 - 유형별.....	69
표 3-1-51: 위계적 가족관 - 성 · 지역별.....	69
표 3-1-52: 가정생활 영역별 만족도 - 전체.....	71
표 3-1-53: 가정생활 영역별 만족도 - 유형별.....	71
표 3-1-54: 가정생활 만족도 - 전체.....	72
표 3-1-55: 가정생활 만족도 - 유형별.....	73
표 3-1-56: 가정생활 만족도 - 계층별.....	73
표 3-1-57: 가정생활 영역별 만족도와 전체 만족도 상관관계.....	74
표 3-1-58: 가정생활 만족도 회귀분석 - 전체.....	74
표 3-1-59: 가정생활 만족도 회귀분석 - 성별.....	75
표 3-1-60: 가정생활 전망 - 전체.....	76
표 3-1-61: 가정생활 전망 - 유형별.....	77
표 3-1-62: 가정생활 전망 - 성 · 지역 · 계층별.....	77

III-2. 학교생활

표 3-2- 1: 자기공부의 양 - 전체.....	79
표 3-2- 2: 자기공부의 양 - 유형별.....	79
표 3-2- 3: 자기공부의 양 - 계층별.....	80
표 3-2- 4: 과외활동 이수율.....	81
표 3-2- 5: 과외활동 이수율 - 유형별.....	82
표 3-2- 6: 과외활동 이수율 - 성 · 지역 · 계층별.....	82
표 3-2- 7: 서클 · 동아리 활동 경험 - 전체.....	83
표 3-2- 8: 서클 · 동아리 활동 경험 - 유형별.....	83
표 3-2- 9: 서클 · 동아리 활동 경험 - 성 · 지역별.....	84
표 3-2-10: 학급친구와의 경쟁의식 - 전체.....	85
표 3-2-11: 학급친구와의 경쟁의식 - 유형별.....	85
표 3-2-12: 학급친구와의 경쟁의식 - 성 · 계층별.....	86

표 3-2-13: 교사와의 대화빈도 - 전체.....	87
표 3-2-14: 교사와의 대화빈도 - 유형별.....	87
표 3-2-15: 교사와의 대화빈도 - 지역·계층별.....	88
표 3-2-16: 교사의 학생이해도 - 전체.....	88
표 3-2-17: 교사의 학생이해도 - 유형별.....	89
표 3-2-18: 교사의 학생이해도 - 성·지역·계층별.....	90
표 3-2-19: 교사와의 대립경험 - 전체.....	90
표 3-2-20: 교사와의 대립경험 - 유형별.....	91
표 3-2-21: 교사와의 대립경험 - 계층별.....	91
표 3-2-22: 바람직한 교사상 - 전체.....	92
표 3-2-23: 바람직한 교사상 - 유형별.....	92
표 3-2-24: 바람직한 교사상 - 계층별.....	93
표 3-2-25: 바람직한 교사상 - 전체.....	93
표 3-2-26: 바람직한 교사상 - 유형별.....	93
표 3-2-27: 바람직한 교사상 - 성별.....	94
표 3-2-28: 역할모델로서의 교사.....	94
표 3-2-29: 역할모델로서의 교사 - 유형별.....	95
표 3-2-30: 역할모델로서의 교사 - 성별.....	95
표 3-2-31: 교육현실 평가 - 전체.....	97
표 3-2-32: 학교공부의 유용성 평가.....	98
표 3-2-33: 학교공부의 유용성 평가 - 유형별.....	99
표 3-2-34: 대학진학 의사 - 전체.....	100
표 3-2-35: 대학진학 의사 - 유형별.....	101
표 3-2-36: 대학진학 의사 - 지역·계층별.....	101
표 3-2-37: 학교생활 영역별 만족도 - 전체.....	102
표 3-2-38: 학교생활 영역별 만족도 - 유형별.....	103
표 3-2-39: 학교생활 만족도 - 전체.....	104
표 3-2-40: 학교생활 만족도 - 유형별.....	105
표 3-2-41: 학교생활 만족도 - 성·지역·계층별.....	105
표 3-2-42: 학교생활 영역별 만족도와 전체 만족도의 상관관계.....	106
표 3-2-43: 학교생활 만족도 회귀분석 - 전체.....	107

표 3-2-44: 학교생활 만족도 회귀분석 - 교급별.....	108
표 3-2-45: 학교생활 전망 - 전체.....	109
표 3-2-46: 학교생활 전망 - 유형별.....	109
표 3-2-47: 학교생활 전망 - 성·계층별.....	110

III-3. 직장생활

표 3-3- 1: 일을 하는 목적 - 전체.....	112
표 3-3- 2: 일을 하는 목적 - 유형별.....	112
표 3-3- 3: 일을 하는 목적 - 성·계층별.....	113
표 3-3- 4: 근로관 (“충분한 돈이 있다면”).....	113
표 3-3- 5: 근로관 (“충분한 돈이 있다면”) - 유형별.....	114
표 3-3- 6: 근로관 - 성·지역·계층별.....	114
표 3-3- 7: 일과 여가 - 전체.....	115
표 3-3- 8: 일과 여가 - 유형별.....	115
표 3-3- 9: 일과 여가 - 계층별.....	116
표 3-3-10: 직장선택 기준 - 전체.....	116
표 3-3-11: 직장선택 기준 - 유형별.....	117
표 3-3-12: 직장선택 기준 - 성별.....	117
표 3-3-13: 희망 직업.....	119
표 3-3-14: 근무기간.....	120
표 3-3-15: 근무기간 - 성·지역별.....	121
표 3-3-16: 평일 근무시간 - 직종별.....	121
표 3-3-17: 평일 근무시간 - 성·지역별.....	122
표 3-3-18: 자기 업무의 양 - 전체.....	123
표 3-3-19: 자기 업무의 양 - 직종별.....	123
표 3-3-20: 자기 업무의 양 - 성·지역별.....	123
표 3-3-21: 전직의사 - 전체.....	124
표 3-3-22: 전직의사 - 직종별.....	125
표 3-3-23: 직장동료와의 경쟁의식 - 전체.....	126
표 3-3-24: 직장동료와의 경쟁의식 - 직종별.....	126

표 3-3-25: 직장동료와의 경쟁의식 - 성·지역별.....	126
표 3-3-26: 직장상사와의 대화 - 전체.....	127
표 3-3-27: 직장상사와의 대화 - 직종별.....	128
표 3-3-28: 직장상사와의 대화 - 성·지역별.....	128
표 3-3-29: 직장상사의 이해도 - 전체.....	129
표 3-3-30: 직장상사의 이해도 - 직종별.....	130
표 3-3-31: 직장상사의 이해도 - 성·지역별.....	130
표 3-3-32: 직장상사와의 대립경험 - 전체.....	131
표 3-3-33: 직장상사와의 대립경험 - 직종별.....	131
표 3-3-34: 직장상사와의 대립경험 - 성·지역별.....	131
표 3-3-35: 바람직한 직장상사(능력-이해) - 전체.....	132
표 3-3-36: 바람직한 직장상사(능력-이해) - 직종별.....	132
표 3-3-37: 바람직한 직장상사(엄격형-친구형) - 전체.....	133
표 3-3-38: 바람직한 직장상사(엄격형-친구형) - 직종별.....	133
표 3-3-39: 역할모델로서의 직장상사 유무 - 전체.....	134
표 3-3-40: 역할모델로서의 직장상사 유무 - 직종별.....	134
표 3-3-41: 역할모델로서의 직장상사 유무 - 성·지역별.....	134
표 3-3-42: 직장생활 영역별 만족도.....	136
표 3-3-43: 직장생활 만족도 - 전체.....	137
표 3-3-44: 직장생활 만족도 - 직종별.....	137
표 3-3-45: 직장생활 만족도 - 성·지역별.....	137
표 3-3-46: 직장생활 영역별 만족도와 전체 만족도 상관관계.....	138
표 3-3-47: 직장생활 만족도 회귀분석.....	139
표 3-3-48: 직장생활 전망 - 전체.....	140
표 3-3-49: 직장생활 전망 - 직종별.....	140
표 3-3-50: 직장생활 전망 - 성·지역별.....	141

III-4. 지역사회

표 3-4- 1: 지역사회 거주 기간 - 전체.....	143
표 3-4- 2: 지역사회 거주기간 - 유형별.....	143

표 3-4- 3: 지역사회 거주기간 - 지역·계층별.....	144
표 3-4- 4: 지역사회 환경.....	145
표 3-4- 5: 지역사회 환경(긍정응답률) - 지역별.....	146
표 3-4- 6: 지역사회 행사참여 - 전체.....	147
표 3-4- 7: 지역사회 행사참여 - 유형별.....	147
표 3-4- 8: 지역사회 행사참여 - 성·계층별.....	148
표 3-4- 9: 자원봉사활동 경험 - 전체.....	148
표 3-4-10: 자원봉사활동 경험 - 유형별.....	149
표 3-4-11: 자원봉사 활동경험 - 계층별.....	149
표 3-4-12: 이웃어른과의 대화 - 전체.....	150
표 3-4-13: 이웃어른과의 대화 - 유형별.....	151
표 3-4-14: 이웃어른과의 대화 - 성·계층별.....	151
표 3-4-15: 역할모델로서의 지역어른 유무 - 전체.....	152
표 3-4-16: 역할모델로서의 지역어른 유무 - 유형별.....	152
표 3-4-17: 지역사회 선호도 - 전체.....	153
표 3-4-18: 지역사회 선호도 - 유형별.....	154
표 3-4-19: 지역사회 선호도 - 성·계층별.....	154
표 3-4-20: 지역사회 거주 의사 - 전체.....	155
표 3-4-21: 지역사회 거주 의사 - 유형별.....	155
표 3-4-22: 지역사회 거주 의사 - 성·계층별.....	156
표 3-4-23: 지역사회 전망 - 전체.....	157
표 3-4-24: 지역사회 전망 - 유형별.....	157
표 3-4-25: 지역사회 전망 - 성·지역·계층별.....	158

III-5. 사회·국가관

표 3-5- 1: 사회현실 인식.....	160
표 3-5- 2: 국가 발전수준 평가.....	162
표 3-5- 3: 국가 발전수준 평가 - 유형별.....	163
표 3-5- 4: 사회현실 만족도 - 전체.....	164
표 3-5- 5: 사회현실 만족도 - 유형별.....	164

표 3-5- 6: 사회현실 만족도 - 성 · 지역 · 계층별.....	165
표 3-5- 7: 사회변화 전망 - 전체	166
표 3-5- 8: 사회변화 전망 - 유형별.....	166
표 3-5- 9: 사회변화 전망 - 성 · 지역 · 계층별.....	167
표 3-5-10: 한국인으로서의 만족도 - 전체.....	168
표 3-5-11: 한국인으로서의 만족도 - 유형별	168
표 3-5-12: 한국인으로서의 만족도 - 성 · 지역별.....	169
표 3-5-13: 바람직한 통일방식 - 전체.....	170
표 3-5-14: 바람직한 통일방식 - 유형별	170
표 3-5-15: 바람직한 통일방식 - 성 · 지역별.....	171

III-6. 여가 · 생활 일반

표 3-6- 1: 평일날 수면시간 - 전체 · 유형별	173
표 3-6- 2: 평일날 수면시간 - 지역 · 계층별	173
표 3-6- 3: 평일날 여가시간 - 전체 · 유형별	174
표 3-6- 4: 평일날 여가시간 - 성 · 지역 · 계층별.....	175
표 3-6- 5: 평일날 TV 시청시간 - 전체 · 유형별.....	176
표 3-6- 6: 평일날 TV 시청시간 - 성 · 지역 · 계층별.....	176
표 3-6- 7: 평일날 학교 공부시간 - 전체 · 유형별	177
표 3-6- 8: 평일날 집 · 학원에서의 공부시간 - 전체 · 유형별	177
표 3-6- 9: 평일날 집 · 학원에서의 공부시간 - 성 · 지역 · 계층별.....	178
표 3-6-10: 취미 · 여가활동	180
표 3-6-11: 여가생활 동반자 · 장소 - 전체.....	181
표 3-6-12: 여가생활 동반자 · 장소 - 유형별	182
표 3-6-13: 청소년 수련시설 이용경험 - 전체.....	183
표 3-6-14: 청소년 수련시설 이용경험 - 유형별.....	183
표 3-6-15: 청소년 수련시설 이용경험 - 지역 · 계층별.....	183
표 3-6-16: 한달 평균 용돈	184
표 3-6-17: 아르바이트 경험 - 전체.....	185
표 3-6-18: 아르바이트 경험 - 유형별.....	185

표 3-6-19: 아르바이트 경험 - 성 · 계층별.....	186
표 3-6-20: 여가생활 만족도 - 전체.....	187
표 3-6-21: 여가생활 만족도 - 유형별.....	187
표 3-6-22: 여가생활 만족도 - 성 · 계층별.....	188
표 3-6-23: 여가생활 장애요인 - 전체.....	189
표 3-6-24: 여가생활 장애요인 - 유형별	189
표 3-6-25: 친한 친구 유무 · 성별 - 전체.....	190
표 3-6-26: 친한 친구 유무 · 성별 - 유형별.....	191
표 3-6-27: 친한 친구 유무 · 성별 - 성별.....	191
표 3-6-28: 자주 어울리는 친구 - 전체	192
표 3-6-29: 자주 어울리는 친구 - 유형별.....	193
표 3-6-30: 자주 어울리는 친구 - 성 · 지역 · 계층별.....	193
표 3-6-31: 친구의 자기이해도 - 전체.....	194
표 3-6-32: 친구의 자기이해도 - 유형별	195
표 3-6-33: 친구의 자기이해도 - 성 · 계층별.....	195
표 3-6-34: 친구관계 만족도 - 전체.....	196
표 3-6-35: 친구관계 만족도 - 유형별.....	196
표 3-6-36: 컴퓨터 유무 · 주이용자 - 전체.....	197
표 3-6-37: 컴퓨터 유무 · 주이용자 - 유형별.....	198
표 3-6-38: 컴퓨터 유무 · 주이용자.....	198
표 3-6-39: 컴퓨터 사용회수 - 전체.....	199
표 3-6-40: 컴퓨터 사용회수 - 유형별.....	200
표 3-6-41: 컴퓨터 사용회수 - 성 · 계층별.....	200
표 3-6-42: 인터넷 사용회수 - 전체.....	201
표 3-6-43: 인터넷 사용회수 - 유형별.....	202
표 3-6-44: 인터넷 사용회수 - 지역 · 계층별.....	202
표 3-6-45: 컴퓨터 · 인터넷이 없을 경우 생활변화 - 전체.....	203
표 3-6-46: 컴퓨터 · 인터넷 없을 경우 생활변화 - 유형별.....	204

III-7. 개인 · 자아관

표 3-7- 1: 개인 · 자아관.....	206
표 3-7- 2: 개인 · 자아관 - 회전된 요인행렬표.....	207
표 3-7- 3: 자이인식 변인별 평균값.....	208
표 3-7- 4: 고민 · 걱정거리.....	209
표 3-7- 5: 고민 · 걱정거리 상담상대.....	210
표 3-7- 6: 전체적인 행복감 - 전체.....	211
표 3-7- 7: 전체적인 행복감 - 유형별.....	212
표 3-7- 8: 전체적인 행복감 - 성 · 지역 · 계층별.....	212

III-8. 종합적 분석

표 3-8- 1: 생활영역별 대화빈도 비교.....	213
표 3-8- 2: 생활영역별 대화빈도 비교 - 유형별.....	214
표 3-8- 3: 생활영역별 타인의 자기이해도 비교.....	215
표 3-8- 4: 생활영역별 타인의 자기이해도 비교 - 유형별.....	215
표 3-8- 5: 생활영역별 역할모델의 존재 비교.....	216
표 3-8- 6: 생활영역별 타인과의 대립경험 비교.....	217
표 3-8- 7: 생활영역별 타인과의 대립경험 비교 - 유형별.....	217
표 3-8- 8: 학급친구 · 직장동료와의 대립경험 비교.....	218
표 3-8- 9: 생활영역별 만족도 비교.....	219
표 3-8-10: 생활영역별 만족도 비교 - 유형별.....	220
표 3-8-11: 생활영역별 변화전망.....	221
표 3-8-12: 생활영역별 만족도와 행복감의 상관관계.....	222
표 3-8-13: 전체적인 행복감 회귀분석.....	223
표 3-8-14: 전체적인 행복감 회귀분석 - 성별.....	224

보 론: 청소년 생활 · 의식 국제비교

표 5- 1: 생활영역별 만족도 - 국제비교.....	254
-------------------------------	-----

표 5- 2: 가정생활 만족도 - 국제비교.....	257
표 5- 3: 가정생활 만족도 - 한국 연도별.....	258
표 5- 4: 같이 살고 있는 사람 - 국제비교.....	259
표 5- 5: 연로한 부모님 부양의사 - 국제비교.....	260
표 5- 6: 연로한 부모님 부양의사 - 한국 연도별.....	261
표 5- 7: 결혼관 - 국제비교.....	262
표 5- 8: 이혼관 - 국제비교.....	263
표 5- 9: 부모의 자녀이해도 - 국제비교.....	265
표 5-10: “부모의 의견에는 가능한 한 따라야 한다” - 국제비교.....	266
표 5-11: “자녀는 부모로부터 경제적으로 일찍 독립해야 한다” - 국제비교.....	266
표 5-12: “남자는 밖에서 일하고 여자는 가정을 지켜야 한다” - 국제비교.....	267
표 5-13: 가족내 문제해결의 주도권 - 국제비교.....	268
표 5-14: 이상적인 부친상 - 국제비교.....	268
표 5-15: 이상적인 부친상 - 한국 연도별.....	269
표 5-16: 고민의 상담상대 - 국제비교.....	269
표 5-17: 학교생활 만족도 - 국제비교.....	270
표 5-18: 학교생활 만족도 - 한국 연도별.....	271
표 5-19: 학교교육의 의의 - 국제비교.....	272
표 5-20: 대학졸업자를 평가하는 요소 - 한국 연도별.....	273
표 5-21: 직장생활 만족도 - 국제비교.....	274
표 5-22: 직장생활 만족도 - 한국 연도별.....	275
표 5-23: 전직 경험 - 국제비교.....	275
표 5-24: 일을 하는 목적 - 국제비교.....	277
표 5-25: 일을 하는 목적 - 한국 연도별.....	277
표 5-26: 친구관계 만족도 - 국제비교.....	278
표 5-27: 친구관계 만족도 - 한국 연도별.....	279
표 5-28: 친한 친구의 유무 · 친구의 성별 - 국제비교.....	279
표 5-29: 친한 친구의 유무 · 친구의 성별 - 한국 연도별.....	280
표 5-30: 친한 친구를 사귀게 된 계기 - 국제비교.....	281
표 5-31: 지역사회 선호도 - 국제비교.....	282

표 5-32: 지역사회 선호도 - 한국 연도별.....	282
표 5-33: 지역사회 영주의사 - 국제비교.....	283
표 5-34: 지역사회 영주의사 - 한국 연도별.....	283
표 5-35: 자국 사회현실 만족도 - 국제비교.....	284
표 5-36: 자국 사회현실 만족도 - 한국 연도별.....	285
표 5-37: 자국사회에서 자랑할만한 것 - 국제비교.....	287
표 5-38: 자국인의 이미지 - 국제비교.....	289
표 5-39: 정치에 대한 관심도 - 국제비교.....	290
표 5-40: 국가와 자신과의 관계 - 국제비교.....	290
표 5-41: 국가와 자신과의 관계 - 한국 연도별.....	291
표 5-42: 전체적인 행복감 - 국제비교.....	291

I. 서 론

본 연구는 우리사회 청소년들의 일상적인 생활·의식의 실태와 구조를 주기적·종합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청소년관련 연구와 정책수립에 활용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사업 첫해인 올해에는 향후 조사에서 지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표준화된 조사표를 개발하고, 전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전국단위의 설문조사를 통해 청소년 생활·의식의 현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후속 연구의 시계열적인 비교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동안 우리사회에서 청소년의 생활·의식에 관한 조사연구는 개별연구자나 기관의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지만 대부분 다음과 같은 한계를 안고 있었다.

첫째, 특정 주제영역만을 다룬 연구가 대다수로서 청소년 생활·의식의 전체상을 종합적 파악할 수 없었다.

둘째, 표집에 있어서 제한된 연령 범위와 지역단위 또는 특정 청소년집단(주로 학생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여 조사결과를 전체 청소년으로 일반화하기 어려웠다.

셋째, 청소년 생활·의식에 관한 전국 단위의 종합적인 조사연구가 몇 차례 있어왔지만 모두 1회성 연구에 머물러 시계열적인 변화양상의 파악이 불가능하였다.

기존의 조사연구가 안고 있는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한 인식에 기초하여 본 조사연구에서는 연구의 기본방향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조사대상 청소년의 연령범위를 확대하고 취업·무직청소년을 포함한 전체 청소년을 조사대상에 포괄한다.

둘째, 향후 지속적인 반복조사가 가능한 형태의 체계적인 조사표를 대상집단별로 개발한다.

셋째, 특정 영역에 국한하지 않고 청소년 생활·의식의 전체상을 조감할 수 있는 종합적·포괄적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같은 연구방향에 따라 국내외 청소년 생활·의식관련 선행연구·자료의 분석과 청소년관련 각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청소년의 전체 생활영역을 포괄하는 조사표를 개발하여(중·고등학생·대학생·취업청소년·무직청소년), 전국단위의 표집과정을 거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전국의 만 10세 이상 20세 이하의 남녀 청소년 5,500명을 대상으로 학급단위 집단조사(초·중·고등학생)와 개별 면접조사(대학생, 취업·무직청소년)의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자료검증 작업을 거쳐 최종분석의 대상이 된 유효표본은 5,262매였다.

본 보고서는 조사의 문항분석 결과를 조사영역별로 정리하여 수록한 것으로서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주요 시사점과 논의사항은 마지막 부분의 요약과 논의에서 다루었다. 아울러 우리나라 청소년 생활·의식의 국제적인 비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일본 총무청에서 시행한 “제5회 세계청년의식조사”의 분석결과를 보론으로 수록하였다.

II. 조사의 개요

1. 조사의 대상

본 조사는 2000년 9월말 현재 만 10세에서 20세까지의 남녀 청소년 5,5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조사대상으로 설정된 청소년의 유형은 학생청소년 4집단(초·중·고·대학생)과 비학생청소년 2집단(취업청소년·무직청소년)등 총 6개 집단이며 정부의 공식 행정통계자료를 통해 각 유형별 청소년 모집단의 인구비율을 추출한 뒤 이에 의거하여 표본을 할당하였다. 조사결과 회수된 설문지는 총 5,262매로서 전체 회수율은 95.7%였다.

표 1- 1: 조사대상 인원 및 설문지 회수량

(단위: 명, 매, %)

		대상인원	유효회수량	회수율
전 체		5,500	5,262	95.7
학생집단	초등생	950	936	98.5
	중학생	1,440	1,358	94.3
	고교생	1,710	1,597	93.4
	대학생	600	590	98.3
비학생집단	취 업	400	382	95.5
	무 직	400	399	99.8

2. 조사의 내용

청소년 일상생활·의식의 구조적인 파악을 위하여 “생활영역”, “생활과정·관계”, “의식·가치관”의 세가지 요소를 축으로 하여 조사영역을 범주화하였다.

먼저 생활영역은 개인(주체)에게 사회적 역할과 지위를 부여하는 사회적 범주로서 “가족(가정)” “학교(교육)” “직장(노동)” “지역사회” “사회·국가”와 더불어 주체로서의 “개인·자아”를 별도로 설정하였다.

생활과정·관계는 각 개인이 자신이 속한 사회적 범주내에서 주어진 사회적 역할을 수행해 가는 행위양식 및 사회관계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생활과정”(고유활동·임의활동)과 “사회(인간)관계”의 두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가치관·의식은 각 생활영역과 관련된 주관적 가치와 태도로서 “개인·자아관” “가족가치관” “교육관련 의식” “노동·직업관” “지역사회관” “사회·국가관”의 6가지 범주를 설정하였다.

표 1- 2: 조사영역의 범주

구분		생활과정·사회관계				가치관·의식	
		생활과정(행위)		사회(인간)관계			
관계범주	생활영역	고유활동	임의활동				
개인		자아	필수활동	휴식			
가족		가족·가정	가사	여가활동	가족		
사회	현실	학교·교육	학습		교우관계	교사	교육관련 의식
		직장·노동	근로			동료	노동·직업관
		지역사회	교류			이웃	지역사회관
회	추상	일반사회·국가	사회·국가관				

이와 같은 청소년 일상생활·의식의 범주화 작업을 통하여 가정생활, 학교생활, 직장생활, 지역사회, 사회·국가관, 여가생활, 개인·자아관 등 총 7개의 조사영역과 28개의 하위영역 및 조사항목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였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1- 3: 조사영역 및 조사항목

영역	하위영역	조사항목
가정생활	가족구성	부모님 생존·동거여부, 형제유무·순위, 조부모 동거여부, 친·외가 접촉빈도
	가사관련 활동	유형별 가사활동 참여율, 가사활동 참여도 평가
	가족관계	부모와의 대화빈도, 부모의 자기이해도, 부모와의 대립경험, 바람직한 부모상, 역할모델로서의 부모
	가족가치관	부모님 부양의사, 전통적 가족가치관(성별역할관, 결혼·이혼관, 위계적 가족관)에 대한 태도
	가정생활 만족도	하위영역별 만족도, 전체만족도, 가정생활의 전망
학교생활	학업관련 활동	자기 공부 양 평가, 학업·취미관련 과외활동 실태, 서클·동아리활동 참여경험
	학교내 인간관계	학급친구와의 경쟁의식, 교사와의 대화빈도, 교사의 학생이해도, 교사와의 대립경험, 바람직한 교사상, 역할모델로서의 교사 유무
	교육현실 인식	학교공부의 유용성, 교육현실 전반에 대한 평가, 대학진학 의사,
	학교생활 만족도	하위영역별 만족도, 전체만족도, 학교생활의 전망
직장생활	직업·노동관	일을 하는 목적, 근로관, 일과 여가생활의 관계, 직장선택의 기준, 희망 직업(자신·부모)
	직장생활 일반	현 직장 근무기간, 평일 근무시간, 자기 업무의 양, 다른 직장으로의 전직의사
	직장내 인간관계	직장동료와의 경쟁의식, 상사와의 대화빈도, 상사의 부하직원 이해도, 상사와의 대립경험, 바람직한 직장상사, 역할모델로서의 직장상사 유무
	직장생활 만족도	하위영역별 만족도, 전체만족도, 직장생활의 전망

영역	하위영역	조사항목
지역 사회	지역여건·환경	지역 거주기간, 지역사회 환경에 대한 평가
	지역사회 활동	지역사회 행사참여율, 자원봉사활동 경험
	지역내 인간관계	이웃어른과의 대화빈도, 역할모델로서의 이웃어른 유무
	지역사회 선호도	지역사회 선호도, 이주의사, 지역사회의 전망
사회· 국가관	사회·국가 현실 인식	사회현실에 대한 인식, 국가의 발전수준 평가
	사회현실 만족도	사회현실 만족도, 사회변화의 전망, 한국인으로서의 만족도
	통일관	바람직한 통일의 방식
여가 생활	생활시간	수면시간, TV시청시간, 여가시간, 공부하는 시간
	여가활동	취미·여가활동, 여가활동 동반자·장소, 수련시설 이용경험, 한달평균 용돈, 아르바이트 경험
	여가생활 만족도	여가생활 만족도, 여가생활의 장애요인
	교우관계	친한 친구 유무·성별, 동네친구와 학교친구, 친구의 자기이해도, 친구관계 만족도
	정보화실태	컴퓨터 유무·주사용자, 컴퓨터 사용빈도, 인터넷 사용빈도, 컴퓨터·인터넷의 유용성 평가
개인· 자아관	개인·자아관	자아에 대한 인식(성취의욕·자기무용감)
	고민·걱정거리	주된 고민·걱정거리, 고민·걱정거리 상담상대
	전체적인 행복감	전체적인 행복감

3. 조사의 방법

1) 조사방법

본 조사의 수행을 위하여 전국의 12개 조사거점 지역을 선정한 뒤 각 지역별로 조사원을 위촉하여 해당지역내에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원은 사회조사·사회통계 과목의 수강경험이 있는 대학·대학원 재학생으로 하였으며 사전교육을 통하여 조사방법과 유의사항을 숙지시켰다.

조사대상 청소년의 유형별로 집단조사와 개별조사의 방식을 병행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1- 4: 조사대상 유형별 조사방법

	조사대상	조 사 방 법
초 등 생	4~6학년	조사원 지도에 의한 학급단위 집단조사
중 고 생	1~3학년	
대 학 생	1~2학년	조사원에 의한 개인단위 면접조사
취 업	20세이하	
무 직	20세이하	

2) 표집방법

본 조사의 표본은 다단계 층화집락추출법에 의해 추출되었다. 층화의 범주는 성, 청소년유형, 지역규모, 권역의 4가지로서, 청소년유형은 초등학교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취업청소년, 무직청소년의 6개 하위집단으로, 지역규모는 서울, 광역시, 기타 시군부의 3개 하위지역으로 구분된다. 권역

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을 서울, 경인권(인천·경기), 충청·강원권(대전·충남·강원), 전라권(광주·전남·전북), 경남권(부산·울산·경남), 경북권(대구·경북)의 6개 하위권역으로 세분하였다.

조사대상 청소년유형별로 구체적인 표집의 방식은 다음과 같다.

초·중·고등학생

지역·권역별로 전국을 모두 18개의 층으로 구분한 뒤 각 층에 모집단 인구비율에 따라 표본을 할당하였다. 각 학급당 40명을 기준으로 대상 학교 수를 산출하여 각 층에서 집락(cluster)인 학교를 임의표집한 뒤 각 학교별로 초등학생은 4~6학년, 중·고등학생은 전 학년을 대상으로 조사대상 학급을 임의할당하였다.

대학생

권역별로 전국을 모두 6개의 층으로 구분한 뒤 각 층에서 모집단 인구비율에 의거하여 표본을 할당하였다. 각 권역별로 3개교 이상, 1개 학교당 30명 이하로 표본의 크기를 제한하고 대상 학교수를 산출하여 각 층에서 집락인 학교를 임의선정하였다. 그 뒤 조사원이 직접 현지학교를 방문하여 1~2학년 중 만 20세 이하의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취업청소년

권역별로 전국을 모두 6개의 층으로 구분한 뒤 각 층에서 모집단 인구비율에 의거하여 표본을 할당하였다. 각 권역별로 3~5개의 하위 조사거점을 임의선정한 뒤 조사원이 직종별 취업청소년의 구성비에 유의하여 만 20세 이하의 취업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취업청소년은 1개월 이상 동일 직종에 종사하는 청소년으로 규정하였으며 정규직 외에 임시직·일용직도 포함하였고, 대학 휴학자, 군 입대 대기자, 아르바이트 대학생은 제외하였다.

무직청소년

권역별로 전국을 모두 6개의 층으로 구분한 뒤 각 층에서 모집단 인구 비례에 의거하여 표본을 할당하였다. 각 권역별로 3~5개의 하위 조사거점을 임의선정한 뒤 조사원이 만 20세 이하의 무직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무직청소년은 6개월 이상 학교에 다니지 않고 직업도 없는 청소년으로 규정하였으며, 대학 휴학자, 군 입대 대기자, 취업이 확정된 대기자는 제외하였고, 학교에 다니지 않는 2주 미만의 아르바이트생은 포함하였다.

3) 통계분석

조사결과의 통계처리는 SPSS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각 문항별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고, 주요 배경변인별 응답결과의 차이를 검증하였다(χ^2 검증). 일부 문항에 대해서는 다변량 분산분석과 상관관계 분석, 회귀분석의 방법을 병행하였다.

통계분석의 유의도는 $p < 0.05 = *$, $p < 0.01 = **$, $p < 0.001 = ***$ 의 세가지로 구분하여 표기하였다.

4. 표본의 구성

표본의 구성의 살펴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먼저 전체 평균연령은 15.6세(유효표본에 기초하여 산출한 수치임. 이하 동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고등학생이 30.3%로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중학생(25.8%), 초등학생(17.8%), 대학생(11.2%)의 순이었고, 무직청소년(7.6%)과 취업청소년(7.3%)이 7할대로서 가장 적었다.

성별로는 남자가 51.9%로서 여자(48.1%)보다 다소 많은 편이었다. 거주지역별로는 시·군 지역이 44.4%로서 가장 다수였고, 광역시 지역이 34.0%로서 중간, 서울 지역이 21.6%로서 가장 적었다.

표 1- 5: 전체 표본의 구성 - 주요배경변인별

(단위: 명, %)

		사례수	비율
나 이	전 체	5,248	15.6
유 형	초 등 생	936	17.8
	중 학 생	1,358	25.8
	고 교 생	1,597	30.3
	대 학 생	590	11.2
	취 업	382	7.3
	무 직	399	7.6
성 별	남 자	2,729	51.9
	여 자	2,528	48.1
지 역	서 울	1,134	21.6
	광 역 시	1,791	34.0
	시 군 부	2,337	44.4

한편,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련된 변인별 표본의 구성을 살펴 보면, 먼저

부친의 학력에 있어서는 고등학교 졸업이 48.0%로서 가장 다수였고, 다음으로 대학교 졸업(23.1%), 중학교 졸업(12.9%)의 순이었으며, 대학원 졸업(6.5%)과 초등학교 졸업(6.1%)은 극소수에 머물렀다.

표 1- 6: 전체표본의 구성 - 사회경제적 지위변인별

(단위: 명, %)

		사례수	비율
부친의 학 력	초등학교 졸업	308	6.1
	중학교 졸업	659	12.9
	고등학교 졸업	2,442	48.0
	전문대학 졸업	174	3.4
	대학교 졸업	1,174	23.1
	대학원 졸업 이상	332	6.5
부친의 직 업	경영·관리직	588	12.1
	사무·행정직	681	14.0
	교 육 자	224	4.6
	전 문 직	190	3.9
	기 술 직	610	12.5
	자 영 업	888	18.2
	서 비 스 직	113	2.3
	판매·영업직	181	3.7
	생산·기능직	951	19.5
	농·임·어업	315	6.5
	무 직	129	2.6
가 정 의 경제수준 평 가	매우 못사는 편	139	2.7
	중간보다 못사는 편	1,007	19.2
	중간 수준이다	3,459	66.0
	중간보다 잘사는 편	582	11.1
	매우 잘 사는 편	56	1.1

부친의 직업은 생산·기능직(19.5%)과 자영업(18.2%)이 2할 수준으로서 가장 많았으며, 사무·행정직(14.0%)과 기술직(12.5%), 경영·관리직

(12.1%)이 1할 이상으로서 그 다음이었고, 농·임·어업(6.5%), 교육자(4.6%), 전문직(3.9%), 판매·영업직(3.7%)은 모두 1할 미만에 머물렀다(무직: 2.6%).

자기 가정의 경제수준을 주관적으로 평가하게 한 결과를 보면, “중간 수준”이라는 응답이 66.0%로서 가장 다수였고, 이어서 “중간보다 못사는 편”(19.1%), “중간보다 잘사는 편”(11.1%)의 순이었고, “매우 못사는 편”(2.7%)과 “매우 잘사는 편”(1.1%)이라는 응답은 극소수에 불과했다. 이들 사회경제적 지위관련 세가지 변인을 활용하여 가정의 사회적 위세와 생활수준을 포괄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계층” 변인을 조작적으로 정의하였다. 계층변인은 상위계층, 중간계층, 하위계층의 세가지로 구성되는데 계층구분의 기본과 표본의 계층별 분포는 다음의 표와 같다.

중간계층이 49.8%로서 다수이고 상위계층이 21.5%, 하위계층이 28.7%로 나타났다.

표 1- 7: 계층변인의 설정기준·표본의 계층별 분포

(단위: 명, %)

	설 정 기 준	사례수	비 율
상 위 계 층	다음의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표본 - 부친의 학력: 대졸 이상 - 부친의 직업: 경영관리직, 사무행정직, 교육자, 전문직, 기술직, 자영업 중의 하나 - 가정의 경제수준: 중간 수준 이상	1,028	21.5
중 간 계 층	상위·하위계층으로 분류된 표본을 제외한 전체	2,382	49.8
하 위 계 층	다음의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표본 - 부친의 학력: 고졸 이하 - 부친의 직업: 자영업, 서비스직, 판매영업직, 생산기능직, 농림어업, 무직 중의 하나 - 가정의 경제수준: 중간수준 이하	1,373	28.7

청소년유형별 표본의 구성을 연소청소년(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과

연장청소년(대학생, 취업청소년, 무직청소년)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먼저 연소청소년 집단의 경우 평균 나이는 초등학생이 11.6세, 중학생이 13.8세, 고등학생이 16.6세였다.

초등학생은 남자가 52.1%로서 여자(47.9%)보다 다소 많았으며, 지역별로는 서울이 16.7%, 광역시가 28.6%, 시군부가 54.7%로서 모집단의 인구구성과 비교하여 서울지역이 과소표집되었다. 계층별로는 상위계층이 35.2%, 중간계층이 47.2%, 하위계층이 17.5%로서 전체 평균에 비해 상위계층의 비율이 높은 편이었다.

중학생은 남자가 56.6%에 달하여 모집단 인구구성에 비해 과다표집되었다(여자 43.4%). 지역별로는 서울이 25.5%, 광역시가 31.7%, 시군부가 42.9%였으며, 계층별로는 상위계층이 22.3%, 중간계층이 50.8%, 하위계층이 27.0%였다.

고등학생은 남자가 52.6%로서 여자(47.4%)에 비해 많았으며, 지역별로는 서울이 21.4%, 광역시가 37.9%, 시군부가 40.7%였다. 계층별로는 상위계층이 16.6%, 중간계층이 49.4%, 하위계층이 34.0%였다.

표 1- 8: 연소청소년 집단의 표본구성

(단위: 명,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성 별	남 자	488	52.1	768	56.6	839	52.6
	여 자	448	47.9	588	43.4	757	47.4
지 역	서 울	156	16.7	346	25.5	341	21.4
	광역시	268	28.6	430	31.7	606	37.9
	시군부	512	54.7	582	42.9	650	40.7
계 층	상 위	287	35.2	281	22.3	248	16.6
	중 간	385	47.2	640	50.8	738	49.4
	하 위	143	17.5	340	27.0	507	34.0

평균나이: 초등학생 11.6세, 중학생 13.8세, 고등학생 16.6세

연장청소년 집단은 평균나이가 대학생이 19.4세로서 가장 많고, 취업청소년이 18.8세, 무직청소년이 18.7세였다.

대학생은 남자가 45.6%(여자 54.4%)에 머물러 실제 모집단 인구구성에 비해 과소표집되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0.8%, 광역시가 35.9%, 시군부가 43.2%였고, 계층별로는 상위계층이 21.7%, 중간계층이 50.8%, 하위계층이 27.5%였다.

취업청소년은 여자가 65.4%로서 남자(34.6%)보다 많았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2.0%, 광역시가 34.6%, 시군부가 43.5%였고, 계층별로는 상위계층이 8.8%, 중간계층이 52.4%, 하위계층이 38.8%로서 전체평균에 비해 상위계층의 비율이 적은 편이었다. 무직청소년은 남자가 58.5%로서 여자(41.5%)보다 많았으며, 지역별로는 서울이 21.1%, 광역시가 35.8%, 시군부가 43.1%였다. 계층별로는 상위계층이 19.2%, 중간계층이 50.0%, 하위계층이 30.8%로서 전체평균에 비해 상위계층이 다소 적은 편이었다.

표 1- 9: 연장청소년 집단의 표본구성

(단위: 명, %)

		대학생		취업청소년		무직청소년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성 별	남 자	269	45.6	132	34.6	233	58.5
	여 자	321	54.4	249	65.4	165	41.5
지 역	서 울	123	20.8	84	22.0	84	21.1
	광역시	212	35.9	132	34.6	143	35.8
	시군부	255	43.2	166	43.5	172	43.1
계 층	상 위	115	21.7	29	8.8	68	19.2
	중 간	269	50.8	173	52.4	177	50.0
	하 위	146	27.5	128	38.8	109	30.8

평균나이: 대학생 19.4세, 취업청소년 18.8세, 무직청소년 18.7세

Ⅲ. 조사의 결과

1. 가정생활

가정생활은 가족구성과 가사관련 활동, 가족관계, 가족가치관, 가정생활 만족도의 5가지 하위영역으로 구분하여 전체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가족구성에서는 각 유형별 가족구조의 차이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고, 가사관련 활동에서는 청소년들이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가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가족가치관에서는 전통적 가족가치관에 대한 청소년들의 태도를 검토하였다. 가정생활 만족도에서는 가정생활의 하위영역별 만족도와 전체적인 만족도,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가정생활의 전망 등을 조사하였다.

1) 가족구성

부모님 생존여부

Q 부모님은 모두 생존해 계십니까 ?

- | | |
|--------------|----------------|
| 1. 두분 모두 계시다 | 2. 아버님만 계시다 |
| 3. 어머님만 계시다 | 4. 두분 모두 안 계시다 |

현재 부모님이 생존해 계신지의 여부를 질문하였다. 응답결과(표 3-1-1)를 보면, 양친 모두 계신 경우가 92.7%로서 대다수를 차지하였고, 편부가정이 1.9%, 편모가정이 4.8%였으며, 양친이 모두 안 계신 가정은 0.7%에 머물렀다.

표 3-1- 1: 부모님 생존여부 - 전체

(단위: %)

	사례수	비 율
두분 모두 계시다	4,852	92.7
아버님만 계시다	98	1.9
어머님만 계시다	249	4.8
두분 모두 안 계시다	37	0.7

청소년유형별 응답결과(표 3-1-2)를 보면, 대학생을 포함한 학생청소년은 양친 모두 계신 경우가 9할 이상임에 비해 취업·무직청소년은 각각 84.6%와 88.7%에 머물렀다. 학생청소년보다는 취업·무직 청소년의 결손가정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을 알 수 있다.

표 3-1- 2: 부모님 생존 여부 - 유형별

(단위: %)

	두분 모두 계 시 다	아버님만 계 시 다	어머님만 계 시 다	두분 모두 안 계시다
초 등 생	96.5	1.6	1.5	0.4
중 학 생	94.9	1.6	2.8	0.7
고 교 생	92.1	1.9	5.3	0.8
대 학 생	91.2	0.8	7.6	0.3
취 업	84.6	4.5	9.9	1.0
무 직	88.7	2.3	7.5	1.5

통계치: $\chi^2=100.67^{***}$

기타변인별 응답결과(표 3-1-3)를 비교해 보면, 먼저 지역별로는 서울 지역의 경우 양친 모두 계시다는 응답이 94.5%로서 결손가정 비율이 5.5%에 머문 반면, 광역시·시군부지역의 결손가정 비율은 각각 8.4%, 7.4%였다. 계층별로는 상위계층의 결손가정 비율이 1.3%로서 중간(3.2%)·하위계층(3.9%)보다 다소 낮은 편이었다. 성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표 3-1- 3: 부모님 생존여부 - 지역·계층별

(단위: %)

		두분 모두 계시다	아버님만 계시다	어머님만 계시다	두분 모두 안 계시다
지 역	서 울	94.5	1.9	3.3	0.3
	광역시	91.6	1.8	5.7	0.8
	시군부	92.6	1.9	4.7	0.8
계 층	상 위	98.7	0.9	0.2	0.2
	중 간	96.8	1.9	1.1	0.2
	하 위	96.1	2.5	1.1	0.4

통계치: 지역 $\chi^2=13.27^*$, 계층 $\chi^2=17.71^{**}$

부모님 동거여부

Q 현재 누구와 함께 살고 있습니까?

1. 부모님(또는 두분 중 한분)과 함께 살고 있다
2. 부모님과 떨어져서 친척·친지집 또는 형제들과 살고 있다
3. 가족과 떨어져서 혼자 살고 있다(기숙사, 하숙, 자취 등)

연장청소년(대학생, 취업·무직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현재 누구와 함께 살고 있는지 질문하였다. 응답결과(표 3-1-4)를 보면,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다는 응답이 64.0%로서 가장 다수였고, 혼자 살고 있는 경우가 28.0%, 친척·친지집에 머물거나 형제들과 살고 있는 경우가 8.0%였다. 학업 또는 취업 등의 사유로 부모와 떨어져서 살고 있는 청소년이 전체 연장청소년의 1/3을 상회하고 있다.

표 3-1- 4: 부모님 동거여부 - 전체

(단위: 명, %)

	사례수	비 율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다	874	64.0
친척·친지집 또는 형제들과 살고 있다	109	8.0
가족과 떨어져서 혼자 살고 있다	383	28.0

청소년유형별 응답결과(표 3-1-5)를 보면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청소년의 비율이 대학생은 58.4%에 불과한 반면 취업청소년은 68.3%로서, 취업보다는 학교진학이 부모와 별거하게 되는 주된 계기임을 알 수 있다. 취업이나 진학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모와 떨어져 살고 있는 무직청소년의 비율도 31.7%에 달하였다. 한편 부모와 별거하고 있는 경우, 대학생들은 혼자 사는 경우(기숙사, 하숙, 자취 포함)가, 취업·무직청소년의 경우에는 친척·친지집 또는 형제들과 함께 있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었다.

표 3-1- 5: 부모님 동거여부 - 유형별

(단위: 명, %)

	부모님과 함 께	친척·친지, 형 제 와	혼 자 산 다
대 학 생	58.4	6.1	35.5
취 업	68.3	9.0	22.8
무 직	68.2	9.8	22.1

통계치: $\chi^2=30.21^{***}$

표 3-1- 6: 부모님 동거여부 - 지역·계층별

(단위: %)

		부모님과 함 께	친척·친지, 형 제 와	혼 자 산 다
지 역	서 울	68.0	7.9	24.1
	광역시	67.6	9.3	23.1
	시군부	59.0	6.9	34.1
계 층	상 위	72.2	4.7	23.1
	중 간	66.2	7.2	26.7
	하 위	59.2	9.2	31.7

통계치: 지역 $\chi^2=19.40^{**}$, 계층 $\chi^2=11.57^*$

기타변인별 응답결과(표 3-1-6)를 보면, 성별로는 남자가 여자보다 부모와 별거하고 있는 비율이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

다. 지역별로는 서울·광역시지역의 부모동거율이 각각 68.0%, 67.6%에 달하는 반면, 시군부 청소년은 59.0%에 머물렀다. 학교·일자리가 주로 대도시에서 집중되어 있어 중소도시·농촌지역 청소년의 대도시 유입인구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계층별 부모와의 동거율은 상위(72.2%)– 중간(66.2%)– 하위계층(59.2%)의 순으로서 생활수준이 높은 집단일수록 부모와의 동거율이 높게 나타났다.

형제유무 및 순위

Q 당신은 형제 또는 자매가 있습니까? 있다면 전체 형제 또는 자매 중에서 자신은 다음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1. 형제(자매)가 없는 “외동아들(또는 외동딸)”이다
2. 형제(자매)가 있고, 그중에서 “말이(첫째)”이다
3. 형제(자매)가 있고, 그중에서 “막내”이다
4. 형제(자매)가 있고, 그중에서 말이도 막내도 아니다

가정내에서의 형제순위에 대한 응답결과(표 3-1-7)를 보면, 형제·자매 중 “말이”가 40.4%로서 다수였고, 다음으로 “막내”(39.2%), “중간”(12.0%)의 순이었고 형제·자매가 없는 “외동”은 8.6%로서 가장 적었다. “말이”나 “막내”에 비해 “중간”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핵가족화의 진전과 더불어 2명 이하의 자녀를 둔 소자녀가구가 일반화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3-1- 7: 가족내 형제순위 - 전체

(단위: 명, %)

	사례수	비율
외 동	448	8.6
말 이	2,112	40.4
막 내	2,043	39.1
중 간	627	12.0

청소년유형별 응답결과(표 3-1-8)를 보면, 중·고등학생은 “외동”이, 대학생과 취업·무직청소년은 “중간”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었다. 연장청소년에 비해 연소청소년집단에서 소자녀가구가 보다 일반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1- 8: 가족내 형제순위 - 유형별

(단위: %)

	외 동	만 이	막 내	중 간
초 등 생	8.2	46.6	35.9	9.3
중 학 생	10.9	42.0	39.3	7.7
고 교 생	9.5	38.5	41.8	10.2
대 학 생	3.4	42.6	36.2	17.8
취 업	5.0	29.8	38.0	27.2
무 직	8.8	34.8	40.1	16.4

통계치: $\chi^2=194.25^{***}$

기타변인별 응답결과(표 3-1-9)를 보면, 성별로는 “외동”이 남자의 경우 11.0%에 달함에 비해 여자는 6.0%에 머물렀고, “중간”이라는 응답은 남자가 5.8%로서 여자(18.7%)의 1/3 수준에 불과했다.

표 3-1- 9: 가족내 형제순위 - 성·지역·계층별

(단위: %)

		외 동	만 이	막 내	중 간
성 별	남 자	11.0	39.1	44.1	5.8
	여 자	6.0	41.7	33.6	18.7
지 역	서 울	9.8	41.7	40.2	8.3
	광역시	8.7	37.9	40.1	13.2
	시군부	7.8	41.6	37.7	12.8
계 층	상 위	8.4	48.5	35.1	8.0
	중 간	8.1	40.9	39.4	11.6
	하 위	8.8	36.4	40.7	14.2

통계치: 성별 $\chi^2=258.08^{***}$, 지역 $\chi^2=25.95^{***}$, 계층 $\chi^2=45.72^{***}$

이것은 가정에 남아가 있는 경우 쉽게 단산하지만 여아만 있는 경우 아들을 얻기 위해 계속 출산하는 전통적인 남아선호사상이 의연히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해 준다. 지역별로는 광역시-시군부에 비해 서울 지역에서 “외동”이라는 응답이 많은 반면 “중간”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으로서 서울지역이 소자녀가구가 가장 일반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계층별로는 상위계층에서 “말이”라는 응답률이 높은 반면 “중간”이라는 응답은 중간-하위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조부모 동거여부

Q 당신의 가족은 친가 또는 외가쪽 할아버지·할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습니까? 다음 중 자기 가족에 해당되는 응답항목을 골라 주십시오.

1. 친가쪽 할아버지·할머니(또는 두분중 한분)와 함께 살고 있다
2. 외가쪽 할아버지·할머니(또는 두분중 한분)와 함께 살고 있다
3. 할아버지·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지 않다

3세대 이상의 가구비율을 파악하기 위해 현재 자신의 가정이 친가쪽 또는 외가쪽 조부모님(또는 두분중 한분)을 모시고 살고 있는지를 질문하였다. 응답결과(표 3-1-10)를 보면 조부모님과의 동거 비율이 17.8%로서 전체의 1/5에도 못미쳤다. 이중 친가쪽 조부모님과 동거하고 있다는 응답이 14.2%로서 외가쪽 조부모님을 모시고 있다는 응답(3.6%)의 약 4배에 달하였다.

표 3-1-10: 조부모 동거여부 - 전체

(단위: 명, %)

	사례수	비율
친가쪽 할아버지·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다	737	14.2
외가쪽 할아버지·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다	186	3.6
할아버지·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지 않다	4,272	82.2

청소년유형별 응답결과(표 3-1-11)를 보면, 친가쪽 조부모와 동거하고

있다는 응답은 취업·무직청소년 집단이, 외가쪽 조부모와 동거하고 있다는 응답은 초등학생·무직 청소년집단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었다. 무직 청소년의 경우 조부모와의 동거율이 27.2%로서 전체 평균(17.8%)을 크게 상회하였다.

표 3-1-11: 조부모 동거여부 - 유형별

(단위: %)

	친가쪽 조부모 동 거	외가쪽 조부모 동 거	조부모와 같이 안 삼
초 등 생	14.4	4.8	80.8
중 학 생	13.7	3.7	82.6
고 교 생	12.3	3.0	84.7
대 학 생	13.8	2.1	84.2
취 업	16.8	2.4	80.7
무 직	21.1	6.1	72.8

통계치: $\chi^2=42.55^{***}$

표 3-1-12: 조부모 동거여부 - 성·지역·계층별

(단위: %)

		친가쪽 조부모 동 거	외가쪽 조부모 동 거	조부모와 같이 안 삼
성 별	남 자	15.4	3.9	80.7
	여 자	12.9	3.2	83.9
지 역	서 울	11.6	3.6	84.8
	광역시	13.6	3.3	83.1
	시군부	15.9	3.8	80.3
계 층	상 위	12.5	4.1	83.4
	중 간	14.2	3.5	82.4
	하 위	16.2	2.2	81.6

통계치: 성별 $\chi^2=9.36^{**}$, 지역 $\chi^2=12.86^*$, 계층 $\chi^2=13.25^*$

기타변인별 응답결과(표 3-1-12)를 보면, 성별로는 남자가 여자보다 조

부모와의 동거율이 다소 높은 편이었다. 지역별로는 조부모와의 동거율이 시군부(19.7%) - 광역시(16.9%) - 서울(15.2%)의 순으로 나타나 도시화의 수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외가쪽 조부모와의 동거율은 세 지역 모두 유사했으나 친가쪽 조부모와의 동거율에서 차이를 나타내었다. 계층별로는 하위계층은 친가쪽 조부모와 동거하고 있다는 응답이, 상위계층은 외가쪽 조부모와 동거하고 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었다.

친외가 접촉빈도

Q 당신은 일상생활에서 친가(아버지쪽 친척)와 외가(어머니쪽 친척) 중 어느쪽과 더 자주 만나십니까 ?

1. 친 가
2. 외 가
3. 모두 같다

일상생활에서 친·외가 중 어느쪽과 더 자주 접촉하는지를 질문하였다. 응답결과(표 3-1-13)를 보면, 친가쪽이라는 응답이 42.0%로서 다수였으나 외가쪽이라는 응답도 37.9%에 달하였다. 양쪽 모두 같다는 응답(20.1%)을 포함하면 과반수 이상의 가정에서 전통적으로 부계에 편중되었던 친척간의 인간관계가 적지 않은 변화를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1-13: 자주 접촉하는 친척 - 전체

(단위: 명, %)		
	사례수	비율
친 가	2,196	42.0
외 가	1,982	37.9
모두 같다	1,054	20.1

청소년유형별 응답결과(표 3-1-14)를 보면, 고등학생을 제외한 모든 집단에서 친가쪽과 더 자주 접촉한다는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고등학생은

외가쪽이라는 응답이 40.5%로서 다수였으며, 대학생, 무직청소년도 외가쪽이라는 응답이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었다.

표 3-1-14: 자주 접촉하는 친척 - 유형별

(단위: %)

	친 가	외 가	모두 같다
초 등 생	45.0	34.2	20.8
중 학 생	42.1	36.2	21.7
고 교 생	39.9	40.5	19.6
대 학 생	44.6	39.7	15.8
취 업	42.9	37.3	19.8
무 직	38.1	39.6	22.2

통계치: $\chi^2=22.70^*$

표 3-1-15: 자주 접촉하는 친척 - 성·지역·계층별

(단위: %)

		친 가	외 가	모두 같다
성 별	남 자	44.4	35.4	20.1
	여 자	39.3	40.5	20.2
지 역	서 울	35.3	43.5	21.1
	광역시	43.5	35.9	20.6
	시군부	44.0	36.7	19.3
계 층	상 위	38.3	38.5	23.1
	중 간	41.4	37.8	20.8
	하 위	47.1	35.0	17.9

통계치: 성별 $\chi^2=17.14^{***}$, 지역 $\chi^2=28.76^{***}$, 계층 $\chi^2=22.14^{***}$

기타변인별 응답결과(표 3-1-15)를 비교하면, 성별로는 남자는 친가쪽, 여자는 외가쪽이라는 응답이 다수로서 뚜렷한 대조를 이루었다. 지역별로는 광역시-시군부지역은 친가쪽이라는 응답이 다수임에 비해 서울지역은 외가쪽이라는 응답이 43.5%로서 친가쪽(35.3%)을 앞서고 있다. 계층별로는 생활수준이 높은 집단일수록 친가쪽이라는 응답률이 감소하여 상위계층

의 경우 외가쪽과 더 자주 접촉한다는 응답이 38.5%로서 친가쪽이라는 응답률을 근소하게 앞섰으며, 모두 같다는 응답(23.1%)도 세집단 중 가장 많았다. 이를 통해 도시화가 진전된 지역일수록, 생활수준이 높은 집단일수록 외가쪽과의 접촉빈도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2) 가정생활

가사활동 돕기

Q 당신은 평소에 집안일을 얼마나 돕고 있습니까 ? 다음의 각 집안일에 대하여 자신이 평소에 얼마나 하고 있는지 해당되는 응답항목을 골라 주십시오.

- | | |
|------------|--------------|
| 1) 음식요리하기 | 2) 밥상차리기 |
| 3) 설거지하기 | 4) 세탁·빨래하기 |
| 5) 집안 청소하기 | 6) 쓰레기 치우기 |
| 7) 자기방 치우기 | 8) 부모님 심부름하기 |

<응답항목>

- | | |
|--------------|--------------|
| 1. 거의 하지 않는다 | 2. 별로 하지 않는다 |
| 3. 가끔 하고 있다 | 4. 자주 하고 있다 |

청소년들이 평소에 집안일을 얼마나 돕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모두 8가지 유형의 가사활동을 제시하고 자신의 참여정도를 단계별 4점척도로 응답하게 하였다. 응답결과(표 3-1-16)를 보면 “부모님 심부름하기”와 “자기방 치우기”의 참여율(“가끔” 또는 “자주” 하고 있다)이 7할 이상으로서 가장 높은 수준이었고, “집안 청소하기”와 “밥상차리기”는 6할 이상, “설거지하기” “쓰레기 치우기” “음식 요리하기”는 5할 내외였으며 “세탁·빨래하기”의 참여율이 30% 수준으로서 가장 낮았다.

표 3-1-16: 집안일 돕기 - 전체

(단위: %)

	참여율(A+ B)	가끔 한다(A)	자주 한다(B)
밥상차리기	60.8	36.5	24.3
설거지하기	52.0	35.4	16.6
세탁·빨래하기	29.8	20.8	9.0
부모님 심부름하기	82.5	34.9	47.6
쓰레기 치우기	51.2	32.9	18.3
음식요리하기	47.2	37.0	10.2
자기방 치우기	77.4	39.1	38.3
집안 청소하기	63.1	42.0	21.1

청소년들의 가사활동 유형별 참여율을 구조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항목별 응답결과에 대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다음의 표(표 3-1-17)와 같이 두가지 유형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표 3-1-17: 집안일 돕기 - 회전된 요인행렬표

		I	II
요인 I (여성적 활동)	세탁·빨래하기	<u>0.75</u>	0.08
	설거지하기	<u>0.74</u>	0.28
	밥상차리기	<u>0.72</u>	0.12
	음식요리하기	<u>0.72</u>	0.34
요인 II (중립적 활동)	자기방 치우기	0.11	<u>0.78</u>
	쓰레기 치우기	0.36	<u>0.70</u>
	집안 청소하기	0.22	<u>0.70</u>
	부모님 심부름하기	0.10	<u>0.66</u>

제1요인으로 분류된 “음식요리하기” “설거지하기” “세탁·빨래하기” “밥상차리기”는 우리사회 통념상 여성의 가사활동으로 간주된다는 점에서 “여성적 가사활동” 변인으로, 제2요인으로 분류된 “자기방 청소하기” “집안 청소하기” “쓰레기 치우기” “부모님 심부름하기”는 성별 역할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활동이라는 점에서 “중립적 가사활동” 변인으로 명명하기로 한다(두 변인의 신뢰도계수는 각각 0.76, 0.73이었다).

이 두 변인에 대한 응답결과를 계량화하여 평균값을 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3-1-18). 전체적으로 청소년들은 가사활동 참여에 있어서 여성적 활동(2.32)보다는 중립적 활동의 참여율(2.86)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18: 집안일 돕기 변인 평균값

	평균값	표준편차
여성적 가사활동	2.32	0.78
중립적 가사활동	2.86	0.71

가사활동의 유형별 청소년의 참여도를 비교해 보면, 먼저 청소년유형별로는 모든 하위집단에서 여성적 가사활동보다는 중립적 가사활동의 참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3-1-19).

표 3-1-19: 집안일 돕기 변인별 평균값 - 유형별

	여성적 가사활동		중립적 가사활동	
	평 균	표준편차	평 균	표준편차
초 등 생	2.24	0.70	3.05	0.63
중 학 생	2.26	0.76	2.93	0.67
고 교 생	2.34	0.81	2.80	0.72
대 학 생	2.38	0.77	2.83	0.69
취 업	2.45	0.88	2.69	0.82
무 직	2.34	0.84	2.68	0.77

통계치: 여성적 활동 $F=6.59^{***}$, 중립적 활동 $F=27.34^{***}$

여성적 가사활동의 경우 취업청소년의 참여도가 가장 높고(2.45), 다음으로 대학생(2.38), 무직청소년·고등학생(각각 2.34), 중학생(2.26)의 순이며 초등학생(2.24)의 참여도가 가장 낮았다.

중립적 가사활동의 경우에는 초등학생의 참여도가 가장 높고(3.05), 다음으로 중학생(2.93), 대학생(2.83), 고등학생(2.80)의 순이며, 취업청소년(2.69)과 무직청소년(2.68)의 참여율이 낮은 편에 속하였다. 전체적으로 여성적 가사활동은 연장청소년, 중립적 가사활동은 연소청소년 집단의 참여율이 높은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성별 가사활동 참여도(표 3-1-20)를 비교해 보면, 두가지 유형의 가사활동 모두 여자의 참여도가 남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적 활동의 경우 여자의 참여도(2.53)가 남자(2.11)보다 월등하게 높았으나 중립적 활동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다. 지역별 가사활동 참여도에 있어서는 두가지 활동 모두 시군부지역 청소년의 참여도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이 광역시, 서울지역의 순이었다. 여성적 활동의 경우 세집단간의 차이가 현격한 반면(시군부 2.36, 광역시 2.30, 서울 2.23), 중립적 활동에서는 시군부 청소년의 참여도가 가장 높고(2.91), 광역시·서울지역 청소년의 참여도는 같은 수준이었다(각각 2.82).

표 3-1-20: 집안일 돕기 변인별 평균값 - 성·지역·계층별

		여성적 가사활동		중립적 가사활동	
		평 균	표준편차	평 균	표준편차
성 별	남 자	2.11	0.76	2.81	0.74
	여 자	2.53	0.75	2.92	0.68
지 역	서 울	2.23	0.78	2.82	0.73
	광역시	2.30	0.81	2.82	0.72
	시군부	2.36	0.77	2.91	0.69
계 층	상 위	2.16	0.73	2.87	0.72
	중 간	2.29	0.78	2.84	0.71
	하 위	2.42	0.79	2.86	0.70

통계치: 여성적 활동 $F=403.21^{***}$, 중립적 활동 $F=29.20^{***}$

가사활동의 양

Q 현재 자신이 집안일을 돕고 있는 양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적은 편이다 2. 적은 편이다
3. 많은 편이다 4. 매우 많은 편이다

자신이 집안일을 돕고 있는 양에 대하여 단계별 4점척도를 제시하고 스스로 평가하게 하였다. 응답결과를 보면, “적은 편”이 55.3%로서 과반수를 상회하였고, 다음으로 “많은 편”(24.5%), “매우 적은 편”(14.9%)의 순이었으며 “매우 많은 편”이라는 응답은 5.3%에 불과했다. 전체적으로 적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이 70.2%로서 다수를 점하였고 많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은 3할에도 못미쳤다(29.8%).

표 3-1-21: 집안일 돕는 양 - 전체

(단위: %)

	사례수	비율
매우 적다	781	14.9
적은 편	2,907	55.3
많은 편	1,285	24.5
매우 많다	280	5.3

표 3-1-22: 집안일 돕는 양 - 유형별

(단위: %)

	매우 적다	적은 편	많은 편	매우 많다
초 등 생	8.1	55.0	32.1	4.8
중 학 생	13.1	57.9	23.6	5.3
고 교 생	16.6	54.4	23.1	5.9
대 학 생	17.1	57.6	21.9	3.4
취 업	22.5	49.5	20.7	7.3
무 직	18.9	53.5	22.2	5.3

통계치: $\chi^2=97.77^{***}$

청소년유형별 응답결과(표 3-1-22)를 비교해 보면, 많다는 응답률이 초등학생이 36.9%로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고등학생(29.0%), 중학생(28.9%), 취업청소년(28.0%), 무직청소년(27.5%)의 순이었고 대학생이 25.3%로서 가장 낮았다. 대체로 연장청소년에 비해 연소청소년들이 자신의 가사활동 참여도가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타변인별 응답결과(표 3-1-23)를 보면, 성별로는 여자의 33.1%가 많다고 응답한 반면, 남자는 26.8%에 머물렀다. 지역별로는 많다고 생각하는 응답률이 시군부지역이 31.9%로서 서울(29.1%)·광역시(27.5%) 지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계층별로는 생활수준이 낮은 집단일수록 집안일을 돕는 양이 많은 것으로 응답하였다.

표 3-1-23: 집안일 돕는 양 - 성 · 지역 · 계층별

(단위: %)

		매우 적다	적은 편	많은 편	매우 많다
성 별	남 자	15.7	57.6	22.2	4.6
	여 자	14.0	53.0	26.9	6.2
지 역	서 울	19.1	51.8	23.8	5.3
	광역시	15.0	57.6	21.7	5.8
	시군부	12.8	55.3	26.9	5.0
계 층	상 위	15.4	60.0	20.4	4.2
	중 간	15.7	55.1	24.1	5.0
	하 위	13.9	53.5	26.3	6.3

통계치: 성별 $\chi^2=25.36^{***}$, 지역 $\chi^2=37.57^{***}$, 계층 $\chi^2=20.32^{**}$

3) 가족관계

부모와의 대화

Q 당신은 부모님과 어느 정도 자주 대화를 나누십니까 ? 부모님 각각에 대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1) 아버지

2) 어머니

<응답항목>

1. 거의 대화하지 않는다

2. 별로 대화하지 않는다

3. 가끔 대화한다

4. 자주 대화한다

평소에 부모님과 어느 정도 자주 대화하는지 부친, 모친 각각에 대하여 단계별 4점척도를 제시하고 응답하게 하였다. 응답결과(표 3-1-24)를 보면 부친의 경우 “가끔 대화한다”가 38.5%로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자주 대화한다”가 33.2%였고 대화하지 않는다(“별로”+ “거의”)는 청소년도 전체의 1/4을 상회하였다(28.3%).

모친과의 대화빈도에 있어서는 “자주 대화한다”가 63.5%로서 가장 다수였고, “가끔 대화한다”가 26.0%였으며 대화하지 않는다(“별로”+ “거의”)는 청소년은 10.5%에 머물렀다.

전체적으로 모친과 대화한다는 청소년이 9할 수준(89.5%)에 달하여 부친과 대화한다는 응답률(71.7%)을 크게 상회하였다.

표 3-1-24: 부모와의 대화빈도 - 전체

(단위: %)

	거의 하지 않는다	별로 하지 않는다	가끔 대화 한 다	자주 대화 한 다
부친과의 대화	8.8	19.5	38.5	33.2
모친과의 대화	2.6	7.9	26.0	63.5

청소년유형별 응답결과를 비교하기 위해 부모와 “가끔” 또는 “자주” 대화한다는 응답률을 합산한 결과는 다음의 표(표 3-1-25)와 같다. 각 집단별 부모와의 대화빈도 순위를 보면 양친 모두 초등학생의 대화빈도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중학생, 대학생, 고등학생의 순이며 취업·무직청소년이 가장 낮았다. 한편 초·중학생은 부친-모친간 대화빈도의 차이가 1할 안팎인 반면, 고등학생과 연장청소년집단은 모두 2할을 상회하여 부모와의 대화에 있어서 모친에 편중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표 3-1-25: 부모와의 대화빈도 - 유형별

(단위: %)

	대화한다(“가끔”+ ”자주”)	
	부 친	모 친
초 등 생	87.6	95.8
중 학 생	77.9	91.1
고 교 생	64.4	87.7
대 학 생	69.6	90.9
취 업	56.0	83.2
무 직	57.8	80.5

기타 하위집단별 부모와의 대화빈도(표 3-1-26)를 비교하기 위해 부모와 “가끔” 또는 “자주” 대화한다는 응답률을 합산한 결과, 모든 집단에서 부친보다는 모친과의 대화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자가 남자보다 부모와의 대화빈도가 높은 편이었고, 특히 모친과 “가끔” 또는 “자주” 대화한다는 응답률이 남자가 87.8%인 반면 여자는 91.4%였다. 지역별로는 부모와의 대화빈도에서 세 하위집단간에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계층별로는 상위계층 청소년이 중간-하위계층보다 부모와의 대화빈도가 높은 편이었고 특히 부친과의 대화빈도의 차이가 현저하여 부친과 “가끔” 또는 “자주” 대화한다는 응답률이 상위계층은 80.4%에 달하는 반면, 중간계층은 70.1%, 하위계층은 67.3%로서 현격한 격차를 나타내었다.

(단위: %)

		대화한다(“가끔”+ ”자주”)	
		부 친	모 친
성 별	남 자	71.6	87.8
	여 자	72.0	91.4
계 층	상 위	80.4	94.3
	중 간	70.1	89.8
	하 위	67.3	86.9

부모의 자녀이해

Q 부모님은 당신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부모님 각각에 대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1) 아버지

2) 어머니

〈응답항목〉

1. 거의 이해하지 못하신다

2. 별로 이해하지 못하신다

3. 많이 이해하신다

4. 매우 많이 이해하신다

부모가 자신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부친, 모친 각각에 대하여 단계별 4점척도를 제시하고 응답하게 하였다.

응답결과(표 3-1-27)를 보면 부친의 경우 “많이 이해하신다”가 39.8%로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별로 이해하지 못하신다”(37.5%), “매우 많이 이해하신다”(10.9%)의 순이었고 “거의 이해하지 못하신다”는 응답도 1할을 상회하였다(11.8%).

모친의 경우에는 “많이 이해하신다”는 응답이 46.3%로서 과반수에 조금 못미쳤고, 다음으로 “별로 이해하지 못하신다”(28.2%), “매우 많이 이해하신다”(19.3%)의 순이었으며 “거의 이해하지 못하신다”는 응답은 6.2%에 머물렀다.

전체적으로 모친이 자신을 이해하고 있다(“매우 많이”+ ”많이”)고 생각하는 청소년이 65.3%에 달하여 부친이 자신을 이해하고 있다는 응답률(50.7%)을 월등하게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27: 부모의 자녀이해도 - 전체

(단위: %)

	거의 이해 못한다	별로 이해 못한다	약간 이해 한 다	많이 이해 한 다
부친의 이해도	11.8	37.5	39.8	10.9
모친의 이해도	6.2	28.2	46.3	19.3

청소년유형별 응답결과를 비교하기 위해 부모가 자신을 “약간” 또는 “많이” 이해하고 있다는 응답률을 합산한 결과는 다음의 표(표 3-1-28)와 같다. 모든 집단에서 모친의 이해도가 부친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집단별 부모의 이해도 순위를 보면 부친의 경우 초등학생이 가장 높고(71.7%), 다음으로 중학생(55.1%), 대학생(48.7%), 고등학생(40.7%), 무직청소년(40.2%)의 순이며 취업청소년이 가장 낮았다(36.4%). 모친의 경우에도 초등학생이 가장 높고(80.4%), 대학생과 중학생(각각 68.0%, 66.7%)이 중간 수준이며, 무직청소년, 고등학생, 취업청소년(각각 58.9%, 58.4%, 58.1%)이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표 3-1-28: 부모의 자녀이해도 - 유형별

(단위: %)

	이해하고 있다(“약간”+ ”많이”)	
	부 친	모 친
초 등 생	71.7	80.4
중 학 생	55.1	66.7
고 교 생	40.7	58.4
대 학 생	48.7	68.0
취 업	36.4	58.1
무 직	40.2	58.9

하위집단별 부모의 이해도를 비교하기 위해 부모가 자신을 “약간” 또는 “많이” 이해하고 있다는 응답률을 산출한 결과, 모든 하위집단에 모친의 이해도가 부친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3-1-29). 성별로는 부친이 자신을 이해하고 있다는 응답률은 남자가 높은 반면, 모친이 자신을 이해하고 있다는 응답률은 여자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대조를 이루었다. 지역별로는 세 지역간에 부모의 이해도에 있어서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계층별로는 상위계층과 중간-하위계층 청소년간의 차이가 현저하였는데, 특히 부친이 자신을 이해하고 있다는 응답률이 상위계층에서 60.7%에 달하는 반면 중간-하위계층은 모두 5할 미만(각각 48.4%, 45.8%)으로서 큰 격차를 나타내었다.

표 3-1-29: 부모의 자녀이해도 - 성 · 지역 · 계층별

(단위: %)

		이해하고 있다(“약간”+ “많이”)	
		부 친	모 친
성 별	남 자	52.1	64.9
	여 자	49.3	66.3
지 역	서 울	50.6	67.5
	광역시	49.5	63.3
	시군부	51.6	66.4
계 층	상 위	60.7	71.7
	중 간	48.4	64.6
	하 위	45.8	62.6

부모와의 대립

Q 지난 1년 동안 부모님과 크게 의견이 대립되어 충돌을 한 적이 있습니까? 부모님 각각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1) 아버지

2) 어머니

<응답항목>

1. 있다

2. 없다

지난 1년 동안 부모님과 대립한 경험이 있는지의 여부를 부친, 모친 각각에 대하여 응답하게 하였다(표 3-1-30). 응답결과를 보면, 모친과 대립경험이 있다는 청소년이 46.2%로서 부친과의 대립경험률(43.9%)보다 다소 높은 편이었다.

표 3-1-30: 부모와의 대립경험 - 전체

(단위: %)

	있 다	없 다
부친과의 대립경험	43.9	56.1
모친과의 대립경험	46.2	53.8

청소년유형별 응답결과(표 3-1-31)를 비교해 보면, 부친과 대립경험이 있었다는 응답은 무직(59.4%)·취업청소년(58.4%)이 가장 높은 편이었고 고등학생(52.4%)과 대학생(49.4%)이 중간 수준이었으며 중학생(39.1%)과 초등학생(22.0%)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모친과의 대립경험률은 고등학생(54.6%), 무직(54.4%)·취업청소년(50.8%)이 과반수를 상회하였고, 대학생(44.7%)과 중학생(44.6%)이 그 다음이었으며 초등학생이 가장 낮았다(30.3%).

표 3-1-31: 부모와의 대립경험 - 유형별

(단위: %)

	부 친	모 친
초 등 생	22.0	30.3
중 학 생	39.1	44.6
고 교 생	52.4	54.6
대 학 생	49.4	44.7
취 업	58.4	50.8
무 직	59.4	54.4

통계치: $\chi^2=307.29^{***}$

전체적으로 고등학생과 무직청소년 집단의 부모와의 대립경험률이 가장 높은 편이고 다음으로 취업청소년, 대학생이 중간수준이며, 중학생과 초등

학생이 가장 낮은 편에 속하고 있다. 또한 연소청소년 집단(초·중·고등학생)은 양친중 모친과의 대립경험이 더 많음에 비해 연장청소년 집단(대학생, 취업·무직청소년)은 부친과의 대립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뚜렷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기타변인별 응답결과(표 3-1-32)를 비교해 보면, 성별로는 남자가 여자보다 부모와의 대립경험률이 높았으며, 지역별로는 서울지역 청소년들이 광역시-시군부지역보다 부모와 대립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이 더 많았다. 계층별로는 부친과의 대립경험률에서 상위계층이 중간-하위계층에 비해 현저하게 낮으며, 중간계층이 부모와의 대립경험률이 가장 높은 점이 특징적이다.

표 3-1-32: 부모와의 대립경험 - 성·지역·계층별

(단위: %)

		부 친	모 친
성 별	남 자	46.0	48.0
	여 자	41.7	44.4
지 역	서 울	48.5	50.6
	광역시	43.9	47.2
	시군부	41.7	43.4
계 층	상 위	39.8	45.3
	중 간	46.7	48.7
	하 위	44.3	44.5

바람직한 부모상 1

Q 다음 중 어떤 유형의 아버지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 가정생활보다 일을 더 중요시하는 아버지
2. 일보다 가정생활을 더 중요시하는 아버지

Q 다음 중 어떤 유형의 어머니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 가사활동에만 전념하고 사회활동을 하지 않는 어머니
2. 가사활동과 더불어 사회활동을 하는 어머니

청소년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부모상을 알아보기 위해 부친에 대해서는 “일 중시형-가정생활 중시형”, 모친에 대해서는 “가사활동 전념형-사회활동 병행형”의 대조적인 부모상을 제시하고 어느쪽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 선택하게 하였다.

먼저 부친에 대한 응답결과를 보면, 가정생활을 중시하는 부친을 선호하는 청소년이 다수였으나(80.7%), 가정생활보다 일을 중시하는 부친을 선택한 청소년도 전체의 1/5수준에 달하였다(19.3%). 모친의 경우에는 가사활동에만 전념하는 전업주부를 선호하는 청소년은 14.4%에 불과했고 85.6%가 사회활동을 병행하는 모친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하였다.

청소년유형별 응답결과(표 3-1-33)를 보면, 부친의 경우 초등학생과 무직청소년 중에서 일 중시형 부친을 선호하는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모친의 경우에는 무직청소년, 취업청소년, 고등학생들이 다른 집단에 비해 가사활동에만 전념하는 모친을 선호하는 비율이 높은 편이었다.

표 3-1-33: 이상적인 부모상 - 유형별

(단위: %)

	부 친		모 친	
	가정 중시형	일 중시형	가사활동 전념형	사회활동 병행형
전 체	80.7	19.3	14.4	85.6
초 등 생	79.3	20.7	12.0	88.0
중 학 생	81.5	18.5	11.8	88.2
고 교 생	80.1	19.9	16.0	84.0
대 학 생	81.4	18.6	12.3	87.7
취 업	83.7	16.3	17.4	82.6
무 직	79.6	20.4	23.0	77.0

통계치: 부친 $\chi^2=4.79$, 모친 $\chi^2=43.19^{***}$

기타변인별 응답결과(표 3-1-34)를 비교해 보면, 먼저 성별로는 남자가

일 중시형 부친-가사활동 전념형 모친을 선호하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나 여자에 비해 보수적인 성 역할관념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역별로는 광역시지역이 일 중시형 부친-가사활동 전념형 모친을 선호하는 응답률이 서울-시군부지역에 비해 높은 편이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계층별로는 하위계층이 중간-상위계층에 비해 부친-모친 모두 가정생활 중시형 부모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편이었다.

표 3-1-34: 이상적인 부모상 - 성·계층별

(단위: %)

		부 친		모 친	
		가정 중시	일 중시	가사 전념	사회활동도
성 별	남 자	77.0	23.0	17.8	82.2
	여 자	84.5	15.5	10.8	89.2
계 층	상 위	78.8	21.2	12.1	87.9
	중 간	79.4	20.6	14.4	85.6
	하 위	83.7	16.3	16.2	83.8

바람직한 부모상 2

Q 다음 중 어떤 유형의 아버지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자식에게 엄격하게 대하는 아버지
2. 자식과 친구처럼 지내려고 하는 아버지

Q 다음 중 어떤 유형의 어머니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자식에게 엄격하게 대하는 어머니
2. 자식과 친구처럼 지내려고 하는 어머니

다음으로 자녀에 대해서 엄격하게 대하는 부모와 자녀와 친구처럼 지내려고 하는 부모 중 어느쪽을 더 선호하는지 부친, 모친 각각에 대해서 응답하게 하였다. 응답결과(표 3-1-35)를 보면 부친·모친 모두 친구형 부모를 선호하는 청소년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표 3-1-35: 이상적인 부모상 - 전체

(단위: %)

	엄격형	친구형
부 친	15.3	84.7
모 친	11.9	88.1

청소년유형별 응답결과(표 3-1-36)를 보면, 부친의 경우 초등학생과 무직청소년은 엄격한 부친, 고등학생과 취업청소년은 친구 같은 부친의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모친의 경우에는 초등학생은 엄격한 모친을, 고등학생과 취업청소년은 친구 같은 모친을 선택한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초등학생은 부친, 모친 모두 엄격형에 대한 선호도가, 고등학생과 취업청소년들은 친구형에 대한 선호도가 다른 집단에 비해 일관되게 높게 나타난 점이 특징적이다.

표 3-1-36: 이상적인 부모상 - 유형별

(단위: %)

	부 친		모 친	
	엄격한 부 친	친구같은 부 친	엄격한 모 친	친구같은 모 친
초 등 생	23.1	76.9	21.9	78.1
중 학 생	15.5	84.5	13.5	86.5
고 교 생	11.8	88.2	7.5	92.5
대 학 생	14.8	85.2	7.9	92.1
취 업	9.5	90.5	6.1	93.9
무 직	17.2	82.8	11.6	88.4

통계치: 부친 $\chi^2=68.64^{***}$, 모친 $\chi^2=141.13^{***}$

기타변인별 응답결과(표 3-1-37)를 비교해 보면, 먼저 성별로는 남자의 경우 부친·모친 모두 엄격형을 선호하는 청소년의 비율이 여자의 2배 이상에 달하였고, 여자는 친구형 부모에 대한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지역 청소년들의 친구형 부친 선호도가 광역시·

시군부 지역 청소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계층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3-1-37: 이상적인 부모상 - 성·지역별

(단위: %)

		부 친		모 친	
		엄격한 부 친	친구같은 부 친	엄격한 모 친	친구같은 모 친
성 별	남 자	20.5	79.5	16.9	83.1
	여 자	9.8	90.2	6.4	93.6
지 역	서 울	12.9	87.1	11.9	88.1
	광역시	16.3	83.7	12.2	87.8
	시군부	15.7	84.3	11.5	88.5

역할모델로서의 부모

Q 당신은 앞으로 자신의 아버님(여자인 경우는 어머니)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

- | | |
|--------------|-----------|
| 1. 매우 그렇지 않다 | 2. 그렇지 않다 |
| 3. 그렇다 | 4. 매우 그렇다 |

청소년들이 부모를 자신의 역할모델로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앞으로 자신의 (동성)부모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은가의 여부를 4점 척도를 제시하고 응답하게 하였다.

응답결과(표 3-1-38)를 보면 “그렇지 않다”(40.6%)와 “그렇다”(37.2%)가 4할 안팎의 비슷한 응답률을 나타내었고 “매우 그렇다”(11.5%)와 “매우 그렇지 않다”(10.7%)는 1할 수준의 낮은 응답률을 나타내었다.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응답이 51.3%로서 긍정적인 응답률(48.7%)을 다소 앞서고 있었다.

표 3-1-38: 역할모델로서의 부모

(단위: %)

	사례수	비율
매우 그렇지 않다	559	10.7
그렇지 않다	2,127	40.6
그렇다	1,951	37.2
매우 그렇다	601	11.5

청소년유형별 응답결과(표 3-1-39)를 보면, 앞으로 부모님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긍정응답률이 초등학생이 67.5%로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중학생(51.6%)과 대학생(50.7%)이 과반수를 상회한 반면, 무직청소년은 44.4%에 머물렀고 고등학생(38.5%)과 취업청소년(36.6%)은 4할에도 못미쳤다.

표 3-1-39: 역할모델로서의 부모 - 유형별

(단위: %)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초 등 생	6.4	26.0	44.8	22.7
중 학 생	9.7	38.8	39.4	12.2
고 교 생	14.0	47.6	31.0	7.5
대 학 생	8.4	41.0	41.8	8.9
취 업	11.1	52.2	31.9	4.7
무 직	13.9	41.7	35.6	8.8

통계치: $\chi^2=308.04^{***}$

기타변인별 응답결과(표 3-1-40)를 보면, 성별로는 남자보다는 여자의 긍정응답률이 다소 높은 편이었으며, 지역별로는 서울지역 청소년들의 긍정응답이 광역시·시군부지역에 비해 많은 편이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계층별로는 생활수준이 높은 집단일수록 긍정적인 응답률이 높게 나타나 상위계층 청소년의 60.9%가 긍정적으로 응답한 반면,

중간층은 47.7%, 하위계층 청소년은 40.8%에 머물렀다.

표 3-1-40: 역할모델로서의 부모 - 성·계층별

(단위: %)

		매 우 그렇지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 우 그렇다
성 별	남 자	12.3	40.5	35.4	11.7
	여 자	8.9	40.6	39.3	11.2
계 층	상 위	7.1	32.0	44.6	16.3
	중 간	10.6	41.8	36.6	11.1
	하 위	13.1	46.2	32.5	8.3

통계치: 성별 $\chi^2=20.11^{***}$, 계층 $\chi^2=106.12^{***}$

4) 가족가치관

부모님 부양의사

Q 나이드신 부모님을 어떻게 모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

다음 중 자신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항목을 골라 주십시오.

1.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부모님을 돌봐드리겠다
2. 경제적으로 힘이 닿는 한도 내에서 부모님을 돌봐드리겠다
3. 되도록이면 부모님 자신의 힘이나 사회보장제도에 맡기는 것이 좋겠다
4. 전적으로 부모님 자신의 힘이나 사회보장제도에 맡기는 것이 좋겠다

앞으로 부모님이 연로하시게 되면 어떻게 모실 생각인지를 질문하였다. 응답결과(표 3-1-41)를 보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부모님을 돌봐드리겠다”는 “적극적 부양형”이 58.9%로서 가장 다수였고, “경제적으로 힘이 닿는 한도 내에서 부모님을 돌봐드리겠다”는 “소극적 부양형”이 37.0%로서 전체적으로 부양의사를 갖고 있는 청소년이 95.3%에 달하였다. 자신이

부양하기보다는 부모 자신의 힘이나 사회보장 제도에 맡기겠다는 응답은 1할에도 못미쳤다.

표 3-1-41: 부모님 부양의사 - 전체

(단위: %)

	사례수	비율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돌봐드리겠다	3,057	58.3
경제적으로 힘이 닿는 한도 내에서 돌봐드리겠다	1,943	37.0
되도록이면 부모님 자신의 힘이나 사회보장제도	188	3.6
전적으로 부모님 자신의 힘이나 사회보장제도	59	1.1

청소년유형별 응답결과(표 3-1-42)를 보면, 적극적 부양형의 응답률이 초등학생(70.9%)과 중학생(61.0%)로서 평균을 상회하는 반면, 대학생은 56.6%에 머물렀으며 고등학생, 무직·취업청소년 5할 남짓한 수준이었다. 대체로 고등학생을 제외한 연소청소년(초등학생·중학생)들의 부모님 부양의사가 연장청소년(대학생·취업·무직청소년)들보다 높은 편이었다.

표 3-1-42: 부모님 부양의사 - 유형별

(단위: %)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경제 한도 내에서	부모자신 힘으로	전적 부모 힘으로
초 등 생	70.9	26.4	1.4	1.3
중 학 생	61.0	35.1	2.8	1.1
고 교 생	52.5	43.2	3.1	1.1
대 학 생	56.6	37.6	5.1	.7
취 업	51.2	42.5	5.5	.8
무 직	51.4	37.5	9.3	1.8

통계치: $\chi^2=155.81^{***}$

기타변인별 응답결과(표 3-1-43)를 보면, 성별로는 적극적 부양형의 응답이 남자(60.4%)가 여자(56.0%)보다 다소 많았으며, 지역별로는 광역시·시군부 지역의 적극적 부양형 응답률이 59%선에 달하는 반면 서울지역은

53.9%에 머물렀다. 계층별로는 하위계층의 적극적 부양형 응답률이 가장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표 3-1-43: 부모님 부양의사 - 성·지역별

(단위: %)

		어떤어려움 있어도	경제 한도 내에서	부모자신 힘으로	전적 부모 힘으로
성 별	남 자	60.4	34.5	3.6	1.5
	여 자	56.0	39.8	3.5	0.7
지 역	서 울	53.9	41.2	4.0	0.9
	광역시	59.3	35.4	3.9	1.4
	시군부	59.5	36.3	3.2	1.0

가족가치관

Q 다음과 같은 생각에 대하여 당신은 어느 정도 찬성 또는 반대하십니까 ?

- 1) 반드시 결혼을 해야할 필요는 없다
- 2) 부부간에 애정이 없으면 이혼할 수도 있다
- 3) 집안에는 아들이 있어야 한다
- 4) 자녀가 없는 집은 불행한 가정이다
- 5) 부모님의 의견에는 순종해야 한다
- 6) 자녀는 부모로부터 일찍 독립해야 한다
- 7) 할아버지, 할머니와 한 집에 사는 것이 좋다
- 8) 부모님은 장남이 모셔야 한다
- 9) 남자·여자는 선천적으로 타고난 능력의 차이가 있다
- 10) 남자는 밖에서 일하고 여자는 가정을 지켜야 한다

<응답항목>

- | | |
|--------------|-----------|
| 1. 매우 그렇지 않다 | 2. 그렇지 않다 |
| 3. 그렇다 | 4. 매우 그렇다 |

우리사회의 전통적인 가족의식·가치관에 대한 청소년의 태도를 알아보기 위해 성별역할관, 남아선호관, 결혼관, 가족형태와 관련된 모두 10가지의 의견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강한 부정(“매우 그렇지 않다”)에서 강한 긍정(“매우 그렇다”)에 이르는 단계별 4점척도를 제시하고 응답하게 하였다.

각 의견에 대하여 청소년들의 긍정적인 응답비율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표 3-1-44)와 같다.

먼저 성별역할관에 대한 응답결과를 보면 “남자·여자는 선천적으로 타고난 능력의 차이가 있다”에 대해서는 32.1%, “남자는 밖에서 일하고 여자는 가정을 지켜야 한다”에 대해서는 16.9%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선천적인 성별 능력차이를 인정하는 청소년이 아직까지 3할에 이르지만, 변화된 사회환경에 따른 여성의 사회활동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청소년이 찬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남아선호사상과 관련해서는 “집안에는 아들이 있어야 한다”와 “자녀가 없는 집은 불행한 가정이다”라는 의견에 대해서 3할 이상이 긍정적으로 응답한 반면, “부모님은 장남이 모셔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찬성한 청소년은 전체의 1/5 수준이었다. 아들을 통해 이어지는 전통적인 가계계승관에 대하여 적지 않은 청소년들이 찬성하고 있지만, 부모부양의 의무를 아들-장자만이 부담하는 데 대해서는 많은 청소년들이 반대하였다.

결혼·이혼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결혼을 해야 할 필요는 없다”에 찬성하는 청소년이 45.4%, “부부간에 애정이 없으면 이혼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 각각 45.4%, 63.9%의 높은 긍정응답률을 나타내었다. “자녀는 부모로부터 일찍 독립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긍정응답률은 34.6%에 머물렀다.

“자녀는 부모의 의견에 순종해야 한다” “할아버지, 할머니와 한 집에 사는 것이 좋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전체 청소년의 1/2 가량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48.3%, 52.5%) 전통적인 가족내 세대간 위계질서에 대하여 많

은 청소년들이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1-44: 가족가치관 - 전체

(단위: %)

	그렇다	매 우 그렇다
남자·여자는 선천적으로 타고난 능력의 차이가 있다	26.8	5.3
남자는 밖에서 일하고 여자는 가정을 지켜야 한다	12.9	4.0
집안에는 아들이 있어야 한다	24.5	6.8
부모님은 장남이 모셔야 한다	16.0	5.1
자녀가 없는 집은 불행한 가정이다	28.1	11.4
반드시 결혼을 해야할 필요는 없다	36.8	8.6
부부간에 애정이 없으면 이혼할 수도 있다	51.6	12.3
자녀는 부모로부터 일찍 독립해야 한다	29.5	5.1
부모님의 의견에는 순종해야 한다	39.0	9.3
할아버지, 할머니와 한 집에 사는 것이 좋다	42.8	9.7

가족가치관 요인분석

청소년들의 가족의식·가치관에 대한 구조적인 분석을 위하여 문항별 응답결과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주성분분석, 직교회전).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세가지 요인이 추출되었다(표 3-1-45). 요인 I 은 주로 전통적인 남녀 차이·역할구분 문제, 요인 II는 부모로부터의 독립과 결혼·이혼에 관한 태도, 요인 III은 전통적인 효도의 문제·대가족제도에 대한 태도를 다루고 있다.

이들 세가지 요인에 대하여 신뢰도 검사를 실시하고 변인으로서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요인 I 에서 “자녀가 없는 집은 불행한 가정이다”, 요인 II에서 “자녀는 부모로부터 일찍 독립해야 한다”는 항목을 제외한 뒤, 요인 I 은 “성별역할관”, 요인 II는 “결혼·이혼관”, 요인 III은 “위계적 가족관” 변인으로 명명하였다.

표 3-1-45: 가족가치관 - 회전된 요인행렬표

		I	II	III
요인 I (성별역할관)	남자는 일하고 여자는 가정을..	<u>0.71</u>	-0.06	0.02
	남여는 선천적 능력차이가..	<u>0.68</u>	0.18	-0.12
	집안에는 아들이 있어야 한다	<u>0.65</u>	-0.12	0.04
	부모님은 장남이 모셔야 한다	<u>0.58</u>	0.04	0.26
	자녀가 없는 집은 불행한 가정..	<u>0.45</u>	-0.16	0.10
요인 II (결혼이혼관)	애정이 없으면 이혼할 수도..	-0.09	<u>0.72</u>	-0.10
	반드시 결혼을 해야할 필요는..	-0.32	<u>0.64</u>	0.10
	부모로부터 일찍 독립해야 한다	0.21	<u>0.58</u>	-0.09
요인 III (위계적가족관)	할아버지, 할머니와 한 집에..	-0.02	0.04	<u>0.80</u>
	부모님의 의견에는 순종해야..	0.18	-0.17	<u>0.64</u>

비고: 주성분분석, 직교회전

각 변인의 하위항목별 점수를 합산한 뒤 평균값을 산출한 결과 “성별역할관”은 2.01, “결혼·이혼관”은 2.48, “위계적 가족관”은 2.52로 나타났다. 여기서 “성별역할관”과 “위계적 가족관”은 점수가 높을수록 전통적, “결혼·이혼관”은 점수가 높을수록 비전통적(진보)적인 태도를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요인분석을 통해 구성된 이들 세 변인에 대하여 청소년들의 하위집단별 응답결과를 비교하기로 한다(표 3-1-46).

먼저 성별역할관에 대한 청소년유형별 응답결과의 평균값을 비교하면 무직청소년이 가장 높았고(2.18), 다음으로 취업청소년과 초등학생(각각 2.08), 대학생(2.00), 중학생(1.97)의 순이었으며 고등학생이 1.96으로 가장 낮았다. 무직청소년들이 성별역할관에 있어서 가장 보수적이며, 중·고등학생이 대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태도를 갖고 있음이 주목된다.

표 3-1-46: 성별역할관 평균값 - 유형별

	평 균	표준편차
초 등 생	2.08	0.61
중 학 생	1.97	0.58
고 교 생	1.96	0.55
대 학 생	2.00	0.52
취 업	2.08	0.51
무 직	2.18	0.54

통계치: F=14.14***

성별로는 남자(2.21)가 여자(1.80)보다 월등하게 보수적인 태도를 나타내었다. 지역별로는 시군부지역(2.04)이 가장 보수적이었고 광역시가 중간(2.02), 서울지역 청소년(1.96)들이 가장 진보적이었다. 계층별로는 중간(2.02)-하위계층(2.03)에 비해 상위계층(1.95) 청소년들이 보다 진보적인 태도를 나타내었다(표 3-1-47).

표 3-1-47: 성별역할관 - 성 · 지역 · 계층별

		평 균	표준편차
성 별	남 자	2.21	0.55
	여 자	1.80	0.50
지 역	서 울	1.96	0.57
	광역시	2.02	0.57
	시군부	2.04	0.56
계 층	상 위	1.95	0.59
	중 간	2.02	0.57
	하 위	2.03	0.53

통계치: 성별 F=788.86***, 지역 F=7.18***, 계층 F=5.46**

위계적 가족관에 대한 청소년유형별 태도를 비교하면(표 3-1-48), 초등학생의 응답결과 평균값이 가장 높았고(2.76), 다음으로 대학생(2.54), 중학

생(2.51), 무직청소년(2.47), 취업청소년(2.45)의 순이며 고등학생이 가장 낮았다(2.41). 대체로 초·중학생, 대학생집단이 전통적인 태도를, 취업·무직청소년, 고등학생이 비전통적인 태도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1-48: 위계적 가족관 - 유형별

	평 균	표준편차
초 등 생	2.76	0.64
중 학 생	2.51	0.58
고 교 생	2.41	0.55
대 학 생	2.54	0.50
취 업	2.45	0.53
무 직	2.47	0.53

성별로는 남자(2.59)가 여자(2.45)에 비해 보수적이었으며, 지역별로는 시군부(2.55)가 가장 보수적, 광역시(2.52)가 중간, 서울지역(2.48)이 가장 진보적이었다. 계층별로는 중간(2.48)- 하위계층(2.50)에 비해 상위계층(2.57) 청소년이 가장 진보적인 태도를 나타내었다(표 3-1-49).

표 3-1-49: 위계적 가족관 - 성·지역·계층별

		평 균	표준편차
성 별	남 자	2.59	0.59
	여 자	2.45	0.56
지 역	서 울	2.48	0.57
	광역시	2.52	0.57
	시군부	2.55	0.60
계 층	상 위	2.57	0.58
	중 간	2.48	0.59
	하 위	2.50	0.55

통계치: 성별 F=77.01***, 지역 F=5.62**, 계층 F=8.63***

결혼·이혼관에 대한 청소년유형별 응답결과(표 3-1-50)의 평균값을 비

교하면, 대학생이 가장 진보적이었으며(2.69) 다음으로 취업청소년(2.65)과 무직청소년(2.57)이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태도를 나타냈으며, 고등학생(2.50), 중학생(2.40), 초등학생(2.34)은 보수적인 태도를 나타내었다. 결혼·이혼관에 있어서는 연장청소년 집단은 진보적인 태도를, 연소청소년 집단은 보수적인 태도를 나타내어 뚜렷한 대비를 이루었다.

표 3-1-50: 결혼·이혼관 - 유형별

	평 균	표준편차
초 등 생	2.34	0.66
중 학 생	2.40	0.68
고 교 생	2.50	0.72
대 학 생	2.69	0.64
취 업	2.65	0.64
무 직	2.57	0.63

성별로는 남자는 매우 보수적인 반면(2.27) 여자는 매우 진보적인 태도를 나타내었다(2.70). 지역별로는 서울지역(2.55)이 광역시(2.47)-시군부(2.45)에 비해 상대적으로 진보적이었으며, 계층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표 3-1-51).

표 3-1-51: 위계적 가족관 - 성·지역별

		평 균	표준편차
성 별	남 자	2.27	0.68
	여 자	2.70	0.62
지 역	서 울	2.55	0.69
	광역시	2.47	0.70
	시군부	2.45	0.67

통계치: 성별 $F=561.21^{***}$, 지역 $F=7.97^{***}$

5) 가정생활 만족도

영역별 만족도

Q 구체적으로 가정생활의 다음과 같은 측면들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 또는 불만을 느끼십니까 ?

- 1) 부모님과 자신과의 관계
- 2) 가정의 경제적인 형편
- 3) 부모님의 직업
- 4) 살고 있는 집(주택)
- 5) 아버지·어머니 두 분 사이의 관계
- 6) 형제·자매와 자신과의 관계

<응답항목>

- | | |
|------------|------------|
| 1. 매우 불만이다 | 2. 불만이다 |
| 3. 만족한다 | 4. 매우 만족한다 |

청소년들의 가정생활에 관한 만족도를 알아 보기 위해 가정생활과 관련된 6가지 항목을 제시하고 각각에 대한 만족도를 단계별 4점척도를 제시하고 응답하게 하였다.

응답결과(표 3-1-52)를 보면 만족하고 있다(“매우 만족”+”만족”)는 응답률에서 “형제·자매와의 관계”(78.6%), “살고 있는 집”(77.1%)이 가장 높은 수준이었고, 다음으로 “부모님의 직업”(76.3%), “부모님과 자신과의 관계”(75.9%), “부모님 두분간의 관계”(73.0%)의 순이었으며, “가정의 경제적인 형편”에 만족한다는 응답이 67.3%로서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표 3-1-52: 가정생활 영역별 만족도 - 전체

(단위: %)

	매우 불만	불만	만족	매우 만족
부모님과 자신과의 관계	4.0	20.2	56.4	19.5
부모님 두분간의 관계	4.8	22.2	57.0	16.0
형제·자매와의 관계	5.2	16.2	55.3	23.3
가정의 경제적인 형편	5.1	27.6	57.0	10.3
부모님의 직업	3.0	20.7	61.1	15.2
살고 있는 집	5.7	17.2	48.9	28.2

청소년유형별 만족도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표 3-1-53). 각 항목별 만족응답률(“매우 만족”+ ”만족”)의 순위를 보면, 초등학교의 경우 “부모님과 자신과의 관계”와 “부모님과 자신과의 관계” 등 부모님과 관련된 가족관계의 만족도가 높은 반면, “형제·자매와의 관계”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중학생은 “부모님 두분간의 관계” “부모님의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으며 각 항목별로 만족도의 편차가 그리 크지 않은 편이었다.

표 3-1-53: 가정생활 영역별 만족도 - 유형별

(단위: %)

	만족한다(“만족”+ ”매우 만족”)					
	부모님- 자신관계	부모님 두분관계	형제· 자매관계	경제적 형 편	부모님 직 업	살 고 있는집
초 등 생	93.9	91.3	75.2	91.2	88.5	83.5
중 학 생	79.5	81.7	75.0	74.5	81.2	74.8
고 교 생	66.5	69.0	78.9	54.8	69.6	66.7
대 학 생	78.9	74.2	85.1	64.3	73.9	74.9
취 업	65.8	68.6	84.2	44.7	63.7	63.9
무 직	63.8	70.2	81.5	62.5	73.2	72.5

초·중학생을 제외한 나머지 집단들은 공통적으로 “형제·자매와의 관

계”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 “가정의 경제적 형편”의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대체로 초·중학생들은 부모님과 관련된 가족관계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반면, 고등학생과 연장청소년 집단은 부모님과 관련된 관계보다는 형제관계의 만족도가 높은 편이며, 가정의 환경적 요인(경제적 형편, 부모의 직업, 주택)에 대해서 낮은 만족도를 나타내었다.

전체적인 만족도

Q 현재 자신의 가정생활을 전체적으로 평가한다면 당신은 얼마나 만족 또는 불만을 느끼십니까 ?

- | | |
|------------|------------|
| 1. 매우 불만이다 | 2. 불만이다 |
| 3. 만족한다 | 4. 매우 만족한다 |

자신의 가정생활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 단계별 4점척도로 응답하게 하였다. 응답결과(표 3-1-54)를 보면 “만족한다”가 과반수를 상회하였고(54.6%), 다음으로 “불만이다”(26.0%), “매우 만족한다”(14.0%)의 순이었으며 “매우 불만이다”는 응답은 5.4%에 머물렀다. 전체적으로 만족한다는 청소년이 68.6%로서 불만을 느끼고 있는 청소년(31.4%)의 배 이상에 달하였다.

표 3-1-54: 가정생활 만족도 - 전체

(단위: 명, %)

	사례수	비율
매우 불만	283	5.4
불만	1,367	26.0
만족	2,868	54.6
매우 만족	735	14.0

청소년유형별 응답결과(표 3-1-55)를 보면, 만족한다는 청소년의 비율 (“매우 만족”+ ”만족”)에서 초등학생이 86.9%로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대학생, 중학생이 7할을 상회하였고(각각 73.9%, 71.2%), 무직청소년

(60.6%), 고등학생(58.5%), 취업청소년(57.1%)은 6할 수준에 머물렀다.

표 3-1-55: 가정생활 만족도 - 유형별

(단위: %)

	매우 불만	불 만	만 족	매우 만족
초 등 생	2.4	10.8	56.4	30.5
중 학 생	5.5	23.3	55.3	15.9
고 교 생	7.1	34.3	49.7	8.8
대 학 생	3.2	22.8	64.7	9.2
취 업	7.1	35.8	53.4	3.7
무 직	6.5	33.5	53.7	6.3

통계치: $\chi^2=476.59^{***}$

성별, 지역별 하위집단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계층별로는 상위계층 청소년의 80.5%가 만족한다고 응답한 반면, 중간계층은 66.8%, 하위계층은 62.1%에 불과하였다(표 3-1-56).

표 3-1-56: 가정생활 만족도 - 계층별

(단위: %)

	매우 불만	불 만	만 족	매우 만족
상 위	3.4	16.1	58.2	22.3
중 간	5.7	27.5	53.0	13.8
하 위	5.6	32.3	54.2	7.9

통계치: $\chi^2=158.91^{***}$

영역별 만족도와 전체 만족도의 관계

가정생활의 각 영역별 만족도와 전체적인 만족도가 어느 정도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단순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고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표 3-1-57).

그 결과 6가지의 영역별 변인은 모두 가정생활의 전체적인 만족도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그중에서 “부모님과 자신과의 관계”가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0.60), 다음으로 “가정의 경제적

형편”(0.48), “부모님 두분간의 관계”(0.45), “부모님의 직업”(0.38), “살고 있는 집”(0.36)의 순이며, “형제·자매와의 관계”가 가장 낮은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0.27).

표 3-1-57: 가정생활 영역별 만족도와 전체 만족도 상관관계

	가정생활 만족도
부모님과 자신과의 관계	0.60***
부모님 두분간의 관계	0.45***
형제·자매와의 관계	0.27***
가정의 경제적인 형편	0.48***
부모님의 직업	0.38***
살고 있는 집	0.36***

가정생활의 각 하위영역별 만족도가 전체적인 만족도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주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6가지 하위영역을 독립변인으로, 전체적인 가정생활 만족도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3-1-58). 그 결과 6가지 하위영역 모두 전체적인 가정생활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3-1-58: 가정생활 만족도 회귀분석 - 전체

	b	beta
부모님과 자신과의 관계	0.41	0.40***
부모님 두분간의 관계	0.12	0.13***
형제·자매와의 관계	0.05	0.05***
가정의 경제적인 형편	0.18	0.17***
부모님의 직업	0.03	0.03**
살고 있는 집	0.06	0.06***

통계치: $R^2=0.44$

각 영역별 만족도가 전체적인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의 순위를 보면, “부

모님과 자신과의 관계”가 가장 컸으며(0.40), 다음으로 “가정의 경제적 형편”(0.17), “부모님 두분간의 관계”(0.13), “살고 있는 집”(0.06), “형제·자매와의 관계”(0.05)의 순이며, “부모님의 직업”이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0.03). 이들 6가지의 하위변인은 가정생활 만족도 전체변량의 44%를 설명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청소년의 성별로 가정생활 하위영역별 만족도가 전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의 표(표 3-1-59)와 같다. 남녀 모두 “부모님과 자신과의 관계”와 “가정의 경제적 형편”이 가정생활 만족도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공통적이지만, 여자와는 달리 남자의 경우 “형제·자매와의 관계” “부모님의 직업”은 가정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3-1-59: 가정생활 만족도 회귀분석 - 성별

	남 자	여 자
	beta	beta
부모님과 자신과의 관계	0.41 ^{***}	0.38 ^{***}
부모님 두분간의 관계	0.13 ^{***}	0.13 ^{***}
형제·자매와의 관계	0.05	0.05 ^{**}
가정의 경제적인 형편	0.15 ^{***}	0.19 ^{***}
부모님의 직업	0.01	0.06 ^{**}
살고 있는 집	0.06 ^{**}	0.07 ^{***}

통계치: 남자 $R^2=0.41$, 여자: $R^2=0.48$

가정생활 전망

Q 앞으로 2~3년 뒤의 당신의 가정생활을 전망할 때 어떻게 되리라고 생각합니까 ?

- | | |
|--------------------|-----------------|
| 1. 지금보다 훨씬 나빠질 것이다 | 2. 지금보다 나빠질 것이다 |
| 3. 지금과 다름이 없을 것이다 | 4. 지금보다 좋아질 것이다 |
| 5. 지금보다 훨씬 좋아질 것이다 | |

앞으로의 자신의 가정생활을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단계별 5점척도를 제시하고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응답하게 하였다. 응답결과(표 3-1-60)를 보면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이 51.6%로서 가장 다수였고, 다음으로 “훨씬 좋아질 것”(19.7%), “지금과 다름이 없을 것”(19.5%)의 순이었고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은 소수에 머물렀다. 전체적으로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청소년이 7할을 상회하는 반면(71.3%), 비관적으로 전망하는 청소년은 1할에도 못미쳤다(9.1%).

표 3-1-60: 가정생활 전망 - 전체

(단위: 명, %)

	사례수	비율
훨씬 나빠질 것	131	3.4
나빠질 것	223	5.7
다름 없을 것	757	19.5
좋아질 것	2,004	51.6
훨씬 좋아질 것	766	19.7

청소년유형별 응답결과(표 3-1-61)는 다음과 같다.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응답(“좋아질 것”+ “훨씬 좋아질 것”)을 비교해보면, 초등학생이 8할에 달하는 반면(80.3%), 중학생은 71.7%, 고등학생은 65.9%에 머물렀다. 교급이 낮을수록 가정생활의 전망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1-61: 가정생활 전망 - 유형별

(단위: %)

	훨씬 나빠짐	나빠짐	변화 없음	좋아짐	훨씬 좋아짐
초 등 생	1.9	3.5	14.2	53.1	27.2
중 학 생	3.2	6.1	19.1	52.0	19.7
고 교 생	4.4	6.8	22.9	50.5	15.4

통계치: $\chi^2=87.37^{***}$

성별로는 남자보다는 여자가 자신의 가정생활에 대하여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응답률이 다소 높은 편이었다(각각 68.6%, 74.5%). 지역별로는 도시화의 수준이 낮을수록 낙관적인 응답비율이 증가하였다(서울 67.8%, 광역시 69.7%, 시군부 74.3%). 계층별로는 상위계층 청소년의 낙관적인 응답비율(74.9%)이 중간-하위계층 청소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각각 70.4%, 69.3%).

표 3-1-62: 가정생활 전망 - 성·지역·계층별

(단위: %)

		훨씬 나빠짐	나빠짐	변화 없음	좋아짐	훨씬 좋아짐
성 별	남 자	4.5	6.8	20.1	51.5	17.1
	여 자	2.1	4.5	18.9	51.8	22.7
지 역	서 울	3.9	4.6	23.7	47.9	19.9
	광역시	3.5	6.8	19.9	53.5	16.2
	시군부	3.0	5.5	17.2	52.0	22.3
계 층	상 위	2.9	4.2	18.0	52.1	22.8
	중 간	3.6	6.0	20.1	50.9	19.5
	하 위	3.5	6.5	20.7	53.0	16.3

통계치: 성별 $\chi^2=41.30^{***}$, 지역 $\chi^2=36.10^{***}$, 계층 $\chi^2=17.54^*$

2. 학교생활

학교생활에서는 청소년들의 학업관련 활동, 학교내에서의 인간관계, 교육현실 인식, 학교생활 만족도의 네가지 하위영역에 걸쳐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문항은 대부분 현재 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교육현실 인식에 대한 조사는 전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학업관련 활동은 청소년들의 공부의 양과 과외활동 실태를 다루었고, 학교내 인간관계에서는 학급친구·교사와의 관계를 질문하였다. 교육현실 인식에서는 학교공부의 유용성 및 교육현실에 대한 청소년들의 평가를 조사하였다. 학교생활 만족도는 학교생활의 각 하위영역별 만족도와 전체적인 만족도의 관계,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앞으로의 학교생활 전망 등을 조사하였다.

1) 학업관련 활동

자기공부의 양

Q 현재 자신이 하고 있는 공부의 양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 | | |
|--------------|--------------|
| 1. 매우 적은 편이다 | 2. 적은 편이다 |
| 3. 많은 편이다 | 4. 매우 많은 편이다 |

현재 자신이 하고 있는 공부의 양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매우 적은 편”에서 “매우 많은 편”에 이르는 단계별 4점척도를 제시하고 응답하게 하였다. 그 결과 과반수 이상의 청소년들이 “적은 편”(55.5%)이라고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매우 적은 편”(25.3%), “많은 편”(16.4%)의 순이었으며 “매우 많은 편”이라는 응답은 극소수(2.9%)에 불

과하였다. 전체적으로 자신의 공부 양이 적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이 8할 수준으로서(80.8%), 많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의 4배에 달하였다.

표 3-2- 1: 자기공부의 양 - 전체

(단위: 명, %)

	사례수	비 율
매우 적다	1,134	25.3
적은 편	2,482	55.5
많은 편	732	16.4
매우 많다	128	2.9

청소년유형별 응답결과(표 3-2-2)를 보면, “많다”(“매우 많은 편”+ “많은 편”)고 응답한 청소년의 비율이 초등학생이 38.0%로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대학생(26.8%), 중학생(15.0%)의 순이며 고등학생이 9.0%로서 가장 낮았다. 우리사회에서 대학진학을 앞둔 고등학교 시절이 가장 학업에 몰두하는 시기임을 감안하면, 이와 같은 응답결과는 절대적인 공부의 양보다는 사회적인 기대수준을 고려한 상대적인 평가로 이해된다. 가장 공부의 양이 많을 것으로 기대되는 고등학생 집단에서 “적다”는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이들이 학업과 관련한 압력과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표 3-2- 2: 자기공부의 양 - 유형별

(단위: %)

	매우 적다	적은 편	많은 편	매우 많다
초 등 생	7.7	54.3	33.4	4.6
중 학 생	26.4	58.5	13.1	1.9
고 교 생	38.4	52.6	6.9	2.1
대 학 생	15.3	57.8	22.4	4.4

통계치: $\chi^2=549.74^{***}$

계층별 하위집단의 응답결과(표 3-2-3)를 비교해 보면 상위계층 청소년의 27.1%가 자신의 공부 양이 “많다”고 응답한 반면, 중간계층은 18.9%,

하위계층은 12.9%에 머물렀다. 이와 같은 응답결과는 상위계층 청소년들이 중간-하위계층 청소년에 비해 학습관련 과외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는 듯하다. 성·지역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표 3-2- 3: 자기공부의 양 - 계층별

(단위: %)

	매우 적다	적은 편	많은 편	매우 많다
상 위	16.2	56.7	23.1	4.0
중 간	25.9	55.2	15.9	3.0
하 위	31.8	55.3	11.2	1.7

통계치: $\chi^2=104.64^{***}$

과외활동 실태

Q 당신은 학교수업 이외에 정기적으로 학원(체육관·문화센터 등 포함)에 다니거나 배우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다음의 각 사항에 대하여 “그렇다” “아니다”로 응답해 주십시오.

- 1) 학과공부 보충을 위해 학원에 다니고 있다
- 2) 취미·여가생활을 위해 학원에 다니고 있다
- 3) 학과공부 보충을 개인 또는 그룹지도를 받고 있다
- 4) 취미·여가생활을 위해 개인 또는 그룹지도를 받고 있다
- 5) 취미·여가생활을 위해 혼자서 배우고 있는 것이 있다
- 6) 집에서 학습지(온라인 학습지 포함)를 받아보고 있다

<응답항목>

1. 그렇다
2. 아니다

청소년들의 과외활동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대표적인 과외활동의 유형을 제시하고 현재 자신이 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응답하게 하였다. 조사대상이 된 과외활동은 학과공부관련 과외활동 3

가지(학원 수강, 개인·그룹지도, 학습지), 취미·여가생활관련 과외활동 3가지(학원 수강, 개인·그룹지도, 개인적인 학습) 등 모두 6가지였다.

응답결과(표 3-2-4)를 보면 먼저 학과공부와 관련된 과외활동으로서는 학원에 다닌다는 응답이 41.6%로서 가장 많았고, 학습지를 구독하고 있다는 응답이 25.4%, 개인 또는 그룹지도를 받고 있다는 응답이 21.7%였다. 취미·여가생활관련 과외활동으로서는 개인적으로 혼자 배우고 있다는 응답이 27.7%, 학원에 다닌다는 응답이 18.2%, 개인·그룹지도를 받고 있다는 응답이 10.2%였다. 전체적으로 청소년의 과외활동이 내용면에서는 취미·여가생활보다는 학과공부를 중심으로, 과외형태로는 개인·그룹지도보다는 학원 수강이 일반적임을 알 수 있다.

표 3-2- 4: 과외활동 이수율

(단위: %)

		비 율
학과공부 관련	학원 수강	41.6
	개인·그룹지도	21.7
	학습지 구독	25.4
취미·여가생활 관련	학원 수강	18.2
	개인·그룹지도	10.2
	개인학습	27.7

청소년유형별 응답결과(표 3-2-5)를 보면, 취미·여가생활 관련 개인적인 학습을 제외한 모든 과외활동 유형에서 초등학생의 이수율이 가장 높고, 고등학생이 가장 낮았다. 특히 학과공부 보충을 위해 학원에 다니는 학생의 비율이 초등학생, 중학생이 5할 수준인 반면(각각 58.5%, 48.7%), 고등학생은 1/4 수준에 머물렀다.

고등학생의 과외활동 이수율이 이처럼 낮게 나타난 것은 초·중학생에 비해 학교수업이 길고 전체의 약 3할을 차지하는 실업계 학생들의 과외활동 이수율이 매우 낮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표 3-2- 5: 과외활동 이수율 - 유형별

(단위: %)

	학과공부 관련			취미·여가생활 관련		
	학 과 학 원	학 과 지 도	학 습 지	취 미 학 원	취 미 지 도	취 미 개 인
초 등 생	58.5	34.2	42.9	33.5	15.9	27.2
중 학 생	48.7	23.8	18.4	14.2	9.5	28.2
고 교 생	25.8	12.7	21.1	12.6	7.5	27.6

기타 하위집단별 응답결과(표 3-2-6)를 보면, 계층별 과외활동 이수율에서 현저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과외활동의 모든 유형에서 상위계층 청소년의 이수율이 가장 높고 하위계층 청소년의 이수율이 가장 낮았는데, 이것은 과외활동에 소요되는 경제적 비용의 부담능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표 3-2- 6: 과외활동 이수율 - 성·지역·계층별

(단위: %)

		학과 학원	학과 지도	학 습 지	취미 학원	취미 지도	취미 개인
성 별	남 자	45.3	23.4	25.2	19.3	10.8	29.0
	여 자	37.4	19.8	25.6	16.8	9.4	26.2
지 역	서 울	45.8	26.3	26.3	16.7	9.7	28.3
	광역시	41.6	20.6	29.2	20.2	10.1	30.1
	시군부	39.6	20.3	22.1	17.4	10.4	25.6
계 층	상 위	59.4	32.8	37.3	27.7	14.1	32.9
	중 간	41.0	21.5	25.7	17.2	9.9	27.4
	하 위	29.4	13.1	15.8	12.8	7.6	24.4

서클·동아리 활동

Q 학교의 특별활동 이외에 교내 또는 교외 서클이나 동아리에 가입하여 활동한 경험이 있습니까?

1. 전혀 가입한 경험이 없다
2. 과거에 가입한 경험이 있다
3. 현재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대학생을 포함한 학생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학교 특별활동 이외에 서클이나 동아리활동 경험이 있는지를 질문하였다. 응답결과를 보면, 전혀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절반 수준이었고(50.0%), 과거에 활동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과 지금 활동하고 있다는 응답이 비슷한 수준이었다(각각 25.2%, 24.8%).

표 3-2- 7: 서클·동아리 활동 경험 - 전체

(단위: 명, %)

	사례수	비율
전혀 가입한 경험이 없다	2,222	50.0
과거에 가입한 경험이 있다	1,122	25.2
현재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1,104	24.8

표 3-2- 8: 서클·동아리 활동 경험 - 유형별

(단위: %)

	경험 없다	과거 경험	지금 활동
초 등 생	63.8	18.7	17.5
중 학 생	57.4	26.5	16.1
고 교 생	47.2	25.6	27.3
대 학 생	19.0	31.4	49.6

통계치: $\chi^2=400.75^{***}$

청소년유형별 응답결과(표 3-2-8)를 보면 현재 서클이나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 청소년의 비율에서 대학생이 49.6%로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고등학생으로서 27.3%였고, 초·중학생은 2할 미만이었다.

기타변인별로는 현재 서클이나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 청소년의 비율이 성별로는 남자(23.1%)보다는 여자(26.8%), 지역별로는 시군부(22.9%)보다는 서울(27.3%)-광역시(25.7%)지역이 높게 나타났다. 계층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표 3-2- 9: 서클·동아리 활동 경험 - 성·지역별

(단위: %)

		경험 없다	과거 경험	지금 활동
성 별	남 자	51.2	25.7	23.1
	여 자	48.6	24.6	26.8
지 역	서 울	45.9	26.8	27.3
	광역시	49.2	25.1	25.7
	시군부	52.5	24.6	22.9

통계치: 성별 $\chi^2=8.20^*$, 지역 $\chi^2=12.86^*$

2) 학교내 인간관계

학급친구와의 경쟁

Q 당신은 평소 학급 친구들에 대해서 경쟁의식을 느끼고 있습니까 ?

- | | |
|-----------------|-----------------|
| 1. 거의 느끼지 않고 있다 | 2. 별로 느끼지 않고 있다 |
| 3. 약간 느끼고 있다 | 4. 많이 느끼고 있다 |

평소에 자신의 학급친구(대학생은 “같은 과 친구들”)들에 대하여 경쟁의식을 느끼고 있는지의 여부를 단계별 4점척도에 의거하여 응답하게 하였다. 응답결과(표 3-2-10)를 보면 “약간 느끼고 있다”와 “별로 느끼고 있지 않다”가 각각 38.8%와 36.1%로서 비슷한 분포를 보였으며, “거의 느끼지 않

고 있다”가 15.3%로서 그 다음이었으며, “많이 느끼고 있다”는 응답은 1할에 조금 못미쳤다(9.8%). 전체적으로 조사대상 청소년의 약 1/2(48.6%)이 학급친구에 대하여 경쟁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3-2-10: 학급친구와의 경쟁의식 - 전체

(단위: 명, %)

	사례수	비율
거의 느끼지 않고 있다	685	15.3
별로 느끼지 않고 있다	1,617	36.1
약간 느끼고 있다	1,736	38.8
많이 느끼고 있다	438	9.8

청소년유형별로는 경쟁의식을 느끼고 있다(“약간”+ “많이”)는 응답비율에서 초등학교(49.3%), 중학생(48.2%), 고등학교(49.3%)이 모두 49% 안팎의 비슷한 분포를 보였고, 대학생이 46.4%로서 가장 낮은 편이었다. 학급친구에 대한 경쟁의식에 있어서 초·중학생과 고등학교의 차이가 거의 없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라 할 수 있다.

표 3-2-11: 학급친구와의 경쟁의식 - 유형별

(단위: %)

	거의 못느낌	별로 안느낌	약간 느낌	많이 느낌
초 등 생	18.5	32.2	36.9	12.4
중 학 생	16.3	35.6	38.4	9.8
고 교 생	14.0	36.7	40.4	8.9
대 학 생	11.4	42.2	38.4	8.0

통계치: $\chi^2=36.57^{***}$

성별로는 경쟁의식을 느낀다는 청소년의 비율이 여자가 51.6%로서 남자(45.6%)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3-2-12). 지역별로는 광역시 지역 청소년의 50.5%가 경쟁의식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하여 시군부 지역(48.0%), 서울지역(46.7%)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계층별로는 경쟁의식을 느끼고 있다는 응답률에서 상위계층 청소년이 53.0%로서 하위(49.1%)-

중간계층(46.8%) 청소년에 비해 높은 편이었다.

표 3-2-12: 학급친구와의 경쟁의식 - 성·계층별

(단위: %)

		거 의 못느낌	별 로 못느낌	약 간 느 낌	많 이 느 낌
성 별	남 자	17.1	36.9	35.6	10.3
	여 자	13.2	35.2	42.4	9.2
계 층	상 위	12.4	34.6	40.9	12.1
	중 간	16.1	37.1	37.3	9.5
	하 위	14.5	36.5	40.1	9.0

통계치: 성별 $\chi^2=26.64^{***}$, 계층 $\chi^2=16.24^*$

교사와의 대화빈도

- Q 당신은 학과수업 시간 이외에 선생님과 어느 정도 자주 대화를 나누십니까 ?
1. 거의 대화하지 않는다
 2. 별로 대화하지 않는다
 3. 가끔 대화한다
 4. 자주 대화한다

대학생을 포함한 학생청소년을 대상으로 학과 수업시간(대학생은 “학과 강의시간”) 이외에 어느 정도 교사(대학생은 “교수”)와 대화를 나누는지 단계별 4점 척도로 응답하게 하였다.

응답결과(표 3-2-13)를 보면 “별로 대화하지 않는다”가 37.8%로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거의 대화하지 않는다”(30.4%), “가끔 대화한다”(25.6%)의 순이었으며, “자주 대화한다”는 응답은 6.3%에 불과했다. 전체적으로 교사와 대화하지 않는다(“거의”+ “별로”)는 청소년이 68.2%로서 대화한다(“가끔”+ “자주”)는 청소년(31.9%)의 2배 이상에 달하였다.

표 3-2-13: 교사와의 대화빈도 - 전체

(단위: 명, %)

	사례수	비율
거의 대화하지 않는다	1,360	30.4
별로 대화하지 않는다	1,693	37.8
가끔 대화한다	1,144	25.6
자주 대화한다	280	6.3

청소년유형별 응답결과(표 3-2-14)를 보면 학교교사와 가끔 또는 자주 대화한다는 응답비율에서 초등학생이 48.0%로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중학생(31.7%), 고등학생(26.1%)의 순이었으며 대학생이 21.7%로서 가장 낮았다. 교급이 올라갈수록 교사와의 대화빈도가 점차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2-14: 교사와의 대화빈도 - 유형별

(단위: %)

	거의 대화 않음	별로 대화 않음	가끔 대화한다	자주 대화한다
초 등 생	18.5	33.4	36.4	11.6
중 학 생	29.7	38.7	26.4	5.3
고 교 생	33.6	40.3	21.1	5.0
대 학 생	42.3	36.0	18.5	3.2

통계치: $\chi^2=210.40^{***}$

하위집단별 응답결과(표 3-2-15)를 비교해 보면 지역·계층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교사와 가끔 또는 자주 대화한다는 응답률이 시군부지역에서는 36.0%에 달한 반면, 서울(29.1%)·광역시(28.0%) 지역은 3할 미만에 머물렀다. 계층별로는 교사와 가끔 또는 자주 대화한다는 응답률이 상위집단이 37.7%로서 중간(31.5%), 하위집단(26.7%)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표 3-2-15: 교사와의 대화빈도 - 지역·계층별

(단위: %)

		거의 대화 않 음	별로 대화 않 음	가 끄 대화한다	자 주 대화한다
지 역	서 울	32.5	38.5	23.9	5.2
	광역시	32.5	39.4	22.8	5.2
	시군부	27.7	36.3	28.4	7.6
계 층	상 위	25.1	37.2	29.1	8.6
	중 간	30.2	38.4	25.1	6.4
	하 위	35.7	37.7	22.7	4.0

통계치: 지역 $\chi^2=32.59^{***}$, 계층 $\chi^2=45.11^{***}$

교사의 학생이해도

Q 학교 선생님들은 학생들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 1. 거의 이해하지 못한다 | 2. 별로 이해하지 못한다 |
| 3. 약간 이해하고 있다 | 4. 많이 이해하고 있다 |

대학생을 포함한 학생청소년을 대상으로 학교교사(대학생은 “교수”)가 학생들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단계별 4점척도를 제시하고 응답하게 하였다.

표 3-2-16: 교사의 학생이해도 - 전체

(단위: 명, %)

	사례수	비 율
거의 이해하지 못한다	688	15.4
별로 이해하지 못한다	1,487	33.2
약간 이해하고 있다	1,656	37.0
많이 이해하고 있다	644	14.4

응답결과(표 3-2-16)를 보면 “약간 이해하고 있다”가 37.0%로서 가장

많고, “별로 이해하지 못한다”가 33.2%였으며 “거의 이해하지 못한다”(15.4%)와 “많이 이해하고 있다”(14.4%)는 응답은 비슷한 분포를 나타내었다.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있다(“약간”+ “많이”)고 생각하는 청소년이 51.4%로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별로”+ “거의”)고 생각하는 청소년(48.6%)보다 다소 많은 편이었다.

청소년유형별 응답결과(표 3-2-17)를 보면 학교교사가 학생들의 마음을 약간 또는 많이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초등학생이 7할을 상회(72.1%)하는 반면, 중학생(48.1%), 대학생(45.6%), 고등학생(44.3%)은 모두 5할 미만의 낮은 응답률을 나타내었다.

표 3-2-17: 교사의 학생이해도 - 유형별

(단위: %)

	거 의 이해못함	별 로 이해못함	약 간 이해함	많 이 이해함
초 등 생	9.3	18.6	37.8	34.3
중 학 생	18.2	33.8	36.2	11.9
고 교 생	18.2	37.6	36.3	8.0
대 학 생	10.9	43.5	39.7	5.9

통계치: $\chi^2=474.46^{***}$

성·지역·계층별 하위집단의 응답결과의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표 3-2-18).

교사가 자신을 이해하고 있다(“약간”+ “많이”)고 생각하는 청소년의 비율이 성별로는 남자가 55.0%로서 과반수를 상회하는 반면, 여자는 47.5%에 머물렀고, 지역별로는 시군부지역이 54.1%에 달하였으나 서울(48.7%), 광역시(49.7%) 지역은 과반수에 못미쳤다.

계층별로는 중간-하위계층(49.5%, 49.9%)에 비해 상위계층(55.2%)에서 교사가 자신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표 3-2-18: 교사의 학생이해도 - 성·지역·계층별

(단위: %)

		거 의 이해못함	별 로 이해못함	약 간 이해함	많 이 이해함
성 별	남 자	14.2	30.8	38.6	16.4
	여 자	16.7	35.8	35.3	12.2
지 역	서 울	15.6	35.7	35.4	13.3
	광역시	15.6	34.8	38.1	11.6
	시군부	15.1	30.8	37.0	17.1
계 층	상 위	14.1	30.7	38.1	17.1
	중 간	16.3	34.3	36.1	13.4
	하 위	15.4	34.8	38.3	11.6

통계치: 성별 $\chi^2=30.12^{***}$, 지역 $\chi^2=26.90^{***}$, 계층 $\chi^2=17.91^{**}$

교사와의 대립경험

Q 지난 1년 동안 학교 선생님과 크게 의견이 대립되어 반항을 하거나 충돌한 적이 있습니까?

1. 있 다

2. 없 다

지난 한해 동안 학교교사(대학생은 “교수”)와 대립을 한 경험이 있는지의 여부를 질문하였다. 응답결과를 보면 대립경험이 “없다”는 청소년이 80.9%로서 다수였으나 “있다”는 청소년도 약 2할수준(19.1%)에 달하였다.

표 3-2-19: 교사와의 대립경험 - 전체

(단위: 명, %)

	사례수	비 율
대립 있었다	842	19.1
대립 없었다	3,573	80.9

청소년유형별 응답결과(표 3-2-20)를 보면, 대립경험이 있다는 응답률에서 고등학생이 22.5%로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중학생(20.0%), 초등

학생(17.1%)의 순이었으며, 대학생이 10.9%로서 가장 낮았다.

표 3-2-20: 교사와의 대립경험 - 유형별

(단위: %)

	대립 있었다	대립 없었다
초 등 생	17.1	82.9
중 학 생	20.0	80.0
고 교 생	22.5	77.5
대 학 생	10.9	89.1

통계치: $\chi^2=40.71^{***}$

성·지역·계층별 응답결과를 비교해 보면, 계층별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교사와의 대립경험이 있다는 응답률이 중간집단이 21.1%로서 상위집단(17.7%), 하위집단(17.5%)에 비해 높은 편이었다.

표 3-2-21: 교사와의 대립경험 - 계층별

(단위: %)

	대립 있었다	대립 없었다
상 위	17.7	82.3
중 간	21.1	78.9
하 위	17.5	82.5

통계치: 계층 $\chi^2=7.75^*$

바람직한 교사상

Q 다음 중 어떤 선생님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수업시간에 알기쉽게 잘 지도해주시는 선생님
2. 학생들의 생활·진로지도를 잘해주시는 선생님

Q 다음 중 어떤 선생님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 학생들을 엄격하게 지도하는 선생님
2. 학생들과 친구처럼 지내려고 하는 선생님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교사상을 알아보기 위해 대조적인 두가지 유형의 교사상을 제시하고 어느쪽을 더 선호하는지 응답하게 하였다. 먼저 “수업(대학생은 “강의”) 지도 충실형”과 “생활·진로지도 충실형” 중 하나를 선택하는 질문에서는 “수업지도 충실형”을 선택한 청소년이 53.5%로서 “생활·진로지도 충실형”의 응답률(46.5%)보다 다소 높은 편이었다.

표 3-2-22: 바람직한 교사상 - 전체

(단위: 명, %)

	사례수	비율
수업시간에 알기쉽게 잘 지도해주시는 선생님	2,369	53.5
학생들의 생활·진로지도를 잘해주시는 선생님	2,061	46.5

청소년유형별 응답결과(표 3-2-23)를 보면, 대학생과 초등학생은 “수업지도 충실형”을 선택한 응답률이 “생활·진로지도 충실형”을 선택한 응답률보다 월등하게 높은 반면, 고등학생은 “생활·진로지도 충실형”의 선호율이 높게 나타나 대조를 이루었다. 중학생은 양자 모두 비슷한 응답률을 나타내었다.

표 3-2-23: 바람직한 교사상 - 유형별

(단위: %)

	수업시간 잘 지도	생활·진로 잘 지도
초 등 생	66.8	33.2
중 학 생	50.4	49.6
고 교 생	42.9	57.1
대 학 생	68.0	32.0

통계치: $\chi^2=192.69^{***}$

기타변인별 응답결과(표 3-2-24)를 보면, 모든 하위집단에서 “수업지도 충실형”의 응답률이 “생활·진로지도 충실형”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지역별 응답결과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계층별로는 “수업지도 충실형” 교사 선호도에 있어서 상위계층이 중간-하위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표 3-2-24: 바람직한 교사상 - 계층별

(단위: %)

	수업시간 잘 지 도	생활·진로 잘 지 도
상 위	56.8	43.2
중 간	52.7	47.3
하 위	50.3	49.7

통계치: $\chi^2=8.82^*$

다음으로 학생에게 엄격하게 대하는 “엄격형” 교사와 친구처럼 지내려 하는 “친구형” 교사 중에 어느쪽을 더 선호하는지 질문하였다. 응답결과를 보면 8할 이상의 청소년이 “친구형” 교사를 선호하였고, “엄격형”을 선택하는 청소년은 17.6%에 머물렀다.

표 3-2-25: 바람직한 교사상 - 전체

(단위: 명, %)

	사례수	비 율
학생들을 엄격하게 지도하는 선생님	780	17.6
학생들과 친구처럼 지내려고 하는 선생님	3,653	82.4

표 3-2-26: 바람직한 교사상 - 유형별

(단위: %)

	엄격형 교사	친구형 교사
초 등 생	24.9	75.1
중 학 생	17.1	82.9
고 교 생	16.2	83.8
대 학 생	10.9	89.1

통계치: $\chi^2=54.81^{***}$

청소년유형별 응답결과(표 3-2-26)를 보면, 모든 하위집단에서 “친구형” 교사의 선호도가 “엄격형”에 비해 월등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변인별 응답결과를 보면, 성별로는 남자가 여자에 비해 엄격형 교사의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각각 20.2%, 14.7%). 지역별·계층별 응답결과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단위: %)

	엄격형 교사	친구형 교사
남 자	20.2	79.8
여 자	14.7	85.3

역할모델로서의 교사

1. 있 다 2. 없 다

(단위: 명, %)

	사례수	비율
있 다	2,081	46.9
없 다	2,356	53.1

94

를에서 초등학생이 54.6%로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대학생(48.1%), 고등학생(45.2%)의 순이었고 중학생이 43.0%로서 가장 적었다.

표 3-2-29: 역할모델로서의 교사 - 유형별

(단위: %)

	있 다	없 다
초 등 생	54.6	45.4
중 학 생	43.0	57.0
고 교 생	45.2	54.8
대 학 생	48.1	51.9

통계치: $\chi^2=32.63^{***}$

기타변인별 응답결과에서는 현재 학교에 자신이 본받을만한 교사가 있다는 응답률이 성별로는 여자(46.1%)보다는 남자(47.6%), 지역별로는 서울(48.7%)-광역시(47.4%)가 시군부(45.6%) 지역보다, 계층별로는 상위계층(47.8%)이 중간-하위계층(각각 46.3%, 46.0%)보다 높은 편이었으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표 3-2-30: 역할모델로서의 교사 - 성별

(단위: %)

	있 다	없 다
남 자	47.6	52.4
여 자	46.1	53.9

통계치: $\chi^2=0.93$

3) 교육현실 인식

교육현실 평가

Q 다음과 같은 생각에 대하여 당신은 어느 정도 찬성 또는 반대하십니까 ?

- 1) 과외를 안해도 학교수업만 열심히 하면 원하는 학교에 진학할 수 있다
- 2) 잘사는 집 아이가 못사는 집 아이보다 공부도 더 잘한다
- 3) 공부를 잘 할려면 부모님의 뒷받침이 중요하다
- 4) 사회에서 졸업장을 중시하지 않는다면 학교에 다니지 않겠다
- 5) 우리사회는 명문대학을 나와야만 출세할 수 있다
- 6) 학교에서의 우등생은 사회에서도 성공하기 마련이다

<응답항목>

- | | |
|--------------|-----------|
| 1. 매우 그렇지 않다 | 2. 그렇지 않다 |
| 3. 그렇다 | 4. 매우 그렇다 |

우리나라의 교육현실에 대한 청소년들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 교육의 현실태와 관련된 6가지 항목의 진술을 제시하고 그에 대하여 긍정·부정을 나타내는 단계별 4점척도로 응답하게 하였다.

응답결과(표 3-2-31)를 보면, “과외를 안해도 학교수업만 열심히 하면 원하는 학교에 진학할 수 있다”에 대해서는 60.7%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여 대학의 신입생 선발방식의 다변화에 따라 과외공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많이 약화되어 가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잘사는 집 아이가 못사는 집 아이보다 공부도 더 잘한다”에 대해서는 긍정응답률이 29.2%에 불과한 반면, “공부를 잘 할려면 부모님의 뒷받침이 중요하다”에 대해서는 65.1%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여 가정의 경제적인 배경보다는 부모의 관심과 배려가 좋은 성적으로 올리는 데 더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2-31: 교육현실 평가 - 전체

(단위: %)

	그렇다	매 우 그렇다
과외를 안해도 학교수업만 열심히 하면 원하는 학교에 진학할 수 있다	44.2	16.5
잘사는 집 아이가 못사는 집 아이보다 공부도 더 잘한다	22.2	7.0
공부를 잘 할려면 부모님의 뒷받침이 중요하다	49.9	15.2
사회에서 졸업장을 중시하지 않는다면 학교에 다니지 않겠다	23.2	10.5
우리사회는 명문대학을 나와야만 출세할 수 있다	30.0	24.8
학교에서의 우등생은 사회에서도 성공하기 마련이다	21.0	7.3

학교공부의 유용성 평가

Q 당신은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이 자신에게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의 각 설명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응답항목을 골라 주십시오.

- 1)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입시준비에 도움이 된다
- 2) 올바른 인격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 3) 자신의 적성과 소질의 계발하는 데 도움이 된다
- 4) 올바른 생활습관을 익히는 데 도움이 된다
- 5) 우리사회의 현실을 아는 데 도움이 된다

<응답항목>

- | | |
|--------------|-----------|
| 1. 매우 그렇지 않다 | 2. 그렇지 않다 |
| 3. 그렇다 | 4. 매우 그렇다 |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연장청소년은 “배웠던”) 내용이 자신에게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연장청소년은 “되었다고”)생각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모두 5가지의 항목을 제시하고 각 항목별로 강한 부정에서 강한 긍정에 이르는

단계별 4점척도를 제시하고 응답하게 하였다.

응답결과(표 3-2-32)를 보면,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입시준비에 도움이 된다”는 항목에 대해서만 과반수 이상(56.6%)의 청소년이 긍정적으로 응답하였을 뿐, “우리사회의 현실을 아는 데 도움이 된다”(48.9%), “올바른 인격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45.3%), “올바른 생활습관을 익히는 데 도움이 된다”(45.0%)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응답률이 5할에 못미쳤고, “자신의 적성과 소질의 계발하는 데 도움이 된다”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률은 37.3%에 불과하였다. 전체적으로 청소년들은 학교공부의 유용성에 대하여 입시준비를 제외한 다른 측면들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2-32: 학교공부의 유용성 평가

(단위: %)

	그렇다	매 우 그렇다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입시준비에 도움이 된다	50.2	6.3
올바른 인격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39.5	5.8
자신의 적성과 소질의 계발하는 데 도움이 된다	31.9	5.4
올바른 생활습관을 익히는 데 도움이 된다	39.3	5.7
우리사회의 현실을 아는 데 도움이 된다	41.1	7.8

청소년유형별 응답결과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표 3-2-33).

먼저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입시준비에 도움이 된다”에 대해서 대학생의 긍정적인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68.6%), 다음으로 초등학생(68.3%), 중학생(58.0%)의 순이었으며 고등학생의 긍정응답률이 가장 낮았다(43.6%).

“올바른 인격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에 대해서는 초등학생(73.3%)과 중학생(50.9%)의 긍정응답률이 과반수를 상회하였고 다음으로 취업청소년(43.0%), 무직청소년(41.5%), 고등학생(31.4%)의 순이었으며 대학생(29.4%)이 가장 낮았다.

“자신의 적성과 소질의 계발하는 데 도움이 된다”에 대한 긍정적인 응

답률은 초등학생만이 과반수를 상회하였고(68.0%), 다음으로 중학생(42.7%), 무직청소년(37.4%), 취업청소년(31.8%)의 순이었으며 대학생(23.4%)과 고등학생(21.2%)이 가장 낮은 편에 속하였다.

“올바른 생활습관을 익히는 데 도움이 된다”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률도 역시 초등학생만이 과반수를 상회하였고(72.8%), 다음으로 중학생(47.7%), 무직청소년(44.1%), 취업청소년(42.7%)의 순이었으며 고등학생(32.1%)과 대학생(30.7%)이 가장 낮은 편에 속하였다.

“우리사회의 현실을 아는 데 도움이 된다”에 대해서는 초등학생(71.5%)과 중학생(51.6%)의 긍정응답률이 과반수를 상회하였고, 다음으로 무직청소년(45.1%), 취업청소년(44.5%), 고등학생(41.8%)의 순이었고 대학생은 다른 집단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편이었다(31.8%).

전체적으로 입시준비를 제외한 학교공부의 유용성에 대하여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하였고, 취업청소년과 무직청소년이 중간 수준이었으며, 고등학생과 대학생이 가장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2-33: 학교공부의 유용성 평가 - 유형별

(단위: %)

	도움이 된다(“그렇다”+ “매우 그렇다”)					
	초등	중학	고등	대학	취업	무직
진학을 위한 입시준비	68.3	58.0	43.6	68.6	-	-
올바른 인격 형성	73.3	50.9	31.4	29.4	43.0	41.5
자신의 적성·소질의 계발	68.0	42.7	21.2	23.4	31.8	37.4
올바른 생활습관 체득	72.8	47.7	32.1	30.7	42.7	44.1
우리사회의 현실 이해	71.5	51.6	41.8	31.8	44.5	45.0

대학진학 의사

Q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는 대학에 진학할 생각입니까 ? 아니면 취업할 생각입니까 ?

1. 반드시 대학에 진학할 생각이다
2. 가능하다면 대학에 진학할 생각이다
3. 가능하다면 취업할 생각이다
4. 반드시 취업할 생각이다
5.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의 진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질문하였다. 응답결과를 보면 “반드시 대학에 진학”하겠다는 응답이 48.1%로서 다수였으며, “가능하면 대학에 진학”하겠다고 36.7%로서 그 다음이었고, 이어서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7.4%), “가능하면 취업”하겠다고(5.4%), “반드시 취업”하겠다고(2.4%)의 순이었다.

전체적으로 청소년의 8할 이상(84.8%)이 대학진학을 고려하고 있는 반면, 취업을 희망하는 청소년은 소수(7.8%)에 머물렀다.

표 3-2-34: 대학진학 의사 - 전체

(단위: 명, %)		
	사례수	비율
반드시 진학	1,869	48.1
가능하면 진학	1,426	36.7
가능하면 취업	208	5.4
반드시 취업	95	2.4
미 결정	287	7.4

청소년유형별 응답결과(표 3-2-36)를 보면, 초·중·고등학생 모두 8할 이상이 대학에 진학하겠다고 응답하였는데, 특히 “반드시 대학에 진학”하겠다는 응답비율은 초등학생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취업하겠다는 응답은

교급이 올라갈수록 증가하였으나 고등학생 중 취업하겠다는 청소년의 비율은 1할 남짓한 수준이었는데(10.4%), 이것은 실업계 고등학생중 상당수가 대학진학을 생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3-2-35: 대학진학 의사 - 유형별

(단위: %)

	반드시 진 학	가능하면 진 학	가능하면 취 업	반드시 취 업	미결정
초 등 생	52.3	33.0	2.9	.6	11.1
중 학 생	46.5	37.7	5.6	2.1	8.1
고 교 생	47.1	38.0	6.6	3.8	4.6

통계치: $\chi^2=84.41^{***}$

성별로는 대학진학을 희망하는 비율이 남자가 여자보다 다소 높은 편이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지역별로는 대학에 진학하겠다는 청소년의 비율이 광역시가 88.0%에 달하여 서울(83.8%), 시군부(83.0%)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계층별로는 상위계층일수록 대학에 진학하겠다는 청소년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 상위계층은 93.4%에 달하는 반면 하위계층은 78.8%에 머물렀다.

표 3-2-36: 대학진학 의사 - 지역·계층별

(단위: %)

		반드시 진 학	가능하면 진 학	가능하면 취 업	반드시 취 업	미결정
지 역	서 울	46.0	37.8	5.6	2.6	8.0
	광역시	55.0	33.0	4.2	2.5	5.4
	시군부	44.0	39.0	6.1	2.4	8.6
계 층	상 위	66.2	27.2	1.6	.5	4.5
	중 간	49.7	36.9	5.2	1.9	6.4
	하 위	34.9	43.9	7.3	4.7	9.2

통계치: 지역 $\chi^2=43.20^{***}$, 계층 $\chi^2=203.89^{***}$

4) 학교생활 만족도

영역별 만족도

Q 구체적으로 학생생활의 다음과 같은 측면들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 또는 불만을 느끼십니까 ?

- | | |
|-------------------|-------------------|
| 1) 학교선생님과 자신과의 관계 | 2) 학교선생님의 수업 지도방식 |
| 3) 학교에서의 특별활동 | 4) 학교 수업시간의 양 |
| 5) 자신의 학교성적 | 6) 학교의 규칙·규율 |
| 7) 학교의 시설·설비 | |

<응답항목>

- | | |
|------------|------------|
| 1. 매우 불만이다 | 2. 불만이다 |
| 3. 만족한다 | 4. 매우 만족한다 |

대학생을 포함한 학생청소년을 대상으로 학교생활의 여러가지 측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 또는 불만을 느끼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모두 7가지의 항목을 제시하고 “매우 불만”에서 “매우 만족”에 이르는 단계별 4 점척도로 응답하게 하였다.

표 3-2-37: 학교생활 영역별 만족도 - 전체

(단위: %)

	매 우 불 만	불 만	만 족	매 우 만 족
학교선생님과 자신과의 관계	7.5	29.6	57.1	5.7
학교선생님의 수업 지도방식	10.0	39.8	44.5	5.7
학교에서의 특별활동	15.9	36.2	40.0	7.9
학교 수업시간의 양	12.6	33.2	49.8	4.4
자신의 학교성적	19.3	43.2	33.5	4.0
학교의 규칙·규율	18.8	36.8	39.8	4.7
학교의 시설·설비	20.4	37.1	35.3	7.2

응답결과(표 3-2-37)를 보면 “학교선생님과 자신과의 관계”에 대하여 62.8%가 “만족” 또는 “매우 만족”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가장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었고, 이어서 “학교 수업시간의 양”(54.2%)과 “학교선생님의 수업 지도방식”(50.2%)에 대하여 과반수를 상회하는 청소년들이 만족한다고 응답한 반면, “학교에서의 특별활동”(47.9%), “학교의 규칙·규율”(44.5%), “학교의 시설·설비”(42.5%)에 대해서는 불만을 느끼는 청소년이 더 많았고, “자신의 학교성적”에 만족하는 청소년은 37.5%에 불과하여 가장 낮은 만족도를 나타내었다.

청소년유형별 응답결과는 다음의 표와 같다(표 3-2-38).

초등학생의 경우 조사대상이 된 7가지 항목 모두에 걸쳐서 과반수 이상의 청소년이 만족(“매우 만족” 포함)한다고 응답하였는데, “학교선생님의 수업 지도방식”의 만족도가 가장 높고(80.1%), 다음으로 “학교선생님과 자신과의 관계”(78.2%), “자신의 학교성적”(76.5%)의 순이었으며 “학교의 규칙·규율”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58.7%).

표 3-2-38: 학교생활 영역별 만족도 - 유형별

(단위: %)

	초등생	중학생	고교생	대학생
학교선생님과 자신과의 관계	78.2	65.8	59.0	42.1
학교선생님의 수업 지도방식	68.0	52.9	43.8	63.8
학교에서의 특별활동	80.1	50.5	36.8	38.5
학교 수업시간의 양	70.5	46.8	32.6	56.0
자신의 학교성적	76.5	35.4	29.5	54.9
학교의 규칙·규율	58.7	41.4	36.4	35.8
학교의 시설·설비	62.5	30.5	27.8	40.0

중학생은 “학교선생님과 자신과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65.8%) “학교선생님의 수업 지도방식”(52.9%), “학교에서의 특별활동”(50.5%)에 대하여 만족한다는 응답이 과반수를 상회한 반면, “학교의 시설·설비”에 대하여 만족한다는 응답은 30.5%에 불과하여 가장 낮은 만족

도를 나타내었다.

고등학생은 “학교선생님과 자신과의 관계”(59.0%)에 대해서만 과반수 이상의 청소년이 만족한다고 응답했을 뿐 나머지 항목에서 대해서는 모두 5할 미만의 낮은 만족도를 나타냈는데 특히 “학교의 시설·설비”의 만족도(27.8%)가 가장 낮았다.

대학생은 “교수님의 강의 지도방식”(63.8%), “수업시간의 양”(56.0%), “자신의 학교성적”(54.9%)에 대하여 만족한다는 응답이 과반수를 상회하였고, “학교의 규칙·규율”(35.8%)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전체적인 만족도

Q 현재 자신의 학교생활을 전체적으로 평가한다면 얼마나 만족 또는 불만을 느끼십니까 ?

- | | |
|------------|------------|
| 1. 매우 불만이다 | 2. 불만이다 |
| 3. 만족한다 | 4. 매우 만족한다 |

다음으로 청소년들이 자신의 학교생활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매우 불만”에서 “매우 만족”에 이르는 단계별 4점척도를 제시하고 응답하게 하였다.

표 3-2-39: 학교생활 만족도 - 전체

(단위: 명, %)		
	사례수	비율
매우 불만이다	513	11.5
불만이다	1,723	38.6
만족한다	2,014	45.1
매우 만족한다	216	4.8

응답결과(표 3-2-39)를 보면, “만족한다”가 45.1%로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불만이다”(38.6%), “매우 불만이다”(11.5%)의 순이었고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은 4.8%에 불과했다.

전체적으로 만족한다는 응답(“매우 만족” 포함, 49.9%)과 불만이라는 응답(“매우 불만” 포함 50.1%)이 비슷한 분포를 나타내었다.

청소년유형별 응답결과(표 3-2-40)를 보면,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초등학생이 73.8%로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중학생(50.5%), 대학생(45.6%)의 순이며, 고등학생은 37.0%에 머물렀다. 고등학교때까지 교급이 올라갈수록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2-40: 학교생활 만족도 - 유형별

(단위: %)

	매우 불만	불 만	만 족	매우 만족
초 등 생	5.6	20.6	61.6	12.2
중 학 생	13.2	36.3	46.0	4.5
고 교 생	15.9	47.1	35.2	1.8
대 학 생	4.9	49.4	43.4	2.2

통계치: $\chi^2=444.63^{***}$

표 3-2-41: 학교생활 만족도 - 성·지역·계층별

(단위: %)

		매 우 불 만	불 만	만 족	매 우 만 족
성 별	남 자	12.1	36.6	45.5	5.8
	여 자	10.8	40.7	44.7	3.8
지 역	서 울	11.0	39.6	45.8	3.5
	광역시	12.7	39.2	43.8	4.2
	시군부	10.8	37.6	45.7	5.9
계 층	상 위	9.1	33.8	50.7	6.4
	중 간	13.1	39.3	42.9	4.6
	하 위	11.6	43.4	41.8	3.1

통계치: 성별 $\chi^2=15.51^{**}$, 지역 $\chi^2=14.11^*$, 계층 $\chi^2=43.24^{***}$

기타변인별 응답결과(표 3-2-41)를 보면, 성별로는 남자가 여자보다 만족한다(“매우 만족” 포함)는 응답률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각각 51.3%,

48.5%). 지역별로는 서울(49.3%)-광역시(48.0%) 지역에 비해 시군부지역 청소년의 만족한다는 응답률(51.6%)이 높은 편이었다. 계층별로는 상위계층 청소년의 57.1%가 만족한다고 응답한 반면, 중간계층은 47.5%, 하위계층은 44.9%에 머물러 생활수준이 높은 집단일수록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도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영역별 만족도와 전체적인 만족도의 관계

학교생활의 각 영역별 만족도와 전체적인 만족도가 어느 정도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단순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고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표 3-2-42).

그 결과 7가지의 영역별 변인은 모두 학교생활의 전체적인 만족도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그중에서 “학교선생님과 자신과의 관계”와 “학교선생님의 수업 지도방식”이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각각 0.43), 다음으로 “학교의 규칙·규율”(0.38), “학교 수업시간의 양”(0.33), “학교에서의 특별활동”(0.32), “학교의 시설·설비”(0.32)의 순이며, “자신의 학교성적”이 가장 낮은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0.26).

표 3-2-42: 학교생활 영역별 만족도와 전체 만족도의 상관관계

	학교생활 만족도
학교선생님과 자신과의 관계	0.43***
학교선생님의 수업 지도방식	0.43***
학교에서의 특별활동	0.32***
학교 수업시간의 양	0.33***
자신의 학교성적	0.26***
학교의 규칙·규율	0.38***
학교의 시설·설비	0.32***

학교생활의 각 하위영역별 만족도가 전체적인 만족도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주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7가지 하위영역을 독립변인으로, 전체적인

학교생활 만족도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7가지 하위영역 모두 전체적인 학교생활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표 3-2-43).

각 영역별 만족도가 전체적인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의 순위를 보면, “학교선생님과 자신과의 관계”가 가장 컸으며(0.22), 다음으로 “학교선생님의 수업 지도방식”(0.14), “학교의 규칙·규율”(0.13), “학교에서의 특별활동”(0.10), “학교의 시설·설비”(0.10)의 순이었으며 “학교 수업시간의 양”과 “자신의 학교성적”이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각각 0.06). 이들 7가지의 하위변인은 학교생활 만족도 전체변량의 32%를 설명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3-2-43: 학교생활 만족도 회귀분석 - 전체

	b	beta
학교선생님과 자신과의 관계	0.23	0.22***
학교선생님의 수업 지도방식	0.15	0.14***
학교에서의 특별활동	0.09	0.10***
학교 수업시간의 양	0.06	0.06***
자신의 학교성적	0.06	0.06***
학교의 규칙·규율	0.12	0.13***
학교의 시설·설비	0.09	0.10***

통계치: $R^2=0.32$

한편, 청소년의 교급별로 학교생활 하위영역별 만족도가 전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의 표(표 3-2-44)와 같다.

각 교급별로 학교생활의 전체적인 만족도에 상대적으로 높은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을 살펴보면,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학교의 시설·설비”(0.19), “학교선생님과 자신과의 관계”(0.16), “학교선생님의 수업 지도방식”(0.16)을 들 수 있으며, 중학생은 “학교선생님과 자신과의 관계”(0.22), “학교의

규칙·규율”(0.15), 고등학생은 “학교선생님과 자신과의 관계”(0.27), “학교 선생님의 수업지도 방식”(0.11), 대학생의 경우에는 “학교에서의 서클·동아리활동”(0.21), “학교 교수와 자신과의 관계”(0.19) 등을 들 수 있다. 대체로 모든 교급에서 공통적으로 교사(교수)와의 관계가 학교생활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초등학생은 학교의 시설·설비, 대학생은 서클·동아리활동의 비중이 매우 크다는 점이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표 3-2-44: 학교생활 만족도 회귀분석 - 교급별

	초등생	중학생	고교생	대학생
	beta	beta	beta	beta
학교선생님과 자신과의 관계	0.16***	0.22***	0.27***	0.19***
학교선생님의 수업 지도방식	0.16***	0.11***	0.16***	0.05
학교에서의 특별활동	0.12***	0.03	0.07**	0.21***
학교 수업시간의 양	0.09**	0.06*	0.06**	0.03
자신의 학교성적	0.03**	0.05*	0.03	0.15***
학교의 규칙·규율	0.07*	0.15***	0.09***	0.11**
학교의 시설·설비	0.19***	0.12***	0.09***	-0.01

통계치: 초 $R^2=0.32$, 중 $R^2=0.27$, 고 $R^2=0.27$, 대 $R^2=0.20$

학교생활 전망

Q 앞으로의 1년 뒤의 당신의 학교생활을 전망한다면 어떻게 되리라고 생각합니까 ?

1. 지금보다 훨씬 나빠질 것이다
2. 지금보다 나빠질 것이다
3. 지금과 다름없을 것이다
4. 지금보다 좋아질 것이다
5. 지금보다 훨씬 좋아질 것이다

자신의 학교생활이 앞으로 어떻게 되리라고 예상하는지 단계별 5점 척

도를 제시하고 응답하게 하였다. 응답결과(표 3-2-45)를 보면 “지금과 다름없을 것이다”가 27.4%로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지금보다 좋아질 것이다”(44.6%), “지금보다 훨씬 좋아질 것이다”(11.6%), “지금보다 나빠질 것이다”(9.9%)의 순이었고, “지금보다 훨씬 나빠질 것이다”는 6.5%의 가장 낮은 응답률을 나타내었다.

전체적으로 앞으로의 학교생활에 대하여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청소년이 56.2%로서 비관적으로 전망하는 청소년(16.4%)의 3배 이상에 달하였다.

표 3-2-45: 학교생활 전망 - 전체

(단위: %)

	사례수	비율
훨씬 나빠질 것	289	6.5
나빠질 것	442	9.9
다름 없을 것	1,225	27.4
좋아질 것	1,989	44.6
훨씬 좋아질 것	518	11.6

표 3-2-46: 학교생활 전망 - 유형별

(단위: %)

	훨씬 나빠짐	나빠짐	변화 없음	좋아짐	훨씬 좋아짐
초 등 생	4.8	5.9	19.2	52.9	17.2
중 학 생	7.7	11.8	27.2	42.2	11.0
고 교 생	7.7	12.3	32.3	38.8	8.9
대 학 생	2.9	5.3	27.9	52.4	11.5

통계치: $\chi^2=173.90^{***}$

청소년유형별 응답결과(표 3-2-46)를 보면, 자신의 학교생활을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청소년의 비율이 초등학생이 70.1%로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대학생(63.9%), 중학생(53.2%)의 순이며 고등학생이 47.7%로서 가장 낮았다. 고등학생 집단은 현재의 학교생활에 대해서 가장 낮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학교생활 전망에 대해서도 가장 비관적인 견해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타변인별 응답결과(표 3-2-47)를 보면, 먼저 성별로는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응답비율에서 여자(58.3%)가 남자(54.2%)보다 다소 높은 편이었다. 지역별로는 시군부지역 청소년이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응답비율(58.5%)이 광역시(54.7%)·서울(53.8%) 지역에 비해 높은 편이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계층별로는 상위계층 청소년의 60.8%가 낙관적으로 전망하여 중간(54.9%)·하위계층(54.1%)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47: 학교생활 전망 - 성·계층별

(단위: %)

		훨씬 나빠짐	나빠짐	변화 없음	좋아짐	훨씬 좋아짐
성 별	남 자	7.7	12.0	26.1	43.1	11.1
	여 자	5.1	7.5	29.0	46.2	12.1
계 층	상 위	5.6	8.3	25.4	45.5	15.3
	중 간	7.3	10.6	27.3	43.6	11.3
	하 위	5.9	11.2	28.8	45.6	8.5

통계치: 성별 $\chi^2=41.27^{***}$, 계층 $\chi^2=31.79^{***}$

3. 직장생활

직장생활은 직업·노동관, 직장생활 일반, 직장내 인간관계, 직장생활 만족도의 4개 하위영역으로 나누어서 조사하였다. 직업·노동관은 전체 청소년 모두에게 질문하였고, 직장생활의 세부내용과 관련된 나머지 하위영역은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는 취업청소년만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직업·노동관에서는 노동·여가, 직업과 관련된 청소년들의 생각을 조사하였고, 직장생활 일반에서는 취업청소년들의 근무기간, 근무시간, 업무량 등 일반적인 특성을, 직장내 인간관계에서는 직장동료·직장상사와의 관계를 다양한 측면에서 파악하고자 하였다. 직장생활 만족도에서는 직장생활의 하위영역별 만족도와 전체적인 만족도, 취업청소년들이 생각하는 앞으로의 직장생활 전망 등을 조사하였다.

1) 직업·노동관

일하는 목적

Q 사람들이 일을 하는 주된 목적은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돈을 벌기 위해
2.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3. 자기자신의 발전을 위해

사람들이 일을 하는 주된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질문하였다. 응답결과(표 3-3-1)를 보면 “돈을 벌기 위해”가 65.3%로서 다수를 차지하였고 그 다음이 “자기자신의 발전을 위해”(23.0%)였으며, “사회적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라는 응답이 11.7%로서 가장 낮았다.

표 3-3- 1: 일을 하는 목적 - 전체

(단위: 명, %)

	사례수	비율
돈을 벌기 위해	3404	65.3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611	11.7
자기자신의 발전을 위해	1199	23.0

청소년유형별 응답결과는 다음의 표와 같다. “돈을 벌기 위해”라는 응답은 고등학생,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와 “자기자신의 발전을 위해”라는 응답은 초등학생과 대학생이 각각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었다.

표 3-3- 2: 일을 하는 목적 - 유형별

(단위: %)

	돈 벌기위해	사회역할 위해	자기발전 위해
초 등 생	52.5	18.8	28.8
중 학 생	66.7	12.2	21.2
고 교 생	74.7	5.7	19.6
대 학 생	57.8	15.9	26.3
취 업	66.1	10.5	23.4
무 직	63.3	12.7	24.1

통계치 $\chi^2=175.11^{***}$

기타변인별 응답결과(표 3-3-3)를 보면, 먼저 성별로는 남자는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여자는 “돈을 벌기 위해”와 “자기자신의 발전을 위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었다. 지역별로는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의 응답률에서 서울보다는 광역시-시군부 지역이 높은 점이 두드러졌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계층별로는 상위계층이 중간-하위계층에 비해 “돈을 벌기 위해”의 응답률이 가장 낮은 반면, “자기자신의 발전을 위해”의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3-3- 3: 일을 하는 목적 - 성·계층별

(단위: %)

		돈 벌기위해	사회역할 위해	자기발전 위해
성 별	남 자	64.4	14.3	21.2
	여 자	66.2	8.9	24.9
계 층	상 위	59.5	12.8	27.7
	중 간	66.8	12.0	21.2
	하 위	69.0	8.9	22.1

통계치: 성별 $\chi^2=40.30^{***}$, 계층 $\chi^2=32.18^{***}$

근로관

Q 일을 않고도 편히 살만한 돈이 있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1. 일하지 않고도 편히 살만한 돈이 있다면, 나는 일하지는 않을 것이다
2. 일하지 않고도 편히 살만한 돈이 있어도, 나는 계속 일을 할 것이다

일을 하지 않고도 편히 살만한 돈이 있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질문하였다. 응답결과를 보면 계속 일을 하겠다는 청소년이 68.3%로서 일을 하지 않겠다는 청소년(35.8%)의 비율을 월등하게 앞서고 있었다.

표 3-3- 4: 근로관 (“충분한 돈이 있다면”)

(단위: 명, %)

	사례수	비 율
일하지 않겠다	1,648	31.7
계속 일하겠다	3,547	68.3

청소년유형별 응답결과(표 3-3-5)를 보면 계속 일을 하겠다는 청소년의 비율이 초등학생이 84.9%로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대학생(71.8%), 중학생(67.4%), 무직청소년(64.1%), 고등학생(61.0%)의 순이었고, 현재 직장 에서 일하고 있는 취업청소년이 59.6%로서 가장 적은 점이 주목된다.

표 3-3- 5: 근로관 (“충분한 돈이 있다면”) - 유형별

(단위: %)

	일하지 않겠다	계속 일하겠다
초 등 생	15.1	84.9
중 학 생	32.6	67.4
고 교 생	39.0	61.0
대 학 생	28.2	71.8
취 업	40.4	59.6
무 직	35.9	64.1

통계치 $\chi^2=178.04^{***}$

기타변인별 응답결과를 보면, 계속 일을 하겠다는 응답률이 성별로는 남자(64.8%)보다는 여자(72.0%), 지역별로는 서울(64.2%)보다는 광역시(69.1%)-시군부(69.6%) 지역 청소년, 계층별로는 중간(66.8%)-하위계층(67.0%)보다는 상위계층(71.5%) 청소년들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 6: 근로관 - 성 · 지역 · 계층별

(단위: %)

		일하지 않겠다	계속 일하겠다
성 별	남 자	35.2	64.8
	여 자	28.0	72.0
지 역	서 울	35.8	64.2
	광역시	30.9	69.1
	시군부	30.4	69.6
계 층	상 위	28.5	71.5
	중 간	33.2	66.8
	하 위	33.0	67.0

통계치: 성별 $\chi^2=31.47^{***}$, 지역 $\chi^2=11.13^{**}$, 계층 $\chi^2=7.88^*$

일과 여가

Q 일과 여가생활에 관한 당신의 생각은 다음 중 어느쪽과 더 가깝습니까 ?

1. 일에 다소 지장이 있더라도 여가생활을 즐겨야 한다
2. 여가생활을 다소 희생하더라도 일을 열심히 해야 한다

일과 여가의 관계에 대해서 청소년들이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여가생활과 일 중에서 어느쪽을 더 중시할 것인지를 질문하였다. 응답결과를 보면 일에 지장이 있더라도 여가생활을 즐겨야 한다”는 응답이 61.1%로서 여가생활을 희생하더라도 일을 열심히 해야 한다는 응답률 (38.9%)를 현격하게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 7: 일과 여가 - 전체

(단위: 명, %)

	사례수	비 율
일에 다소 지장이 있더라도 여가생활을 즐겨야 한다	3,174	61.1
여가생활을 다소 희생하더라도 일을 열심히 해야 한다	2,019	38.9

청소년유형별 응답결과를 보면, 여가생활을 더 중시하는 청소년의 비율이 취업청소년이 67.6%로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대학생(66.4%), 무직 청소년(65.8%), 고등학생(65.7%), 중학생(58.9%)의 순이었고 초등학생이 48.7%로서 가장 낮았다. 대체로 연소청소년보다는 연장청소년들이 여가생활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3- 8: 일과 여가 - 유형별

(단위: %)

	여가생활이 더 중요	일이 더 중요
초 등 생	48.7	51.3
중 학 생	58.9	41.1
고 교 생	65.7	34.3
대 학 생	66.4	33.6
취 업	67.6	32.4
무 직	65.8	34.2

통계치: $\chi^2=94.02^{***}$

기타변인별 응답결과를 보면, 여가생활을 중시하는 응답비율이 성별로는 여자(60.1%)보다는 남자(62.0%), 지역별로는 광역시(61.4%)-시군부(60.1%)보다는 서울지역(62.8%), 계층별로는 상위계층(58.7%)보다는 중간(62.3%)-하위계층(61.9%)이 더 높은 편이었으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표 3-3- 9: 일과 여가 - 계층별

(단위: %)

	여가생활이 더 중요	일이 더 중요
상 위	58.7	41.3
중 간	62.3	37.7
하 위	61.9	38.1

통계치: $\chi^2=3.98$

직장선택 기준

Q 다음 두가지 직장 중에서 당신이라면 어떤 직장을 선택하시겠습니까 ?

1. 일은 고되고 바쁘나, 권한과 책임을 위임해 주는 직장
2. 책임과 권한은 없으나, 일이 힘들지 않고 바쁘지 않은 직장

권한과 책임을 위임해 주는 직장과 일이 쉽고 바쁘지 않은 직장 중에서 어느쪽을 선택할 것인가를 질문하였다. 응답결과를 보면 일이 힘들더라도 권한과 책임을 위임해 주는 직장이라고 응답한 청소년이 66.6%로서 책임과 권한이 없더라도 일이 힘들지 않고 바쁘지 않은 직장을 선택한 청소년(33.4%)의 약 2배에 달하였다.

표 3-3-10: 직장선택 기준 - 전체

(단위: 명, %)

	사례수	비율
일은 고되고 바쁘나, 권한과 책임을 위임해 주는 직장	3,455	66.6
책임과 권한은 없으나, 일이 힘들지 않고 바쁘지 않은 직장	1,731	33.4

청소년유형별 응답결과를 보면,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권한과 책임을 위임해 주는 직장을 선택한 응답률이 7할에 달하는 반면, 고등학생과 대학생·취업청소년은 6할 수준이었고, 무직청소년이 6할 미만으로서 가장 적었다. 대체로 초·중학생에 비해 고등학생과 연장청소년 집단에서 일이 힘들지 않고 바쁘지 않은 직장의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표 3-3-11: 직장선택 기준 - 유형별

(단위: %)

	권한 위임 직장	쉽고 안바쁜 직장
초 등 생	73.4	26.6
중 학 생	70.2	29.8
고 교 생	63.4	36.6
대 학 생	63.7	36.3
취 업	63.8	36.2
무 직	58.5	41.5

통계치: $\chi^2=49.17^{***}$

기타변인별 응답결과를 보면 여자가 남자보다 권한과 책임을 위임해 주는 직장의 선호도가 높은 편이었다. 지역·계층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표 3-3-12: 직장선택 기준 - 성별

(단위: %)

	권한 위임 직장	쉽고 안바쁜 직장
남 자	63.1	36.9
여 자	70.3	29.7

통계치: 성별 $\chi^2=30.87^{***}$

희망 직업

Q 당신은 앞으로 어떤 직업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 또한 부모님은 당신이 어떤 직업을 갖기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 다음의 <보기>에 제시된 직업 중에서 자신이 원하는 직업과 부모님이 기대하시는 직업을 선택하여 주십시오.(<보기>에 해당되는 직업이 없으면 가장 가까운 직업 선택)

- 1) 자신이 원하는 직업
- 2) 부모님이 기대하시는 직업

< 보 기 >

1. 법조인(판사, 검사, 변호사 등)
2. 고위 공직자(대통령, 장·차관 등)
3. 일반 공무원
4. 군인·경찰관
5. 정치인(국회의원, 정당활동 등)
6. 의사·약사
7. 간호사
8. 사회복지관계자(사회단체, 복지단체 등)
9. 언론인(기자, 아나운서, PD 등)
10. 직업 운동선수(야구, 축구 등)
11. 예술가(음악가, 화가, 사진작가, 소설가 등)
12. 연예인(배우, 가수, 개그맨, 모델, 댄서 등)
13. 전문기술자(파일러트, 엔지니어, 건축사 등)
14. 컴퓨터 전문직(프로그래머, 게이머 등)
15. 학자(대학교수, 연구원, 과학자 등)
16. 교사(초·중·고등학교)
17. 회사경영자
18. 회사원
19. 자영업(상점, 슈퍼마켓, 음식점 경영 등)
20. 가정주부
21. 농업·어업·임업 등
22. 잘 모르겠다

대학생을 포함한 학생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모두 21가지의 직업유형을 제시하고 자신이 희망하는 직업과 부모님이 자신에게 원하는 직업을 하나씩 선택하도록 하였다.

응답결과(표 3-3-13)를 보면, 청소년의 경우 교사를 희망하는 청소년이 가장 많았고(10.2%), 다음으로 예술가(9.4%), 컴퓨터 전문직(9.2%), 연예인(8.5%) 등의 순서였다. 부모님이 자신에게 희망하는 직업의 순위로는 역시 교사가 1위였고(15.5%), 다음으로 법조인(10.9%), 의사·약사(10.2%), 일반공무원(8.9%), 학자(7.3%) 등의 순서였다. 응답률 상위 10위권내의 직업을 비교해 보면, 청소년의 경우 연예인(4위)과 언론인(9위)이 포함되어 있으나 부모님이 희망하는 직업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반면에 부모님의 희망직업에 포함된 일반공무원(4위)과 고위공직자(10위)는 청소년의 경우 10위권 밖이었다. 정치인과 농림어업은 청소년, 부모 공통적으로 가장 낮은 응답률을 나타내었다.

표 3-3-13: 희망 직업

(단위: %)

	자신이 원하는 직업		부모님의 희망	
	직업	비율	직업	비율
1	교사	10.2	교사	15.5
2	예술가	9.4	법조인	10.9
3	컴퓨터전문직	9.2	의사·약사	10.2
4	연예인	8.5	일반공무원	8.9
5	전문기술자	7.8	학자	7.3
6	학자	7.5	예술가	4.4
7	의사·약사	5.0	전문기술자	4.4
8	법조인	4.9	군인경찰관	3.9
9	언론인	4.2	컴퓨터전문직	3.6
10	군인·경찰관	3.7	고위공직자	3.1

비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표에서 제외

청소년유형별 희망직업의 응답순위를 비교해 보면, 초·중학생은 연예

인의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나 낮은 연령의 청소년일수록 대중예술에 대한 강한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교사와 컴퓨터 전문직은 모든 집단에서 모두 5순위 이내의 응답률을 나타내어 청소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종임이 확인되었다.

2) 직장생활 일반

근무 기간

Q 현재의 직장(또는 직업)에서 근무하신지 얼마나 됩니까 ?

----- 약 ()년 ()개월

취업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현재의 직장(직업)에 근무한 기간을 조사하였다. 응답결과를 개월 단위로 환산하여 평균값을 산출한 결과 10.9개월로서 1년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조사대상 청소년의 연령층을 만 20세까지로 제한하였고 대부분의 취업청소년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만 18~19세 무렵부터 취업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3-3-14: 근무기간

(단위: 개월)

	평 균	표준편차
전 체	10.9	10.53
사무·행정직	14.1	13.41
영업·판매직	8.9	7.06
서비스직	9.5	9.32
생산·기능직	9.8	8.97

통계치: F=5.45**

취업청소년의 직종별 평균 근무기간을 보면 사무·행정직이 14.1개월

로서 가장 길고 다음으로 생산·기능직과 서비스직이 9개월 이상이며, 영업·판매직이 8.9개월로 가장 짧았다.

성·지역별 취업청소년의 근무기간을 비교해 보면, 여자가 11.8개월로써 남자(9.1개월)보다 약 2개월 이상 길고, 서울(12.1개월)-광역시(12.3개월) 지역이 1년 이상임에 비해 시군부 지역은 9.0개월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15: 근무기간 - 성·지역별

(단위: 개월)

		평 균	표준편차
성 별	남 자	9.1	7.22
	여 자	11.8	11.81
지 역	서 울	12.1	10.62
	광역시	12.3	12.80
	시군부	9.0	7.87

통계치: 성별 F=5.71*, 지역 F=4.33*

평일 근무 시간

취업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평일날(토요일 제외) 근무시간을 조사하였다. 응답결과를 분 단위로 환산하여 평균값을 산출한 결과 약 548분(9시간 8분)으로 나타났다.

표 3-3-16: 평일 근무시간 - 직종별

(단위: 분)

	평 균	표준편차
전 체	548	116.02
사무·행정직	550	91.50
영업·판매직	576	131.73
서 비 스 직	521	132.77
생산·기능직	558	94.00

통계치: 직종 F=3.43*

직종별로는 영업·판매직이 576분으로 가장 길고, 다음으로 생산·기능직(558분), 사무·행정직(550분)의 순이며 서비스직이 521분으로 가장 짧았다.

성·지역별로 취업청소년의 평일날 근무시간을 비교해 보면, 여자(556분)가 남자(533분)보다, 서울(566분)이 광역시(548분), 시군부(539분)보다 긴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표 3-3-17: 평일 근무시간 - 성·지역별

(단위: 분)

		평 균	표준편차
성 별	남 자	533	121.82
	여 자	556	112.55
지 역	서 울	566	118.98
	광역시	548	97.96
	시군부	539	126.89

통계치: 성별 F=3.14, 지역 F=1.46

업무의 양

Q 현재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업무의 양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 | | |
|--------------|--------------|
| 1. 매우 적은 편이다 | 2. 적은 편이다 |
| 3. 많은 편이다 | 4. 매우 많은 편이다 |

취업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현재 자신이 하고 있는 업무의 양이 어느 정도인지 단계별 4점척도를 제시하고 평가하게 하였다.

응답결과(표 3-3-18)를 보면 “많은 편이다”가 52.8%로서 1/2을 상회하였고 다음으로 “적은 편이다”(34.4%), “매우 많은 편이다”(11.2%)의 순이었으며 “매우 적은 편”이라는 응답은 극소수(1.6%)에 불과하였다.

전체적으로 많은 편(“매우 많은 편” 포함)이라는 응답이 64.0%로서 적은 편(“매우 적은 편” 포함)이라는 응답보다 월등하게 많았다.

표 3-3-18: 자기 업무의 양 - 전체

(단위: 명, %)

	사례수	비 율
매우 적다	6	1.6
적은 편이다	129	34.4
많은 편이다	198	52.8
매우 많다	42	11.2

취업청소년의 직종별 응답결과를 비교해 보면, 자신의 일의 양이 많은 편이라는 생각하는 청소년의 비율이 생산·기능직이 80.6%에 달하여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사무·행정직(65.2%)과 영업·판매직(60.5%)이 6할 수준이었고 서비스직이 57.1%로서 가장 낮았다.

표 3-3-19: 자기 업무의 양 - 직종별

(단위: %)

	매 우 적 다	적은 편	많은 편	매 우 많 다
사무·행정직	0.9	33.9	56.3	8.9
영업·판매직	-	39.5	50.6	9.9
서 비 스 직	3.1	39.8	46.9	10.2
생산·기능직	1.6	17.7	62.9	17.7

통계치: $\chi^2=14.99$

표 3-3-20: 자기 업무의 양 - 성·지역별

(단위: %)

		매 우 적 다	적은 편	많은 편	매 우 많 다
성 별	남 자	3.1	36.9	48.5	11.5
	여 자	0.8	33.2	54.9	11.1
지 역	서 울	0.0	33.7	51.8	14.5
	광역시	2.3	28.5	53.8	15.4
	시군부	1.9	39.5	52.5	6.2

통계치: 성별 $\chi^2=3.72$, 지역 $\chi^2=10.89$

성·지역별 응답결과(표 3-3-20)를 비교해 보면, 많은 편이라는 응답이 성별로는 여자가 남자보다, 지역별로는 시군부보다 서울-광역시지역이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전직의사

Q 당신은 앞으로도 계속 현재의 직장에서 일하기를 원하십니까 ?

1. 반드시 다른 직장으로 옮기고 싶다
2. 가능하면 다른 직장으로 옮기고 싶다
3. 오랜 동안 현재의 직장에서 일하고 싶다
4. 현재의 직장에서 평생 근무하고 싶다

취업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여 전직의사가 있는지의 여부를 질문하였다. 응답결과를 보면 “가능하면 다른 직장으로 옮기고 싶다”가 50.4%로서 가장 다수였고, 다음으로 “오랜 동안 현재의 직장에서 일하고 싶다”(25.2%)와 “반드시 다른 직장으로 옮기고 싶다”(22.8%)는 응답이 비슷한 분포를 나타내었고, “현재의 직장에서 평생 근무하고 싶다”는 청소년은 극소수(1.6%)에 불과했다.

전체적으로 7할 이상의 취업청소년이 전직의사를 갖고 있는 반면, 현재 직장에서 근속하기를 희망하는 청소년은 3할 미만에 머물렀다.

표 3-3-21: 전직의사 - 전체

(단위: 명, %)

	사례수	비율
반드시 다른 직장으로 옮기고 싶다	84	22.8
가능하면 다른 직장으로 옮기고 싶다	186	50.4
오랜 동안 현재의 직장에서 일하고 싶다	93	25.2
현재의 직장에서 평생 근무하고 싶다	6	1.6

취업청소년의 직종별 응답결과(표 3-3-22)를 비교해 보면, 전직을 희망하는 청소년의 비율이 생산·기능직이 77.7%에 달하여 가장 높았으며, 서

비스직(73.2%)과 사무·행정직(72.3%)이 비슷한 수준이었고, 영업·판매직이 가장 낮은 편에 속하였다(68.8%).

표 3-3-22: 전직의사 - 직종별

(단위: %)

	반드시 전 직	가능하면 전 직	오랫동안 현 직 장	평 생 현직장
사무·행정직	20.5	51.8	25.0	2.7
영업·판매직	20.0	48.8	30.0	1.3
서비스직	18.6	54.6	24.7	2.1
생산·기능직	31.7	46.0	22.2	0.0

통계치: $\chi^2=6.96$

3) 직장내 인간관계

직장동료와의 경쟁

Q 당신은 평소 직장동료들에 대해서 경쟁의식을 느끼고 있습니까 ?

- | | |
|-----------------|-----------------|
| 1. 거의 느끼지 않고 있다 | 2. 별로 느끼지 않고 있다 |
| 3. 약간 느끼고 있다 | 4. 많이 느끼고 있다 |

취업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평소에 직장동료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경쟁의식을 느끼고 있는지 단계별 4점척도로 응답하게 하였다.

응답결과(표 3-3-23)를 보면 “별로 느끼지 않고 있다”가 46.5%로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약간 느끼고 있다”(26.7%), “거의 느끼지 않고 있다”(21.9%)의 순이며 “많이 느끼고 있다”가 4.8%로서 가장 적었다.

전체적으로 직장동료에 대하여 약간 또는 많이 경쟁의식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전체의 약 3할(31.5%)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23: 직장동료와의 경쟁의식 - 전체

(단위: 명, %)

	사례수	비율
거의 느끼지 않고 있다	82	21.9
별로 느끼지 않고 있다	174	46.5
약간 느끼고 있다	100	26.7
많이 느끼고 있다	18	4.8

취업청소년의 직종별 응답결과를 보면 직장동료에 대해서 경쟁의식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의 비율이 사무·행정직이 35.7%로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영업·판매직(32.1%), 생산·기능직(31.8%)의 순이며 서비스직이 27.9%로서 가장 적었다.

표 3-3-24: 직장동료와의 경쟁의식 - 직종별

(단위: %)

	거 의 안느낌	별 로 안느낌	약 간 느 낌	많 이 느 낌
사무·행정직	19.6	44.6	32.1	3.6
영업·판매직	16.0	51.9	24.7	7.4
서 비 스 직	21.6	50.5	22.7	5.2
생산·기능직	28.6	39.7	27.0	4.8

통계치: $\chi^2=4.12$

표 3-3-25: 직장동료와의 경쟁의식 - 성·지역별

(단위: %)

		거 의 안느낌	별 로 안느낌	약 간 느 낌	많 이 느 낌
성 별	남 자	23.4	49.2	22.7	4.7
	여 자	21.2	44.9	29.0	4.9
지 역	서 울	20.2	47.6	26.2	6.0
	광역시	23.1	44.6	26.9	5.4
	시군부	21.9	47.5	26.9	3.8

통계치: 성별 $\chi^2=1.78$, 지역 $\chi^2=1.04$, 계층 $\chi^2=7.60$

성·지역별 응답결과(표 3-3-25)를 비교해 보면, 경쟁의식을 느끼고 있다는 응답비율이 여자(33.9%)가 남자(27.4%)보다, 시군부(30.7%)보다는 서울(32.2%)·광역시(32.2%)지역이 높은 편이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직장상사와의 대화빈도

Q 당신은 일·업무관계 이외에 직장상사와 어느 정도 자주 대화를 나누십니까?	
1. 거의 대화하지 않는다	2. 별로 대화하지 않는다
3. 가끔 대화한다	4. 자주 대화한다

취업청소년을 대상으로 평소에 직장상사와 사적으로 어느 정도 대화를 나누는지 단계별 4점척도로 응답하게 하였다.

응답결과를 보면 “가끔 대화한다”가 35.2%로서 가장 다수였고 다음으로 “별로 대화하지 않는다”(32.8%), “자주 대화한다”(23.5%)의 순이었고 “거의 대화하지 않는다”가 8.5%로서 가장 소수였다.

전체적으로 직장상사와 대화를 하고 있다(“가끔”+ “자주”)는 청소년이 58.7%로서 전체의 과반수를 상회하였고 대화하지 않는다(“별로”+ “거의”)는 응답은 약 4할 남짓(41.3%)한 수준이었다.

표 3-3-26: 직장상사와의 대화 - 전체

(단위: 명, %)		
	사례수	비율
거의 대화하지 않는다	32	8.5
별로 대화하지 않는다	123	32.8
가끔 대화한다	132	35.2
자주 대화한다	88	23.5

취업청소년의 직종별 응답결과(표 3-3-27)를 비교해 보면, 직장상사와 대화한다는 응답률이 영업·판매직이 69.1%로서 가장 높고, 서비스직

(66.0%)과 사무·행정직(55.7%)이 과반수를 상회하는 반면, 생산·기능직은 4할 미만(36.5%)에 머물렀다. 이것은 다른 직종에 비해 생산기능직이 상대적으로 대규모 사업장에 소속되어 상사와의 접촉기회가 제한적이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표 3-3-27: 직장상사와의 대화 - 직종별

(단위: %)

	거 의 대화안함	별 로 대화안함	가 끄 대화한다	자 주 대화한다
사무·행정직	8.8	35.4	39.8	15.9
영업·판매직	1.2	29.6	35.8	33.3
서비스 직	6.2	27.8	35.1	30.9
생산·기능직	20.6	42.9	27.0	9.5

통계치: $\chi^2=35.50^{***}$

성·지역별 응답결과를 보면, 먼저 성별로는 남자보다는 여자가 상대적으로 직장상사와 대화한다는 응답률이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지역별로는 직장상사와 대화한다는 청소년의 비율이 서울(70.3%)·시군부(64.8%)가 6할을 상회하는 반면 광역시지역은 43.4%로서 절반에도 못미쳤다.

표 3-3-28: 직장상사와의 대화 - 성·지역별

(단위: %)

		거 의 대화안함	별 로 대화안함	가 끄 대화한다	자 주 대화한다
성 별	남 자	8.5	34.1	31.0	26.4
	여 자	8.6	31.8	37.6	22.0
지 역	서 울	6.0	23.8	42.9	27.4
	광역시	14.7	41.9	30.2	13.2
	시군부	4.9	30.2	35.2	29.6

통계치: 성별 $\chi^2=1.82$, 지역 $\chi^2=25.82^{***}$

직장상사의 이해도

Q 당신의 직장상사는 부하직원들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 1. 거의 이해하지 못한다 | 2. 별로 이해하지 못한다 |
| 3. 약간 이해하고 있다 | 4. 많이 이해하고 있다 |

취업청소년을 대상으로 직장상사가 부하직원들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단계별 4점척도를 제시하고 응답하게 하였다. 응답결과를 보면 “약간 이해하고 있다”가 40.2%로서 가장 다수였고, 다음으로 “별로 이해하지 못한다”(34.0%), “많이 이해하고 있다”(15.0%)의 순이며, “거의 이해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10.7%로서 가장 소수였다.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있다(“약간”+ “많이”)는 응답이 55.2%로서 이해하지 못한다(“거의”+ “별로”)는 응답(44.7%)보다 1할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29: 직장상사의 이해도 - 전체

(단위: 명, %)

	사례수	비율
거의 이해하지 못한다	40	10.7
별로 이해하지 못한다	127	34.0
약간 이해하고 있다	150	40.2
많이 이해하고 있다	56	15.0

취업청소년의 직종별 응답결과(표 3-3-30)를 비교하면 직장상사가 부하직원들을 이해하고 있다는 응답률에서 서비스직이 62.5%로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영업·판매직(59.3%), 사무·행정직(55.3%)이 과반수를 상회하는 반면, 생산·기능직은 과반수에 못미쳤다(44.4%).

성·지역별 응답결과(표 3-3-31)를 보면, 성별로는 여자가 남자보다 이해하고 있다는 응답률이 다소 높은 편이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지역별로는 광역시에 비해 서울-시군부 지역에서 이해하고

있다는 응답률이 월등히 높은 편이었다.

표 3-3-30: 직장상사의 이해도 - 직종별

(단위: %)

	거 의 이해못함	별 로 이해못함	약 간 이해한다	많 이 이해한다
사무·행정직	7.1	37.5	46.4	8.9
영업·판매직	8.6	32.1	35.8	23.5
서 비 스 직	9.4	28.1	41.7	20.8
생산·기능직	19.0	36.5	38.1	6.3

통계치: $\chi^2=21.03^*$

표 3-3-31: 직장상사의 이해도 - 성·지역별

(단위: %)

		거 의 이해못함	별 로 이해못함	약 간 이해한다	많 이 이해한다
성 별	남 자	12.5	36.7	35.2	15.6
	여 자	9.8	32.8	43.0	14.3
지 역	서 울	14.3	21.4	52.4	11.9
	광역시	12.4	44.2	30.2	13.2
	시군부	7.5	32.5	41.9	18.1

통계치: 성별 $\chi^2=2.31$, 지역 $\chi^2=19.07^{**}$

직장상사와의 대립경험

Q 지난 1년동안 직장상사와 크게 의견이 대립되어 반항을 하거나 충돌한 적이 있습니까 ?

1. 있 다

2. 없 다

취업청소년을 대상으로 현재의 직장에서 지난 1년 동안 상사와 대립한 경험이 있는가를 질문하였다. 응답결과(표 3-3-32)를 보면 “없다”는 응답이 71.7%로서 다수였고, “있다”는 응답은 3할에 조금 못미쳤다(28.3%).

표 3-3-32: 직장상사와의 대립경험 - 전체

(단위: 명, %)

	사례수	비율
있 다	105	28.3
없 다	266	71.7

취업청소년의 직종별 응답결과를 보면 상사와의 대립경험이 있다는 응답률이 서비스직(32.0%)과 생산·기능직(31.7%)이 3할을 상회하였고, 사무·행정직이 24.5%로서 가장 적었다.

표 3-3-33: 직장상사와의 대립경험 - 직종별

(단위: %)

	있 다	없 다
사무·행정직	24.5	75.5
영업·판매직	27.2	72.8
서비스직	32.0	68.0
생산·기능직	31.7	68.3

통계치: $\chi^2=1.81$

성·지역별 응답결과를 보면, 직장상사와의 대립경험이 있다는 응답비율이 남자(37.0%)가 여자(23.9%)보다 높았으며, 지역별로는 서울(31.0%)이 시군부(27.8%)·광역시(27.1%)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34: 직장상사와의 대립경험 - 성·지역별

(단위: %)

		있 다	없 다
성 별	남 자	37.0	63.0
	여 자	23.9	76.1
지 역	서 울	31.0	69.0
	광역시	27.1	72.9
	시군부	27.8	72.2

통계치: 성별 $\chi^2=7.08^{**}$, 지역 $\chi^2=0.39$

바람직한 직장상사

Q 다음 중 어떤 직장상사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일·업무 처리 능력이 뛰어난 사람
2. 부하직원들을 잘 이해해 주는 사람

Q 다음 중 어떤 직장상사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부하직원들에게 엄격하게 대하는 사람
2. 부하직원들과 친구처럼 지내려고 하는 사람

청소년들이 어떤 유형의 직장상사를 선호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취업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두가지 유형의 대조적인 직장상사형을 제시하고 응답하게 하였다.

먼저 “업무처리 능력이 뛰어난 사람”-”부하직원을 잘 이해하는 사람” 중에서는 부하직원들을 잘 이해해 주는 사람을 선택한 비율이 70.6%로서 다수였고, 업무처리 능력이 뛰어난 상사를 선호하는 청소년은 29.4%에 머물렀다.

표 3-3-35: 바람직한 직장상사(능력-이해) - 전체

(단위: 명, %)

	사례수	비율
일·업무 처리 능력이 뛰어난 사람	110	29.4
부하직원들을 잘 이해해 주는 사람	264	70.6

표 3-3-36: 바람직한 직장상사(능력-이해) - 직종별

(단위: %)

	업무처리 능력	부하직원 이해
사무·행정직	34.5	65.5
영업·판매직	25.0	75.0
서비스직	25.8	74.2
생산·기능직	28.6	71.4

통계치: $\chi^2=2.79$

취업청소년의 직종별로는 “업무처리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선택한 비율이 영업·판매직(25.0%), 서비스직(25.8%), 생산·기능직(28.6%)이 모두 1/4 수준에 머물렀으나 사무·행정직은 34.5%에 달하였다(표 3-3-36).

한편 “엄격형”- “친구형” 중에서는 친구형의 상사를 선호하는 청소년이 87.4%로서 다수였고 엄격한 상사를 선택한 청소년은 1할 남짓한 수준이었다.

표 3-3-37: 바람직한 직장상사 (엄격형-친구형) - 전체

(단위: 명, %)

	사례수	비율
부하직원들에게 엄격하게 대하는 사람	47	12.6
부하직원들과 친구처럼 지내려고 하는 사람	326	87.4

취업청소년의 직종별 응답결과를 비교하면 사무·행정직과 서비스직은 엄격한 상사를, 영업·판매직과 생산·기능직은 친구형 상사를 선호하는 청소년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었다.

표 3-3-38: 바람직한 직장상사(엄격형-친구형) - 직종별

(단위: %)

	엄격형	친구형
사무·행정직	15.9	84.1
영업·판매직	7.6	92.4
서비스직	16.5	83.5
생산·기능직	9.5	90.5

통계치: $\chi^2=4.59$

역할모델로서의 직장상사

Q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자신이 앞으로 꼭 그분처럼 되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1. 있 다

2. 없 다

취업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현재의 직장에서 자신의 역할모델이 될 만한 사람이 있는가의 여부를 질문하였다. 응답결과를 보면 “없다”는 응답이 65.4%로서 “있다”는 응답(34.6%)을 현격하게 상회하였다.

표 3-3-39: 역할모델로서의 직장상사 유무 - 전체

(단위: 명, %)

	사례수	비율
있 다	129	34.6
없 다	244	65.4

취업청소년의 직종별 응답결과를 보면 현재의 직장에 자신의 역할모델이 될 만한 사람이 있다는 응답이 사무·행정직이 44.2%로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영업·판매직의 35.0%였으며 서비스직과 생산·기능직은 모두 3할 수준이었다.

표 3-3-40: 역할모델로서의 직장상사 유무 - 직종별

(단위: %)

	있 다	없 다
사무·행정직	44.2	55.8
영업·판매직	35.0	65.0
서비스직	30.2	69.8
생산·기능직	30.2	69.8

통계치: $\chi^2=5.71$

표 3-3-41: 역할모델로서의 직장상사 유무 - 성·지역별

(단위: %)

		있 다	없 다
성 별	남 자	32.0	68.0
	여 자	36.1	63.9
지 역	서 울	34.9	65.1
	광역시	27.9	72.1
	시군부	39.8	60.2

통계치: 성별 $\chi^2=0.60$, 지역 $\chi^2=4.44$

성·지역별 응답결과(표 3-3-41)를 비교해 보면, “있다”는 응답이 여자(36.1%)가 남자(32.0%)보다, 시군부(39.8%)-서울(34.9%)이 광역시(27.9%) 지역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4) 직장생활 만족도

영역별 만족도

Q 구체적으로 직장생활의 다음과 같은 측면들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 또는 불만을 느끼십니까 ?

- 1) 직장상사와 자신과의 관계
- 2) 직장동료와 자신과의 관계
- 3) 직원 복지·후생제도
- 4) 자신이 하고 있는 업무의 양
- 5) 자신의 업무 수행 능력
- 6) 직장의 규칙·규율
- 7) 직장의 시설·설비

<응답항목>

- | | |
|------------|------------|
| 1. 매우 불만이다 | 2. 불만이다 |
| 3. 만족한다 | 4. 매우 만족한다 |

취업청소년들의 직장생활 세부영역별 만족도를 비교하기 위해 모두 7가지의 항목을 제시하고 각각에 대하여 “매우 불만”에서 “매우 만족”에 이르는 4점척도로 응답하게 하였다.

응답결과(표 3-3-42)를 보면 만족한다(“매우 만족” 포함)는 응답률이 가장 높은 것은 직장동료와 자신과의 관계로서 81.2%에 달하였고 다음으로 자신의 업무 수행 능력(72.6%), 직장상사와 자신과의 관계(57.6%), 자신이

하고 있는 업무의 양(57.0%)의 순이었고, 직장의 시설·설비(47.7%), 직장의 규칙·규율(47.1%), 직원 복지·후생제도(37.3%)는 5할 미만의 낮은 만족도를 나타내었다. 취업청소년들은 대체로 직장내의 인간관계의 측면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높은 편이지만 직장의 시설·환경에 대해서는 과반수 이상이 불만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3-42: 직장생활 영역별 만족도

(단위: %)

	매 우 불 만	불 만	만 족	매 우 만 족
직장상사와 자신과의 관계	4.0	38.3	54.4	3.2
직장동료와 자신과의 관계	1.9	16.9	75.0	6.2
직원 복지·후생제도	13.0	49.7	35.4	1.9
자신이 하고 있는 업무의 양	7.3	35.7	54.6	2.4
자신의 업무 수행 능력	2.4	24.9	68.3	4.3
직장의 규칙·규율	8.6	44.2	43.9	3.2
직장의 시설·설비	13.5	38.8	44.2	3.5

전체적인 만족도

Q 현재 자신의 직장생활을 전체적으로 평가한다면 얼마나 만족 또는 불만을 느끼십니까 ?

- | | |
|------------|------------|
| 1. 매우 불만이다 | 2. 불만이다 |
| 3. 만족한다 | 4. 매우 만족한다 |

취업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직장생활 만족도를 단계별 4점척도에 의거하여 응답하게 하였다. 응답결과(표 3-3-43)를 보면 “만족한다”가 51.3%로서 가장 다수였고, “불만이다”는 응답이 41.4%에 달했으며 강한 불만(4.5%)과 강한 만족(2.7%)을 나타낸 청소년은 1할 미만에 머물렀다.

전체적으로 현재 직장생활에 만족을 느끼는 청소년이 더 많았으나 불만을 느끼고 있는 청소년이 4할을 상회하고 있다(45.9%).

표 3-3-43: 직장생활 만족도 - 전체

(단위: 명, %)

	사례수	비율
매우 불만	17	4.5
불만이다	155	41.4
만족한다	192	51.3
매우 만족	10	2.7

취업청소년의 직종별 응답결과를 비교하면, 사무·행정직-영업·판매직-서비스직 청소년들은 모두 만족한다는 응답이 과반수를 상회하였으나 생산·기능직은 47.6%에 머물러 가장 낮은 만족도를 나타내었다.

표 3-3-44: 직장생활 만족도 - 직종별

(단위: %)

	매우 불만	불만	만족	매우 만족
사무·행정직	2.7	44.2	50.4	2.7
영업·판매직	3.7	38.3	51.9	6.2
서비스직	6.3	36.5	55.2	2.1
생산·기능직	6.3	46.0	47.6	0.0

통계치: $\chi^2=9.03$

표 3-3-45: 직장생활 만족도 - 성·지역별

(단위: %)

		매우 불만	불만	만족	매우 만족
성별	남자	5.5	43.8	47.7	3.1
	여자	4.1	40.0	53.5	2.4
지역	서울	4.8	41.0	51.8	2.4
	광역시	6.2	42.3	50.0	1.5
	시군부	3.1	41.0	52.2	3.7

통계치: 성별 $\chi^2=1.33$, 지역 $\chi^2=2.91$

성·지역별 응답결과(표 3-3-45)를 비교해 보면, 성별로는 남자보다는 여자, 지역별로는 광역시에 비해 서울-시군부지역 청소년의 직장생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영역별 만족도와 전체 만족도의 관계

직장생활의 각 영역별 만족도와 전체적인 만족도가 어느 정도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단순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고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표 3-3-46).

그 결과 7가지의 영역별 변인은 모두 가정생활의 전체적인 만족도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그중에서 “직장상사와 자신과의 관계”가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0.47), 다음으로 “자신이 하고 있는 업무의 양”(0.43), “직장의 규칙·규율”(0.43), “직장의 시설·설비”(0.37), “직원 복지·후생제도”(0.31), “직장동료와 자신과의 관계”(0.28)의 순이었으며, “자신의 업무수행 능력”이 가장 낮은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0.17).

표 3-3-46: 직장생활 영역별 만족도와 전체 만족도 상관관계

	직장생활 만족도
직장상사와 자신과의 관계	0.47***
직장동료와 자신과의 관계	0.28***
직원 복지·후생제도	0.31***
자신이 하고 있는 업무의 양	0.43***
자신의 업무 수행 능력	0.17**
직장의 규칙·규율	0.43***
직장의 시설·설비	0.37***

직장생활의 각 하위영역별 만족도가 전체적인 만족도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주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7가지 하위영역을 독립변인으로, 전체적인 직장생활 만족도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3-3-

47). 그 결과 7가지 하위영역 중에서 세가지 영역만이 전체적인 직장생활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각 영역별 만족도가 전체적인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의 순위를 보면, “직장상사와 자신과의 관계”가 가장 컸으며(0.27), 다음으로 “자신이 하고 있는 업무의 양”(0.21), “직장의 규칙·규율”(0.15) 순이었다. “직장동료와 자신과의 관계” “직원 복지·후생제도” “자신의 업무수행 능력” “직장의 시설·설비” 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이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이들 7가지의 하위변인은 직장생활 만족도 전체변량의 34%를 설명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3-3-47: 직장생활 만족도 회귀분석

	b	beta
직장상사와 자신과의 관계	0.27	0.27***
직장동료와 자신과의 관계	0.03	0.00
직원 복지·후생제도	0.04	0.05
자신이 하고 있는 업무의 양	0.20	0.21***
자신의 업무 수행 능력	0.03	0.03
직장의 규칙·규율	0.13	0.15*
직장의 시설·설비	0.06	0.08

통계치: $R^2=0.34$

직장생활 전망

Q 앞으로의 1년 뒤의 당신의 직장생활을 전망한다면 어떻게 되리라고 생각합니까 ?

1. 지금보다 훨씬 나빠질 것이다
2. 지금보다 나빠질 것이다
3. 지금과 다를 없을 것이다
4. 지금보다 좋아질 것이다
5. 지금보다 훨씬 좋아질 것이다

취업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앞으로의 자신의 직장생활이 어떻게 되리라고 생각하는지 단계별 5점척도로 응답하게 하였다. 응답결과를 보면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이 51.3%로서 다수였고 약 3할이 지금과 다를없을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나머지 선택지들은 모두 1할 미만의 낮은 응답률을 나타내었다. 전체적으로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청소년이 과반수를 상회하는 반면(59.6%), 비관적으로 전망하는 청소년은 1할 수준에 머물렀다(10.2%)

표 3-3-48: 직장생활 전망 - 전체

(단위: 명, %)

	사례수	비율
훨씬 나빠질 것	12	3.2
나빠질 것	26	7.0
다름 없을 것	112	30.1
좋아질 것	191	51.3
훨씬 좋아질 것	31	8.3

취업청소년의 직종별 응답결과를 보면,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청소년의 비율이 영업·판매직이 70.0%로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사무·행정직이 60.1%에 달하는 반면, 서비스직(54.7%)과 생산·기능직(52.4%)은 5할 남짓한 수준에 머물렀다.

표 3-3-49: 직장생활 전망 - 직종별

(단위: %)

	훨씬 나빠짐	나빠짐	변화 없음	좋아짐	훨씬 좋아짐
사무·행정직	1.8	6.2	31.9	51.3	8.8
영업·판매직	3.8	7.5	18.8	55.0	15.0
서비스직	4.1	9.3	32.0	49.5	5.2
생산·기능직	4.8	4.8	38.1	47.6	4.8

통계치: $\chi^2=14.43$

기타변인별 응답결과를 비교해보면, 먼저 성별로는 여자가 남자보다 자

신의 직장생활에 대해 낙관적으로 전망하였고, 지역별로는 서울-시군부 청소년이 광역시지역 청소년에 비해 낙관적인 응답비율이 현저하게 높은 편이었다.

표 3-3-50: 직장생활 전망 - 성·지역별

(단위: %)

		훨씬 나빠짐	나빠짐	변화 없음	좋아짐	훨씬 좋아짐
성 별	남 자	5.5	14.1	27.3	49.2	3.9
	여 자	1.6	3.3	31.7	52.7	10.7
지 역	서 울	7.1	7.1	17.9	58.3	9.5
	광역시	4.7	7.8	38.0	41.9	7.8
	시군부	-	6.3	30.2	55.3	8.2

통계치: 성별 $\chi^2=23.35^{***}$, 지역 $\chi^2=20.75^{**}$

4. 지역사회

지역사회 영역은 지역여건·환경, 지역사회 활동, 지역내 인간관계, 지역사회 선호도의 4개 부분에 걸쳐 전체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지역여건·환경에서는 청소년들의 지역사회 거주기간과 지역사회 환경에 대한 평가를, 지역사회 활동에서는 지역사회내 행사·모임의 참여도와 자원봉사활동 경험을, 지역내 인간관계에서는 이웃어른과의 관계를 조사항목으로 다루었다. 지역사회 선호도에서는 현재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애착을 가지고 있는지, 앞으로 지역사회가 어떻게 변화하리라고 생각하는지를 조사하였다.

1) 지역여건·환경

지역거주 기간

Q 당신은 현재 살고 있는 지역(시·군)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거주하십니까? 다음 중 가장 적합한 응답항목을 골라 주십시오.

1. 나는 다른 곳에서 산 경험이 없고 이 지역에서만 살았다
2. 다른 시·군에서 산 경험이 있지만, 이 지역에서 가장 오래 살았다
3. 이 지역보다는 다른 시·군에서 더 오래 살았다

지역사회내 토박이 청소년의 비율을 산출하기 위해 현 지역에서의 거주기간을 질문하였다. 응답결과(표 3-4-1)를 보면 현재 살고 있는 곳이 고향인 토박이 청소년은 37.3%, 일시적으로 다른 곳에서 산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40.5%, 다른 지역에서 더 오래 거주한 경험이 있는 외지출신 청소년이 22.1%로 나타났다.

표 3-4- 1: 지역사회 거주 기간 - 전체

(단위: 명, %)

	사례수	비 율
이 지역에서만 살았다	1,947	37.3
이 지역에서 가장 오래 살았다	2,114	40.5
다른 데서 더 오래 살았다	1,154	22.1

청소년유형별 응답결과를 보면, 토박이 청소년의 비율이 대학생(41.0%)과 고등학생(40.3%)이 가장 높은 편이고, 다음으로 무직청소년(39.3%), 중학생(37.3%), 취업청소년(36.3%)의 순이며 초등학생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28.7%).

표 3-4- 2: 지역사회 거주기간 - 유형별

(단위: %)

	이 지역에서만 살 았 다	이 지역에서 가장 오래	다른 데서 더 오래
초 등 생	28.7	43.1	28.2
중 학 생	37.8	37.5	24.7
고 교 생	40.3	40.6	19.1
대 학 생	41.0	40.3	18.6
취 업	36.6	43.7	19.7
무 직	39.3	42.1	18.5

통계치: $\chi^2=63.14^{***}$

기타변인별 응답결과(표 3-4-3)를 비교해 보면, 계층별로 토박이 청소년의 비율이 하위(43.2%)- 중간(37.3%)- 상위계층(31.0%)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생활수준이 높은 집단일수록 외지로의 이주경험이 있는 가정이 많이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역별로는 가장 도시화의 수준이 낮은 시군부지역 청소년의 35.1%만이 토박이라고 응답하여(서울 36.0%) 중소도시·농촌지역의 인구이동도 대도시와 거의 같은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4- 3: 지역사회 거주기간 - 지역·계층별

(단위: %)

		이 지역에서만 살 았 다	이 지역에서 가장 오래	다른 데서 더 오래
지 역	서 울	36.0	41.2	22.9
	광역시	41.1	38.3	20.6
	시군부	35.1	42.0	23.0
계 층	상 위	31.0	42.6	26.4
	중 간	37.3	41.5	21.2
	하 위	43.2	37.6	19.1

통계치: 지역 $\chi^2=16.83^{**}$, 계층 $\chi^2=42.64^{***}$

지역사회 환경

Q 다음은 당신이 살고 있는 동네(마을)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의 각 설명을 읽고 자신에게 해당되는 응답항목을 골라 주십시오.

- 1) 우리동네 사람들은 이웃집에 누가 사는지 서로 잘 알고 지낸다
- 2) 우리동네는 주민들이 함께 하는 모임이나 행사가 자주 있다
- 3) 우리동네 사람들은 좋은 일이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돕고 지낸다
- 4) 우리동네 어른들은 다른 집 아이들이라도 잘못된 일이 있으면 꾸짖는다

<응답항목>

- | | |
|--------------|-----------|
| 1. 매우 그렇지 않다 | 2. 그렇지 않다 |
| 3. 그렇다 | 4. 매우 그렇다 |

지역사회내 주민들간의 관계에 대해서 청소년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4가지 설명을 제시하고 각각에 대하여 “매우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에 이르는 단계별 4점척도로 응답하게 하였다.

각 설명에 대한 긍정응답률을 비교해 보면, “이웃집에 누가 사는지 서로 잘 알고 지낸다”가 55.8%로서 유일하게 절반을 넘었고, 다음으로 “좋은 일이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돕고 지낸다”(42.4%)와 “다른 집 아이들이

라도 잘못된 일이 있으면 꾸짖는다”(41.3%)가 4할 수준의 응답률을 나타내었으며 “주민들이 함께 하는 모임이나 행사가 자주 있다”에 대한 긍정응답률은 3할에도 못미쳤다(25.6%).

전체적으로 보면 이웃간의 인지도는 비교적 높은 편이지만, 실질적인 교류의 빈도와 계기는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4- 4: 지역사회 환경

	(단위: %)	
	그렇다	매우 그렇다
우리동네 사람들은 이웃집에 누가 사는지 서로 잘 알고 지낸다	40.3	15.5
우리동네 사람들은 좋은 일이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돕고 지낸다	36.4	6.0
우리동네는 주민들이 함께 하는 모임이나 행사가 자주 있다	22.0	3.6
우리동네 어른들은 다른 집 아이들이라도 잘못된 일이 있으면 꾸짖는다	35.1	6.2

지역사회 환경에 대한 지역별 긍정응답 비율(“그렇다”+ “매우 그렇다”)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표 3-4-5).

“이웃간에 누가 사는지 서로 알고 지낸다”와 “다른집 아이들이라도 잘못된 일이 있으면 꾸짖는다”에 대해서는 시군부지역의 긍정응답률이 가장 높고, 광역시가 중간이었으며 서울이 가장 낮았다.

“좋은 일이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돕고 지낸다”와 “주민들이 함께 하는 모임이나 행사가 자주 있다”에 대해서는 시군부와 광역시의 긍정응답률이 비슷한 수준이었고 서울지역의 긍정응답률은 이에 훨씬 못미쳤다.

이와 같은 응답결과를 통해 공동체로서의 지역사회의 결속력이 도시화 수준이 높을수록 점차 약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4- 5: 지역사회 환경(긍정응답률) - 지역별

(단위: %)

	서 울	광역시	시군부
우리동네 사람들은 이웃집에 누가 사는지 서로 잘 알고 지낸다	50.7	55.4	58.6
우리동네 사람들은 좋은 일이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돕고 지낸다	37.4	43.0	44.5
우리동네는 주민들이 함께 하는 모임이나 행사가 자주 있다	20.4	27.0	27.1
우리동네 어른들은 다른 집 아이들이라도 잘못된 일이 있으면 꾸짖는다	36.7	41.9	43.0

2) 지역사회 활동

지역사회 행사참여

Q 현재 당신은 동네 사람들이 함께 하는 일이나 행사(마을청소, 이웃돕기 행사 등)에 어느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까?

1. 거의 참여하지 않는다 2. 별로 참여하지 않는다
3. 가끔 참여하고 있다 4. 자주 참여하고 있다

지역사회내 주민 공동의 일·행사에 청소년들이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지 질문하였다. 응답결과(표 3-4-6)를 보면 “거의 참여하지 않는다”가 63.0%로서 가장 다수였고, 다음으로 “별로 참여하지 않는다”(24.5%), “가끔 참여하고 있다”(10.8%)의 순이었으며 “자주 참여하고 있다”는 응답은 극소수(2.1%)에 머물렀다.

전체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가끔”+ “자주”)는 청소년은 1할 남짓으로서 (12.9%), 청소년들이 지역사회 모임·행사의 참여도가 매우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표 3-4- 6: 지역사회 행사참여 - 전체

(단위: 명, %)

	사례수	비 율
거의 참여하지 않는다	3,300	63.0
별로 참여하지 않는다	1,266	24.2
가끔 참여하고 있다	565	10.8
자주 참여하고 있다	110	2.1

청소년유형별 응답결과를 보면, 지역사회 모임이나 가끔 또는 자주 참여하고 있다는 응답비율이 초등학생이 25.7%로서 다른 집단에 비해 월등하게 높고, 다음으로 중학생(14.0%), 대학생(11.4%), 무직청소년(10.8%)의 순이며, 취업청소년(8.4%)과 고등학생(6.5%)은 1할 미만의 낮은 참여율을 나타내었다.

표 3-4- 7: 지역사회 행사참여 - 유형별

(단위: %)

	거 의 참여안함	별 로 참여안함	가 끄 참여한다	자 주 참여한다
초 등 생	44.3	30.0	21.7	4.0
중 학 생	60.7	25.3	12.0	2.0
고 교 생	74.5	19.0	5.5	1.0
대 학 생	64.9	23.7	9.5	1.9
취 업	66.7	24.9	6.6	1.8
무 직	62.0	27.1	7.8	3.0

통계치: $\chi^2=304.37^{***}$

기타변인별 응답결과(표 3-4-8)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성별로는 여자보다는 남자의 참여도가 다소 높은 편이었다. 계층별로는 하위계층에 비해 중간-상위계층 청소년의 참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체로 시군부지역 청소년의 참여도가 가장 높은 편이었으나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표 3-4- 8: 지역사회 행사참여 - 성·계층별

(단위: %)

		거 의 참여안함	별 로 참여안함	가 끄 참여한다	자 주 참여한다
성 별	남 자	61.2	24.1	11.9	2.8
	여 자	64.9	24.1	9.6	1.3
계 층	상 위	57.5	27.8	12.1	2.5
	중 간	64.0	22.8	11.0	2.1
	하 위	65.9	23.6	9.0	1.5

통계치: 성별 $\chi^2=22.47^{***}$, 계층 $\chi^2=23.52^{**}$

자원봉사활동 경험

Q 당신은 지난 1년 동안 자원봉사활동을 한 경험이 있습니까 ?

1. 있 다

2. 없 다

지난 1년 동안 자원봉사활동을 한 경험이 있는지를 질문하였다. 응답결과를 보면, 자원봉사활동 경험이 있다는 청소년이 55.9%로서 과반수를 상회하였다.

표 3-4- 9: 자원봉사활동 경험 - 전체

(단위: 명, %)

	사례수	비 율
있 다	2,908	55.9
없 다	2,296	44.1

청소년유형별 응답결과(표 3-4-10)를 보면, 자원봉사활동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비율이 중학생이 74.9%로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고등학생(57.5%), 초등학생(53.2%)의 순이며, 대학생(40.6%)과 무직청소년(40.4%)은 과반수에 못미쳤고, 취업청소년이 27.9%로서 가장 낮았다.

이처럼 연장청소년에 비해 연소청소년의 자원봉사활동 경험률이 월등하게 높은 것은 자원봉사활동 기록의 학교 내신반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표 3-4-10: 자원봉사활동 경험 - 유형별

(단위: %)

	있 다	없 다
초 등 생	53.2	46.8
중 학 생	74.9	25.1
고 교 생	57.5	42.5
대 학 생	40.6	59.4
취 업	27.9	72.1
무 직	40.4	59.6

통계치: $\chi^2=415.26^{***}$

기타변인별 응답결과를 보면, 성별로는 여자보다는 남자, 지역별로는 광역시-시군부에 비해 서울지역 청소년의 자원봉사활동 경험률이 다소 높은 편이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계층별로는 상위계층 청소년의 자원봉사활동 경험률(64.2%)이 중간(55.6%)-하위계층(54.1%)에 비해 월등하게 높은 편이었다.

표 3-4-11: 자원봉사 활동경험 - 계층별

(단위: %)

	있 다	없 다
상 위	64.2	35.8
중 간	55.6	44.4
하 위	54.1	45.9

통계치: 계층 $\chi^2=28.30^{***}$

3) 지역내 인간관계

이웃어른과의 대화

Q 당신은 동네에서 이웃어른들과 어느 정도 자주 대화를 나누십니까 ?

- | | |
|----------------|----------------|
| 1. 거의 대화하지 않는다 | 2. 별로 대화하지 않는다 |
| 3. 가끔 대화한다 | 4. 자주 대화한다 |

지역사회내 이웃어른들과 어느 정도 자주 대화를 나누는지 단계별 4점 척도를 제시하고 응답하게 하였다. 응답결과를 보면 이웃어른들과 “거의 대화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41.5%로서 다수였고 다음으로 “별로 대화하지 않는다”(30.0%), “가끔 대화한다”(22.8%)의 순이었으며, “자주 대화한다”는 응답은 5.7%에 불과하였다.

전체적으로 이웃어른과 대화하지 않고 있는(“거의”+ “별로”) 청소년이 7할을 상회(71.5%)하였다.

표 3-4-12: 이웃어른과의 대화 - 전체

(단위: 명, %)

	사례수	비율
거의 대화하지 않는다	2,175	41.5
별로 대화하지 않는다	1,574	30.0
가끔 대화한다	1,197	22.8
자주 대화한다	298	5.7

청소년유형별 응답결과는 다음의 표와 같다(표 3-4-13).

이웃어른들과 가끔 또는 자주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응답이 초등학생이 45.7%로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중학생(28.5%), 대학생(26.9%), 무직청소년(24.5%)의 순이며, 고등학생(21.9%)과 취업청소년(20.5%)이 가장 낮은 편에 속하였다.

표 3-4-13: 이웃어른과의 대화 - 유형별

(단위: %)

	거 의 대화안함	별 로 대화안함	가 끄 대화한다	자 주 대화한다
초 등 생	26.0	28.3	32.4	13.3
중 학 생	43.4	28.1	22.8	5.7
고 교 생	50.1	28.0	19.2	2.7
대 학 생	36.3	36.8	22.8	4.1
취 업	41.6	38.0	18.1	2.4
무 직	44.6	30.9	19.2	5.3

통계치: $\chi^2=292.09^{***}$

기타변인별 응답결과를 비교해 보면, 먼저 성별로는 여자가 남자보다 이웃어른과의 대화빈도가 높은 편이었다. 계층별로는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응답률이 상위계층이 31.2%, 중간계층이 28.0%, 하위계층이 25.8%로서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이웃어른과의 대화빈도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지역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표 3-4-14: 이웃어른과의 대화 - 성·계층별

(단위: %)

		거 의 대화안함	별 로 대화안함	가 끄 대화한다	자 주 대화한다
성 별	남 자	42.8	30.5	20.8	5.9
	여 자	40.1	29.5	24.9	5.5
계 층	상 위	39.5	29.3	25.5	5.7
	중 간	41.0	30.9	21.9	6.1
	하 위	45.1	29.1	21.7	4.1

통계치: 성별 $\chi^2=12.34^{**}$, 계층 $\chi^2=18.27^{**}$

Q 한 동네에 살고 있는 이웃어른 중에 자신이 앞으로 꼭 그분처럼 되고 싶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2. 없다

표 3-4-15: 역할모델로서의 지역어른 유무 - 전체

	사례수	비율
있 다	649	12.5
없 다	4,530	87.5

표 3-4-16: 역할모델로서의 지역어른 유무 - 유형별

	있 다	없 다
초 등 생	19.0	81.0
중 학 생	11.5	88.5
고 교 생	9.6	90.4
대 학 생	12.1	87.9
취 업	13.4	86.6
무 직	12.2	87.8

152

4) 지역사회 선호도

지역사회 선호도

Q 당신은 지금 살고 있는 동네를 얼마나 좋아하십니까 ?

- | | |
|------------|------------|
| 1. 매우 싫어한다 | 2. 싫어한다 |
| 3. 좋아한다 | 4. 매우 좋아한다 |

현재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 대한 선호도를 단계별 4점척도를 제시하고 응답하게 하였다.

응답결과를 보면, “좋아한다”가 55.9%로서 가장 다수였고, 다음으로 “싫어한다”(27.3%), “매우 좋아한다”(9.4%)의 순이었으며 “매우 싫어한다”는 청소년은 7.4%로서 가장 소수였다.

전체적으로 자기 지역사회에 대해 호감을 갖고 있는 청소년이 65.3%로서 다수이지만, 싫어하는 청소년도 1/3이상(34.7%)에 달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표 3-4-17: 지역사회 선호도 - 전체

(단위: 명, %)

	사례수	비율
매우 싫어한다	387	7.4
싫어한다	1,429	27.3
좋아한다	2930	55.9
매우 좋아한다	493	9.4

청소년유형별 응답결과(표 3-4-18)를 보면 현 지역사회에 대하여 애착을 느끼고 있는 청소년의 비율이 초등학생이 78.4%로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대학생(69.7%), 중학생(64.7%), 무직청소년(62.8%), 고등학생(59.7%)의 순이며 취업청소년이 55.1%로서 가장 낮았다.

표 3-4-18: 지역사회 선호도 - 유형별

(단위: %)

	매 우 싫어한다	싫어한다	좋아한다	매 우 좋아한다
초 등 생	4.8	16.8	60.3	18.1
중 학 생	8.7	26.6	55.3	9.4
고 교 생	10.1	30.1	53.1	6.6
대 학 생	3.4	26.9	61.7	8.0
취 업	5.3	39.6	51.7	3.4
무 직	5.8	31.4	54.7	8.1

통계치: $\chi^2=224.70^{***}$

기타변인별 응답결과를 비교해 보면, 먼저 성별로는 여자보다는 남자의 지역사회 선호도가 높은 편이었다. 계층별로는 지역사회에 애착을 느끼는 청소년의 비율이 중간(63.7%)-하위계층(62.1%)에 비해 상위계층 청소년(72.5%)이 현격하게 높은 편이었다. 지역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표 3-4-19: 지역사회 선호도 - 성·계층별

(단위: %)

		매 우 싫어한다	싫어한다	좋아한다	매 우 좋아한다
성 별	남 자	8.3	24.5	55.2	12.0
	여 자	6.5	30.2	56.7	6.6
계 층	상 위	5.2	22.3	59.8	12.7
	중 간	7.9	28.4	55.1	8.6
	하 위	8.0	29.9	55.2	6.9

통계치: 성별 $\chi^2=61.68^{***}$, 계층 $\chi^2=47.65^{***}$

지역 거주 의사

Q 당신은 앞으로도 지금 있는 동네에서 계속 살고 싶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이 동네에서 계속 살고 싶다
2. 다른 곳으로 이사하고 싶다
3. 잘 모르겠다

청소년들에게 지금 살고 있는 동네에 계속 영주할 의사가 있는지를 질문하였다. 응답결과를 보면, 지금 살고 있는 동네에서 계속 살고 싶다는 청소년은 27.3%에 불과한 반면, 다른 곳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청소년은 42.8%에 달하였다.

표 3-4-20: 지역사회 거주 의사 - 전체

(단위: 명, %)

	사례수	비율
이 동네에서 계속 살고 싶다	1,429	27.3
다른 곳으로 이사하고 싶다	2,237	42.8
잘 모르겠다	1,561	29.9

표 3-4-21: 지역사회 거주 의사 - 유형별

(단위: %)

	이 동네서 계속	다른 곳에 이사	잘 모름
초 등 생	33.4	31.1	35.5
중 학 생	28.2	41.3	30.5
고 교 생	24.8	48.2	27.0
대 학 생	29.5	44.6	25.9
취 업	22.0	48.8	29.1
무 직	22.3	45.3	32.4

통계치: $\chi^2=89.02^{***}$

청소년유형별 응답결과(표 3-4-21)를 보면 이사를 희망하는 청소년의

비율에서 취업청소년(48.8%)과 고등학생(48.2%)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무직청소년(45.3%), 대학생(44.6%), 중학생(41.3%)의 순이며 초등학생이 가장 낮았다(31.1%).

기타변인별 응답결과를 비교해 보면, 다른 곳으로의 이주를 희망하는 청소년의 비율이 성별로는 여자(47.7%)가 남자(38.3%)보다 월등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계층별로는 이주희망 청소년의 비율이 하위(47.7%) - 중간(44.4%) - 상위계층(35.2%)의 순으로서 생활수준이 낮을수록 이주의사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표 3-4-22: 지역사회 거주 의사 - 성 · 계층별

(단위: %)

		이 동네서 계 속	다른 곳에 이 사	잘 모름
성 별	남 자	31.7	38.3	30.0
	여 자	22.7	47.7	29.6
계 층	상 위	32.4	35.2	32.4
	중 간	26.6	44.4	29.0
	하 위	24.6	47.7	27.8

통계치: 성별 $\chi^2=66.01^{***}$, 계층 $\chi^2=40.69^{***}$

지역사회 전망

Q 앞으로 2~3년 뒤에 당신이 살고 있는 동네는 어떻게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

1. 지금보다 훨씬 살기 어려운 좋은 동네가 될 것이다
2. 지금보다 살기 어려운 동네가 될 것이다
3. 지금과 다름이 없을 것이다
4. 지금보다 살기 좋은 동네가 될 것이다
5. 지금보다 훨씬 살기 좋은 동네가 될 것이다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의 향후 변화 전망에 대하여 단계별 5점척도

를 제시하고 응답하게 하였다. 응답결과(표 3-4-23)를 보면 “지금과 다름이 없을 것”이라는 응답이 42.3%로서 가장 다수였고, 다음으로 “지금보다 좋아질 것”(31.6%), “훨씬 나빠질 것”·“훨씬 좋아질 것”(각각 9.4%)의 순이었으며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이 7.0%로서 가장 소수였다.

전체적으로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응답비율이 41.0%로서 비관적인 전망(16.7%)의 2배 이상에 달하였다.

표 3-4-23: 지역사회 전망 - 전체

(단위: 명, %)

	사례수	비율
훨씬 나빠질 것	494	9.4
나빠질 것	383	7.3
다름 없을 것	2,218	42.3
좋아질 것	1,656	31.6
훨씬 좋아질 것	493	9.4

청소년유형별 응답결과를 보면,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청소년의 비율이 초등학생이 55.8%로서 유일하게 과반수를 상회하였고, 다음으로 대학생(43.9%), 중학생(42.0%), 무직청소년(36.7%)의 순이었으며 취업청소년(33.6%)과 고등학생(33.2%)이 가장 낮은 편에 속하였다.

표 3-4-24: 지역사회 전망 - 유형별

(단위: %)

	훨씬 나빠짐	나빠짐	변화 없음	좋아짐	훨씬 좋아짐
초 등 생	9.4	4.9	29.9	38.7	17.1
중 학 생	10.6	8.0	39.4	30.9	11.1
고 교 생	9.3	7.9	49.6	27.5	5.7
대 학 생	6.7	4.8	44.7	36.2	7.7
취 업	8.9	9.7	47.8	29.4	4.2
무 직	10.4	9.6	43.3	28.9	7.8

통계치: $\chi^2=216.33^{***}$

기타변인별 응답결과를 보면, 지역별로는 낙관적인 전망의 응답비율이 시군부(43.2%) - 서울(41.8%) - 광역시(37.5%)의 순으로 나타났다. 계층별로는 상위계층 청소년의 47.9%가 낙관적으로 전망하여 중간(39.9%) - 하위계층(36.3%)에 비해 월등하게 높은 편이었다.

표 3-4-25: 지역사회 전망 - 성 · 지역 · 계층별

(단위: %)

		훨씬 나빠짐	나빠짐	변화 없음	좋아짐	훨씬 좋아짐
성 별	남 자	10.4	9.4	39.9	30.3	10.0
	여 자	8.3	5.0	44.9	33.0	8.7
지 역	서 울	10.1	7.0	41.1	32.9	8.9
	광역시	9.6	7.2	45.6	28.6	8.9
	시군부	8.9	7.5	40.3	33.2	10.0
계 층	상 위	8.1	5.6	38.6	35.2	12.7
	중 간	9.8	7.7	42.7	30.9	9.0
	하 위	8.9	7.8	47.0	29.1	7.2

통계치: 성별 $\chi^2=54.44^{***}$, 지역 $\chi^2=17.97^*$, 계층 $\chi^2=44.01^{***}$

5. 사회 · 국가관

사회 · 국가 영역은 사회 · 국가 현실 인식, 사회현실 만족도, 한국인으로서의 만족도, 통일관의 3개 부문으로 나누어 전체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사회 · 국가 현실 인식에서는 우리사회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과 우리나라의 발전수준에 대한 청소년들의 평가를 다루었고, 사회현실 만족도에서는 우리사회의 현실에 대하여 청소년들이 얼마나 만족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변화를 어떻게 전망하는지 살펴보았다. 한국인으로서의 만족도는 자신이 한국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를 질문하였다. 통일관에서는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통일방식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보았다.

1) 사회 · 국가 현실인식

사회현실 인식

Q 당신은 우리사회 현실에 대한 다음과 같은 설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1) 성별에 따른 차별이 심하다
- 2) 잘 살고 못사는 사람간의 격차가 심하다
- 3) 출신지역에 따른 차별이 심하다
- 4) 학력에 따른 차별이 심하다
- 5) 사람들간에 서로를 믿지 못한다
- 6) 일부 사람들만 혜택을 받고 있다
- 7) 집안이나 뒷배경이 중시된다

- 8) 올바른 일이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9) 성실한 사람이 제대로 대접을 못받는다
 10) 젊은 사람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

<응답항목>

1. 매우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그렇다 4. 매우 그렇다

우리사회의 현실에 대해서 청소년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사회현실에 관한 모두 10가지의 설명을 제시하고 각각에 대하여 강한 부정에서 강한 긍정에 이르는 단계별 4점척도로 응답하게 하였다.

표 3-5- 1: 사회현실 인식

(단위: %)

	그렇다	매 우 그렇다
성별에 따른 차별이 심하다	53.3	14.5
잘 살고 못사는 사람간의 격차가 심하다	45.7	34.6
출신지역에 따른 차별이 심하다	42.6	14.1
학력에 따른 차별이 심하다	47.5	32.0
사람들간에 서로를 믿지 못한다	52.5	15.1
일부 사람들만 혜택을 받고 있다	54.0	21.6
집안이나 뒷배경이 중시된다	50.2	27.6
올바른 일이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57.0	20.5
성실한 사람이 제대로 대접을 못받는다	42.1	16.0
젊은 사람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	35.9	9.7

각 항목별 긍정응답률(표 3-5-1)을 비교해 보면, “잘 살고 못사는 사람간의 격차가 심하다”가 80.3%로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학력에 따른 차별이 심하다”(79.5%), “집안이나 뒷배경이 중시된다”(77.8%), “올바른 일이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77.5%), “일부 사람들만 혜택을 받고 있

다”(75.6%)가 7할 이상, “성별에 따른 차별이 심하다”(67.8%), “사람들간에 서로를 믿지 못한다”(67.6%)가 6할 이상, “성실한 사람이 제대로 대접을 못받는다”(58.1%), “출신지역에 따른 차별이 심하다”(56.7%)가 과반수 이상의 높은 긍정응답률을 나타내었고, “젊은 사람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에 대해서만 유일하게 과반수에 못미치는 청소년(45.6%)이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청소년유형별 응답결과를 보면, 대부분의 항목에서 대학생의 긍정응답률이 가장 높았으며 초등학생이 가장 낮은 편이었다. 이를 통해 대학생집단이 우리사회의 현실에 대해 가장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가발전수준 평가

Q 당신은 우리나라의 현실에 대한 다음과 같은 생각에 얼마나 찬성 또는 반대하십니까 ?

- 1) 경제적으로 풍요롭다
- 2)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다
- 3) 국민들의 문화·예술 수준이 높다
- 4) 과학·기술이 발달되어 있다
- 5) 범죄가 적고 치안이 잘 유지되고 있다
- 6) 국민들의 교육수준이 높다
- 7) 사회복지제도가 잘 갖춰져 있다
- 8) 공중도덕이 잘 지켜지고 있다
- 9)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응답항목>

- | | |
|--------------|-----------|
| 1. 매우 그렇지 않다 | 2. 그렇지 않다 |
| 3. 그렇다 | 4. 매우 그렇다 |

우리나라의 발전수준에 대하여 청소년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알

아보기 위하여 모두 9개 부문에 대하여 단계별 4점척도를 제시하고 응답하게 하였다.

각 부문별 긍정응답(“그렇다”+ “매우 그렇다”)의 비율을 보면, “국민들의 교육수준이 높다”가 55.7%로서 가장 높고, 이어서 “과학·기술이 발달되어 있다”(51.0%)로서 이 두가지 부문에 대해서만 과반수 이상의 청소년이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다음으로는 “국민들의 문화·예술 수준이 높다”(32.5%),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다”(20.1%)의 두가지 부문에 대해서 2할 이상의 청소년이 긍정적으로 응답하였고, “사회복지제도가 잘 갖춰져 있다”(19.5%), “경제적으로 풍요롭다”(17.9%), “범죄가 적고 치안이 잘 유지되고 있다”(17.5%), “공중도덕이 잘 지켜지고 있다”(13.3%)는 2할 미만에 머물렀다. 마지막으로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다”에 대해서는 11.9%만이 긍정적으로 응답하여 청소년들은 사회의 여러 부문 중에서 정치발전 수준이 가장 낙후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5- 2: 국가 발전수준 평가

(단위: %)

	그렇다	매 우 그렇다
경제적으로 풍요롭다	16.1	1.8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다	10.2	1.7
국민들의 문화·예술 수준이 높다	28.8	3.7
과학·기술이 발달되어 있다	46.1	4.9
범죄가 적고 치안이 잘 유지되고 있다	14.9	2.6
국민들의 교육수준이 높다	45.4	10.3
사회복지제도가 잘 갖춰져 있다	17.3	2.2
공중도덕이 잘 지켜지고 있다	11.1	2.2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다	17.2	2.9

청소년유형별 응답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3-5-3). 모든 부문에 걸쳐 초등학생이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중학생, 대학생, 무직청소년이

중간 수준이며, 고등학생과 취업청소년이 가장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5- 3: 국가 발전수준 평가 - 유형별

(단위: %)

	긍정응답률(“그렇다”+ ”매우 그렇다”)					
	초등	중학	고등	대학	취업	무직
경제적으로 풍요	34.1	17.5	11.5	14.7	9.5	19.7
정치적으로 안정	27.3	12.0	6.1	7.5	5.8	10.1
높은 국민 문화·예술 수준	55.2	35.0	24.0	21.4	21.3	30.8
과학·기술 발달	68.9	51.1	43.6	45.1	45.8	51.6
범죄적이고 치안이 잘 유지	25.3	16.9	13.1	17.6	14.5	21.0
높은 국민 교육수준	62.8	47.5	52.4	70.7	51.5	61.9
사회복지제도 잘 되었음	38.3	22.6	12.2	8.4	11.6	17.7
공중도덕이 잘 지켜짐	23.4	14.7	8.3	9.5	8.2	14.2
환경보호에 높은 관심	31.8	19.6	15.4	15.8	17.5	22.0

2) 사회현실 만족도

사회현실 만족도

Q 현재 우리사회의 현실에 대해서 어느정도 만족 또는 불만을 느끼십니까 ?

- | | |
|------------|------------|
| 1. 매우 불만이다 | 2. 불만이다 |
| 3. 만족한다 | 4. 매우 만족한다 |

현재 우리사회 현실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지를 단계별 4점 척도를 통하여 응답하게 하였다.

응답결과(표 3-5-4)를 보면 “불만이다”가 58.8%로서 과반수를 넘었으며, 다음으로 “매우 불만이다”(22.0%), “만족한다”(16.6%)의 순이었고,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은 극소수에 불과했다(2.6%).

전체적으로 사회현실에 대해 불만을 느끼는 청소년이 80.8%로서 대다수를 점하였다.

표 3-5- 4: 사회현실 만족도 - 전체

(단위: 명, %)

	사례수	비율
매우 불만	1,151	22.0
불만이다	3,076	58.8
만족한다	870	16.6
매우 만족	138	2.6

청소년유형별 응답결과를 비교해 보면, 만족한다(“매우 만족” 포함)는 응답률이 초등학생이 46.6%로서 다른 집단에 비해 현격하게 높았으며, 다음으로 중학생(19.5%), 대학생(11.0%), 고등학생(10.6%), 취업청소년(10.0%)의 순이었고 무직청소년은 1할 미만에 머물렀다(9.6%).

표 3-5- 5: 사회현실 만족도 - 유형별

(단위: %)

	매우 불만	불만	만족	매우 만족
초 등 생	11.1	42.2	42.0	4.6
중 학 생	24.2	56.3	16.6	2.9
고 교 생	31.5	57.8	8.5	2.1
대 학 생	14.5	74.5	9.6	1.4
취 업	13.4	76.6	8.4	1.6
무 직	21.0	69.4	7.6	2.0

통계치: $\chi^2=742.78^{***}$

기타변인별 응답결과(표 3-5-6)를 비교해 보면, 먼저 성별로는 남자보다는 여자가 사회현실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편이었고, 지역별로는 서울·광역시에 비해 시군부 청소년의 만족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계층별로는 사회현실에 대하여 만족한다고 응답한 청소년의 비율이 상위

(21.0%)- 중간(18.8%)- 하위계층(15.4%)의 순으로서 생활수준이 높은 집
단일수록 사회현실에 대한 만족도도 증가하였다.

표 3-5- 6: 사회현실 만족도 - 성·지역·계층별

(단위: %)

		매 우 불 만	불 만	만 족	매 우 만 족
성 별	남 자	24.7	54.2	17.6	3.4
	여 자	19.1	63.5	15.6	1.8
지 역	서 울	26.5	57.4	14.2	1.9
	광역시	21.7	61.1	14.4	2.9
	시군부	20.0	57.6	19.5	2.8
계 층	상 위	20.6	57.5	19.1	2.8
	중 간	23.6	57.6	15.9	2.9
	하 위	21.7	62.9	13.6	1.8

통계치: 성별 $\chi^2=54.64^{***}$, 지역 $\chi^2=41.83^{***}$, 계층 $\chi^2=23.91^{**}$

사회변화 전망

Q 앞으로 2~3년 뒤의 우리사회를 전망한다면 어떻게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

1. 지금보다 훨씬 살기 어려운 사회가 될 것이다
2. 지금보다 살기 어려운 사회가 될 것이다
3. 지금과 다름이 없을 것이다
4. 지금보다 살기 좋은 사회가 될 것이다
5. 지금보다 훨씬 살기 좋은 사회가 될 것이다

앞으로 우리사회의 변화전망에 대하여 단계별 5점척도를 제시하고 응답하게 하였다. 그 결과, 지금보다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이 30.8%로서 다수였고, 다음으로 “지금과 다름없을 것”(26.5%), “나빠질 것”(24.6%), “훨씬 나빠질 것”(11.7%)의 순이었으며 “훨씬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이 가장

소수로서 6.4%에 머물렀다.

전체적으로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청소년(37.2%)과 비관적으로 전망하는 청소년(36.3%)의 비율이 거의 비슷한 분포를 나타내었다.

표 3-5- 7: 사회변화 전망 - 전체

(단위: 명, %)

	사례수	비율
훨씬 나빠질 것	614	11.7
나빠질 것	1,290	24.6
다름 없을 것	1,387	26.5
좋아질 것	1,612	30.8
훨씬 좋아질 것	337	6.4

청소년유형별 응답결과를 보면,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응답비율이 초등학생이 59.2%로서 과반수를 상회하였고, 다음으로 중학생(38.7%), 고등학생·대학생(30.9%), 무직청소년(26.2%)의 순이며, 취업청소년이 24.9%로서 가장 낮았다. 대체로 연소청소년보다는 연장청소년 집단이 상대적으로 사회변화의 전망에 대하여 비관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5- 8: 사회변화 전망 - 유형별

(단위: %)

	훨씬 나빠짐	나빠짐	변화 없음	좋아짐	훨씬 좋아짐
초 등 생	7.8	17.5	15.5	41.2	18.0
중 학 생	13.7	24.3	23.2	32.1	6.6
고 교 생	13.0	27.4	28.7	27.6	3.3
대 학 생	9.1	26.7	33.3	29.2	1.7
취 업	12.8	25.9	36.4	22.8	2.1
무 직	11.9	27.0	34.8	24.2	2.0

통계치: $\chi^2=448.80^{***}$

기타변인별 응답결과(표 3-5-9)를 보면, 성별로는 남자보다는 여자가

낙관적이었고, 지역별로는 서울·광역시에 비해 시군부 청소년의 낙관적인 응답률이 높은 편이었다. 계층별로는 낙관적인 응답률이 상위(43.0%)– 중간(36.3%)– 하위계층(33.8%)의 순으로 나타나 생활수준이 높은 집단일수록 사회변화의 전망에 대하여 낙관적인 시각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5- 9: 사회변화 전망 - 성·지역·계층별

(단위: %)

		훨씬 나빠짐	나빠짐	변화 없음	좋아짐	훨씬 좋아짐
성 별	남 자	13.3	24.9	26.0	29.1	6.8
	여 자	9.9	24.4	27.0	32.6	6.1
지 역	서 울	11.1	24.4	28.4	31.1	5.0
	광역시	13.4	25.2	27.4	28.8	5.2
	시군부	10.7	24.3	24.8	32.1	8.1
계 층	상 위	8.7	24.8	23.6	34.7	8.3
	중 간	12.3	24.9	26.7	29.9	6.2
	하 위	13.3	25.2	27.7	29.1	4.7

통계치: 성별 $\chi^2=19.38^{**}$, 지역 $\chi^2=33.21^{**}$, 계층 $\chi^2=34.60^{***}$

3) 한국인으로서의 만족도

Q 당신은 자신이 한국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 또는 불만을 느끼십니까 ?

- | | |
|------------|------------|
| 1. 매우 불만이다 | 2. 불만이다 |
| 3. 만족한다 | 4. 매우 만족한다 |

사회현실과는 구분하여 자신이 한국인이라는 사실에 대한 만족도를 동일한 척도를 사용하여 조사하였다. 응답결과를 보면 “만족한다”가 50.4%로서 가장 다수였고, 다음으로 “불만이다”(26.9%), “매우 만족한다”(13.0%)

의 순이었으며 “매우 불만”이라는 응답은 6.0%에 머물렀다.

전체적으로 만족을 느끼는 청소년이 67.0%로서 불만을 느끼는 청소년(32.9%)의 2배 이상에 달하였다. 청소년들이 최근의 사회현실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불만을 갖고 있지만 국가에 대해서는 과반수 이상이 만족감 내지는 긍지를 느끼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표 3-5-10: 한국인으로서의 만족도 - 전체

(단위: 명, %)

	사례수	비율
매우 불만	316	6.0
불만이다	1,407	26.9
만족한다	2,822	54.0
매우 만족	681	13.0

청소년유형별 응답결과를 보면 한국인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만족(“매우 만족” 포함)한다고 응답한 청소년의 비율이 초등학생이 78.8%로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대학생(68.0%), 고등학생(65.3%), 중학생(65.2%), 무직청소년(60.0%)의 순이며 취업청소년이 57.8%로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5-11: 한국인으로서의 만족도 - 유형별

(단위: %)

	매우 불만	불만	만족	매우 만족
초 등 생	4.5	16.7	50.6	28.2
중 학 생	8.7	26.1	52.1	13.1
고 교 생	6.9	27.8	55.1	10.2
대 학 생	2.4	29.7	64.0	4.0
취 업	4.0	38.3	52.8	5.0
무 직	4.6	35.4	50.6	9.4

통계치: $\chi^2=353.59^{***}$

기타변인별 응답결과(표 3-5-12)를 보면 성별로는 남자가 여자보다 한국인으로서의 만족도가 높은 편이었으며, 지역별로는 만족한다는 응답률이

서울지역(61.7%)에 비해 시군부(69.0%)-광역시(67.8%)지역 청소년이 높게 나타났다. 계층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표 3-5-12: 한국인으로서의 만족도 - 성·지역별

(단위: %)

		매 우 불 만	불 만	만 족	매 우 만 족
성 별	남 자	7.1	25.3	51.2	16.3
	여 자	4.8	28.7	57.0	9.5
지 역	서 울	6.8	31.4	50.4	11.3
	광역시	6.5	25.7	57.6	10.2
	시군부	5.4	25.7	53.0	16.0

통계치: 성별 $\chi^2=72.51^{***}$, 지역 $\chi^2=50.57^{***}$

4) 통일관

Q 우리나라의 통일문제에 대한 다음과 같은 의견중에서 당신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은 어떤 것입니까 ?

1. 다소 부작용이 있더라도 빨리 통일이 되어야 한다
2. 늦어지더라도 사회적인 혼란이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3. 통일이 되기보다는 현상태로 있는 것이 더 낫다

바람직한 통일방식에 대한 청소년들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 “통일우선론”(“다소 부작용이 있더라도 빨리 통일이 되어야 한다”), “점진적 통일론”(“늦어지더라도 사회적인 혼란이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상유지론”(“통일이 되기보다는 현상태로 있는 것이 더 낫다”)의 세가지 입장을 제시하고 하나를 선택하게 하였다.

응답결과를 보면 점진적 통일론을 선택한 청소년이 61.8%로서 다수였

고, 우선통일론(19.5%)과 현상유지론(18.7%)은 모두 2할 수준의 비슷한 분포를 나타내었다.

표 3-5-13: 바람직한 통일방식 - 전체

(단위: 명, %)

	사례수	비율
다소 부작용이 있더라도 빨리 통일이 되어야 한다	1,018	19.5
늦어지더라도 사회적인 혼란이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3,229	61.8
통일이 되기보다는 현상태로 있는 것이 더 낫다	974	18.7

청소년유형별 응답결과를 보면 초등학생은 통일우선론, 대학생과 고등학생은 점진적 통일론, 무직청소년과 중학생은 현상유지론의 응답률이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표 3-5-14: 바람직한 통일방식 - 유형별

(단위: %)

	빨리 통일되어야	늦어도 혼란없이	현상태가 낫다
초 등 생	28.6	56.4	15.0
중 학 생	18.5	59.7	21.8
고 교 생	15.2	65.0	19.8
대 학 생	19.0	71.1	9.9
취 업	18.8	61.5	19.6
무 직	19.9	56.1	24.0

통계치: $\chi^2=117.74^{***}$

기타변인별 응답결과(표 3-5-15)를 비교해 보면, 먼저 성별로는 남자는 통일우선론, 여자는 점진적 통일론과 현상유지론의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시군부지역 청소년이 서울-광역시 청소년에 비해 우선통일론의 응답률이 높은 반면, 점진적 통일론의 응답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계층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표 3-5-15: 바람직한 통일방식 - 성·지역별

(단위: %)

		빨 리 통일되어야	늦어도 혼란없이	현상태가 낫 다
성 별	남 자	24.1	59.8	16.1
	여 자	14.5	64.1	21.4
지 역	서 울	17.6	62.1	20.3
	광역시	17.7	64.8	17.5
	시군부	21.8	59.4	18.8

통계치: 성별 $\chi^2=84.53^{***}$, 지역 $\chi^2=19.11^{**}$

6. 여가·생활 일반

여가·생활 일반에서는 생활시간, 여가활동 일반, 여가생활 만족도, 교우관계, 정보화실태의 4가지 하위영역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생활시간에서는 평일날 청소년들이 수면, TV시청, 공부 등에 어느 정도 시간을 할애하는지를 조사하였고, 여가활동 일반에서는 청소년들이 여가를 보내는 방식과 선호하는 여가활동의 종류, 한달 평균 용돈과 아르바이트 경험 등을 파악하였다. 여가생활 만족도에서는 자신의 여가생활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으며 여가생활의 가장 큰 장애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질문하였다. 교우관계에서는 친한 친구의 유형과 친구관계 만족도 등을, 정보화실태에서는 청소년들의 컴퓨터 보유여부와 컴퓨터·인터넷 이용의 빈도를 다루었다.

1) 생활시간

Q 다음은 당신의 일상적인 생활시간에 관한 질문입니다. 토·일요일을 제외한 평일날 당신은 다음과 같은 일을 하는 데 대략 어느 정도의 시간을 보내십니까 ?

- | | |
|-------------------------------|------------------|
| 1) 잠을 자는 시간 ----- | 약()시간()분 |
| 2) TV를 보는 시간 ----- | 약()시간()분 |
| 3) 학교에서 공부하는 시간 ----- | 약()시간()분 |
| 4) 집 또는 학원에서 공부하는 시간 ----- | 약()시간()분 |
| 5) 여가시간(자신이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시간) | 약()시간()분 |

청소년들의 일상적인 생활시간을 파악하기 위해 평일날의 평균 수면시

간, TV 시청시간, 학교 공부시간, 집·학원에서의 공부시간, 여가시간을 분단위로 응답하게 하였다. 각 항목별 응답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수면시간

청소년들의 평일날 하루 평균 수면시간은 7시간 28분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유형별로는 초등학생이 8시간 37분으로 가장 길고, 중학생(7시간 38분)과 무직청소년(7시간 18분), 취업청소년(7시간)이 7시간 이상이었으며, 고등학생과 대학생이 모두 6시간 59분으로 가장 짧았다.

표 3-6- 1: 평일날 수면시간 - 전체·유형별

(단위: 분)

	평 균	표준편차
전 체	448	98.12
초 등 생	517	81.65
중 학 생	458	88.45
고 교 생	419	94.28
대 학 생	419	91.12
취 업	420	94.76
무 직	438	106.67

통계치: F=159.48***

표 3-6- 2: 평일날 수면시간 - 지역·계층별

(단위: 분)

		평 균	표준편차
지 역	서 울	434	94.02
	광역시	442	96.42
	시군부	461	99.90
계 층	상 위	440	84.64
	중 간	446	102.06
	하 위	452	96.93

통계치: 지역 F=35.53***, 계층 F=4.53*

기타변인별 수면시간의 차이를 비교하면(표 3-6-2), 지역별로는 시군부 지역 청소년이 7시간 41분으로 가장 길고, 다음으로 광역시(7시간 22분), 서울(7시간 14분)의 순이었다. 계층별로는 하위계층 청소년이 7시간 32분으로서 중간(7시간 26분)- 상위계층(7시간 20분)에 비해 다소 긴 편이었다. 성별로는 남자가 여자보다 수면시간이 다소 긴 편이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여가시간

청소년들이 평일날 자신이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여가시간은 평균 3시간 25분이었다.

청소년유형별 차이를 비교해 보면, 대학생이 4시간 8분으로 가장 길고, 다음으로 무직청소년(3시간 56분), 고등학생(3시간 39분), 취업청소년(3시간 12분)의 순이며 중학생(3시간 4분)과 초등학생(2시간 58분)이 가장 짧은 편이었다. 가장 연소한 집단인 초등학생의 여가시간이 이처럼 짧게 나타난 것은 앞서 과외공부 관련 문항분석에서 살펴봤듯이 방과 후의 학습·취미 활동관련 학원수강률이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표 3-6- 3: 평일날 여가시간 - 전체 · 유형별

(단위: 분)

	평 균	표준편차
전 체	205	130.16
초 등 생	178	116.76
중 학 생	184	117.54
고 교 생	219	141.21
대 학 생	248	142.87
취 업	192	99.96
무 직	236	134.25

통계치: F=32.64***

기타변인별로 평일날 여가시간의 차이를 비교해 보면(표 3-6-4), 성별로는 남자(3시간 40분)가 여자(3시간 8분)보다 월등히 길었고, 지역별로는 서울(3시간 33분)-광역시(3시간 30분)-시군부(3시간 17분)의 순이었다. 계층별로는 상위계층 청소년의 여가시간이 3시간 6분으로서 중간(3시간 29분)-하위계층(3시간 31분)에 비해 현저하게 짧은 것이 특징적이다.

표 3-6- 4: 평일날 여가시간 - 성 · 지역 · 계층별

(단위: 분)

		평 균	표준편차
성 별	남 자	220	139.39
	여 자	188	117.25
지 역	서 울	213	131.66
	광역시	210	133.79
	시군부	197	126.21
계 층	상 위	186	122.65
	중 간	209	133.37
	하 위	211	128.85

통계치: 성별 F=67.74^{***}, 지역 F=6.45^{**}, 계층 F=11.39^{***}

TV 시청시간

청소년들의 평일날 TV 시청시간은 2시간 43분으로 나타났다(표 3-6-5). 앞서 문항에서 살펴봤듯이 청소년들의 평일날 여가시간이 3시간 25분임을 감안하면, 여가시간의 대부분을 TV시청에 보내고 있는 셈이다.

청소년유형별 차이를 비교해 보면, 초등학생이 2시간 55분으로 가장 길고, 다음으로 중학생(2시간 49분), 고등학생(2시간 47분), 무직청소년(2시간 45분), 취업청소년(2시간 22분)의 순이며 대학생이 2시간 10분으로 가장 짧았다.

연소청소년 집단의 TV 시청시간이 무직청소년을 제외한 연장청소년 집단에 비해 현저하게 긴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6- 5: 평일날 TV 시청시간 - 전체 · 유형별

(단위: 분)

	평 균	표준편차
전 체	163	99.92
초 등 생	175	110.84
중 학 생	169	97.09
고 교 생	167	96.90
대 학 생	130	79.54
취 업	142	92.66
무 직	165	111.08

통계치: F=16.79***

기타변인별 TV 시청시간의 차이를 비교해 보면, 성별로는 여자(2시간 49분)가 남자(2시간 37분)보다 다소 긴 편이며, 지역별로는 시군부(2시간 55분)- 광역시(2시간 41분)- 서울(2시간 27분)의 순으로서 도시화 수준이 낮은 지역일수록 시청시간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계층별로는 하위계층(2시간 54분)- 중간계층(2시간 42분)- 상위계층(2시간 25분)으로서 생활수준이 낮은 집단일수록 오랜 시간 TV를 시청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표 3-6- 6: 평일날 TV 시청시간 - 성 · 지역 · 계층별

(단위: 분)

		평 균	표준편차
성 별	남 자	157	96.78
	여 자	169	102.47
지 역	서 울	147	91.62
	광역시	161	97.72
	시군부	175	104.41
계 층	상 위	145	90.76
	중 간	162	98.71
	하 위	174	102.81

통계치: 성별 F=17.32***, 지역 F=29.57***, 계층 F=23.08***

공부시간

청소년들의 공부시간은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평일날 학교에서의 공부시간과 집·학원에서의 공부시간으로 구분하여 질문하였다.

먼저 초·중·고등학생의 평일날 학교 공부시간은 평균 6시간 41분으로서 초등학생이 고등학생이 7시간 10분으로 가장 길었고, 초등학생(6시간 41분)과 중학생(6시간 38분)은 모두 7시간 미만이었다.

표 3-6- 7: 평일날 학교 공부시간 - 전체 · 유형별

(단위: 분)

	평 균	표준편차
전 체	401	108.66
초 등 생	362	66.47
중 학 생	398	90.61
고 교 생	430	137.00

통계치: $F=39.70^{***}$

다음으로 평일날 학교 정규 수업시간 이외에 집이나 학원에서 공부하는 시간은 초·중·고등학생 평균 2시간 33분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2시간 49분)과 중학생(2시간 48분)이 고등학생(2시간 4분)보다 현저하게 긴 것이 특징적이다.

표 3-6- 8: 평일날 집·학원에서의 공부시간 - 전체 · 유형별

(단위: 분)

	평 균	표준편차
전 체	153	95.79
초 등 생	169	94.29
중 학 생	168	96.41
고 교 생	124	89.46

통계치: $F=33.01^{***}$

기타변인별 집·학원에서의 공부시간을 비교해 보면(표 3-6-9), 성별로는 여자(2시간 37분)가 남자(2시간 29분)보다 다소 긴 편이었고, 지역별로

는 광역시(2시간 40분)- 서울(2시간 33분)에 비해 시군부 지역 청소년(2시간 28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계층별로는 생활수준이 높은 집단일수록 집·학원에서의 공부시간이 증가하여, 상위계층 청소년이 3시간 7분으로서 중간(2시간 29분)- 하위계층(2시간 10분)에 비해 30분 이상 긴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3-6- 9: 평일날 집·학원에서의 공부시간 - 성·지역·계층별
(단위: 분)

		평 균	표준편차
성 별	남 자	149	93.66
	여 자	157	98.19
지 역	서 울	153	113.93
	광역시	160	91.66
	시군부	148	86.39
계 층	상 위	187	98.81
	중 간	149	94.52
	하 위	130	86.36

통계치: 성별 F=5.44*, 지역 F=4.03*, 계층 F=70.13***

2) 여가활동 일반

취미·여가활동

Q 당신은 평소에 주로 어떤 취미활동을 즐기고 있으며,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싶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의 <보기>에서 각각 해당되는 항목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1) 현재 주로 하고 있는 활동

2) 앞으로 하고 싶은 활동

< 보 기 >

1. TV시청, 라디오 청취
2. 신문·잡지 읽기
3. 전자오락·컴퓨터 게임
4. 컴퓨터 활용, PC통신·인터넷 검색
5. 독서활동·글쓰기
6. 만화읽기·만화그리기
7. 영화·비디오 관람
8. 대중음악(가요, 팝송) 감상
9. 클래식 음악·국악 감상
10. 노래부르기·악기연주
11. 춤추기·무용 관람
12. 미술 감상·그림그리기
13. 수예품 제작: 모형조립, 수놓기 등
14. 실내오락(트럼프, 바둑, 장기 등)
15. 쇼핑하기·백화점·시장 구경
16. 야외활동(등산, 낚시, 산책 등)

17. 여 행
18. 스포츠 활동(야구, 축구, 수영 등)
19. 운동경기 관람
20. 이중에는 없다
21. 특별한 취미가 없다

청소년들의 취미·여가생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모두 21가지의 취미 활동유형을 제시하고(“이중에는 없다” “특별한 취미가 없다” 포함), 그중에서 자신이 현재 가장 즐겨하고 있는 활동과 앞으로 하고 싶은 활동을 한가지 씩 선택하도록 하였다.

청소년들의 현재 하고 있는 활동과 앞으로 하고 싶은 활동의 응답순위 상위 5개 직종을 정리한 것이 다음의 표이다(표 3-6-10)

먼저 현재 하고 있는 활동으로서는 전자오락·컴퓨터게임이 23.0%로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내었고 다음으로 컴퓨터·PC통신·인터넷 활용(17.6%), TV시청·라디오 청취(17.5%)의 순이었으며 나머지 활동은 모두 1할 미만의 응답률을 기록하였다. 청소년들의 취미활동이 주로 컴퓨터와 관련된 실내활동에 국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6-10: 취미·여가활동

(단위: %)

	현재 하고 있는 활동		앞으로 하고 싶은 활동	
	활 동	비 율	활 동	비 율
1	전자오락·게임	23.0	여 행	17.5
2	컴퓨터·PC통신·인터넷	17.6	컴퓨터·PC통신·인터넷	12.5
3	TV·라디오	17.5	스포츠 활동	11.5
4	대중음악 감상	5.5	영화·비디오	7.6
5	영화·비디오	5.2	전자오락·게임	6.7

한편 앞으로 하고 싶은 활동으로는 여행(17.5%)을 선택한 청소년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컴퓨터·PC통신·인터넷 활용(12.5%)과 스포츠활동

(11.5%)과 이 비슷한 분포를 나타내었다.

이를 통해 현재 청소년들은 생활환경·시간상의 제약 등으로 주로 실내 활동에 치중하고 있지만 여행·스포츠 같은 야외활동을 희망하는 청소년이 상당수에 달하며, 컴퓨터·인터넷이 청소년들의 취미·여가활동의 가장 중요한 일부분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가 동반자·장소

Q 당신은 공휴일등 쉬는 날에 주로 누구와 함께 어디서 시간을 보내십니까 ?

1. 혼자 집에서 시간을 보낸다
2. 가족과 어울려 집에서 지낸다
3. 혼자 외출을 한다
4. 가족과 함께 외출을 한다
5. 밖에서 친구·동료들과 시간을 보낸다

청소년들의 여가활동 동반자·활동 장소를 파악하기 위해 공휴일 등 쉬는 날 주로 어디서 누구와 함께 보내는지를 질문하였다. 응답결과를 보면 “밖에서 친구·동료들과 시간을 보낸다”는 청소년이 44.9%로서 다수를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혼자 집에서 시간을 보낸다”(22.5%), “가족과 어울려 집에서 지낸다”(21.1%)의 순이었으며, 혼자 또는 가족과 외출하는 경우(각각 4.8%, 6.8%)는 모두 1할 미만의 낮은 응답률을 나타내었다.

표 3-6-11: 여가생활 동반자·장소 - 전체

(단위: 명, %)		
	사례수	비율
혼자 집에서 시간을 보낸다	1,176	22.5
가족과 어울려 집에서 지낸다	1,102	21.1
혼자 외출을 한다	249	4.8
가족과 함께 외출을 한다	354	6.8
밖에서 친구·동료들과 시간을 보낸다	2,351	44.9

하위집단별 응답결과를 보면, 고등학생은 “혼자 집에서”, 초등학생은 “가족과 집에서”와 “가족과 외출”, 취업·무직청소년은 “혼자 외출” 및 “밖에서 친구와”, 대학생은 “밖에서 친구와” 보낸다는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대체로 초·중학생은 가족과 휴일을 보내는 경우가 많고, 연장청소년 집단은 가족보다는 친구와 지내는 청소년이 많은 편이었다.

표 3-6-12: 여가생활 동반자·장소 - 유형별

(단위: %)

	혼 자 집에서	가족과 집에서	혼 자 외 출	가족과 외 출	밖에서 친구와
초 등 생	15.4	32.3	4.3	19.1	28.9
중 학 생	25.5	25.0	5.8	7.8	35.8
고 교 생	29.9	17.5	3.3	2.3	47.0
대 학 생	17.6	16.6	2.4	2.4	61.0
취 업	13.9	11.5	7.3	2.1	65.1
무 직	14.4	11.1	8.8	3.0	62.7

통계치: $\chi^2=719.40^{***}$

수련시설 이용경험

Q 지난 1년 동안 청소년 수련시설을 이용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

1. 있 다

2. 없 다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지난 1년동안 청소년 수련시설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지의 여부를 질문하였다. 응답결과(표 3-6-13)를 보면 전체의 6할 가량의 청소년(59.6%)이 “있다”고 응답하여 청소년들 사이에서 수련시설의 이용이 점차 활성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청소년유형별 응답결과를 보면 청소년 수련시설 이용경험 청소년의 비율이 중학생이 중학생(65.2%)과 초등학생(64.1%)이 6할 이상에 달하는 반면, 고등학생은 5할 수준에 머물렀다(52.3%)

표 3-6-13: 청소년 수련시설 이용경험 - 전체

(단위: 명, %)

	사례수	비율
있 다	2,292	59.6
없 다	1,551	40.4

표 3-6-14: 청소년 수련시설 이용경험 - 유형별

(단위: %)

	있 다	없 다
초 등 생	64.1	35.9
중 학 생	65.2	34.8
고 교 생	52.3	47.7

통계치: $\chi^2=60.69^{***}$

기타변인별 응답결과를 보면 수련시설 이용경험 청소년의 비율이 광역시(55.6%)에 비해 서울(62.3%)-시군부(61.4%) 지역이 높은 편이었고, 계층별로는 중간(59.7%)-하위계층(57.1%)에 비해 상위계층(64.3%) 청소년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표 3-6-15: 청소년 수련시설 이용경험 - 지역·계층별

(단위: %)

		있 다	없 다
지 역	서 울	62.3	37.7
	광역시	55.6	44.4
	시군부	61.4	38.6
계 층	상 위	64.3	35.7
	중 간	59.7	40.3
	하 위	57.1	42.9

통계치: 지역 $\chi^2=13.20^{**}$, 계층 $\chi^2=9.72^{**}$

한달 평균 용돈

Q 당신의 한달 평균 용돈은 대략 어느 정도입니까 ?

----- 약 () 만 () 천원

자신이 받고 있는 한달 평균 용돈을 천원 단위로 응답하게 하였다. 전체 평균은 72,210원이었고 하위집단별로는 대학생이 185,715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취업청소년(171,734원), 무직청소년(146,189원)의 순으로, 연장청소년집단은 모두 10만원을 상회하였다. 반면 초등학생은 17,517원, 중학생은 30,741원, 고등학생은 47,077원으로 연장청소년집단과 현격한 격차를 나타내었다.

표 3-6-16: 한달 평균 용돈

(단위: 원)

	평 균	표준편차
전 체	72,210	89831.21
초 등 생	17,517	20105.65
중 학 생	30,741	27564.28
고 교 생	47,077	48663.31
대 학 생	185,715	101601.04
취 업	171,734	119715.38
무 직	146,189	105542.36

통계치: F=879.19***

아르바이트 경험

Q 당신은 지금까지 아르바이트를 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

1. 한번도 없다
2. 전에 해 본 적이 있다
3. 지금 하고 있다

현재까지 아르바이트를 해 본 경험이 있는가를 질문하였다. 응답결과를 보면 전혀 경험이 없다는 청소년이 48.4%로서 다수였고, 전에 해 본 적이 있는 청소년이 41.5%, 지금 하고 있는 청소년이 10.2%에 머물렀다. 전체적으로 과반수를 상회하는 청소년(51.7%)들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거나 현재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3-6-17: 아르바이트 경험 - 전체

(단위: 명, %)

	사례수	비율
한번도 없다	2,507	48.4
전에 해 본 적이 있다	2,150	41.5
지금 하고 있다	528	10.2

청소년유형별 응답결과를 보면 연소청소년보다는 연장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률이 월등하게 높은 편으로서, 지금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는 응답률이 취업청소년은 3할(31.8%), 대학생(24.2%)과 무직청소년(22.4%)은 2할 이상에 달하고 있다.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취업청소년의 비율이 이처럼 높게 나타난 것은 청소년들이 연령·학력상의 이유로 직장(직업)내에서 불완전 고용의 형태로 근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표 3-6-18: 아르바이트 경험 - 유형별

(단위: %)

	한번도 없다	경험 있다	지금 한다
초 등 생	76.1	22.7	1.2
중 학 생	62.1	34.3	3.6
고 교 생	49.9	42.5	7.5
대 학 생	13.0	62.8	24.2
취 업	12.1	56.1	31.8
무 직	18.1	59.4	22.4

통계치: $\chi^2=1220.10^{***}$

기타변인별 응답결과를 비교해 보면, 성별로는 여자보다는 남자의 아르바이트 경험률이 높은 편이었다. 계층별로는 상위계층에 비해 중간-하위계층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률이 월등하게 높았는데, 이와 같은 계층별 경험률의 차이는 용돈 마련 등 경제적인 요인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지역별로는 광역시에 비해 서울-시군부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률이 다소 높은 편이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표 3-6-19: 아르바이트 경험 - 성·계층별

(단위: %)

		한번도 없다	경험 있다	지금 한다
성 별	남 자	46.6	44.4	9.0
	여 자	50.2	38.4	11.5
계 층	상 위	64.0	29.7	6.3
	중 간	45.9	43.1	11.0
	하 위	43.5	45.8	10.7

통계치: 성별 $\chi^2=22.71^{***}$, 계층 $\chi^2=119.05^{***}$

3) 여가생활 만족도

여가생활 만족도

Q 현재 자신의 여가생활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 또는 불만을 느끼십니까 ?

- | | |
|------------|------------|
| 1. 매우 불만이다 | 2. 불만이다 |
| 3. 만족한다 | 4. 매우 만족한다 |

자신의 여가생활을 전체적으로 평가할 때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지 단계별 4점척도를 제시하고 응답하게 하였다. 응답결과(표 3-6-20)를 보면 “불만이다”가 44.0%로서 가장 다수를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만족한

다”(38.7%), “매우 불만이다”(10.8%)의 순이었으며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은 6.5%에 머물렀다. 전체적으로 자신의 여가생활에 불만을 느끼는 청소년이 54.8%로서 과반수를 상회하였다.

표 3-6-20: 여가생활 만족도 - 전체

(단위: 명, %)

	사례수	비율
매우 불만	563	10.8
불만이다	2,302	44.0
만족한다	2,023	38.7
매우 만족	338	6.5

청소년유형별 응답결과를 보면, 자신의 여가생활에 만족한다는 응답률이 초등학생이 70.1%로서 다른 집단에 비해 월등하게 높은 수준이었으며, 다음으로 중학생(48.2%), 고등학생(38.3%), 대학생(36.1%), 무직청소년(33.7%)의 순이었고, 취업청소년은 27.8%에 머물렀다. 취업청소년의 7할 이상이 자신의 여가생활에 불만을 갖고 있는 것은 직장근무로 인한 시간부족이 주된 요인일 것으로 추측된다.

표 3-6-21: 여가생활 만족도 - 유형별

(단위: %)

	매우 불만	불만	만족	매우 만족
초등생	6.6	23.3	54.6	15.5
중학생	13.4	38.4	41.2	7.0
고교생	14.3	47.4	34.5	3.8
대학생	5.2	58.8	34.0	2.1
취업	9.2	63.1	25.4	2.4
무직	7.4	58.9	29.4	4.3

통계치: $\chi^2=515.28^{***}$

기타변인별 응답결과(표 3-6-22)를 보면, 성별로는 여가생활에 만족을 느끼고 있다는 응답률이 남자가 48.9%로서 여자(41.2%)보다 훨씬 높게 나

타났다. 계층별로는 상위계층 청소년의 만족응답률이 47.3%로서 가장 높고 하위계층이 가장 41.9%로서 가장 낮았다. 지역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표 3-6-22: 여가생활 만족도 - 성·계층별

(단위: %)

		매우 불만	불만	만족	매우 만족
성 별	남 자	11.8	39.4	40.1	8.8
	여 자	9.7	49.1	37.2	4.0
계 층	상 위	10.0	42.6	38.3	9.0
	중 간	11.5	43.6	39.1	5.8
	하 위	11.0	47.1	37.1	4.8

통계치: 성별 $\chi^2=81.52^{***}$, 계층: $\chi^2=23.19^{**}$

여가생활 장애요인

Q 당신이 취미·여가생활을 즐기는 데 가장 큰 장애요인은 다음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 |
|---------------|------------------|
| 1. 시간이 부족하다 | 2. 비용이 부담된다 |
| 3. 공부에 방해가 된다 | 4. 함께 할 사람이 없다 |
| 5. 부모님이 반대하신다 | 6. 적당한 장소·시설이 없다 |

취미·여가생활의 가장 큰 장애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모두 6가지의 항목을 제시하고 응답하게 하였다.

응답결과(표 3-6-23)를 보면, “비용이 부담된다”가 38.2%로서 가장 다수였고 다음으로 “시간이 부족하다”(27.8%), “적당한 장소·시설이 없다”(13.3%), “공부에 방해가 된다”(7.8%)의 순이었으며 “부모님이 반대하신다”와 “함께 할 사람이 없다”(각각 6.5%)는 응답이 가장 소수였다.

표 3-6-23: 여가생활 장애요인 - 전체

(단위: 명, %)

	사례수	비율
시간이 부족하다	1,448	27.8
비용이 부담된다	1,988	38.2
공부에 방해가 된다	405	7.8
함께 할 사람이 없다	336	6.5
부모님이 반대하신다	336	6.5
적당한 장소·시설이 없다	693	13.3

청소년유형별 응답결과를 보면 초등학생과 취업청소년은 “시간이 부족하다”는 응답률이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고, 중학생은 “공부에 방해가 된다”, 대학생과 무직청소년은 “비용이 부담된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다른 집단에 비해 많은 편이었다.

표 3-6-24: 여가생활 장애요인 - 유형별

(단위: %)

	시간 부족	비용 부담	공부 방해	동반자 없다	부모님 반대	장소 시설
초 등 생	39.8	19.3	9.3	9.4	6.3	15.8
중 학 생	29.1	32.0	9.6	7.1	7.9	14.3
고 교 생	21.1	44.7	6.9	5.1	6.1	16.1
대 학 생	22.4	51.8	4.9	5.4	2.3	13.3
취 업	40.6	41.4	6.8	4.7	0.8	5.8
무 직	18.0	54.1	6.9	6.1	15.0	-

통계치: $\chi^2=494.18^{***}$

4) 교우관계

친구 유무 · 성별

- Q 당신은 현재 가깝게 지내는 친구가 있습니까 ? 있다면 그 친구(들)은 동성입니까 아니면 이성입니까 ? (동성: 자신이 남자인 경우 남자친구, 이성: 자신이 여자인 경우 여자친구)
1. 동성의 친구만 있다
 2. 이성의 친구만 있다
 3. 남자, 여자 친구가 모두 있다
 4. 가깝게 지내는 친구가 한명도 없다

현재 가깝게 지내는 친구가 있는지, 또한 있다면 그 친구의 성별은 어떻게 되는지를 질문하였다. 응답결과를 보면, “남자·여자 친구가 모두 있다”가 49.1%로서 가장 다수였고, “동성의 친구만 있다”는 응답도 4할을 상회하였으며(43.7%), “이성의 친구만 있다”는 응답은 극소수에 불과했다(5.0%).

표 3-6-25: 친한 친구 유무 · 성별 - 전체

(단위: 명, %)

	사례수	비율
동성의 친구만 있다	2,282	43.7
이성의 친구만 있다	260	5.0
남자, 여자 친구가 모두 있다	2,564	49.1
가깝게 지내는 친구가 한명도 없다	118	2.3

청소년유형별 응답결과(표 3-6-26)를 보면 초등학생-중학생은 “동성 친구만 있다”는 응답이 다수이고, 대학생-취업청소년-무직청소년은 “남자·여자 친구가 모두 있다”가 “동성 친구만 있다”는 응답률을 크게 상회하였다.

대체로 초·중학교 시절에는 동성 중심의 교우관계가 유지되다가 고등학생때부터 이성친구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엿볼 수 있다.

표 3-6-26: 친한 친구 유무·성별 - 유형별

(단위: %)

	동성 친구만	이성 친구만	남녀 모두	한명도 없다
초 등 생	55.8	5.1	36.8	2.4
중 학 생	49.9	5.3	41.6	3.2
고 교 생	46.6	3.7	47.5	2.3
대 학 생	24.0	3.8	71.9	0.3
취 업	23.8	8.4	66.0	1.8
무 직	30.6	7.6	59.7	2.0

통계치: $\chi^2=323.27^{***}$

기타변인별 응답결과를 비교해 보면 성별로는 남자보다는 여자가 동성친구의 비중이 낮고 “남자·여자 친구가 모두 있다”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계층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3-6-27: 친한 친구 유무·성별 - 성별

(단위: %)

	동성 친구만	이성 친구만	남녀 모두	한명도 없다
남 자	48.2	5.2	43.7	2.9
여 자	38.7	4.8	54.9	1.6

통계치: $\chi^2=71.89^{***}$

동네친구와 학교친구

Q 친구를 학교친구(학교에서 사귀 친구)와 동네친구(한 동네에 살면서 알게 된 친구)로 구분할 때 당신은 학교수업이 끝난 후에 어느 쪽 친구와 더 자주 어울리십니까 ?

1. 대부분 학교친구들하고만 어울린다
2. 학교친구들하고 어울리는 경우가 더 많다
3. 동네친구들하고 어울리는 경우가 더 많다
4. 대부분 동네친구들하고만 어울린다

자신의 친구를 학교친구와 동네친구로 구분할 경우 평소에 주로 어느쪽 친구와 자주 어울리는가를 질문하였다. 응답결과를 보면 학교친구와 어울린다는 응답이 8할 수준에 달하여(77.7%), 청소년들이 생활이 지역사회보다는 학교 중심으로 영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6-28: 자주 어울리는 친구 - 전체

(단위: 명, %)

	사례수	비율
대부분 학교친구들하고만 어울린다	2,037	39.1
학교친구들하고 어울리는 경우가 더 많다	2,011	38.6
동네친구들하고 어울리는 경우가 더 많다	929	17.8
대부분 동네친구들하고만 어울린다	237	4.5

주: 취업청소년은 “학교친구”를 “직장친구”로 대체함

청소년유형별 응답결과(표 3-6-29)를 보면, 동네친구와 어울린다는 응답률이 취업청소년이 48.5%로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무직청소년(31.6%), 대학생(24.7%), 고등학생(23.8%)의 순이며 중학생(17.3%)과 초등학생(11.2%)은 모두 2할 미만에 머물렀다.

대체로 나이가 어린 학생청소년일수록 학교친구와 어울린다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표 3-6-29: 자주 어울리는 친구 - 유형별

(단위: %)

	대부분 학교친구	주 로 학교친구	주 로 동네친구	대부분 동네친구
초 등 생	49.6	39.2	8.8	2.4
중 학 생	45.3	37.5	13.4	3.9
고 교 생	39.3	36.8	18.1	5.7
대 학 생	29.6	45.7	22.6	2.1
취 업	17.9	33.6	38.1	10.4
무 직	26.3	42.1	26.5	5.1

통계치: $\chi^2=346.02^{***}$

기타변인별 응답결과를 보면, 동네친구와 어울린다는 응답률이 성별로는 남자(25.3%)가 여자(19.1%)보다 높았으며, 지역별로는 광역시(22.8%)-시군부(20.3%) 지역에 비해 서울 청소년의 응답률이 높은 편이었다. 시군부지역에 비해 서울지역 청소년들이 동네친구와 어울리는 빈도가 높게 나타난 것은 농촌지역 청소년인구의 지속적인 감소현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표 3-6-30: 자주 어울리는 친구 - 성·지역·계층별

(단위: %)

		대부분 학교친구	주 로 학교친구	주 로 동네친구	대부분 동네친구
성 별	남 자	39.2	35.5	19.8	5.5
	여 자	38.9	41.9	15.6	3.5
지 역	서 울	36.7	37.4	20.4	5.6
	광역시	39.7	37.5	17.9	4.9
	시군부	39.7	40.0	16.5	3.8
계 층	상 위	42.8	37.9	16.3	3.0
	중 간	37.6	39.6	18.3	4.5
	하 위	39.8	38.3	17.0	4.9

통계치: 성별: $\chi^2=37.55^{***}$, 지역: $\chi^2=17.00^{**}$, 계층: $\chi^2=13.01^*$

친구의 자기이해도

Q 친구들은 당신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 1. 거의 이해하지 못한다 | 2. 별로 이해하지 못한다 |
| 3. 약간 이해하고 있다 | 4. 많이 이해하고 있다 |

친구들이 자신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단계별 4점척도를 제시하고 응답하게 하였다. 응답결과를 보면, “약간 이해하고 있다”가 48.6%로서 가장 다수였고 다음으로 “많이 이해하고 있다”(26.1%), “별로 이해하지 못한다”(18.4%)의 순이었으며 “거의 이해하지 못한다”가 6.8%로서 가장 낮은 응답률을 나타내었다.

전체적으로 친구가 자신을 이해하고 있다(“약간”+ “많이”)고 생각하는 청소년이 7할 이상(74.7%)에 달하여 부모가 자신을 이해하고 있다는 응답률을 상회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표 3-6-31: 친구의 자기이해도 - 전체

(단위: 명, %)

	사례수	비율
거의 이해하지 못한다	357	6.8
별로 이해하지 못한다	963	18.4
약간 이해하고 있다	2,538	48.6
많이 이해하고 있다	1,364	26.1

청소년유형별 응답결과(표 3-6-32)를 비교해 보면, 친구가 자신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의 비율이 취업청소년(82.2%)과 대학생(80.7%)이 8할 이상이었고 다른 집단들도 모두 7할 이상의 높은 응답률을 나타내었다.

기타변인별 응답결과(표 3-6-33)를 보면, 성별로는 친구가 자신을 이해하고 있다는 응답률이 여자가 78.0%로서 남자(71.7%)보다 높았으며, 계층별로는 상위계층이 78.5%로서 중간(74.3%)-하위계층(73.3%)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표 3-6-32: 친구의 자기이해도 - 유형별

(단위: %)

	거 의 이해못함	별 로 이해못함	약 간 이해한다	많 이 이해한다
초 등 생	7.4	17.1	47.0	28.5
중 학 생	8.9	19.7	45.3	26.1
고 교 생	7.4	19.3	50.4	22.9
대 학 생	2.9	16.4	57.2	23.5
취 업	2.9	14.9	48.3	33.9
무 직	5.9	20.0	43.8	30.3

통계치: $\chi^2=74.43^{***}$

표 3-6-33: 친구의 자기이해도 - 성·계층별

(단위: %)

		거 의 이해못함	별 로 이해못함	약 간 이해한다	많 이 이해한다
성 별	남 자	8.0	20.3	47.2	24.5
	여 자	5.6	16.5	50.1	27.9
계 층	상 위	5.6	15.9	49.2	29.3
	중 간	7.0	18.7	47.7	26.6
	하 위	6.5	20.2	49.4	23.9

통계치: 성별 $\chi^2=28.98^{***}$, 계층 $\chi^2=15.51^*$

친구관계 만족도

Q 현재 자신의 친구와의 관계를 전체적으로 평가한다면 얼마나 만족 또는 불만을 느끼십니까 ?

- | | |
|------------|------------|
| 1. 매우 불만이다 | 2. 불만이다 |
| 3. 만족한다 | 4. 매우 만족한다 |

현재 자신의 친구관계 만족도를 단계별 4점척도에 의거하여 평가하게

하였다. 응답결과를 보면 “만족한다”가 62.3%로서 다수를 점하였고, 이어
서 “매우 만족한다”(17.5%), “불만이다”(15.8%)의 순이었으며 “매우 불만”
이라는 응답은 극소수(4.4%)에 불과하였다.

전체적으로 청소년의 8할에 달하는 절대 다수(79.8%)가 자신의 친구
관계에 대하여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3-6-34: 친구관계 만족도 - 전체

(단위: 명, %)

	사례수	비율
매우 불만	228	4.4
불만이다	826	15.8
만족한다	3,255	62.3
매우 만족	917	17.5

청소년유형별 응답결과를 보면 모든 집단에서 7할 이상의 청소년이 만
족한다고 응답하였다. 대체로 연장청소년보다는 연소청소년의 친구관계 만
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표 3-6-35: 친구관계 만족도 - 유형별

(단위: %)

	매우 불만	불만	만족	매우 만족
초 등 생	3.7	12.9	54.4	29.0
중 학 생	6.3	15.3	58.7	19.7
고 교 생	4.5	17.7	62.4	15.4
대 학 생	2.7	14.4	74.4	8.4
취 업	2.6	17.3	68.6	11.5
무 직	3.0	17.3	68.8	10.9

통계치: $\chi^2=184.95^{***}$

5) 정보화 실태

컴퓨터 유무·사용자

Q 당신의 집에는 컴퓨터가 있습니까? 있다면 그 컴퓨터는 누가 주로 사용합니까?

1. 없 다
2. 컴퓨터가 있고, 내가 주로 사용한다
3. 컴퓨터가 있고, 부모님이 주로 사용한다
4. 컴퓨터가 있고, 형제·자매가 주로 사용한다

현재 자신의 집에 컴퓨터가 있는지, 있다면 주사용자가 누구인지를 질문하였다. 응답결과를 보면 컴퓨터가 없다는 응답은 16.5%로서 8할 이상의 청소년이 집에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컴퓨터의 주사용자는 자신이라는 응답이 48.7%로서 다수였는데 이것은 컴퓨터 보유가정 청소년의 58.3%에 해당한다. 형제·자매라는 응답이 29.7%(컴퓨터 보유가정의 35.6%)로서 그 다음이었으며, “부모님이 주로 사용한다”는 응답은 극소수에 불과했다(5.2%; 컴퓨터 보유가정의 6.2%). 가정 내에서의 컴퓨터의 주이용자가 부모세대보다는 자녀층(청소년)임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6-36: 컴퓨터 유무·주이용자 - 전체

(단위: 명, %)

	사례수	비율
없 다	856	16.5
주로 내가 사용	2,528	48.7
주로 부모님이 사용	268	5.2
주로 형제·자매가 사용	1,543	29.7

청소년유형별 응답결과(표 3-6-37)를 보면, 먼저 집에 컴퓨터가 없다는

응답률이 대학생들을 포함한 학생청소년집단이 모두 2할 미만임에 비해 무직 청소년은 23.5%, 취업청소년은 31.9%에 달하였다. 컴퓨터가 있는 경우 모든 집단에서 주이용자가 자신이라는 응답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표 3-6-37: 컴퓨터 유무 · 주이용자 - 유형별

(단위: %)

	없 다	주 로 내가 사용	주 로 부모님	주 로 형제 · 자매
초 등 생	11.1	48.9	6.5	33.5
중 학 생	13.8	53.6	6.1	26.6
고 교 생	18.6	46.9	4.6	29.9
대 학 생	10.6	56.5	2.2	30.7
취 업	31.9	32.7	3.4	31.9
무 직	23.5	42.4	7.1	27.0

통계치: $\chi^2=175.48^{***}$

기타변인별 응답결과를 보면 먼저 성별로는 컴퓨터의 주이용자가 자신이라는 응답률이 남자가 여자보다 월등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계층별로는 가정의 컴퓨터 보유율이 상위계층이 중간-하위계층에 비해 크게 앞서 있었으며 컴퓨터의 주 이용자가 자신이라는 응답률에서도 상위계층 청소년이 중간-하위계층에 비해 현격하게 높았다.

표 3-6-38: 컴퓨터 유무 · 주이용자

(단위: %)

		없 다	주 로 내가 사용	주 로 부모님	주 로 형제자매
성 별	남 자	15.6	56.7	5.8	21.9
	여 자	17.4	40.0	4.5	38.1
계 층	상 위	5.5	57.2	7.7	29.5
	중 간	14.5	49.5	5.4	30.7
	하 위	24.9	42.6	2.4	30.1

통계치: 성별 $\chi^2=194.88^{***}$, 계층: $\chi^2=204.49^{***}$

컴퓨터 사용빈도

Q 당신은 컴퓨터를 어느 정도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까 ?

1.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다
2. 한달에 1~2일 정도 사용하고 있다
3. 일주일에 1~2일 정도 사용하고 있다
4. 일주일에 3~4일 정도 사용하고 있다
5. 거의 매일같이 사용하고 있다

현재 컴퓨터를 어느 정도 자주 사용하고 있는지 단계별 5점척도를 제시하고 응답하게 하였다. 응답결과를 보면, “거의 매일같이” 이용한다는 청소년이 48.8%에 달하였고, 다음으로 “일주일에 3~4일 정도”(18.8%), “일주일에 1~2일 정도”(15.6%)의 순이었으며,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청소년은 10.8%에 머물렀다.

표 3-6-39: 컴퓨터 사용회수 - 전체

(단위: 명, %)

	사례수	비율
거의 사용 안함	564	10.8
한달에 1-2일 정도 사용	313	6.0
일주일 1-2일 정도 사용	810	15.6
일주일 3-4일 정도 사용	981	18.8
거의 매일같이 사용	2,539	48.8

청소년유형별 응답결과(표 3-6-40)를 비교하면 “거의 매일같이” 이용한다는 응답률이 대학생이 62.3%로서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중학생(51.0%), 고등학생(48.5%), 초등학생(45.9%)의 순이었으며 무직청소년(38.9%)과 취업청소년(38.6%)은 4할 미만의 상대적으로 낮은 응답률을 나타내었다. 대체로 대학생을 포함한 학생청소년의 이용빈도가 비학생청소년에 비해 월등하게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3-6-40: 컴퓨터 사용회수 - 유형별

(단위: %)

	거 의 사용안함	한달에 1-2일	일주일 1-2일	일주일 3-4일	거 의 매일사용
초 등 생	12.3	3.6	14.3	23.9	45.9
중 학 생	10.7	6.6	15.2	16.6	51.0
고 교 생	11.9	7.1	15.6	16.9	48.5
대 학 생	2.4	3.3	12.0	20.0	62.3
취 업	15.7	8.7	22.6	14.4	38.6
무 직	11.2	6.9	18.1	24.9	38.9

통계치: $\chi^2=167.37^{***}$

기타변인별 응답결과를 비교해 보면, 먼저 성별로는 남자가 여자보다 컴퓨터 이용빈도가 높은 편이었고, 지역별로는 서울지역 청소년이 광역시-시군부지역 청소년에 비해 이용빈도가 다소 높은 편이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계층별로는 상위계층 청소년의 이용빈도가 중간-하위계층에 비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3-6-41: 컴퓨터 사용회수 - 성·계층별

(단위: %)

		거 의 사용안함	한달에 1-2일	일주일 1-2일	일주일 3-4일	거 의 매일사용
성 별	남 자	11.1	6.2	13.8	17.9	51.0
	여 자	10.5	5.9	17.4	19.9	46.3
계 층	상 위	5.1	3.5	15.2	21.3	54.9
	중 간	10.9	6.8	14.6	18.9	48.9
	하 위	13.1	6.1	16.8	18.0	46.0

통계치: 성별 $\chi^2=19.60^{**}$, 계층 $\chi^2=67.17^{***}$

인터넷 사용빈도

Q 당신은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 이용하고 있다면 얼마나 자주 이용하십니까 ?

1. 거의 이용하지 않고 있다
2. 한달에 1~2일 정도 이용하고 있다
3. 일주일에 1~2일 정도 이용하고 있다
4. 일주일에 3~4일 정도 이용하고 있다
5. 거의 매일같이 이용하고 있다

현재 인터넷을 어느 정도 자주 사용하고 있는지 단계별 5점척도를 제시하고 응답하게 하였다. 응답결과를 보면, “거의 매일같이” 이용한다는 청소년이 42.5%에 달하였고, 다음으로 “일주일에 3~4일 정도”(19.0%), “일주일에 1~2일 정도”(16.2%)의 순이었으며,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청소년은 15.2%에 머물렀다.

일주일에 하루 이상 인터넷을 이용하는 청소년이 약 8할 수준(77.7%)에 달하여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이 상당한 수준으로 활성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6-42: 인터넷 사용회수 - 전체

(단위: 명, %)

	사례수	비율
거의 사용 안함	788	15.2
한달에 1-2일 정도 사용	364	7.0
일주일 1-2일 정도 사용	840	16.2
일주일 3-4일 정도 사용	987	19.0
거의 매일같이 사용	2205	42.5

청소년유형별 응답결과(표 3-6-43)를 비교해 보면, 인터넷을 “거의 매일” 이용하고 있다는 응답률이 대학생이 61.5%로서 과반수를 상회하였고,

다음으로 중학생(44.0%), 고등학생(42.8%), 무직청소년(39.3%)의 순이며 취업청소년(33.2%)과 초등학생(33.0%)이 가장 낮은 편에 속하였다. 인터넷을 “거의 이용하지 않고 있다”는 응답은 초등학생이 26.3%, 취업청소년이 17.3%에 달하는 반면, 대학생은 극소수(2.6%)에 불과하였다.

표 3-6-43: 인터넷 사용회수 - 유형별

(단위: %)

	거 의 사용안함	한달에 1-2일	일주일 1-2일	일주일 3-4일	거 의 매일사용
초 등 생	26.3	6.6	14.9	19.2	33.0
중 학 생	16.4	7.7	14.7	17.1	44.0
고 교 생	13.9	7.5	16.9	19.0	42.8
대 학 생	2.6	1.9	13.5	20.5	61.5
취 업	17.3	9.9	20.4	19.1	33.2
무 직	7.6	8.6	21.3	23.1	39.3

통계치: $\chi^2=284.24^{***}$

표 3-6-44: 인터넷 사용회수 - 지역·계층별

(단위: %)

		거 의 사용안함	한달에 1-2일	일주일 1-2일	일주일 3-4일	거 의 매일사용
지 역	서 울	12.3	6.0	14.7	20.9	46.2
	광역시	13.9	7.2	18.3	19.6	41.0
	시군부	17.6	7.4	15.3	17.7	41.9
계 층	상 위	9.6	3.9	17.2	20.4	48.9
	중 간	14.5	6.5	14.9	19.5	44.7
	하 위	18.2	8.6	17.7	18.1	37.3

통계치: 지역 $\chi^2=36.09^{***}$, 계층 $\chi^2=75.26^{***}$

기타변인별 응답결과(표 3-6-44)를 비교해 보면, 지역별로는 광역시-시군부에 비해 서울지역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고, 계층별로는 상위계층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빈도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중간계층, 하위계층의 순으로 나타나 생활수준이 높은 집단일수록 인터넷 이용이 생활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성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컴퓨터·인터넷의 유용성

Q 컴퓨터·인터넷이 없다면 당신의 생활은 어떻게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

1. 거의 변화가 없을 것이다
2. 별로 변화가 없을 것이다
3. 약간 불편할 것이다
4. 매우 불편할 것이다

청소년들이 컴퓨터·인터넷의 유용성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컴퓨터·인터넷이 없다면 자신의 생활이 어떻게 되리라고 생각하는지 질문하였다. 응답결과를 보면 “약간 불편할 것이다”(37.3%)와 “매우 불편할 것이다”(37.0%)가 비슷한 비율로 다수를 차지하였고, “별로 변화가 없을 것이다”가 17.0%, “거의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은 8.6%로서 가장 소수였다.

전체적으로 7할을 상회하는 대다수의 청소년(74.3%)이 컴퓨터·인터넷이 없다면 생활이 불편해질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표 3-6-45: 컴퓨터·인터넷이 없을 경우 생활변화 - 전체

(단위: 명, %)

	사례수	비율
거의 변화가 없을 것이다	449	8.6
별로 변화가 없을 것이다	885	17.0
약간 불편할 것이다	1,937	37.3
매우 불편할 것이다	1,924	37.0

청소년유형별 응답결과(표 3-6-46)를 비교해 보면 생활이 불편해질 것이라고 응답한 청소년의 비율이 대학생이 84.0%로서 가장 다수였고, 다음

으로 초등학생(76.8%), 중학생(75.9%), 무직청소년(73.3%), 고등학생(71.5%)의 순이었고, 취업청소년이 60.6%로서 가장 소수였다.

표 3-6-46: 컴퓨터·인터넷 없을 경우 생활변화 - 유형별

(단위: %)

	거의 변화 없을 것	별로 변화 없을 것	약 간 불편할 것	매 우 불편할 것
초 등 생	9.1	14.1	38.2	38.6
중 학 생	9.8	14.3	32.7	43.2
고 교 생	8.5	20.0	38.5	33.0
대 학 생	3.6	12.5	40.8	43.2
취 업	12.9	26.6	36.1	24.5
무 직	7.6	19.0	41.6	31.7

통계치: $\chi^2=133.58^{***}$

7. 개인·자아관

개인·자아관은 자아에 대한 인식, 고민·걱정거리, 전체적인 행복감의 3개 하위영역으로 나누어서 전체 청소년들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자아에 대한 인식에서는 청소년들이 자기자신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는지를 알아보았고, 고민·걱정거리에서는 현재 가장 큰 고민·걱정거리가 무엇이고 그것을 주로 누구와 상의하는지 다루었다. 전체적인 행복감에서는 자신의 생활을 전체적으로 평가할 때 얼마나 행복하다고 느끼는지를 조사하였다.

1) 자아에 대한 인식

Q 다음은 당신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아래의 설명을 읽고 자신에게 해당되는 응답항목을 골라주십시오.

- 1) 나는 내 자신이 마음에 안 든다
- 2) 나에게는 자랑할만 것이 별로 없다
- 3) 나는 친구들과 잘 어울리는 편이다
- 4) 나는 때때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 5) 미래의 나는 지금보다 나아질 것이다
- 6) 나는 다른 사람보다 우월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 7) 나는 미래에 대한 꿈과 야망을 가지고 있다
- 8) 장래의 성공은 지금 얼마나 노력하는가에 달려있다
- 9) 내가 노력만 한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이다

<응답항목>

- | | |
|--------------|-----------|
| 1. 매우 그렇지 않다 | 2. 그렇지 않다 |
| 3. 그렇다 | 4. 매우 그렇다 |

청소년들이 자기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개인의 심리·사회적 특성에 대한 9가지의 진술을 제시하고 각각에 대하여 강한 부정(“매우 그렇지 않다”)에서 강한 긍정(“매우 그렇다”)에 이르는 단계별 4점척도를 제시하고 응답하게 하였다.

각 항목별 응답결과는 다음의 표와 같다.

표 3-7- 1: 개인·자아관

(단위: %)

	그렇다	매 우 그렇다
나는 내 자신이 마음에 안 든다	30.4	6.2
나에게는 자랑할만 것이 별로 없다	40.2	5.8
나는 친구들과 잘 어울리는 편이다	60.8	19.6
나는 때때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36.2	7.7
미래의 나는 지금보다 나아질 것이다	54.6	32.1
나는 다른 사람보다 우월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35.2	9.1
나는 미래에 대한 꿈과 야망을 가지고 있다	49.6	25.9
장래의 성공은 지금 얼마나 노력하는가에 달려있다	50.3	40.0
내가 노력만 한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이다	43.7	41.0

청소년들의 자아인식을 보다 구조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각 항목별 응답 결과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다음의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두가지의 요인이 추출되었다(표 3-7-2).

여기서 요인Ⅰ은 자신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미래를 개척하는 강력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성취의욕”으로, 요인Ⅱ는 자신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는 자신에 대한 비하감과 열등의식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기무용감”(自己無用感)으로 명명하기로 한다.

표 3-7- 2: 개인·자아관 - 회전된 요인행렬표

		I	II
요인 I (성취의욕)	내가 노력만 한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이다	<u>0.80</u>	-0.04
	장래의 성공은 지금 얼마나 노력하는가에 달려있다	<u>0.78</u>	0.04
	미래의 나는 지금보다 나아질 것이다	<u>0.72</u>	-0.18
	나는 미래에 대한 꿈과 야망을 가지고 있다	<u>0.69</u>	-0.21
	나는 친구들과 잘 어울리는 편이다	<u>0.46</u>	-0.06
	나는 다른 사람보다 우월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u>0.41</u>	-0.35
요인 II (자기무용감)	나에게는 자랑할만 것이 별로 없다	-0.14	<u>0.81</u>
	나는 내 자신이 마음에 안 든다	-0.01	<u>0.80</u>
	나는 때때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0.11	<u>0.70</u>

주: 주성분분석, 직교회전

이상의 요인분석을 통해 추출된 두 변인의 각 하위집단별 평균값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성취의욕 변인의 경우 전체 평균은 3.02인데 초등학생(3.16)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중학생(3.03), 무직청소년(3.02), 대학생(3.01)의 순이며, 취업청소년(2.99)과 고등학생(2.97)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대체로 나이가 어린 초·중학생들이 성취의욕이 가장 강한 편이고 연장 청소년집단이 중간 수준이며 고등학생이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자기무용감(自己無用感) 변인의 경우 전체 평균값은 2.36인데, 취업청소년이 가장 높았고(2.44), 다음으로 고등학생(2.41), 중학생(2.32)과 무직청소년(2.32), 대학생(2.25)의 순이며 초등학생이 가장 낮았다(2.20).

이상의 두 변인별 점수 비교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연소청소년집단

에서는 고등학생, 연장청소년집단에서는 취업청소년들이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신의 미래를 개척하고자 하는 성취의욕이 낮고 자신의 가치를 비하하는 자기무용감의 정도가 높은 수준이었다.

표 3-7- 3: 자이인식 변인별 평균값

		평 균	표준편차
성취의욕	초 등 생	3.16	0.40
	중 학 생	3.03	0.50
	고 교 생	2.97	0.59
	대 학 생	3.01	0.43
	취 업	2.99	0.42
	무 직	3.02	0.45
자기무용감	초 등 생	2.20	0.64
	중 학 생	2.32	0.65
	고 교 생	2.41	0.69
	대 학 생	2.25	0.56
	취 업	2.44	0.46
	무 직	2.32	0.63

통계치: 성취의욕 $F=2.98^*$, 자기무용감 $F=3.82^{**}$

2) 고민 · 걱정거리

고민 · 걱정거리

Q 현재 당신은 고민이나 걱정거리가 있습니까 ? 있다면 어떤 것인지 가장 대표적인 것 한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 | | |
|----------------|-------------------|
| 1. 돈 · 경제적인 문제 | 2. 진로문제 |
| 3. 공부 · 학업문제 | 4. 이성문제 |
| 5. 자신의 성격 | 6. 친구와의 관계 |
| 7. 건강문제 | 8. 자신의 외모 |
| 9. 종교 · 인생관 문제 | 10. 가정문제 |
| 11. 직장문제 | 12. 고민 · 걱정거리가 없다 |

표 3-7- 4: 고민 · 걱정거리

(단위: 명, %)

	사례수	비율
돈 · 경제적인 문제	891	17.1
진로문제	1,566	30.0
공부 · 학업문제	1,282	24.6
이성문제	372	7.1
자신의 성격	186	3.6
친구와의 관계	151	2.9
건강문제	88	1.7
자신의 외모	155	3.0
종교 · 인생관 문제	47	.9
가정문제	107	2.0
직장문제	59	1.1
고민 · 걱정거리 없다	317	6.1

현재 자신이 안고 있는 가장 큰 고민·걱정거리가 무엇인지 모두 12가지의 항목을 제시하고 그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였다. 응답결과(표 3-7-4)를 보면 진로문제가 33.0%로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내었고 다음으로 공부·학업문제(24.6%), 돈·경제적인 문제(17.1%), 이성문제(7.1%)의 순이었으며 나머지 항목들은 모두 5% 미만의 낮은 응답률을 나타내었다. 현재 고민이나 걱정거리가 없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6.1%에 머물렀다.

고민 상담상대

Q 당신은 자신의 고민이나 걱정거리를 주로 누구와 상의하십니까 ?

- | | |
|-------------------|------------|
| 1. 아버지 | 2. 어머니 |
| 3. 형제·자매 | 4. 학교선생님 |
| 5. 친구나 선·후배 | 6. 이중에는 없다 |
| 7. 아무하고도 상의하지 않는다 | |

청소년들이 자신의 고민을 주로 누구와 상의하는가를 질문하였다. 응답결과를 보면 친구나 선·후배와 상의한다는 청소년이 40.1%로서 가장 다수를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어머니(22.9%), 형제·자매(7.4%)의 순이었으며 아버지(6.0%), 학교교사(교수)(0.8%)와 상의한다는 응답률은 소수에 머물렀다. 아무하고도 상의하지 않는다는 청소년도 18.8%에 달하였다.

표 3-7- 5: 고민·걱정거리 상담상대

(단위: 명, %)

	사례수	비율
아버지	328	6.0
어머니	1,112	21.3
형제·자매	439	7.4
학교선생님	61	0.8
친구나 선·후배	1,997	40.1
이중에는 없다	45	5.6
아무하고도 상의하지 않는다	211	18.8

3) 전체적인 행복감

Q 현재의 생활을 전체적으로 고려해 볼 때 당신은 얼마나 행복하다고 느끼십니까 ?

- | | |
|---------------|------------|
| 1. 매우 행복하지 않다 | 2. 행복하지 않다 |
| 3. 행복하다 | 4. 매우 행복하다 |

자신의 생활을 전체적으로 평가할 때 얼마나 행복하다고 느끼는지를 질문하였다. 응답결과를 보면 “행복하다”는 청소년이 56.9%로서 다수였고, 다음으로 “행복하지 않다”(21.2%), “매우 행복하다”(16.7%)의 순이며, “매우 행복하지 않다”는 청소년은 5.2%로서 가장 소수였다. 전체적으로 자신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청소년이 7할을 상회하였다(73.6%).

표 3-7- 6: 전체적인 행복감 - 전체

(단위: 명, %)

	사례수	비율
매우 행복하지 않다	271	5.2
행복하지 않다	1,110	21.2
행복하다	2,977	56.9
매우 행복하다	875	16.7

청소년유형별 응답결과(표 3-7-7)를 보면, 자신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청소년의 비율이 초등학생이 88.1%로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대학생(81.2%), 중학생(73.5%)의 순이며 취업청소년(68.3%)과 고등학생(66.0%), 무직청소년(63.8%)은 6할 수준에 머물렀다.

기타변인별 응답결과(표 3-7-8)를 비교해 보면, 먼저 성별로는 남자보다는 여자가 행복감을 느끼는 청소년의 비율이 높은 편이며, 계층별로는 행복하다는 응답률이 상위(81.8%) - 중간(72.6%) - 하위계층(69.4%)의 순으로서 생활수준이 높은 집단일수록 자신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3-7- 7: 전체적인 행복감 - 유형별

(단위: %)

	매우 행복 하지 않다	행복하지 않 다	행복하다	매 우 행복하다
초 등 생	3.9	8.0	46.1	42.0
중 학 생	6.7	19.8	53.1	20.4
고 교 생	6.7	27.2	57.8	8.2
대 학 생	1.4	17.5	75.5	5.7
취 업	3.4	28.3	64.4	3.9
무 직	4.3	31.8	56.7	7.1

통계치: $\chi^2=776.56^{***}$

표 3-7- 8: 전체적인 행복감 - 성·지역·계층별

(단위: %)

		매우 행복 하지 않다	행복하지 않 다	행복하다	매 우 행복하다
성 별	남 자	6.5	21.4	54.0	18.1
	여 자	3.8	21.0	60.0	15.2
지 역	서 울	5.8	21.8	57.3	15.1
	광역시	5.0	20.8	59.3	14.9
	시군부	5.0	21.3	54.8	18.9
계 층	상 위	4.3	13.9	57.6	24.2
	중 간	5.8	21.6	57.1	15.5
	하 위	4.8	25.7	57.7	11.7

통계치: 성별 $\chi^2=33.76^{***}$, 지역 $\chi^2=17.19^{**}$, 계층 $\chi^2=100.23^{***}$

8. 종합적 분석

1) 생활영역별 인간관계

생활영역별 대화빈도

청소년들의 생활영역별 주변성인들과의 대화빈도를 비교하기 위해 가끔 또는 자주 대화하고 있다는 응답률을 합산하여 정리하면 다음의 표(표 3-8-1)와 같다.

모친과의 대화빈도(89.5%)가 부친(71.7%)을 월등하게 상회하고 있으며, 가정밖의 영역에서는 취업청소년의 직장상사와의 대화빈도(58.7%)가 학생 청소년의 교사와의 대화빈도(31.9%)를 앞서고 있다. 지역사회내의 이웃어른과 가끔 또는 자주 대화한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3할에도 못미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결과를 성별로 비교하면 모든 생활영역에 걸쳐 여자가 남자보다 대화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직장상사·모친과의 대화빈도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큰 편이었다.

표 3-8- 1: 생활영역별 대화빈도 비교

(단위: %)

	대화하고 있다(“가끔”+ “자주”)		
	전 체	남	녀
부친과의 대화	71.7	71.6	72.0
모친과의 대화	89.5	87.8	91.4
교사와의 대화빈도	31.9	30.6	33.2
직장상사와의 대화	58.7	55.4	59.6
이웃어른과의 대화	28.5	27.7	30.4

청소년유형별로 응답결과를 비교하면(표 3-8-2), 가정에서의 부모와의

대화빈도는 초등학생·중학생이 가장 높았으며 취업청소년·무직청소년이 가장 낮았다. 학생청소년의 교사와의 대화빈도는 초등학생이 가장 높았고 교급이 올라갈수록 감소경향을 나타내어 대학생이 가장 낮았다. 이웃어른과의 대화빈도는 초등학생이 다른 집단에 비해 월등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과 취업청소년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전체적으로 주변성인과의 대화빈도는 연장청소년보다는 연소청소년, 비학생청소년보다는 학생청소년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으나, 고등학생은 예외적으로 취업·무직청소년과 비슷한 수준의 낮은 대화빈도를 나타내었다.

표 3-8- 2: 생활영역별 대화빈도 비교 - 유형별

(단위: %)

	대화하고 있다(“가끔”+ ”자주”)					
	초등생	중학생	고교생	대학생	취업	무직
부친과의 대화	87.6	77.9	64.4	69.6	56.0	57.8
모친과의 대화	95.8	91.1	87.7	90.9	83.2	80.5
교사와의 대화빈도	48.0	31.7	26.1	21.7	-	-
직장상사와의 대화	-	-	-	-	58.9	-
이웃어른과의 대화	45.7	28.5	21.9	26.9	20.5	24.5

생활영역별 타인의 자기이해도

청소년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자신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생활영역별로 비교하기 위해 약간 또는 많이 이해하고 있다는 응답결과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표 3-8-3)와 같다.

7할 이상의 청소년들이 친구가 자기를 이해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부모의 이해도를 앞서고 있는데, 청소년기 또래집단의 영향력과 중요성을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양친중에서는 모친의 이해도가 부친보다 현격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직장상사가 자신을 이해하고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의 비율은 절반 정도였는데, 직장상사의 이해도가 교사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응답결과를 성별로 비교하면 남자는 부친과 교사의 이해도를, 여자는 모친과 직장상사, 친구의 이해도를 각각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하였다.

표 3-8- 3: 생활영역별 타인의 자기이해도 비교

(단위: %)

	이해하고 있다(“약간”+ ”많이”)		
	전 체	남	녀
부친의 이해도	50.7	52.1	49.3
모친의 이해도	65.6	64.9	66.3
교사의 학생이해도	51.4	54.0	47.5
직장상사의 이해도	55.2	50.8	57.3
친구의 자기이해도	74.7	71.7	77.0

청소년유형별로는 부친의 이해도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높게 평가하였고, 취업·무직청소년이 낮은 수준으로 평가하였다. 모친의 경우에는 초등학생과 대학생이 높게 평가한 반면, 고등학생·취업청소년의 평가가 낮은 수준이었다. 학생청소년을 대상으로 질문한 교사의 이해도에서는 초등학생이 다른 집단에 비해 월등하게 높게 평가하였고, 중·고·대학생은 모두 4할 수준의 낮은 응답률을 나타내었다. 친구의 이해도에 대해서는 취업청소년·대학생의 평가가 가장 높았고 중학생·고등학생의 평가가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표 3-8- 4: 생활영역별 타인의 자기이해도 비교 - 유형별

(단위: %)

	이해하고 있다(“약간”+ ”많이”)					
	초등생	중학생	고교생	대학생	취 업	무 직
부 친	71.7	55.1	40.7	48.7	36.4	40.2
모 친	80.4	66.7	58.4	68.0	58.1	58.9
학교교사	72.1	48.1	44.3	45.6	-	-
직장상사	-	-	-	-	55.2	-
친 구	75.5	71.4	73.3	80.7	82.2	74.1

생활영역별 역할모델

청소년들이 주변의 성인들을 자신의 역할모델로 생각하고 있는지를 질문하고 그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결과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표 3-8-5)와 같다.

전체 청소년의 약 절반 가량이 부모(동성의 부모)를 자신의 역할모델로 생각하고 있었다. 자신의 학교에 본받을 만한 교사가 있다는 응답도 4할을 상회하여 직장상사 중에 자신의 역할모델이 있다는 응답률보다 높게 나타났다. 자신의 동네에 본받을 만한 어른이 있다는 응답은 1할 수준에 머물러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응답결과를 비교하면, 부모·직장상사를 자신의 역할모델로 생각한다는 응답은 여자가, 교사·지역어른을 자신의 역할모델로 생각한다는 응답한 남자가 더 많았다.

표 3-8- 5: 생활영역별 역할모델의 존재 비교

(단위: %)

	긍정응답률(“그렇다”+ “있다”)		
	전 체	남	여
부모 같은 사람이되고 싶다	48.7	47.1	50.5
본받을 만한 교사	46.9	47.6	46.1
본받을 만한 직장상사	34.6	32.0	36.1
본받을 만한 이웃어른	12.5	13.2	11.8

청소년유형별 응답결과를 보면, 부모를 자신의 역할모델로 생각하는 청소년의 비율은 초등학생·중학생·대학생이 5할을 상회하는 반면, 고등학생과 취업청소년은 4할에도 못미쳤다. 교사를 자신의 역할모델로 생각하는 청소년은 초등학생이 5할 수준으로 가장 높고 중·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감소하다가 대학생 집단에서 소폭으로 증가하였다. 이웃어른 중에 자신의 역할모델이 있다는 응답률은 초등학생이 가장 높고, 고등학생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영역별 대립경험

주변성인들과의 대립경험을 생활영역별로 비교하기 위해 지난 1년 동안 대립경험이 있었다는 응답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표 3-8-6)와 같다.

부모와의 대립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4할 수준으로서 부친보다는 모친과의 대립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화빈도·이해도의 측면에서 모친이 부친보다 월등 앞서고 있음을 감안하면 모친과의 대립이 더 잦다는 것이 그만큼 갈등이 더 심각한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취업청소년의 직장상사와의 대립경험률은 3할 수준으로서 학생청소년의 교사와의 대립경험률보다 월등하게 높았다.

응답결과를 성별로 비교하면 교사와의 대립경험만 동일한 수준이고 부친·모친·직장상사 모두 남자의 대립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8- 6: 생활영역별 타인과의 대립경험 비교

(단위: %)

	대립경험 있다		
	전 체	남	녀
부 친	43.9	46.0	41.7
모 친	46.2	48.0	44.4
교 사	19.1	19.1	19.1
직장상사	28.3	37.0	23.9

표 3-8- 7: 생활영역별 타인과의 대립경험 비교 - 유형별

(단위: %)

	대립경험 있다					
	초등생	중학생	고교생	대학생	취 업	무 직
부 친	22.0	39.1	52.4	49.4	58.4	59.4
모 친	30.3	44.6	54.6	44.7	50.8	54.4
교 사	17.1	20.0	22.5	10.9	-	-
직장상사	-	-	-	-	28.3	-

청소년유형별(표 3-8-7)로는 부친과의 대립경험은 무직청소년·취업청

소년이 가장 많은 편이었고, 초등학생이 가장 적었다. 모친과의 대립경험은 고등학생·무직청소년이 가장 많았으며 역시 초등학생이 가장 적었다. 교사와 대립경험이 있다는 응답비율은 교급이 올라갈수록 증가경향을 나타내다가 대학생 집단에서 현저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학교·직장에서의 경쟁의식

학교·직장생활 영역에서 친구·동료와 경쟁의식을 느끼고 있다(“약간”+ “많이”)는 응답결과를 비교하면 다음의 표(표 3-8-8)와 같다.

직장동료에 대해서 경쟁의식을 느끼고 있는 취업청소년이 3할 수준임에 비해 학급친구에게 경쟁의식을 갖고 있다는 학생청소년이 거의 1/2 수준에 달하는 점이 주목된다. 과도한 입시준비 위주의 교육환경으로 인하여 현실사회보다도 학교에서의 경쟁이 오히려 심화되어 있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성별로는 학급친구·직장동료 모두에 대해서 남자보다는 여자가 경쟁의식을 느낀다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표 3-8- 8: 학급친구·직장동료와의 대립경험 비교

(단위: %)

	느끼고 있다(“약간”+ “많이”)		
	전 체	남	여
학급친구	48.6	49.9	51.6
직장동료	31.5	27.4	31.9

2) 생활영역별 만족도와 전망

생활만족도

청소년들의 생활영역별 전체적인 만족도를 비교하기 위해 만족한다(“매우 만족” 포함)는 응답결과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표 3-8-9)와 같다.

약 8할의 청소년이 친구관계에 만족한다고 응답하여 가장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었고, 다음으로 가정생활, 국가(한국인), 지역사회, 직장생활의 세 영역에 대해서 과반수 이상의 청소년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생활, 여가생활, 사회현실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은 5할 미만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나타냈는데, 특히 우리사회의 현실에 대해서 만족한다는 응답은 2할에도 못미쳐서 청소년들이 사회현실에 대하여 강한 불신감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별 응답결과를 비교하면, 남자는 가정생활, 학교생활, 지역사회, 사회현실, 국가(한국인), 여가생활에 대하여, 여자는 직장생활, 친구관계에 대하여 각각 상대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었다.

표 3-8- 9: 생활영역별 만족도 비교

(단위: %)

	만족한다(“매우 만족” 포함)		
	전 체	남	여
가정생활	68.6	68.9	68.1
학교생활	49.9	51.3	48.5
직장생활	54.0	50.8	55.9
지역사회	65.3	67.2	63.3
사회현실	19.2	21.0	17.4
국가(한국인)	67.0	67.5	66.5
여가생활	45.2	48.9	41.2
친구관계	79.8	79.7	80.0

주: “지역사회”는 “좋아한다”(“매우 좋아한다” 포함)는 응답비율임

생활만족도에 대한 응답결과를 청소년유형별로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표 3-8-10).

초등학생이 모든 생활영역에 걸쳐 가장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었고, 다음으로 중학생과 대학생이 중간 수준, 고등학생과 취업청소년, 무직청소년이 낮은 수준의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다.

대체로 연소청소년이 연장청소년 집단보다, 학생청소년이 비학생청소년보다 만족도가 높은 경향을 나타내는데, 연장청소년 중에서 대학생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다른 집단에 비해 높은 생활수준과 교육환경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반면에 연소청소년 집단에 속한 고등학생이 상대적으로 만족도의 수준이 현저하게 낮은 것은 성장단계에 따른 심리적 특성과 더불어 입시준비 또는 사회진출을 앞둔 고민과 갈등이 투영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표 3-8-10: 생활영역별 만족도 비교 - 유형별

(단위: %)

	만족한다(“매우 만족” 포함)					
	초등생	중학생	고교생	대학생	취업	무직
가정생활	86.9	71.2	58.5	73.9	57.1	60.0
학교생활	73.8	50.5	37.0	45.6	-	-
직장생활	-	-	-	-	54.0	-
지역사회	78.4	64.7	59.7	69.7	55.1	62.8
사회현실	46.6	19.5	10.6	11.0	10.0	9.6
국가(한국인)	78.8	65.2	65.3	68.0	57.8	60.0
여가생활	70.1	48.2	38.3	36.1	27.8	33.7
친구관계	83.4	78.4	77.8	82.8	80.1	79.7

주: “지역사회”는 “좋아한다”(“매우 좋아한다” 포함)는 응답비율임

생활전망

생활영역별로 앞으로의 전망에 대하여 낙관적으로 전망(“지금보다 좋아질 것”+ “훨씬 좋아질 것”)한 응답비율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표 3-8-11)와

같다.

약 7할의 청소년이 앞으로 자신의 가정생활이 지금보다 좋아질 것이라고 응답하여 낙관적인 응답비율이 가장 높은 수준이었고, 다음으로 직장생활, 학교생활, 지역사회의 순이었으며, 우리사회가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률은 4할 미만에 머물러 가장 낮았다.

성별로 응답결과를 비교하면 모든 생활영역에 걸쳐 여자가 남자보다 낙관적으로 전망하였는데, 특히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에 대한 낙관적인 응답비율의 성별 차이가 상대적으로 큰 편이었다.

표 3-8-11: 생활영역별 변화전망

(단위: %)

	낙관적 전망		
	전 체	남	여
가정생활	71.3	68.6	74.5
학교생활	56.2	54.2	58.3
작장생활	59.6	53.1	63.4
지역사회	41.0	40.3	41.7
사회현실	37.2	35.9	38.7

3) 생활영역별 만족도와 행복감

청소년이 느끼는 생활의 전체적인 행복감은 각 생활영역별 만족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리라 생각된다. 여기서는 청소년의 행복감이 가정·학교·직장 등 일상생활 전반의 만족도가 복합적으로 반영된 것이라는 가정하에 청소년의 생활영역별 만족도와 전체적인 행복감간의 관계를 분석해 보기로 한다.

먼저 각 생활영역별 만족도가 전체적인 행복감과 어느 정도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단순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고 상관계수

를 산출하였다. 대상이 된 변인은 “가정생활 만족도” “학교생활 만족도” “지역사회 선호도” “사회현실 만족도” “국가(한국인) 만족도” “여가생활 만족도” “친구관계 만족도” 등 모두 7가지이다.

상관관계 분석 결과를 보면 다음의 표(표 3-8-12)에 제시되어 있듯이 7가지의 영역별 만족도가 모두 전체적인 행복감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그중에서 “가정생활 만족도”와의 상관계수가 0.42로서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 다음으로 “여가생활 만족도”(0.30), “학교생활 만족도”(0.29), “지역사회 선호도”와 “친구관계 만족도”(각각 0.27), “국가(한국인) 만족도”(0.25)의 순이었으며, “사회현실 만족도”(0.20)와의 상관관계가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3-8-12: 생활영역별 만족도와 행복감의 상관관계

	전체적 행복감
가정생활 만족	0.42***
학교생활 만족도	0.29***
지역사회 선호도	0.27***
사회현실 만족	0.20***
국가(한국인) 만족도	0.25***
여가생활 만족도	0.30***
친구관계 만족도	0.27***

앞에서의 단순상관관계 결과는 두 변인간의 상관관계의 존재여부와 그 크기를 나타내는 것으로 각 생활영역별 만족도가 전체적인 행복감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인과적인 파악은 불가능하다. 여기서는 각 생활영역별 만족도가 전체적인 행복감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7가지의 생활영역별 만족도를 독립변인으로, 전체적인 행복감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의 결과(표 3-8-13) 7가지 생활영역별 만족도가 모두 전체적인 행복감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각 생활영

역별 만족도가 전체적인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의 순위를 보면, “가정생활 만족도”가 가장 컸으며, (0.29), 다음으로 “친구관계 만족도”와 “여가생활 만족도”(각각 0.15), “국가(한국인) 만족도”와 “지역사회 선호도”(각각 0.10), “학교생활 만족도”(0.09)의 순이었으며 “사회현실 만족”(0.05)가 가장 작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 7가지 변인은 전체적인 행복감 전체 변량의 30%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이 개인의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생활영역임을 감안하면 가정생활에서의 만족도가 전체적인 행복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예상되는 결과였다고 생각된다. 반면에 친구관계·여가생활 만족도가 다음으로 큰 비중을 갖고 있는 것은 또래집단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력과 학교공부 이외에 다양한 취미·여가활동을 추구하는 청소년기의 독특한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사회현실 만족도가 전체적인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청소년기가 아직 사회에 진출하기 이전의 단계로서 청소년들에게 사회란 그들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존재하는 추상적인 생활공간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표 3-8-13: 전체적인 행복감 회귀분석

	b	beta
가정생활 만족	0.29	0.29***
학교생활 만족도	0.09	0.09***
지역사회 선호도	0.10	0.10***
사회현실 만족	0.05	0.05***
국가(한국인) 만족도	0.09	0.10***
여가생활 만족도	0.14	0.15***
친구관계 만족도	0.16	0.15***

통계치: $R^2 = 0.30$

요인분석의 결과를 성별로 비교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표 3-8-14). 성

별로 두드러진 차이는 전체적인 행복감에 미치는 가정생활의 영향력이 남자보다는 여자가 월등하게 높은 반면, 여가생활 만족도의 영향력은 남자쪽이 더 크다는 점이다. 또한 남자의 경우 여가생활 만족도의 영향력이 친구관계 만족도보다 다소 높은 편인데, 여자의 경우에는 친구관계 만족도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표 3-8-14: 전체적인 행복감 회귀분석 - 성별

	남 자	여 자
	beta	beta
가정생활 만족	0.27***	0.32***
학교생활 만족도	0.09***	0.09***
지역사회 선호도	0.10***	0.10***
사회현실 만족	0.04*	0.06**
국가(한국인) 만족도	0.10***	0.09***
여가생활 만족도	0.17***	0.12***
친구관계 만족도	0.16***	0.15***

통계치: 남자 $R^2 = 0.30$, 여자 $R^2 = 0.32$

IV. 요약 및 논의

1. 요약

1) 가정생활

가족구성

결손가정(부모 두분 모두 또는 한분이 안 계신 경우)의 비율은 학생청소년(초·중·고·대학생)보다는 비학생청소년(취업·무직청소년), 상위계층보다는 중하위계층에서 높다.

연장청소년(대학생, 취업·무직청소년)의 약 4할(36.0%)이 학업 또는 취업 등의 사유로 현재 부모와 떨어져서 살고 있다. 취업청소년보다는 대학생이, 또한 생활수준이 낮은 집단일수록 부모와의 별거율이 높다.

형제순위의 분포는 “맏이”(40.4%)– “막내”(39.2%)– “중간”(12.0%)– “외동”(8.6%)의 순이었다. “외동”은 남자(11.0%)가 여자(6.0%)의 약 2배에 달하였다.

3세대 가구(조부모와 동거)는 전체의 1/5 미만이다(17.8%). 친가쪽 조부모와의 동거율(14.2%)이 외가쪽 조부모 동거율(3.6%)의 약 4배이다.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촉하는 친척은 친가쪽(42.0%)이 외가쪽(37.9%)보다 다소 많은 편이다. 그러나 서울지역, 상위계층 청소년들은 외가쪽과 더 자주 접촉하고 있다.

가정생활

일상생활에서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참여하는 가사활동은 “부모님 심부름하기”(77.4%)와 “자기방 치우기”(63.1%)이고 “세탁·빨래하기”의 참여율

(29.8%)이 가장 낮다.

청소년들은 전통적인 여성적 가사활동(요리·밥상차리기 등)보다는 성구분 없는 중립적 활동에 보다 많이 참여하고 있다. 나이가 들수록 여성적 가사활동의 참여도가 증가한다.

청소년의 7할 가량(70.2%)이 자신의 가사활동 참여도가 적은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가족관계

청소년들은 부친보다는 모친과 더 자주 대화를 나눈다(“가끔” 또는 “자주” 대화한다: 부친 71.7%, 모친 89.5%). 학생집단이 비학생집단보다 부모와의 대화빈도가 높지만 고등학생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나이가 들면서 부친과의 대화빈도는 감소하는 반면 모친과의 대화빈도는 증가한다. 상위 계층에 비해 중-하위계층 청소년의 부모와의 대화, 특히 부친과의 대화빈도는 현격하게 떨어진다.

청소년은 부친보다는 모친이 자기를 더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약간” 또는 “많이” 이해하고 있다: 부친 50.7%, 모친 65.3%). 나이가 들수록, 생활수준이 낮은 집단일수록 부모가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응답비율이 증가한다.

지난 1년 동안 부모와 대립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4할을 상회하였다(부친 43.9%, 모친 46.2%). 학생집단에 비해 비학생집단의 대립경험률이 월등히 높지만, 유독 고등학생의 대립경험률은 취업·무직청소년과 같은 수준이다. 여자보다는 남자, 도시화수준이 높은 지역, 생활수준이 낮은 계층일수록 부모와 더 자주 대립한다.

청소년들은 부친은 일보다 가정생활을 중시하길 바라지만(선호도: “가정생활 중시형” 80.7%, “일 중시형” 19.3%), 모친은 사회활동을 병행하기를 원한다(선호도: “전업주부” 14.4%, “사회활동 병행형” 85.6%).

청소년의 약 절반이 앞으로 부모님(동성의 부모)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한다(48.7%). 나이가 어린 집단(고등학생은 예외), 생활수준이 높

은 집단일수록 앞으로 부모를 닮기를 원하고 있다(고등학생은 예외).

가족가치관

앞으로 부모님을 반드시 부양하겠다는 청소년이 약 6할(58.9%)에 달하는 반면, 부모 자신의 힘이나 사회보장 제도에 맡기겠다는 청소년은 1할에도 못미친다. 경제적으로 힘닿는 한도내에서 모시겠다는 소극적 부양형도 4할(37.0%)에 달한다. 나이가 어린 집단(고등학생은 예외), 도시화 수준이 낮은 지역일수록 부모님 부양의사가 높다.

성별역할관(남녀간의 구분과 차별의식)에 대한 태도는 무직청소년이 가장 보수적이고 중·고등학생이 가장 진보적이다. 결혼·이혼에 대한 관념은 나이가 많은 집단일수록 진보적이고 연소청소년 집단은 보수적이다. 가족의 위계적 질서에 대한 태도는 고등학생을 제외한 학생집단이 보수적이고, 비학생집단이 상대적으로 진보적이다.

가정생활 만족도

청소년의 약 7할(68.6%)이 현재의 가정생활에 만족을 느끼고 있다. 고등학생을 제외한 학생집단이 비학생집단에 비해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하위영역별로는 “형제·자매와의 관계”의 만족도가 가장 높고 “가정의 경제적 형편”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다. 대체로 초·중학생은 부모님과 관련된 가족관계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반면, 고등학생과 연장청소년 집단은 형제관계의 만족도가 높고 가정의 경제적 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낮다.

청소년들의 가정생활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하위영역은 “부모님과 자신과의 관계”이며 다음으로 “가정의 경제적 형편”, “부모님 두분간의 관계” 등이다.

청소년의 약 7할(71.3%)이 앞으로의 가정생활에 대하여 낙관적으로 전망하였고 비관적으로 전망하는 청소년은 1할에도 못미쳤다(9.1%), 지금과 다름이 없을 것이라는 응답은 2할 수준이었다(19.5%).

2) 학교생활

학업관련 활동

학생청소년의 약 8할(80.8%)이 현재 자신의 공부 양이 적은 편이라고 생각한다. 공부 양이 적다는 응답률은 고등학생이 가장 높는데, 대학진학과 관련된 심리적 부담감이 그 요인으로 생각된다.

초·중·고등학생의 4할(41.6%)이 학과공부 보충을 위해 학원에 다니고 있고, 1/4(25.4%)이 학습지를 구독하고 있으며, 개인 또는 그룹지도를 받는 학생이 2할 수준(21.7%)이다. 학과공부 이외에 취미·여가생활을 위해 학원에 다니거나 지도받고 있는 청소년은 소수이다.

대학생을 포함한 학생청소년의 절반(50.5%)이 서클·동아리 활동 경험 이 있거나 현재 하고 있다. 대학생은 1/2(49.6%)이 현재 서클·동아리활동을 하고 있지만, 초·중·고등학생의 참여율은 3할 미만이다.

학교내 인간관계

학생청소년의 약 절반(48.6%)이 자신의 학급(학과)친구에 대해 경쟁의식을 느끼고 있다. 대학생보다는 초·중·고등학생, 남자보다는 여자, 생활수준이 높은 집단일수록 학급(학과)친구에게 경쟁의식을 느끼는 비율이 높다.

학과수업 시간 이외에 교사와 가끔 또는 자주 대화를 나누는 청소년은 3할(31.9%)에 불과하다. 교급이 올라갈수록 교사와의 대화단절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청소년의 약 절반(51.4%)이 학교 교사가 학생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다(“약간” 또는 “많이”)고 생각한다.

학생청소년의 약 2할(19.1%)이 지난 1년 동안 교사와 대립한 경험 이 있다. 고등학생의 대립경험률이 가장 높고, 초·중학생이 중간이고 대학생 이 가장 낮다.

바람직한 교사상으로 “수업(강의) 지도 충실형”을 선택한 청소년(53.5%)이 “생활·진로지도 충실형”을 선호하는 청소년(46.5%)보다 다소 많은 편이다. “엄격형” 교사(교수)와 “친구형” 교사(교수) 중에서는 압도적인 다수(82.4%)가 “친구형”을 선호하고 있다.

현재 자신의 학교에 본받을만한 교사(교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은 절반에 조금 못미친다(46.9%).

교육현실 인식

청소년들은 학교에서의 공부가 “입시준비”에는 도움이 되지만(긍정응답률: 56.6%), “사회현실 이해”(48.9%), “올바른 인격 형성”(45.3%), “올바른 생활습관 체득”(45.0%), “적성·소질 계발”(37.3%)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은 절반에도 못미친다. 초·중학생에 비해 고등학생·대학생집단이 학교공부의 유용성에 대하여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

초·중·고등학생의 약 8할(84.8%)이 고등학교 졸업 후에 대학진학을 계획하고 있고 취업하려는 청소년은 소수에 불과하다(7.8%). 실업계 고등학생의 상당수도 대학진학을 고려하고 있다. 생활수준이 높은 집단일수록 취업보다는 대학진학을 생각하고 있다.

학교생활 만족도

학생청소년의 약 절반(50.1%)이 현재 학교생활에 불만을 느끼고 있다. 불만을 느끼는 비율은 고등학생이 가장 높고(63.0%), 초등학생이 가장 낮다(26.2%). 생활수준이 낮은 집단일수록 학교생활에 불만을 느끼는 비율이 높다.

하위영역별 만족도는 “교사(교수)와의 관계”가 가장 높고(62.8%), “학교 시설·설비”(42.5%), “자신의 학교성적”(37.5%)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학교생활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하위영역은 “학교선생님과 자신과의 관계”이며 다음으로 “학교선생님의 수업 지도방식”, “학교의 규칙·규율” 등의 순이다.

학생청소년의 약 6할(56.2%)이 자신의 학교생활에 대하여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고, 약 2할(16.4%)가 비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고등학생은 현재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을 뿐 아니라 앞으로의 학교생활에 대해서도 가장 비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3) 직장생활

직업·노동관

사람들이 일을 하는 목적에 대해 “돈을 벌기 위해서”라고 생각하는 청소년이 6할을 상회(65.3%)하는 반면,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라고 생각하는 청소년은 1할 남짓한 수준(11.7%)이다.

일하지 않아도 편히 살만한 돈이 있더라도 계속 일하겠다는 청소년이 7할(68.3%)에 달한다. 일을 하지 않겠다는 응답률은 취업청소년이 가장 높았다.

일과 여가생활 중에서 여가생활이 일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이 6할에 달한다. 나이가 많은 집단일수록 일보다는 여가생활을 중시하고 있다.

청소년들은 “권한·책임을 위임해 주는 직장”과 “일이 쉽고 바쁘지 않은 직장” 중에서 전자를 더 선호하고 있다(66.6%). 초·중학생에 비해 고등학생과 연장청소년 집단은 후자를 선호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학생청소년들은 자신의 직업으로 “교사”(10.2%) - “예술가”(9.4%) - “컴퓨터 전문직”(9.2%) - “연예인”(8.5%) 등을 선호하고 있다. 그러나 부모는 자녀의 직업으로 “법조인”(10.9%) - “의사·약사”(10.2%) - “일반공무원”(8.9%) - “학자”(7.3%) 등 안정적인 직업을 원하고 있다. “정치인”과 “농림어업”은 청소년·부모 모두에게 가장 인기없는 직종에 속하였다.

직장생활 일반

취업청소년들이 현재의 직장에 근무한 기간은 평균 10.9개월로서 1년에도 못미쳤다. 사무·행정직의 근무기간이 가장 길고(14.1개월), 영업·판매직(8.9개월)이 가장 짧았다.

취업청소년들의 평일날 평균 근무시간은 약 9시간 8분이었다. 영업·판매직이 가장 길고(576분), 서비스직이 가장 짧았다(521분).

취업청소년의 6할 이상(64.0%)이 자신의 업무량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다. 업무량이 많다는 응답률은 생산·기능직이 가장 높고(80.6%), 서비스직이 가장 낮았다(57.1%).

취업청소년의 7할 이상(73.2%)이 직장을 옮기기를 원하고 있고, 현 직장을 평생직장으로 생각하는 청소년은 극소수(1.6%)였다.

직장내 인간관계

취업청소년의 약 3할(31.5%)이 직장동료에 대해서 경쟁의식을 느끼고 있는데 여자가 남자보다 경쟁의식을 느끼는 비율이 높다.

평소 직장상사와 사적으로 대화를 나누는 취업청소년은 전체의 6할 수준(58.7%)이다. 영업·판매직의 대화빈도가 가장 높고(69.1%), 생산·기능직이 가장 낮다(36.5%).

취업청소년의 5할 이상(55.2%)이 직장상사가 부하직원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취업청소년의 약 3할(28.3%)이 지난 1년동안 직장상사와 충돌하거나 대립한 경험이 있다.

취업청소년들은 직장상사로서 “업무처리 능력이 뛰어난 사람”(29.4%)보다는 “부하직원을 잘 이해하는 사람”(70.6%)을 선호한다. 또한 압도적인 다수가 엄격한 상사(12.6%)보다는 친구 같은 상사(87.4%)를 더 좋아한다.

현재의 직장에 자신이 본받을 만한 상사가 있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은 3할 남짓한 수준(34.6%)이었다.

직장생활 만족도

취업청소년의 4할 이상(45.9%)이 현 직장생활에 대하여 불만을 갖고 있다. 다른 직종에 비해 특히 생산·기능직 청소년의 직장생활 불만도가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직장생활의 하위영역별 만족도는 “직장동료와 자신과의 관계”(81.2%)가 가장 높았고, “직원 복지·후생제도”(37.3%)가 가장 낮았다. 대체로 직장내 인간관계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높지만 직장의 시설·환경, 복지제도에 대해서는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다.

취업청소년의 약 6할(59.6%)이 앞으로의 직장생활에 대하여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비관적으로 전망하는 청소년은 1할(10.2%)에 머물렀다.

4) 지역사회

지역여건·환경

지금 살고 있는 곳이 고향인 토박이 청소년은 4할에도 못미쳤다(37.3%). 토박이 청소년의 비율은 대학생(41.0%)과 고등학생(40.3%)이 가장 높고 초등학생이 가장 낮았다(28.7%). 생활수준이 높은 가정의 청소년일수록 외지로의 이주경험률이 높았다.

청소년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에 대해서 “이웃집에 누가 사는지 서로 잘 알고 지낸다”에 대해서는 과반수 이상(55.8%)이 동의하지만, “좋은 일이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돕고 지낸다”(42.4%)와 “다른 집 아이들이라도 잘못된 일이 있으면 꾸짖는다”(41.3%)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응답률이 더 높았다.

지역사회 활동

청소년의 약 9할(87.1%)이 자기 동네의 행사나 모임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초·중학생의 참여도가 가장 높은 편이었고 취업청소년과 고등학생의 참여도가 가장 낮았다.

청소년의 5할 이상(55.9%)이 지난 1년 동안 자원봉사활동을 한 경험이 있다. 중학생의 자원봉사 참여율이 7할 이상(74.9%)인 반면, 대학생·무직 청소년·취업청소년은 5할에도 못미쳤다. 또한 생활수준이 높은 집단일수록 자원봉사참여율도 높은 편이었다.

지역내 인간관계

청소년의 약 7할(71.5%)이 이웃어른과 대화를 나누지 않고 있다. 이웃어른과의 대화빈도는 초·중학생이 가장 높고 고등학생·취업청소년이 가장 낮은 편에 속하였다.

청소년의 약 9할(87.5%)이 지금 살고 있는 동네에 앞으로 자신이 본받을 만한 어른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지역사회 선호도

청소년의 3할 이상(34.7%)이 현재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를 좋아하지 않고 있다. 비학생집단에 비해 학생집단의 지역사회 선호도가 높은 편이었지만, 예외적으로 고등학생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지금 사는 동네에 계속 살고 싶어하는 청소년(27.3%)보다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기를 원하는 청소년(42.8%)이 월등하게 많다. 고등학생·취업청소년의 이사희망 비율이 가장 높고, 남자보다는 여자, 생활수준이 낮은 집단일수록 많은 편이다.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 대하여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청소년(41.0%)이 비관적으로 전망하는 청소년(16.7%)의 두배 이상에 달한다. 비관적으로 전망하는 청소년의 비율은 고등학생·취업청소년이 높고, 초·중학생이 낮은 편이다.

5) 사회·국가관

사회·국가 현실인식

청소년의 대다수가 우리사회에서 빈부격차(80.3%), 학력차별(79.5%)이 심하고, 집안·뒷배경이 중시되고(77.8%), 정의가 통하지 않으며(77.5%), 계층에 따른 특혜(75.6%)가 있다고 생각한다.

청소년들은 우리나라의 부문별 발전수준에 대해서 “국민들의 높은 교육 수준”(55.7%)와 “과학·기술 발달”(51.0%)에 대해서는 과반수 이상이 긍정하지만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20.1%), “경제적인 풍요”(17.9%), “공중도덕 수준”(13.3%)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은 1할(11.9%)에 불과하다.

사회현실 만족도

우리사회의 현실에 대하여 8할 이상(80.8%)의 청소년이 불만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고등학생, 취업청소년의 만족도가 가장 낮고, 초·중학생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계층별로는 생활수준이 높은 집 단일수록 사회현실에 대한 만족도도 증가하였다.

앞으로 우리사회의 변화전망에 대하여 낙관적 응답(37.2%)과 비관적인 응답(36.3%)이 비슷한 분포를 나타내었다. 낙관적인 응답비율은 초·중학생이 가장 높았고, 무직·취업청소년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계층별로는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낙관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다.

자신이 한국인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약 7할(67.0%)의 청소년이 만족을 느끼고 있다. 우리사회의 현실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낮지만 국가에 대한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라 할 수 있다.

바람직한 통일방식

바람직한 통일의 방식으로 사회혼란 없는 점진적 통일론을 선호하는 청

소년이 6할(61.8%)로서 가장 많고, 다소 부작용이 있더라도 통일이 시급하다는 우선통일론(19.5%), 현재의 분단상태가 낫다는 현상유지론(18.7%)은 2할 수준의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우선통일론과 현상유지론 중에서 초등학생·대학생은 우선통일론, 고등학생·무직청소년은 현상유지론의 선호도가 두드러지게 높은 편이다.

6) 여가·생활 일반

생활시간

청소년들의 평일날 하루 평균 수면시간은 7시간 28분이다. 초등학생(8시간 37분)이 가장 길고 중학생, 취업청소년, 무직청소년이 중간 수준, 고등학생·대학생(각각 6시간 59분)이 가장 짧다.

청소년들이 평일날 자신이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여가시간은 평균 3시간 25분이다. 대학생(4시간 8분)이 가장 길고, 중학생(3시간 4분)과 초등학생(2시간 58분)이 가장 짧은 편이다. 초·중학생의 여가시간이 짧은 것은 높은 과외학원 수강율과 관련이 있는 듯하다.

청소년들의 평일날 TV 시청시간은 2시간 43분으로 여가시간의 대부분을 TV시청으로 보내고 있다. 초등학생(2시간 55분), 중학생(2시간 49분)의 시청시간이 가장 길고 취업청소년(2시간 22분), 대학생(2시간 10분)이 가장 짧다. 여자가 남자보다, 생활수준이 낮은 집단일수록 더 오랜 시간 TV를 시청하고 있다.

초·중·고등학생이 평일날 학교 정규 수업시간 이외에 집이나 학원에서 공부하는 시간은 평균 2시간 33분이다. 생활수준이 높은 집단일수록 더 오랜 시간 공부하고 있다.

여가활동 일반

청소년들이 현재 즐기고 있는 취미·여가활동은 “전자오락·컴퓨터게

임”(23.0%), “컴퓨터·PC통신·인터넷 활용”(17.6%), “TV시청·라디오 청취”(17.5%) 등의 순으로서 주로 컴퓨터와 실내활동에 국한되어 있다. 반면에 앞으로 하고 싶은 활동으로는 “여행”(17.5%), “스포츠활동”(11.5%) 등 야외활동의 선호도가 높다.

휴일날 여가활동 유형으로는 밖에서 친구들과 어울리는 청소년(44.9%)이 가장 많고, 혼자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청소년(22.5%)이 그 다음이다. 대체로 초·중학생은 가족과 어울려 지내는 경우가 많고, 고등학생과 연장 청소년 집단은 친구들과 어울리는 비율이 높은 편이다.

초·중·고등학생 학생 중 지난 1년 동안 청소년 수련시설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약 6할(59.6%)에 달하여 수련시설의 이용이 점차 활성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청소년들의 한달 평균 용돈은 72,210원으로 조사되었다. 대학생이 가장 많고(185,715원), 다음으로 취업청소년(171,734원), 무직청소년(146,189원), 고등학생(47,077원), 중학생(30,741원), 초등학생(17,517원)의 순이다. 고정적인 소득이 없는 대학생이 취업청소년보다 많은 용돈을 쓰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청소년 중에서 약 절반 가량이 과거에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거나(41.5%), 지금 하고 있는 중(10.2%)이다. 연소청소년 집단보다 연장청소년 집단의 아르바이트 경험률이 월등히 높고, 상위계층보다는 중·하위계층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더 많이 하고 있다.

여가생활 만족도

청소년의 5할 이상(54.8%)이 현재 자신의 여가생활에 대하여 불만을 느끼고 있다. 나이가 많은 집단일수록 여가생활에 불만을 느끼는 청소년의 비율이 높다.

청소년들은 여가생활의 장애요인으로 “비용 부담”(38.2%) - “시간 부족”(27.8%) - “장소·시설 부족”(13.3%) 등을 지적하고 있다.

교우관계

청소년들 중에 4할 이상(43.7%)이 동성의 친구만 사귀고 있고 절반 가량이 남자·여자 친구가 모두 있다. 대체로 초·중학교 시절에는 동성 중심의 교우관계가 유지되다가 고등학생때부터 이성친구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청소년들 중 약 8할(77.7%)은 동네친구보다는 주로 학교친구와 어울린다고 응답하여 생활의 중심이 지역사회보다는 학교임을 알 수 있다.

청소년들의 7할 이상이 친구가 자신을 이해하고 있다(“약간” 또는 “많이”)고 생각하여, 부모보다 친구의 자기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대부분의 청소년은 현재 자신의 친구관계에 만족하고 있다(79.8%). 대체로 나이가 어린 집단일수록 친구관계의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정보화 실태

자신의 집에 컴퓨터가 있는 청소년이 전체의 8할을 넘고 있다(83.5%). 가정에서 컴퓨터는 주로 청소년이 이용하고 있고(본인: 58.3%, 형제·자매 35.6%), 부모가 주로 이용하는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하다(5.2%).

청소년들의 절반 가량(48.8%)이 컴퓨터를 거의 매일 같이 이용하고 있고, 일주일에 하루 이상 이용하는 청소년이 8할 이상(83.2%)에 달한다. 대체로 무직·취업청소년보다는 학생청소년이, 여자보다는 남자, 생활수준이 높은 집단일수록 컴퓨터의 활용빈도가 높다.

청소년들의 약 8할(77.7%)이 일주일에 하루 이상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다. 대학생과 중·고등학생이 가장 자주 이용하고 취업청소년과 초등학교생의 이용율이 가장 낮다.

청소년들의 7할 이상(74.3%)이 컴퓨터·인터넷이 없다면 자신의 생활이 불편해지리라고 생각하고 있다.

7) 개인·자아관

개인·자아관

청소년들의 자아인식을 “성취의욕”과 “자기무용감(自己無用感)”(자신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는 태도)의 두가지 측면에서 평가하면, 성취의욕은 초등학생·중학생이 가장 높고, 취업청소년과 고등학생이 가장 낮다. 반면에 자기무용감은 취업청소년·고등학생이 가장 높고 대학생과 초등학생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고등학생과 취업청소년이 자기자신에 대하여 가장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민·걱정거리

청소년들의 9할 이상(93.9%)이 현재 고민이나 걱정거리를 갖고 있다. 가장 큰 고민·걱정거리는 “진로문제”(33.0%)이고 다음으로 “공부·학업문제”(24.6%), “돈·경제적인 문제”(17.1%), “이성문제”(7.1%) 등이다.

청소년들은 자신의 고민·걱정거리를 주로 “친구나 선·후배”(40.1%) 또는 어머니(21.3%)와 상의하고 있으며, 아버지(6.0%), 학교 교사(0.8%)와 상의하는 청소년은 소수에 불과하다. 고민·걱정거리가 있어도 아무하고도 상의하지 않는 청소년도 약 2할 수준(18.8%)에 달한다.

전체적인 행복감

청소년들의 약 3할(26.4%)이 현재 자신이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 자신이 행복하지 않다는 응답률은 고등학생과 무직청소년이 가장 높고 초등학생·대학생이 가장 낮은 편이며, 생활수준이 낮은 집단일수록 높게 나타나고 있다.

8) 종합적 분석

생활영역별 인간관계

청소년들의 생활영역별 주변성인들과의 대화빈도(“약간” 또는 “자주” 대화를 나눈다는 응답비율)를 비교하면, 모친(89.5%)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부친(71.7%) - 직장상사(58.7%) - 학교교사(31.9%) - 이웃어른(28.5%)의 순이다.

친구가 자신을 이해하고 있다(“약간”+ “많이”)고 있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이 74.7%에 달하여 모친(65.6%)이나 부친(50.7%)을 월등히 앞서고 있다.

청소년들이 본받고 싶어하는 주변성인들의 순위는 부모(48.7%) - 학교교사(46.9%) - 직장상사(34.6%) - 이웃어른(12.5%)이다.

청소년들의 생활영역별 주변성인들과의 대립경험률(“지난 1년 동안 대립한 경험이 있다”)은 모친(46.2%) - 부친(43.9%) - 직장상사(28.3%) - 학교교사(19.1%)의 순서로 나타났다.

학생청소년들이 학급친구에 대해서 경쟁의식을 느낀다는 응답비율(48.6%)이 취업청소년들이 직장동료에 대해서 경쟁의식을 느낀다는 응답비율(31.5%)보다 월등히 높다.

생활영역별 만족도와 전망

청소년들의 생활영역별 만족도의 순위를 보면, 친구관계의 만족도가 가장 높고(만족 79.8%), 다음으로 가정생활(68.6%), 국가(한국인)(67.0%), 지역사회(65.3%), 직장생활(54.0%), 학교생활(49.9%), 여가생활(45.2%) 등의 순이며 사회현실(19.2%)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다.

생활영역별 만족도와 행복감

각 생활영역별 만족도가 청소년들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순위를 보면 “가정생활 만족도”가 가장 컸으며, 다음으로 “친구관계 만족도” · “여가

생활 만족도”- “국가 만족도(한국인으로서의 만족도)”- “지역사회 선호도
“학교생활 만족도”의 순이었으며 “사회현실 만족”가 가장 작았다.

2. 논 의

청소년들은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친구관계에 가장 만족하고 있는 한편, 사회현실에 대해 가장 많은 불만을 갖고 있다.

청소년들의 생활영역별 만족도의 순위를 보면, 친구관계의 만족도가 가장 높고(만족응답률: 79.8%), 다음으로 가정생활(68.6%) - 국가(한국인) (67.0%) - 지역사회(65.3%) - 직장생활(54.0%) - 학교생활(49.9%) - 여가생활(45.2%) 등의 순이며 사회현실(19.2%)에 대한 만족도는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다.

주로 자신의 선택을 통해 이루어진 사회관계(친구관계)와 선천적으로 부여된 귀속적 생활집단(가정-국가)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이들 집단이 2차적인 사회관계와는 달리 강한 정서적·심리적 일체감과 유대감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가정과 더불어 청소년들의 일상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이라 할 수 있는 직장과 학교생활에 만족하는 청소년이 절반 수준에 불과하였고, 특히 사회현실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은 2할에도 못미쳐서 기성세대가 주도하는 현 사회의 전반적 질서에 대하여 강한 불신감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정생활에서 자녀에 대한 부친의 영향력이 점차 감소하는 반면, 어머니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다.

가정에서 부친의 역할과 영향력이 점차 감소하고 모친에 편중된 자녀지도가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그동안 우리사회에서 많은 논의가 있어왔다. 이번 조사에서도 이와 같은 가정에서의 부모의 역할관계의 변화

현상을 실증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청소년들은 가정에서 아버지보다 어머니와 더 자주 대화를 나누고(“약간” 또는 “자주” 대화를 나눈다: 부친 71.7%, 모친 89.5%),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더 자신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약간” 또는 “많이 이해하고 있다: 부친 50.7%, 모친 65.6%). 고민·걱정거리가 있을 때 어머니와 상의하는 청소년(21.3%)이 아버지와 상의하는 청소년(6.0%)을 월등하게 상회하고 있다. 일보다는 가정생활에 충실한 부친을 선호하는 청소년이 압도적인 다수인 것은(부친 선호도: “가정생활 중시형” 80.7%, “일 중시형” 19.3%) 일에만 전념하는 아버지에 대한 청소년들의 불만의 표시이기도 하다.

가정내 부모의 역할관계의 변화는 친척관계에서도 잘 드러난다. 청소년들은 일상생활에서 친·외가쪽을 거의 대등하게 접촉하고 있으며(더 자주 접촉하는 친척: 친가쪽 42.0%, 외가쪽 37.9%), 서울지역, 상위계층 청소년들은 오히려 외가쪽과 더 자주 접촉하고 있다.

이와 같은 가정내 부친의 역할 약화현상을 놓고 이른바 “부권의 상실”을 우려하는 논의도 있다. 그러나 자녀지도의 문제는 권리가 아닌 의무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부친이 자녀지도에 보다 많은 관심과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사회제도적 환경과 여건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전통적인 성 차별과 역할구분에 대하여 청소년들은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지만, 현실생활에서는 남녀 역할구분의 관행이 의연히 지속되고 있다.

청소년들은 관념상으로는 남녀간의 차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오랜 남녀 구분의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 예컨대 “남자는 직장, 여자는 가정”이라는 고정관념에 해서 8할 이상의 청소년들이 반대하고 있고, 남녀는 선천적으로 능력차이가 있다고 믿는 청소년은 3할

수준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관념이 실제 가정생활에서 그대로 실천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단적인 예로, 청소년들의 가사활동 참여에 대한 응답결과를 보면 모든 유형의 가사활동 참여율에서 여자가 월등하게 높은 수준이며, 특히 전통적으로 여성의 활동으로 간주되어 온 활동들에 대한 남자의 참여율은 매우 낮다. 청소년들이 관념상으로는 성역할관계에 대하여 진보적인 태도를 갖고 있지만 이것이 현실생활의 실천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것은 부모세대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부모는 자녀의 성별에 따라 가사활동에 있어서 각기 다른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성역할관계의 오랜 관행을 가정내에서 재생산해 간다. 연령별·성별 가사활동 참여율 통계를 보면 부모는 남자자녀에 대해서 나이가 어릴수록 보다 철저하게 여성적 가사활동으로부터 배제시키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청소년들이 우리사회의 오랜 구습인 성차별의식에서 벗어나 평등한 성역할관계를 체득해가기 위해서는 학교에서의 교육만으로 불충분하며 부모세대의 노력과 실천이 보다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초·중학생이 느끼는 학업부담과 스트레스는 고등학생과 거의 대등한 수준으로서 학원수강률, 개인적인 공부시간 등에서 초·중학생이 고등학생을 오히려 앞서고 있다.

상급학교 진학을 앞둔 청소년들이 느끼는 학업부담과 스트레스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많은 논의가 있어 왔고 그 개선을 위하여 입시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한 지속적인 교육개혁이 추진되어 왔다. 하지만 논의의 초점은 대부분 고등학생 집단에 맞추어졌고 이에 따라 중학생 나아가서는 초등학생이 느끼는 학업의 부담과 압력은 간과되어 온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번 조사를 통해 초·중학생 집단도 고등학생에 못지 않은 학업부담과 갈등에 시달리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예컨대, 학과공부와

관련하여 학원에 다니는 청소년의 비율에서 초등학생(58.5%)과 중학생(48.7%)이 고등학생(25.8%)을 앞서고 있고, 개인·그룹지도를 받는 비율도 교급이 낮을수록 증가하였다. 학교 이외에 집 또는 학원에서 공부하는 시간(평일날 평균)도 초등학생(2시간 49분)과 중학생(2시간 48분)이 고등학생(2시간 4분)보다 현저하게 긴 것으로 나타났다. 학급친구에 대해서 느끼는 경쟁의식에 있어서도 초·중학생과 고등학생간에 큰 차이가 없었다(“약간” 또는 “많이” 느끼고 있다: 초 49.3%, 중 48.2%, 고 49.3%). 고등학생들이 초·중학생보다 학교에서의 수업시간이 월등히 길기 때문에 학원수강률과 개인적 공부시간이 적을 수밖에 없음을 감안하더라도 나이 어린 초·중학생들이 고등학생에 못지않게 학업에 많은 정신적·시간적 부담을 느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조사결과는 그동안의 교육개혁이 고등학생의 학업부담을 경감시키는 데에는 일정 부분 기여했으나 그 파급효과가 초·중학교에까지 확산되지는 못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앞으로의 교육개혁의 방향은 초·중학생을 포함한 보다 광범위한 학생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청소년들의 과반수 이상이 학교공부가 입시준비 이외에 인격형성이나 적성·소질개발 등에는 별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학교는 청소년들이 사회성원으로서 갖추어야 기본적인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는 기관으로서 지식전달과 입시준비는 학교가 갖고 있는 다양한 역할과 기능 중 일부에 불과하다. 그러나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 학교의 우열을 가름하는 우리사회의 왜곡된 교육풍토는 학교가 정상적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데 커다란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학생과 취업·무직청소년을 포함한 전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배운) 내용이 자신에게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되었다고) 생각

하는지 평가하게 하였다. 그 결과 “입시준비”에 도움이 된다는(되었다는) 응답만이 5할(56.6%)을 상회하였을 뿐, “사회현실 이해”(48.9%), “올바른 인격 형성”(45.3%), “올바른 생활습관 체득”(45.0%), “적성·소질 계발”(37.3%)에 도움이 된다(되었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은 모두 절반에도 못 미쳤다.

청소년들은 하루 생활시간의 대부분을 학교수업과 학업관련 활동에 보내고 있지만, 자신이 하고 있는 공부가 상급학교, 구체적으로는 대학진학 이외에는 별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사회에서 학교가 청소년들의 생활에서 차지하는 막대한 비중에도 불구하고 사회성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자질과 소양의 함양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단순히 상급학교 진학 또는 취업을 위해 기쳐야 하는 불가피한 단계로서 인식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학생청소년들이 학급친구에게 느끼는 경쟁의식이 취업청소년들이 직장동료에게 느끼는 경쟁의식보다 더 높다
--

청소년들의 느끼는 과중한 입시경쟁과 학업부담은 원만한 교우관계의 형성에도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학생청소년 중에서 학급친구와 경쟁의식을 느끼고 있는 청소년이 거의 절반에 달하고 있으며(48.6%), 이 비율은 대학입시를 앞둔 고등학생뿐만 아니라 어린 나이의 초·중학생도 거의 동일한 수준이다. 반면에 현재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취업청소년중에서 직장동료에 대해서 경쟁의식을 느낀다는 응답비율은 3할 남짓한 수준(31.5%)에 머물고 있다. 중·고등학생의 친구관계 만족도가 취업·무직청소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도 이와 같은 학교친구들간의 높은 경쟁관계가 그 주된 요인의 하나로 생각된다.

청소년들은 일보다는 여가생활이 더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대다수의 취업청소년들은 기회가 주어진다면 전직을 원하고 있다.

해방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의 과정에서 우리사회에서는 가정보다는 일·업무 중심의 기업문화가 사회 전역에 확산되어 왔고, 여가생활의 의의와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매우 희박하였다. 그러나 과거에 비해 풍요로운 사회·경제적 환경에서 성장한 오늘날의 청소년들에게 여가생활은 일과 더불어 삶의 불가결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일과 여가생활의 관계에 대한 청소년들의 응답결과를 보면, “일에 다소 지장이 있더라도 여가생활을 즐겨야 한다”는 청소년이 약 6할로서 과반수를 상회하고 있다(“여가생활을 다소 희생하더라도 일을 열심히 해야 한다” 39.9%). 이와 같이 여가생활을 중시하는 청소년들의 태도는 사람들이 “사회 성원으로서의 역할 이행”(11.7%)이나 “자기 자신의 발전”(23.0%)보다는 “돈을 벌기 위해서”(65.3%)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현실적·경제중심적 노동관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일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보다 나은 조건이 주어진다면 전직하는 것은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진다. 이에 따라 취업청소년의 7할 이상(73.2%)이 직장을 옮기기를 원하고 있는 반면, 현 직장을 평생직장으로 생각하는 청소년은 극소수(1.6%)에 머물고 있다.

청소년들의 일상생활에서 지역공동체의 역할과 영향력은 점차 와해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현상은 대도시뿐만 아니라 중소도시·농촌지역에 걸쳐 일반화되고 있다.

주민들의 유대감에 기초한 생활공동체로서의 지역사회는 점차 붕괴되어 오늘날 청소년에게 있어서 지역사회는 단순한 주거공간으로서의 의미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

대부분의 청소년은 자기 동네의 모임이나 행사에 참여하지 않고 있으며(87.1%), 이웃어른과 대화를 나누는 청소년도 소수에 불과하다(29.5%). 자기 동네에 본받을 만한 어른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1할에 머물렀고(12.5%), 학교수업이 끝난 뒤 동네친구보다는 학교친구와 어울려 지내는 청소년이 대부분이다(“학교친구와” 77.7%, “동네친구와” 22.3%).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기를 원하는 청소년(42.8%)이 현 동네에서 계속 살기를 원하는 청소년(27.3%)의 비율을 월등히 상회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지역사회에 대한 청소년들의 낮은 애착도와 귀속의식은 청소년들의 생활이 학교·학업 중심으로 급격하게 재편됨과 아울러 부모세대의 잦은 이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실제로 현재 살고 있는 곳이 “고향”인 토박이 청소년의 비율은 도시·농촌지역을 불문하고 4할에도 못미쳐서(전체 37.3%, 초등학생 28.7%), 대다수의 청소년이 고향을 떠나 외지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의 대다수가 사회·국가 현실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지만, 자신이 한국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대부분 만족을 느끼고 있다.

우리사회·국가의 현실을 바라보는 청소년의 시각은 성인 못지 않게 매우 비판적이다. 대다수의 청소년이 우리사회에서 “빈부격차”(80.3%)와 “학력차별”(79.5%)이 심하고, “집안·뒷배경”이 중시되고 있으며(77.8%), “정의가 통하지 않으며”(77.5%), “계층에 따른 특혜”가 있다(75.6%)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발전수준에 대해서 “높은 교육수준”과 “과학·기술의 발달”에 과반수의 청소년이 공감하지만(각각 55.7%, 51.0%),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고(20.1%), 경제적으로 풍요롭고(17.9%),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며(17.5%), 공중도덕 수준이 높다(13.3%)고 생각하는 청소년은 소수에 머물고 있다. 그 결과, 우리사회 현실에 대해 불만을 느끼고 있는 청소년이 8할에 달하고 가까운 장래에 우리사회가 지금보다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률

도 과반수에 못미치고 있다(37,2%).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자신이 한국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는 청소년(67.2%)이 불만을 느끼는 청소년(32.9%)의 2배 이상에 달하고 있다. 이것은 청소년들이 비록 우리사회의 현실에 대해서 높은 불만을 갖고 있지만, 한국인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있고 국가·사회 발전을 위해서 기여할 의사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들은 여가시간의 대부분을 TV시청에 보내고 있고, TV는 컴퓨터와 더불어 청소년 여가활동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청소년들이 평일날 자신이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여가시간은 평균 3시간 25분인데, 이중에서 TV 시청시간이 2시간 43분에 달하여, 전체 여가시간의 약 7할을 TV시청으로 보내고 있다. TV시청은 청소년들이 즐겨하는 여가활동으로 “전자오락·컴퓨터게임”(23.0%), “컴퓨터·PC통신·인터넷 활용”(17.6%)에 이어서 세번째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17.5%). 세 활동 모두 별다른 준비없이 실내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이처럼 TV와 컴퓨터가 청소년들의 여가활동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이들 매체에 대한 청소년들의 높은 선호도도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되지만, 높은 학업부담과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청소년들에게 다른 활동을 즐길만한 시간적·정신적 여유가 부족한 것도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된다. 이것은 청소년들이 앞으로 하고 싶은 활동으로서 “여행”과 “스포츠활동”과 같이 상대적으로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야외활동을 꼽고 있는 데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청소년들의 교우관계는 이성보다는 동성친구, 동네보다는 학교친구에 편중되어 있다.

청소년들의 약 4할이 현재 자신이 친하게 지내는 친구중에 이성은 없고 동성만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특히 나이가 어린 집단일수록 동성친구의 비율이 높은 편이었다. 이와 같이 동성에 편중된 교우관계는 어린 시절부터 남녀를 구분하고 청소년의 이성교제를 부정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는 부모세대의 전통적인 성 역할관념이 큰 영향을 미친 결과라고 생각된다.

또한 학교수업이 끝난 뒤에도 동네친구보다는 학교친구와 더 자주 어울리는 청소년이 약 8할에 달하고 있는데, 이것은 청소년들의 모든 일상생활이 학교·학업 중심으로 구조화됨에 따라 지역사회가 인간관계 형성의 기반으로서의 기능을 거의 상실해 가고 있음을 시사하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컴퓨터와 인터넷은 청소년들의 일상생활에서 불가결한 요소로 자리잡고 있으나 청소년의 계층별·유형별로는 적지 않은 정보격차가 존재하고 있다.

정보화를 향한 사회의 급격한 변화와 더불어 컴퓨터와 인터넷은 청소년들의 일상생활의 불가결한 일부분으로 자리잡고 있다. 대부분의 청소년이 자기집에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으며(83.5%), 컴퓨터의 주이용자도 부모(5.2%)보다는 청소년 자신(48.7%, 형제자매 35.6%)들이다. 전체 청소년의 절반 가량(48.8%)이 매일 같이 컴퓨터를 이용하고 있으며, 약 8할(77.7%)이 일주일에 하루 이상 인터넷에 접속하고 있다. 컴퓨터·인터넷이 없다면 생활이 불편해질 것이라고 응답한 청소년이 7할 이상에 달한다(74.3%).

앞으로의 사회가 컴퓨터·네트워크에 의해 지배되는 정보사회임을 감안하면 청소년들의 이와 같이 높은 컴퓨터·인터넷 활용수준은 우리사회 발전에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임은 명백한 사실이다. 그러나 계층별·유형별 응답결과를 검토하면, 청소년집단의 내부에 적지 않은 정보격차가 존재함을 발견할 수 있다. 예컨대 컴퓨터가 없는 가정이 상위계층은 5%에 불과한 반면 하위계층은 2할을 넘고 있고, 컴퓨터·인터넷의 이용빈도에

있어서 학생집단과 비학생집단간에 현격한 격차가 발견된다.

정보사회에 있어서 집단간의 정보격차는 산업사회의 계급갈등에 비견되는 사회갈등의 요인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있다. 청소년집단 내부에서 형성되어 가고 있는 정보격차의 심화현상을 막기 위해 보다 많은 사회적 관심과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라 할 수 있다.

고등학생, 취업청소년들은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성취의욕이 낮은 편이며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다.

청소년들의 자아인식을 “성취의욕”과 “자기무용감(自己無用感)”(자신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는 태도)의 두가지 측면에서 조사하였다. 그 결과, 성취의욕은 초등학생·중학생이 가장 높고, 취업청소년과 고등학생이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반면에 자기무용감은 취업청소년·고등학생이 가장 높고 대학생과 초등학생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고등학생과 취업청소년이 다른 집단에 비해 부정적인 자기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은, 고등학생의 경우 성장단계에 따른 정서적·심리적 특성과 더불어 진학·취업을 앞둔 시점에서의 장래에 대한 불안감이 주요한 요인으로 추측된다. 취업청소년의 경우에는 같은 연령대의 연장연소 집단(대학생·무직청소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가정의 경제수준과 더불어 학력·연령요인에 의한 직장내에서의 상대적으로 낮은 지위와 처우, 신분상의 불안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된다.

청소년들은 친구가 부모보다 자신을 더 잘 이해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고민이나 걱정거리도 부모보다는 주로 친구와 상의한다.

청소년들은 친구들의 자기 이해도가 부모보다도 오히려 높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즉, 친구가 자신을 이해하고 있다(“약간” 또는 “많이”)고 생각

하는 청소년이 7할을 상회하는 반면(74.7%), 부모가 자신을 이해하고 있다는 응답률은 그에 훨씬 못미친다(부친: 50.7%, 모친 65.6%). 이에 따라 자신의 고민이나 걱정거리에 대해서 친구·선후배와 상의하는 청소년이 4할에 달하는 반면(40.1%), 부모(부친: 6.0%, 모친 21.3%) 또는 학교교사(0.8%)와 상의하는 청소년은 소수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일련의 응답결과는 청소년기의 또래집단이 강한 정서적·심리적 유대감을 갖고 있으며 일상생활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부모나 교사보다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청소년들의 9할 이상(93.9%)이 현재 고민이나 걱정거리를 갖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그중 가장 큰 고민거리는 “진로문제”(33.0%)이고 다음으로 “공부·학업문제”(24.6%), “돈·경제적인 문제”(17.1%), “이성문제”(7.1%) 등의 순이다. 고민·걱정거리가 있어도 아무하고도 상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청소년도 약 2할(18.8%)에 달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 백

보 론: 청소년 생활·의식 국제비교

이 중 원(한국청소년개발원·연구위원)

1. 서 론

일본 총무청산하의 청소년대책본부에서는 1972년 이래 세계 10여개국가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여 “세계청년의식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5년간격으로 실시되는 이 조사에서는 청소년들의 생활·의식과 관련된 다양한 영역의 문항들을 선정하여 조사를 실시한 뒤 그 결과를 정리하여 보고서로 발간하고 있다. 1998년에는 그 다섯번째의 조사결과가 “제6회 세계청년의식조사보고서”라는 제목으로 발표되었다.

이 조사는 세계의 여러나라에서 동시에 실시되어 국제비교가 가능하고, 30여년 가까이 여섯차례에 걸쳐 동일한 조사표에 의거하여 조사를 거듭함으로써 청소년 의식의 변화를 시계열적으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활용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에 비견될 만한 국제적인 규모의 청소년관련 조사연구가 전무한 우리의 현실을 감안하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기초적인 자료의 수집과 정리에 투자를 아끼지 않는 일본 청소년 연구의 현실로부터 귀중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조사내용은 청소년 생활·의식의 이해에 기초적인 다양한 영역의 주제를 다루고 있으며, 문항의 수는 모두 51개(세부문항을 포함하면 69개)이다. 조사의 방법은 조사대상 국가(한국, 일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필리핀, 태국, 브라질, 러시아 등 11개국)의 18세부터 24세까지의 청소년 1,000여명을 대상으로 하여 1998년 2월부터 6월 사이에 조사원에 의한 개별 면접조사의 방식으로 실시되었다.

여기서는 본 조사의 결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국 청소년들이 다른나라 청소년들과 비교하여 생활의 제반영역에서 어떠한 상황에 놓여있으며

어떤 생각과 의견을 갖고 있는지 살펴 보기로 한다.

2. 생활만족도와 사회유형

먼저, 각 생활영역별 만족도에 대한 응답결과의 분석을 통해 조사대상이 된 11개국의 사회구조적 특성을 파악하여 유형화하기로 한다.

다음의 표(표 5-1)는 생활의 다양한 영역에서 각국의 청소년들이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가를 나타낸 것이다. 표의 수치는 “지역사회”는 5단계도에서 “좋아하고 있다”는 응답비율, “행복감”은 4단계도에서 “행복하다”는 응답비율을 나타낸 것이고 그 이외의 항목들은 4단계도에서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다. 표 중에서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수치는 반전표시를 하였고, 반대로 작은 수치에는 밑줄을 그었다.

표 5- 1: 생활영역별 만족도 - 국제비교

(단위: %)

	한국	일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필리핀	태국	브라질	러시아
가정생활	<u>50.0</u>	<u>51.1</u>	57.2	76.0	<u>52.7</u>	61.9	58.1	71.3	80.1	<u>13.4</u>	<u>41.3</u>
학교생활	<u>35.1</u>	42.1	53.3	75.8	<u>33.8</u>	36.8	39.4	70.3	75.7	<u>14.3</u>	46.6
직장생활	<u>33.9</u>	<u>32.6</u>	49.6	59.0	55.8	53.0	52.5	37.9	69.3	<u>13.9</u>	<u>24.1</u>
친구관계	<u>69.6</u>	74.6	75.0	89.3	<u>69.3</u>	70.9	77.1	80.1	85.7	<u>14.4</u>	<u>59.1</u>
지역사회	<u>39.8</u>	<u>44.7</u>	56.5	45.4	57.8	46.4	52.8	81.0	75.2	55.5	<u>42.4</u>
차국사회	<u>2.5</u>	5.8	20.6	21.8	<u>4.2</u>	6.2	8.3	26.9	40.3	<u>2.1</u>	<u>5.0</u>
행복감	<u>26.8</u>	49.0	54.9	55.8	<u>39.8</u>	52.7	58.2	58.6	56.3	66.3	<u>24.4</u>

위의 응답결과를 재구성해 보면, 전체적인 경향으로서 조사대상이 된 11개국은 다음의 4가지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 고수준 그룹 : 필리핀, 태국
- 중수준 그룹 :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 저수준 그룹 1: 한국, 일본
- 저수준 그룹 2: 러시아, 브라질

각 그룹별 국가들의 사회구조적 특성을 유형화하면 다음과 같다.

발전도상형 사회

고수준 그룹의 2개국(필리핀, 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산업화·도시화의 속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사회생활의 여러 측면에서 전통적인 요소가 많이 잔존하고 있는 국가이다. 이들 국가를 “발전도상형” 사회로 지칭하기로 한다. “발전도상형 사회”는 생활의 모든 측면에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다.

선진시장형 사회

중수준 그룹에 속하는 5개국(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은 사회생활의 제반 영역에서 시장원리가 지배적인 선진 자본주의사회이기 때문에 이 그룹을 “선진시장형 사회”라고 지칭하기로 한다. 이 그룹의 국가들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회생활의 여러 영역에서 시장화·개인화가 진전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전체적으로 만족도가 중간 정도에 머물러 있는 이유라고 생각된다. 시장화·개인화가 진전되어 있다는 것은 사회생활의 여러 영역에서 생활상의 책임이 개개인에게 귀속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활상의 책임이 개인에게 있는 이상, 만족도의 기반도 개인화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타당하다. 즉, 생활의 여러 영역에서 만족할 수 있는 상태인가의 여부는 부분적으로 객관적인 생활환경에 의존하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자기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다. 이것이 대부분의 생활영역에서 만족도가 높지도 낮지도 않은 결과를 초래한 이유라고 생각된다.

경제우선형 사회

저수준 그룹1의 2개국(한국, 일본)은 모두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급속한 산업화와 경제발전을 이룩한 국가로서 경제우선의 사고가 지배적인 국가들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그룹을 “경제우선형” 사회로 지칭하기로 한다. 이들 2개국은 비교대상 11개국 중 생활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만족도가 낮다는 점에서 공통적인데, 특히 “가정” “지역사회” “자국사회”와 같은 공동체적 생활영역의 만족도가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것은 급속한 산업화·도

시화의 진전에 따른 전통적인 생활공동체의 해체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학교” “직장” “친구관계”와 같은 2차적인 생활영역의 만족도도 매우 낮은 수준인데 이것도 경제지배적인 사회풍조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행형 사회

저수준 그룹2의 2개국(러시아와 브라질)은 모두 정치·경제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는 국가이다. 러시아는 소비에트 연방의 해체와 더불어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사회생활의 제반 영역에서 심각한 모순과 혼란에 직면해 있고, 브라질은 경제정책의 실패와 정정의 불안에 따른 사회불만이 고조되어 있다. 그런 의미에서 비교대상이 된 다른 국가들에 비해 매우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들 국가가 급격한 체제변혁·이행의 과정에 있다는 의미에서 “이행형” 사회라고 부르기로 한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하여 생활만족도와 경제·사회적 상황간에는 다음과 같은 관계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다. 즉, 생활만족도는 강한 공동체 의식으로 결속된 “발전도상형” 사회에서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고, 급속한 산업화와 사회체제의 변화를 겪고 있는 “경제우선형” 사회와 “이행형” 사회에서는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다가 경제·사회의 발전과 성숙이 진전되어 감에 따라 “선진시장형” 사회에서 부분적으로 다시 높은 수준에 도달한다. 그러나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이와 같은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각 영역별 생활만족도는 각국의 특수한 사회·문화적 환경의 영향을 받고 있다.

3. 가정생활

가정생활 만족도

현재의 가정생활에 어느 정도 만족 또는 불만을 느끼고 있는가에 대한 각국 청소년들의 응답결과를 비교해 보면 아래의 그림과 같다.

불만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의 비율이 한국이 20.6%로서 조사 대상 11개국중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경제우선형 사회(한국, 일본)와 이행형 사회(브라질, 러시아)의 청소년들이 가정생활에 대해서 선진시장형 사회와 발전도상형 사회 청소년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불만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 2: 가정생활 만족도 - 국제비교

(단위: %)

	한국	일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핀란드	태국	브라질	러시아
만 족	50.0	51.1	57.2	76.0	52.7	61.9	58.1	71.3	80.1	13.4	41.3
약간 만족	29.2	35.7	30.9	14.9	34.9	30.2	37.4	19.5	14.3	73.8	37.6
약간 불만	3.9	3.5	3.3	2.7	2.5	2.6	0.8	4.4	0.8	1.4	5.9
불 만	16.7	7.9	7.6	6.4	8.1	5.3	3.6	4.8	4.7	10.9	11.9

가정생활 만족도에 대한 한국청소년들의 응답결과를 시계열적으로 비교해 보면(표 5-3), 1993년까지 “만족”한다는 응답률이 4할 미만에 머물렀으나 1998년에는 5할로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한편 “불만”을 느낀다는 응답도 전회 조사결과와 비교하여 1할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한국 청소년들의 가정생활 만족도에 있어서 양극화 현상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 3: 가정생활 만족도 - 한국 연도별

(단위: %)

	1983	1988	1993	1998
만 족	37.3	36.2	37.7	50.0
약간 만족	36.0	34.6	30.9	29.2
약간 불만	19.9	23.6	25.4	3.9
불 만	5.8	5.0	6.0	16.7

가족의 구성

근대 이후 사회성원들은 지향가족(부모 아래에서 태어나고 성장하는 가족)과 생식가족(결혼해서 자신들이 만들어가는 가족)이라는 두 종류의 가족을 경험하게 된다. 청소년기는 지향가족에서 생식가족으로 이행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이행의 방식과 시기는 사회에 따라 다양하다.

우선 부모와의 동거율(표 5-4)을 보면 한국, 일본, 필리핀, 태국에서는 6할 이상이 부모와 동거하고 있음에 비해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은 그 비율이 5할 내지 그 이하이다. 즉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시기는 일반적으로 서구 선진제국에서 상대적으로 빠르며 아시아제국은 상대적으로 늦은 편임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청소년들의 독립성·자립성에 관한 사회적 태도와 관행의 반영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부모를 떠나 살고 있는 청소년의 비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청소년의 조기독립을 허용 내지 장려하는 사회적 태도와 관행이 일반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부모로부터 독립한 청소년은 어떻게 생활하는 것일까. 여기에는 두가지의 케이스가 있다. 하나는 독립해서 배우자와 동거하는 경우, 다른 하나는 혼자 또는 친구·동료와 함께 사는 경우이다. 다음의 표(표 5-4)에도 나타나 있듯이 배우자와의 동거율은 “발전도상형” 사회와 “이행형” 사회가 가장 높은 수준이고 그 다음이 “선진시장형” 사회이며, “경제우선형” 사회가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한편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혼자 또는 친구·동료 등과 함께 살고 있는 비율은 선진시장형 사회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표 5- 4: 같이 살고 있는 사람 - 국제비교

(단위: %)

		한국	일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핀란드	태국	브라질	러시아
혼자서 지냄		2.3	11.9	10.1	6.4	19.4	15.2	29.3	0.5	1.4	2.5	2.9
동거자	부친	78.0	73.7	36.4	42.9	41.3	49.0	33.5	65.2	69.2	50.1	56.7
	모친	83.8	79.2	47.5	50.2	49.2	59.6	38.8	74.4	74.4	61.4	71.9
	배우자	4.3	7.4	17.4	17.8	21.2	11.9	15.5	16.5	34.1	25.4	27.0
	자녀	2.2	4.9	9.3	12.7	5.9	4.9	5.2	17.3	18.9	20.0	18.2
	친구·동료	2.8	0.8	13.4	13.8	5.7	6.0	6.0	2.7	3.6	1.7	4.3

이상의 응답결과를 통해 청소년들이 부모로부터 벗어나 독립하는 시기 또는 방식의 측면에서 다음의 3가지 유형을 추출해 낼 수 있다.

첫째, 부모로부터 일찍 독립하지만 결혼은 하지 않고 혼자 또는 친구·동료들과 함께 생활하는 유형으로 서구의 “선진시장형” 사회가 여기에 해당한다. 대체로 스웨덴, 독일, 프랑스는 혼자 생활하는 경우가 많고, 미국과 영국은 친구·동료들과 함께 생활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둘째,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시기는 다소 늦은 편이지만 독립한 이후에는 곧 결혼을 통해 자신의 가정을 갖게 되는 유형으로 “발전도상형” 사회와 “이행형” 사회의 청소년들이 이에 해당된다. 특히 자신의 자녀와 동거하고 있다는 응답률이 이들 두 유형의 국가들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을 보면 “발전도상형” 사회와 “이행형” 사회의 청소년들이 가장 이른 시기에 결혼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부모로부터의 독립과 결혼이 시기가 상대적으로 늦은 유형으로서 아시아의 “경제우선형” 사회가 이에 해당된다. 한국과 일본은 전통적인 가족규범에 의거하여 성년이 된 이후에도 부모와 동거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혼인연령이 늦어지는 것은 높은 고등교육 진학률로 인한 학업기간의 연장과 취업·직장생활과 관련된 사회·경제적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모님 부양의사

연로한 부모님을 앞으로 어떻게 모실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하고 선택지로서 적극적 부양형(“어떤 일을 해서라도 부모님을 부양하겠다”), 소극적 부양형(“자신의 생활형편에 따라 부모님을 부양하겠다”), 비부양형(“부모님 자신의 능력이나 사회보장에 의존하겠다”)과 유보형(“잘 모르겠다”)의 네가지를 제시하고 선택하게 하였다.

표 5- 5: 연로한 부모님 부양의사 - 국제비교

(단위: %)

	한국	일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팔라틴	태국	브라질	러시아
어떤 일이 있더라도 부모님을 부양하겠다	44.3	25.4	66.0	50.0	14.7	56.8	6.2	69.7	77.0	71.8	56.5
자신의 생활형편에 따라 부모님을 부양하겠다	53.1	65.5	28.6	44.4	59.6	40.3	77.8	27.5	21.7	23.8	36.4
부모님 자신의 능력이나 사회보장에 의존하겠다	1.7	3.8	2.3	3.7	15.3	2.7	9.6	2.4	1.0	3.4	0.9
잘모르겠다	0.9	5.3	3.1	2.0	10.5	0.2	6.4	0.4	0.3	1.0	6.3

한국의 응답결과(표 5-5)를 보면, 소극적 부양형이 53.1%로서 가장 다수였고 다음이 적극적 부양형으로서 44.3%였으며, 비부양형(1.7%)과 유보형(0.9%)의 응답은 극소수에 불과하였다. 우리의 전통적인 가족윤리가 부모님의 부양을 도덕적으로 당연시하는 효 사상을 근간으로 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소극적 부양형의 응답률이 적극적 부양형을 앞서고 있음은 매우 주목할만한 사실이라 할 수 있다.

다른 나라의 응답결과와 비교해 보면 적극적 부양형의 응답률이 한국이 조사대상 11개국중 8위로서 태국이 77.0%로서 가장 높고, 다음이 브라질

(71.8%), 필리핀(69.7%), 미국(66.0%), 프랑스(56.8%), 러시아(56.5%), 영국(50.0%)의 순이며, 일본(25.4%)과 독일(14.7%), 스웨덴(6.2%)은 우리보다 낮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 청소년들의 응답결과를 시계열적으로 비교해 보면, 이전의 세차례의 조사에서는 적극적 부양형의 응답률이 거의 변화없이 7할 수준으로서 소극적 부양형의 2배 이상에 달하였는데 이번 조사에서 그 비율이 급격하게 역전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5- 6: 연로한 부모님 부양의사 - 한국 연도별

(단위: %)

	1983	1988	1993	1998
어떤 일이 있더라도 부모님을 부양하겠다	69.5	69.4	66.7	44.3
자신의 생활형편에 따라 부모님을 부양하겠다	26.9	28.3	30.1	53.1
부모님 자신의 능력이나 사회보장에 의존하겠다	2.7	1.4	2.8	1.7

결혼관

결혼에 대하여 청소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질문하였다. 응답항목은 결혼에 대한 강한 긍정(“결혼해야 한다”), 약한 긍정(“결혼하는 편이 좋다”), 약한 부정(“결혼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강한 부정(“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다”)과 “잘 모르겠다”의 5가지였다.

한국 청소년들의 응답결과(표 5-7)를 보면 약한 긍정이 39.3%로서 가장 다수였고, 다음이 강한 긍정(31.6%)으로서 전체적으로 긍정응답 비율(70.9%)이 부정응답 비율(28.5%)의 2배 이상에 달하여 결혼에 대한 태도가 매우 보수적임을 알 수 있다.

각국의 응답결과를 검토해 보면, 결혼에 대한 긍정응답률이 가장 높은 나라는 필리핀으로 87.1%에 달했으며, 다음이 태국(73.0%), 러시아(72.8%)의 순이었고 한국은 4번째였다. 결혼에 대한 부정응답률이 가장 높

은 나라는 영국으로서 67.0%였고 이어서 스웨덴(64.9%), 프랑스(59.5%), 독일(53.0%)의 순이었고 한국은 7번째였다. 미국을 제외한 “선진시장형” 사회 4개국에서는 부정응답이 긍정응답에 비해 많음에 비해, “발전도상형” 사회와 “경제우선형” 사회, “이행형” 사회에서는 모두 긍정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경향을 보면 발전도상형 사회 청소년들의 결혼관이 가장 보수적이었고 다음이 이행형 사회였으며 서구의 청소년들은 결혼의 당위성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청소년이 더 많았다.

표 5- 7: 결혼관 - 국제비교

(단위: %)

	한국	일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일본	태국	브라질	러시아
긍 정	70.9	68.9	54.1	31.4	39.5	39.1	33.4	87.1	73.0	53.9	72.8
해야 한다.	31.6	17.6	24.8	11.3	19.0	10.5	12.6	48.5	56.1	20.6	34.1
하는 편이 좋다	39.3	51.3	29.3	20.1	20.5	28.6	20.8	38.6	16.9	33.3	38.7
부 정	28.5	27.5	41.4	67.0	53.0	59.5	64.9	12.7	26.2	44.0	21.2
않아도 좋다	26.8	26.1	38.2	63.5	43.5	54.1	60.2	6.6	20.8	29.3	17.9
않는 편이 좋다	1.7	1.4	3.2	3.5	9.5	5.4	4.7	6.1	5.4	14.7	3.3
잘 모르겠다	0.5	3.6	4.5	1.6	7.5	1.5	1.7	0.1	0.8	2.1	6.0

이혼관

이혼에 관한 청소년들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 모두 5가지의 응답항목을 제시하고 선택하게 하였다. 응답항목은 강한 부정(“일단 결혼했다면 어떤 이유가 있더라도 이혼해서는 안된다”), 약한 부정(“자녀가 있으면 이혼해서는 안되지만 사정에 따라서는 어쩔 수 없다”), 약한 긍정(“자녀의 유무와는 관계 없이 사정에 따라서 이혼도 어쩔 수 없다”), 강한 긍정(“서로 애정이 없다면 이혼해야 한다”)의 4항목과 “잘 모르겠다”였다.

한국 청소년의 응답결과(표 5-8)를 보면 약한 긍정의 응답률이 31.9%

로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강한 부정(29.8%), 약한 부정(24.0%)의 순이었으며 강한 긍정이 13.1%로서 가장 적었다. 전체적으로 부정응답률이 53.8%로서 과반수를 상회하여 긍정 응답(45.0%)보다 다소 많은 편으로서 한국 청소년들이 대체로 이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각국의 응답결과를 비교하면 이혼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나라는 필리핀과 한국 두 나라에 불과하고 일본은 부정응답과 긍정응답이 거의 같은 수준이었고 나머지 국가들은 이혼을 긍정하는 응답률이 월등하게 많은 편이었다. 특히 서구의 선진시장형 사회의 청소년들은 이혼을 긍정하는 응답률은 2할 안팎인 반면 긍정응답률은 7할 이상에 달하고 있다.

표 5- 8: 이혼관 - 국제비교

(단위: %)

	한국	일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필리핀	태국	브라질	러시아
부 정	53.8	47.8	18.2	19.1	22.5	21.3	6.7	62.0	40.5	16.1	21.0
강한 부정	29.8	9.9	9.0	4.5	6.6	6.2	1.5	38.9	20.3	11.2	4.1
약한 부정	24.0	37.9	9.2	14.6	15.9	15.1	5.2	23.1	20.2	4.9	16.9
긍 정	45.0	48.6	76.5	79.4	70.8	77.4	91.3	37.8	58.5	81.9	71.3
약한 긍정	31.9	35.8	40.0	43.1	38.6	41.0	44.1	24.4	15.1	17.5	30.3
강한 긍정	13.1	12.8	36.5	36.3	32.2	36.4	47.2	13.4	43.4	64.4	41.0
잘모르겠다	1.2	3.5	5.3	1.6	6.7	1.4	2.0	0.3	1.0	2.0	7.7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높은 서구제국에서는 결혼·가족이라는 구조보다도 개인의 사정이나 애정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생각이 널리 확산되어 있음에 비해, 아시아제국에서는 결혼·가족이라는 구조를 개인의 사정과 애정보다도 우선시하는 규범이 의연히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이혼에 대한 의식은 한편으로는 결혼·가족이라는 구조를 중시하는 규범에 의존하

고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적인 성규범과 애정지향의 강도와도 관계하고 있는 것이다. 이혼에 관한 태도에 미치는 사회규범의 예를 들면, 필리핀 청소년의 이혼부정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필리핀은 이혼을 부정하고 있는 카톨릭 국가로서 카톨릭의 교의·신앙이 지금도 사회생활에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행형” 사회(러시아·브라질) 청소년들의 이혼 긍정율도 매우 높은 수준에 있음은 주목할 만한 사실인데 이것은 급격한 사회변혁과정에서 나타나는 사회규범 붕괴현상의 한 단면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이혼긍정의 경우에도 “사정에 따라서는 이혼도 어쩔 수 없다”는 약한 긍정과가 많은 나라와 “애정이 없으면 이혼해야 한다”는 강한 긍정과가 많은 나라로 구분된다. 한국과 일본은 약한 긍정과의 비율이 월등하게 높은 반면, 스웨덴과 “이행형” 사회(러시아·브라질)은 강한 긍정과의 비율이 높다는 점이 주목된다.

부모-자녀관계

부모가 자신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자신의) “친구나 연인에 관하여” “일이나 공부에 관하여” 부모가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부친과 모친 각각에 대하여 응답하게 하였다. 응답항목은 “잘 알고 있다” “약간 알고 있다” “거의 모르고 있다”와 “잘 모르겠다”의 4가지였다. 다음의 표(표 5-9)는 응답결과 중 알고 있다(“잘 알고 있다”와 “약간 알고 있다”의 합)고 응답한 비율만을 정리한 것이다.

한국 청소년의 경우 “친구나 연인에 관하여” 모친이 알고 있다는 응답이 90.9%에 달하여 부친(71.3%)보다 월등히 많았으며, “일이나 공부에 관하여”도 모친의 이해도(93.9%)가 부친(88.2%)보다 다소 높은 편이었다. 응답결과를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친구나 연인에 관하여” 부친이 알고 있다는 응답률은 한국이 조사대상 11개국 중 10위, 모친은 9위로서 최하위권이었고, “일이나 공부에 관하여”에 알고 있다는 응답률은 부친이 4위, 모친이 3위로서 상위권에 속하여 대조를 이루었다. 이것은 우리나라 부모들의 자녀에 대한 관심이 과도하게 교육·학업문제에 편중되어 있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대체로 두 항목 모두 스웨덴과 필리핀 청소년들이 부모의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응답하였고, 한국과 일본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부친과 모친의 이해도를 비교하면 모든 국가에서 부친보다는 모친의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응답하여 모친 중심의 자녀지도가 현대사회의 보편적인 현상임을 알 수 있다.

표 5- 9: 부모의 자녀이해도 - 국제비교

(단위: %)

	친구나 연인에 관하여		일이나 공부에 관하여	
	부 친	모 친	부 친	모 친
한 국	71.3	< 90.9	88.2	(93.9
일 본	61.6	<<85.4	74.4	< 84.8
미 국	78.0	< 92.5	80.3	< 91.7
영 국	77.3	< 92.6	82.8	(90.4
독 일	72.9	< 89.6	79.9	(89.4
프 랑 스	73.1	< 91.7	84.4	(93.8
스 웨 덴	90.0	(96.4	92.4	(97.8
필 리 핀	88.6	93.1	98.4	99.0
태 국	71.5	< 85.6	90.1	93.4
브 라 질	76.3	< 91.7	78.8	< 91.9
러 시 아	73.3	< 93.2	81.8	< 92.8

주: “(“ 는 5%이상 10% 미만의 차이, “<“는 10% 이상 20% 미만의 차이, “<<“는 20% 이상의 차이가 있음을 의미함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청소년들의 태도를 알아보기 위해 “부모의 의견에는 가능한 한 따라야 한다”와 “자녀는 부모로부터 경제적으로 일찍 독립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그에 대한 청소년들의 생각을 응답하게 하였다. 응답항목은 강한 긍정(“그렇다”), 약한 긍정(“대체로 그렇다”), 약한 부정(“대체로 그렇지 않다”), 강한 부정(“그렇지 않다”)와 “잘 모르겠다”의 5가지였다.

먼저 “부모의 의견에는 가능한 한 따라야 한다”는 견해에 대한 응답결과(표 5-10)를 보면 한국은 강한 긍정이 48.8%로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약한 긍정(41.9%)으로서 긍정 응답률이 9할대에 이르러(90.7%) 부정응답률(9.1%)을 월등하게 상회하였다. 다른 나라의 응답결과와 비교하면, 강한 긍정 응답률에서 한국이 브라질(81.8%), 필리핀(77.2%), 태국(63.5%)에 이어서 네번째였고, 일본과 선진시장형 사회 청소년들의 응답률은 3할 미만에 머물렀으며 스웨덴이 4.3%로서 가장 낮았다.

표 5-10: 부모의 의견에는 가능한 한 따라야 한다” - 국제비교

(단위: %)

	한국	일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필리핀	태국	브라질	러시아
강한 긍정	48.8	19.0	28.8	17.3	11.1	14.3	4.3	77.2	63.5	81.8	17.6
약한 긍정	41.9	50.0	46.1	41.0	52.7	51.0	32.4	20.0	26.6	16.2	36.0
약한 부정	6.6	16.4	16.7	22.5	26.7	22.6	45.6	2.6	7.7	1.3	26.1
강한 부정	2.5	11.7	6.7	17.0	7.4	10.7	16.7	0.2	2.0	0.6	13.2

“자녀는 부모로부터 경제적으로 일찍 독립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한 응답결과(표 5-11)를 보면 한국은 강한 긍정이 51.1%로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약한 부정(34.3%)로서 긍정응답률이 85.4%에 달하는 반면, 부정응답률은 14.2%에 불과하였다. 다른 나라의 응답결과와 비교하면 강한 긍정 응답률에서 한국이 브라질(72.8%), 태국(69.4%), 필리핀(62.9%)에 이어서 4위였고, 선진시장형 사회 청소년들의 응답률은 4할 미만으로서 낮은 편이었다.

표 5-11: 자녀는 부모로부터 경제적으로 일찍 독립해야 한다” - 국제비교

(단위: %)

	한국	일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필리핀	태국	브라질	러시아
강한 긍정	51.1	42.1	35.6	39.3	37.4	26.1	18.3	62.9	69.4	72.8	48.4
약한 긍정	34.3	41.6	37.2	33.7	43.6	43.6	34.3	25.4	18.3	15.8	31.2
약한 부정	9.3	7.6	17.2	15.7	15.0	22.7	35.8	7.1	9.0	7.7	9.9
강한 부정	4.9	5.8	7.1	8.3	2.2	5.7	9.9	4.4	3.2	3.1	5.2
강한 긍정	0.4	2.8	2.9	3.1	1.9	2.0	1.7	0.2	0.1	0.6	5.3

가족내 역할관계

“남자는 밖에서 일하고 여자는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전통적인 성별역할관을 제시하고 그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 여부를 질문하였다.

한국 청소년들의 응답결과(표 5-12)를 보면 “반대”가 77.0%에 달하여 “찬성” 응답률(18.8%)과 현격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조사대상 11개국중 대부분의 국가에서 반대한다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서구의 “선진시장형” 사회에서는 8할을 상회하였다.

그러나 아시아권 국가 중 “발전도상형” 사회(필리핀·태국)에서는 반대 응답률이 4할 남짓한 반면, “경제우선형” 사회(한국·일본)은 6할을 상회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이것은 같은 아시아권 국가인 경우에도 전통적인 성별 규범이 사회의 경제적 발전수준에 따라 달리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5-12: 남자는 밖에서 일하고 여자는 가정을 지켜야 한다 - 국제비교

(단위: %)

	한국	일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필리핀	태국	브라질	러시아
찬 성	18.8	18.4	14.6	6.8	11.1	9.3	6.4	62.7	57.7	33.9	41.3
반 대	77.0	61.2	80.3	91.7	80.9	88.8	90.1	37.1	42.0	65.1	45.7

가족내 의사결정 주도권

다음으로 가족내의 중요한 문제에 대한 의사결정의 주도권을 누가 갖고 있는가를 질문하였다. 한국의 경우 부친이 갖고 있다는 응답이 72.3%였으며 모친은 23.4%에 불과했다(표 5-13).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부친이 주도권을 갖고 있다는 응답률에서 한국이 1위였으며 그 다음이 일본(67.7%)이었고 필리핀과 태국도 6할 이상인 반면 독일을 제외한 선진시장형 사회 청소년들의 응답률은 5할 미만이었다. 이것은 아시아제국에서는 아직도 부권주의적 경향이 강함에 비해 서구제국에서는 가족의 권위관계가 평등화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표 5-13: 가족내 문제해결의 주도권 - 국제비교

(단위: %)

	한국	일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필리핀	태국	브라질	러시아
부친	72.3	67.7	42.0	45.8	56.8	36.3	29.8	63.0	61.2	60.5	30.9
모친	23.4	22.0	47.8	44.3	38.2	41.1	53.1	32.0	33.2	34.5	54.4

이상적인 부친상

일과 가정 중 어느 것을 중시하는 부친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가를 질문하고 모두 5가지의 선택지를 제시하고 응답하게 하였다. 응답결과를 “가정중시형”과 “일중시형”으로 재분류해 보면, 한국의 경우 가정중시형 부친을 선호하는 응답률이 74.0%로서 일중시형을 선호하는 응답률(23.8%)보다 월등하게 높은 편이었다. 그러나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일중시형 부친을 선호하는 응답률이 한국이 1위였으며 일본과 필리핀, 태국도 러시아나 서구 선진시장형 사회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이것은 한국·일본과 같은 “경제우선형” 사회에서는 가정 못지 않게 일과 직장을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되어 있고, 필리핀, 태국과 같은 “발전도상형” 사회에서는 취업·고용 기회의 부족으로 인하여 가정의 직장생활이 가정의 안정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5-14: 이상적인 부친상 - 국제비교

(단위: %)

	한국	일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필리핀	태국	브라질	러시아
가정중시형	74.0	73.5	89.5	91.5	82.8	92.5	85.0	83.7	77.8	78.0	74.1
일중시형	23.8	18.5	5.4	6.1	8.8	5.3	9.9	16.1	21.5	16.9	10.2

한국청소년들의 응답결과를 전회 조사와 비교해 보면 가정중시형을 선호하는 응답률이 큰 폭으로 감소한 반면, 일중시형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조사에서 이처럼 일중시형 부친의 선호도가 크게 증가한 것은 조사시점(1998년) 당시 한국사회가 직면했던 경제적 위기와 관련이 있으리라고 추측된다.

표 5-15: 이상적인 부친상- 한국 연도별

(단위: %)

	1993	1998
일을 무엇보다도 중시하는 아버지	3.9	2.4
대체로 가정생활보다 일을 중시하는 아버지	7.2	21.4
대체로 일보다도 가정생활을 중시하는 아버지	36.1	56.1
가정생활을 무엇보다도 중시하는 아버지	52.5	17.9

고민거리 상담상대

자신의 고민·걱정거리를 누구와 상담하는가에 대한 응답결과(표 5-16)를 보면, 부모의 경우 모든 국가에서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와 상의한다는 응답률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 최근 우리사회에서 거론되고 있는 “부친 부재(父親不在)”의 문제가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현상임을 알 수 있다.

“아버지”와 상의한다는 응답률이 높은 국가는 필리핀과 태국인데, 한국과 일본은 이들 국가와 더불어 가족공동체의 영향력이 높은 아시아권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서구 선진제국에 비해 오히려 낮은 응답률을 나타내었다.

어머니와 상의한다는 응답률에 있어서도 한국·일본의 청소년은 가장 낮은 응답률을 기록하여 양 국가에서 부모-자녀간의 대화의 단절현상이 매우 심각한 수준에 있음을 엿볼 수 있다.

표 5-16: 고민의 상담상대 - 국제비교

(단위: %)

	한국	일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필리핀	태국	브라질	러시아
아버지	16.8	21.9	39.4	38.9	38.9	21.1	34.8	47.9	48.6	33.0	21.8
어머니	38.4	45.9	64.3	59.3	59.3	53.0	60.3	75.7	66.3	60.3	55.6
이웃·학교친구	68.2	52.4	25.4	31.4	31.4	39.9	50.3	36.6	20.2	15.2	23.7
연인	14.3	20.9	37.4	25.1	25.1	37.0	31.7	12.3	4.3	14.7	21.9
상담하지 않는다	7.0	7.2	3.6	5.9	5.9	8.9	5.3	1.3	4.6	4.9	7.8

한편 “이웃·학교의 친구”들과 상의한다는 청소년의 비율은 한국·일본에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 이들 국가에서는 급속한 사회변화로 인한 부

모-자녀간의 대화단절은 심화되고 있는 반면 또래집단의 영향력이 강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무와도 상담하지 않는다는 응답률은 한국과 일본, 프랑스, 러시아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4. 학교·직장생활

학교생활 만족도

현재 자신의 학교 생활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 또는 불만을 느끼는지에 대하여 강한 만족(“만족”), 약한 만족(“약간 만족”), 약한 불만(“약간 불만”), 강한 불만(“불만”)의 4가지 선택지를 제시하고 응답하게 하였다.

한국 청소년의 응답결과를 보면 약한 만족이 37.8%로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강한 만족(35.1%)으로서 전체적으로 만족한다는 응답률이 7할을 상회하여(72.9%), 불만을 느끼고 있다는 응답률(23.3%)을 크게 상회하였다. 그러나 다른 나라의 응답결과와 비교하면 만족한다는 응답률이 조사대상 11개국 최하위였으며 태국(96.9%)과 필리핀(90.9%)이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전체적으로 발전도상형 사회 청소년들의 학교생활 만족도가 가장 높은 수준이었고 이행형 사회와 선진시장형 사회가 중간 수준이었으며 경제우선형 사회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7: 학교생활 만족도 - 국제비교

(단위: %)

	한국	일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필리핀	태국	브라질	러시아
만족	72.9	78.2	86.5	89.6	74.2	79.1	86.1	90.9	96.9	85.7	83.1
만족	35.1	42.1	53.3	75.8	33.8	36.8	39.4	70.3	75.7	14.3	46.6
약간	37.8	36.1	33.2	13.8	40.4	42.3	46.7	20.6	21.2	71.4	36.5
불만	23.3	17.2	11.0	9.9	18.7	21.0	13.0	9.1	3.1	14.3	15.2
약간	18.1	12.4	7.2	6.5	13.1	15.6	9.1	7.2	3.1	12.6	11.0
불만	5.2	4.8	3.8	3.4	5.6	5.4	3.9	1.9	-	1.7	4.2

한국 청소년들의 응답결과를 시계열적으로 비교하면 과거에 비해 학교 생활 만족도가 다소 높아졌음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입시제도의 개선 등을 통해 우리사회의 교육환경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학교생활 만족도가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음을 감안하면 보다 근본적인 수준의 교육제도·환경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표 5-18: 학교생활 만족도 - 한국 연도별

(단위: %)

	1983	1988	1993	1998
만 족	32.1	26.4	29.9	35.1
약간만족	35.2	37.1	36.9	37.8
약간불만	21.9	24.4	22.7	18.1
불 만	7.6	9.9	9.6	5.2

학교교육에 대한 인식

학교교육·학교생활의 의의에 관한 응답결과(표 5-19)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조사에서는 “학교에서 어떤 것을 배우거나 경험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8가지 항목의 선택지를 제시하고 무제한 다지선택법으로 응답하게 하였다. 응답항목을 재분류하면 크게 “지식의 획득”(“일반적·기초적 지식” “전문적인 지식”), “직업기능의 획득”, “자질·인성의 함양”(“자신의 재능 신장” “인격·삶의 방식”), “자유·교제의 공간”(“친구와의 우정” “자유로운 시간”), “학력·자격의 획득”의 네가지로 유형화할 수 있다.

먼저 학교교육의 의의를 “지식의 획득” 공간으로 간주한 응답률은 서구 선진제국 청소년들 사이에서 높게 나타났다. “직업기능의 획득”을 지적인 응답은 서구국가들과 더불어 필리핀, 태국에서, “자질·인성의 함양”은 미국과 영국, 프랑스, 스웨덴 등 서구국가들, “자유·교제의 공간”은 일본, 미국, 영국 청소년들의 응답률이 높은 편이었다. 한편 “학력·자격의 획득”이라는 응답은 미국, 영국과 더불어 한국 청소년들의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이상의 응답결과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대체로 서구 선진제국, 특히 미국, 영국, 스웨덴의 청소년들은 모든 측면에서 학교교육의 의의를 높게 평가한 반면, “이행형” 사회인 러시아, 브라질 청소년들은 학교교육의 의의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내리고 있다. 또한 필리핀, 태국과 같은 발전도상국 청소년들은 학교교육을 취업을 위한 준비단계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은 편이다.

표 5-19: 학교교육의 의의 - 국제비교

(단위: %)

	한국	일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필리핀	태국	브라질	러시아
일반·기초적 지식	49.2	48.5	82.0	73.1	77.0	68.3	71.8	60.4	69.8	59.7	29.4
전문적 지식 획득	48.7	39.0	55.0	45.0	30.6	45.3	47.3	40.4	24.2	24.5	45.1
직업적 기능 획득	35.6	22.3	57.0	61.1	32.5	35.7	47.8	54.2	55.8	36.2	36.7
자신의 재능 신장	43.2	25.0	36.3	55.4	45.5	50.9	72.8	48.3	32.6	28.5	27.6
인격·삶의 방식 학습	19.0	15.0	37.1	30.2	10.0	18.8	12.3	40.5	17.0	17.3	6.2
친구와의 우정	43.4	59.9	43.7	74.8	35.7	28.6	63.7	30.6	18.8	34.6	27.9
자유로운 시간 즐김	18.7	30.3	30.2	40.2	20.2	18.0	13.7	11.3	9.6	3.9	6.2
학력·자격 획득	59.3	40.2	64.4	64.2	29.1	38.8	47.7	54.7	25.0	24.2	42.3

한국의 경우에는 “이행형” 사회의 청소년보다는 학교교육의 의의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내리고 있지만, 서구 선진제국 청소년들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며, 유독 “학력·자격의 획득”에만 높은 응답률을 기록한 점이 주목된다. 이것은 한국사회에서 학교가 청소년들의 생활에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식·교양의 습득 및 인성의 함양이라는 본연의 기능보다는 상급학교 진학 또는 취업을 위해 거쳐야 하는

불가피한 단계로서 인식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대졸자의 평가기준

사회에서 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평가할 때 주로 어떤 점이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하고 5가지 항목의 선택지를 제시하였다.

한국 청소년들의 응답결과(표 5-20)를 보면 과반수 이상이 “일류대학을 나왔는가의 여부”(57.9%)라고 응답하여 다수를 차지하였고, “어느 대학이든 대학을 나왔다는 사실”(17.8%), “대학에서 어떤 전문분야를 배웠는가 하는 점”(16.7%) 등 나머지 항목들은 모두 2할 미만이었다. 다른 나라의 응답결과와 비교하면 일류대학 출신 여부가 가장 다수인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며 대부분 대학에서의 성적과 전공분야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하였다. 이와 같은 응답결과는 한국의 왜곡된 대학교육의 현실을 반영하는 단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같은 질문에 대한 한국 청소년들의 응답결과를 시계열적으로 비교하면 “일류대학 출신 여부”에 대한 응답률이 매회 조사마다 다수를 차지였고, 이번 조사에는 전회조사보다 오히려 1할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학벌 위주의 교육현실이 의연히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20: 대학졸업자를 평가하는 요소 - 한국 연도별

(단위: %)

	1983	1988	1993	1998
일류대학을 나왔는가의 여부	45.2	52.1	46.7	57.9
어느 대학이든 대학을 나왔다는 사실	12.4	18.6	24.4	17.8
대학에서 어떤 성적을 거두었는가 하는 점	13.7	10.3	5.8	6.0
대학에서 어떤 전문분야를 배웠는가 하는 점	19.9	16.0	17.0	16.7
잘모르겠다	6.7	2.2	6.1	1.7

직장생활 만족도

직장을 갖고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여 현재의 직장생활에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를 질문하였다. 한국청소년들의 응답결과를 보면 “약간 만족”한다는 응답이 41.8%로서 가장 다수였고, 다음이 “만족”(33.4%)으로서 전체적으로 만족한다는 응답률이 75.7%에 달하여 불만을 느낀다는 응답률(23.7%)을 크게 상회하였다.

그러나 다른 나라의 응답결과와 비교하면 만족한다는 응답률이 조사대상 11개국 중 8위로서 하위권에 속하였다. 선진시장형 사회 청소년들은 공통적으로 8할 이상이 만족한다고 응답한 반면 한국과 일본(70.4%), 필리핀(72.2%) 등은 7할대에 머물렀으며, 러시아가 58.5%로서 가장 낮은 만족도를 나타내었다.

표 5-21: 직장생활 만족도 - 국제비교

(단위: %)

	한국	일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필리핀	태국	브라질	러시아
만족	75.7	70.4	83.2	81.1	88.9	84.4	89.6	72.2	88.3	83.8	58.4
만족	33.9	32.6	49.6	59.0	55.8	53.0	52.5	37.9	69.3	13.9	24.1
약간	41.8	37.8	33.6	22.1	33.1	31.4	37.1	34.3	19.0	69.9	34.3
불만	23.7	26.5	16.0	18.7	8.7	14.9	9.6	27.9	11.7	15.4	37.6
약간	17.4	19.1	8.7	8.2	5.0	9.8	7.5	15.0	11.3	14.5	26.4
불만	6.3	7.4	7.3	10.5	3.7	5.1	2.1	12.9	0.4	0.9	11.2

한국 청소년들의 직장생활에 만족도에 대한 응답결과를 시계열적으로 비교하면 대체로 매회 조사마다 일정한 수준의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고 전 회 조사보다는 만족도가 다소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5-22: 직장생활 만족도- 한국 연도별

(단위: %)

	1983	1988	1993	1998
만 족	30.7	28.1	27.4	33.9
약간 만족	41.0	41.0	32.5	41.8
약간 불만	17.2	22.6	29.8	17.4
불 만	7.8	7.4	9.6	6.3

전직경험

다음으로 직업을 가진 청소년들의 직장생활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전직경험에 대해서 살펴보면, 직장을 옮긴 경험이 없는 청소년의 비율은 일본·독일이 6할 이상으로서 가장 높고, 미국, 스웨덴, 브라질 등이 3할 안팎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며 다른 국가들은 그 중간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와 같은 전직미경험률(직장정착률)의 국가별 차이는 한편으로는 각국의 경제구조나 노동시장의 여건, 고용조건 등에 의존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와 같은 구조적 요인과 상보적인 관계에 있는 이동규범이나 직장에 대한 만족도와 같은 주관적인 요인에도 의존하고 있다. 조사에서는 이 주관적 요인에 관련된 지표로서 전직희망의 유무를 묻고 있다. 그 결과가 다음의 표에 나타나 있는데, 여기에서는 실제의 직장정착률과는 불일치하는 흥미로운 결과가 확인되었다.

표 5-23: 전직 경험 - 국제비교

(단위: %)

	한국	일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팔라틴	태국	브라질	러시아
없다	43.4	66.2	25.9	36.5	60.5	39.5	30.7	53.2	44.0	30.7	47.3
1회	20.6	18.5	25.5	18.0	25.2	19.6	18.1	26.3	17.9	17.3	24.5
2회	19.3	10.1	20.0	17.4	7.8	12.2	15.2	9.4	11.8	21.4	16.4
3회	8.2	1.4	9.3	11.0	2.9	10.1	11.7	3.9	7.7	9.5	3.7
4회이상	7.0	2.8	13.8	17.0	1.6	17.9	21.6	7.2	16.3	19.9	5.5

일본과 독일은 실제로 전직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비율은 가장 낮은

편에 속하지만, 전직을 희망하는 청소년의 비율은 높은 편이고, 이와는 대조적으로 필리핀과 태국은 전직 경험을 가진 청소년의 비율이 비교적 높은 한편, 평생 한 직장에 정착하고 싶다는 의지는 가장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실제 직장정착률과 전직희망 비율간의 불일치 현상은 직업과 관련된 각국의 규범적 요소 및 경제적 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즉, 일본과 독일은 대를 이어 가업을 계승하고, 오랜 동안 한 분야에 종사하여 일정한 경지에 도달한 장인(匠人)을 높게 평가하는 직업규범이 일반화되어 있다. 따라서 일본과 독일의 청소년들은 이와 같은 직업적 전통으로 인하여 현재의 직장에 불만을 느끼고 직장을 옮기고 싶어도 쉽게 이를 실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필리핀, 태국과 같은 발전도상국의 청소년들은 열악한 경제적 상황으로 인하여 직업의 불안정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직장을 갖게 되면 가능한 한 현재의 직장에 정착하려는 의사가 강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의 청소년들은 전직경험률에 있어서는 일본, 독일보다는 높지만 서구 선진제국보다는 낮은 중간 수준에 위치해 있고, 전직희망 유무별로는 적극적인 전직희망(“불만” “적극적”)의 응답률보다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전직할 수도 있다”는 소극적인 전직희망의 응답률이 높은 편이다. 서구 선진제국의 청소년들은 적극적인 전직희망을 가진 청소년의 비율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월등하게 높은 편인데, 이것은 이들 국가에서는 고용기회와 고용조건이 다양하여 보다 조건이 좋은 직장으로 옮긴다는 것을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이는 사회관념이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일을 하는 목적

일을 하는 목적에 대한 응답결과에서도 직업에 관한 서구 선진제국과 비서구 국가 청소년들간의 현저한 의식의 차이가 확인된다.

표 5-24: 일을 하는 목적 - 국제비교

(단위: %)

	한국	일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필리핀	태국	브라질	러시아
수입 얻는 것	57.6	58.7	89.7	88.0	75.1	78.9	76.2	44.1	68.2	55.6	73.6
사회인의 의무	9.3	11.3	2.1	1.9	5.4	6.1	3.3	27.3	8.3	14.2	3.2
자기자신 발전	32.6	28.9	7.3	9.8	18.2	14.4	18.7	28.5	23.4	29.6	21.3

“선진시장형” 사회에서는 7~8할의 청소년들이 “수입을 얻는 것”이라고 응답한 반면, 한국, 일본, 필리핀, 브라질 등의 비서구국가 청소년들은 5할 또는 그 이하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 반면, “사회인으로서 의무를 다하기 위해” “일을 통해 자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라는 응답률은 비서구국가의 청소년들이 월등하게 높게 나타나, 직업을 수입을 얻기 위한 계약관계로 파악하는 서구 청소년들과는 달리 한국을 비롯한 비서구국가 청소년들은 직업의 사회적·윤리적 측면을 보다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 청소년들의 응답결과를 시계열적으로 비교하면 “수입을 얻는 것”이라는 응답률이 해가 갈수록 점진적으로 증가경향에 있어, 청소년들의 직업관이 점차 사회·윤리적 측면보다는 수입을 중시하는 현실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25: 일을 하는 목적- 한국 연도별

(단위: %)

	1983	1988	1993	1998
수입을 얻는 것	37.8	44.7	43.3	57.6
사회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것	23.3	18.0	17.2	9.3
일을 통해 자신을 발전시키는 것	37.5	36.7	39.5	32.6

친구관계 만족도

청소년기는 심리·행동의 측면에서 가족공동체 이외의 사회적 관계를 지향하는 시기로서 특히 친구·동료와의 교우관계를 통한 또래 집단의 영향력이 인간관계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한다.

현재 사귀고 있는 친구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해 “불만”에서 “만족”에 이르는 단계별 4점척도를 제시하고 응답하게 하였다.

한국 청소년들의 응답결과(표 5-26)를 보면 “만족”한다는 응답이 69.6%로서 가장 다수를 차지하였고, “약간 만족”의 응답률도 23.0%로서 전체적으로 만족한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92.6%에 이르러 불만을 느끼고 있다는 응답률(7.2%)과 현격한 격차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만족한다는 응답률이 조사대상 11개국 중 9위로서 하위권에 속하였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9할 이상의 청소년들이 만족한다고 응답한 반면, 이행형 사회의 청소년들은 9할 미만의 만족도를 나타내었다.

표 5-26: 친구관계 만족도 - 국제비교

(단위: %)

	한국	일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팔라핀	태국	브라질	러시아
만 족	92.6	96.7	96.4	96.7	94.0	95.4	97.6	96.9	97.8	89.0	89.1
만족	69.6	74.6	75.0	89.3	69.3	70.9	77.1	80.1	85.7	14.4	59.1
약간	23.0	22.1	21.4	7.4	24.7	24.5	20.5	16.8	12.1	74.6	30.0
불 만	7.2	2.7	2.7	2.3	2.7	3.7	2.2	2.7	1.8	5.7	7.5
약간	6.6	1.8	1.7	1.6	1.9	2.2	1.5	2.0	1.8	5.7	4.8
불만	0.6	0.9	1.0	0.7	0.8	1.5	0.7	0.7	0.0	0.0	2.7

한국 청소년들의 친구관계 만족도에 대한 응답결과를 시계열적으로 비교해 보면(표 5-27), 매우 낮은 비율이기는하나 해가 갈수록 만족도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표 5-27: 친구관계 만족도- 한국 연도별

(단위: %)

	1983	1988	1993	1998
만 족	62.0	64.8	64.2	69.6
약간 만족	26.6	25.2	24.8	23.0
약간 불만	7.3	7.8	9.4	6.6
불 만	1.0	1.4	1.6	0.6

친구의 유무·사귀게 된 계기

친한 친구의 유무를 살펴보면, “이행형” 사회인 러시아와 브라질에서 “친한 친구가 없다”는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이 주목되는데, 사회의 급격한 혼란상이 인간관계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한편 친구의 성별 응답결과를 보면 한국, 일본, 필리핀, 태국과 같이 동성 친구의 비율이 높은 국가와 이와는 대조적으로 서구 선진제국과 같이 동성·이성의 친구가 모두 있다는 응답이 7할을 상회하는 국가로 뚜렷이 구분된다. 한국과 일본에서 동성친구만 있다는 응답률이 높은 것은 학교교육을 비롯한 사회생활의 모든 측면에서 남녀를 격리하는 문화, 동성만의 집단을 장려하는 제도, 청소년기의 이성교제를 제한하는 사회규범이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5-28: 친한 친구의 유무·친구의 성별 - 국제비교

(단위: %)

	한국	일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필리핀	태국	브라질	러시아
동성의 친구만	39.0	44.7	13.9	15.9	7.6	9.2	24.2	55.3	53.0	20.0	23.8
이성의 친구만	2.2	1.1	4.8	1.6	1.9	2.8	2.2	8.0	1.0	3.2	3.5
양 성 모 두	57.3	52.9	76.9	79.6	85.9	85.1	71.7	33.2	39.7	61.1	64.2
없 다	1.3	1.1	3.7	3.0	2.9	2.9	1.3	3.5	6.2	15.7	7.3

한국 청소년들의 응답결과를 시계열적으로 비교해보면 “동성의 친구만 있다”는 응답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한 반면, “양성 모두 있다”는 응답률은 전회 조사(1993)와 비교하여 16%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우리사회에서도 점차 친구관계에서 있어서 성적인 장벽이 완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29: 친한 친구의 유무 · 친구의 성별 - 한국 연도별

(단위: %)

	1983	1988	1993	1998
동성의 친구가 있다	53.0	55.3	52.3	39.0
이성의 친구가 있다	1.7	2.4	3.9	2.2
양성 모두 있다	42.2	40.3	41.5	57.3
없 다	3.1	1.6	2.3	1.3

다음으로 친구를 사귀게 된 계기에 대한 응답결과를 보면, 모든 국가에서 “학교에서”가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모든 국가에서 청소년들의 생활 속에 학교가 점하는 비중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독일을 제외한 서구 선진제국과 한국, 일본의 경우 학교에서 친구를 사귀었다는 응답률이 8할 이상을 점하는 데 이들 국가들은 모두 세계적으로 학교 진학율이 높은 국가라는 공통점이 있다. 특히 한국과 일본의 경우 9할 가량의 청소년이 학교에서 친구를 사귀었다고 응답하여 서구 선진제국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이들 양국 청소년들의 일상생활에서 학교가 얼마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가를 짐작할 수 있다.

학교에 이어서 높은 응답률을 나타낸 것이 “이웃에서”라는 응답인데, 특히 “발전도상형” 사회(필리핀 · 태국)와 “이행형” 사회(러시아 · 브라질)의 응답률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높은 수준에 있다. 이것은 이들 나라에서는 지역사회가 청소년들의 생활권으로서, 또한 인간관계의 기반으로 의연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에 한국과 일본의 응답률은 극단적으로 낮은 편인데, 이들 국가에서는 급격한 산업화 · 도시화의 과정에서 지역사회가 청소년들의 생활권과 인간관계의 기반으로의 의미가 저하되고 있는 한편 학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표 5-30: 친한 친구를 사귀게 된 계기 - 국제비교

(단위: %)

	한국	일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핀란드	태국	브라질	러시아
학교에서	89.3	92.2	82.4	81.2	76.4	81.9	88.2	64.7	60.6	59.4	61.5
직장에서	18.8	39.6	47.9	45.0	43.8	26.9	28.3	24.1	18.8	30.5	20.5
길거리에서	5.1	4.8	26.2	19.2	18.9	30.7	16.5	17.8	2.3	22.1	14.2
여행지에서	1.8	1.5	11.3	7.8	14.4	13.2	18.3	9.3	7.1	12.8	3.4
이웃에서	16.4	12.6	44.7	50.4	46.1	35.9	39.4	51.1	58.0	59.2	50.1

“직장”에서 친구를 사귀었다는 청소년의 비율도 대부분의 국가에서 높은 수준이었다. 직장이 취업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는 생활시간의 주요부분을 보내는 장이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한국과 태국, 러시아의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이 주목되는데, 그 이유는 명확하지 않지만 경제구조의 급격한 변화로 말미암은 직장생활의 독특한 특성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길거리에서” 또는 “여행지에서” 친구를 사귀었다는 청소년의 비율도 다른 국가들에 비해 한국과 일본이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내 양국 청소년들의 생활반경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5. 사회·국가관

지역사회관

현재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싫어한다”에서 “좋아한다”에 이르는 단계별 5점척도를 제시하고 응답하게 하였다.

한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좋아한다(“대체로 좋아한다” 포함)는 응답

률이 75% 이상에 달하고 있고 특히 필리핀, 태국, 스웨덴, 독일 등은 90% 이상에 달하고 있다. 조사대상이 된 대부분의 국가에서 청소년의 대다수가 현재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 호감 내지 애착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31: 지역사회 선호도 - 국제비교

(단위: %)

	한국	일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필리핀	태국	브라질	러시아
대체로 좋아	33.0	40.6	28.4	37.4	32.2	32.6	37.7	14.5	17.5	31.7	35.8
좋아한다	39.8	44.7	56.5	45.4	57.8	46.4	52.8	81.0	75.2	55.5	42.4
싫어한다	4.6	2.8	6.1	8.4	2.3	8.1	2.1	1.2	1.8	7.4	4.9
대체로 싫어	21.8	9.9	8.2	8.7	6.8	12.4	7.0	3.4	5.4	5.4	15.6

그러나 “좋아한다”는 응답비율에 있어서는 국가별로 현저한 차이가 확인된다. 필리핀, 태국은 75% 이상임에 비해 한국, 일본은 상당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도시화·산업화의 정도가 낮고 지역사회에 공동체적 요소가 잔존하는 “발전도상형” 사회에서 지역사회에 대한 호감도가 높음에 비해 급속한 산업화·도시화를 경험한 “경제우선형 사회”에서는 호감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선진시장형” 사회 청소년들의 지역사회 호감도는 대체로 이들의 중간수준에 머물러 있다.

한국 청소년들의 응답결과를 시계열적으로 비교하면(표 5-32), 전회 조사까지 “좋아한다”는 응답률이 2할 수준에 머물렀음에 비해 이번 조사에서는 4할에 가까운 응답률을 나타내어 근년에 접어들어 청소년들의 지역사회에 대한 호감도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5-32: 지역사회 선호도- 한국 연도별

(단위: %)

	1983	1988	1993	1998
좋아한다	24.2	24.4	20.1	39.8
대체로 좋아한다	35.8	37.7	42.5	33.0
대체로 싫어한다	24.2	25.5	23.6	21.8
싫어한다	9.2	8.9	5.5	4.6

지역사회 정착의사

한편 지역사회 정착의사에 대한 응답결과를 보면 앞서의 지역사회 호감도와 유사한 응답결과가 나타나 “발전도상형” 사회(필리핀, 태국)에서는 60% 이상의 청소년이 계속 정착할 의사를 밝혔고, “이행형” 사회(브라질, 러시아)의 청소년도 50% 이상의 높은 응답률을 나타낸 것이 특징적이다. 이들 국가는 공통적으로 산업화·도시화·정보화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농업종사 인구가 많고 지역간 이동이 비교적 적다는 특징을 공유하고 있다.

표 5-33: 지역사회 영주의사 - 국제비교

(단위: %)

	한국	일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필리핀	태국	브라질	러시아
계속 살고 싶다	39.4	34.1	44.0	42.5	56.4	20.6	39.9	70.7	62.1	54.4	52.2
이주 하고 싶다	33.5	22.9	39.0	39.6	22.0	51.1	31.6	25.4	15.5	23.5	35.0
어느쪽이든 상관없다	25.8	37.2	12.8	17.2	14.8	27.7	19.0	3.5	22.1	12.3	11.9

반대로 “경제우선형” 사회(한국, 일본)와 독일을 제외한 선진시장형 사회(미국, 영국, 프랑스, 스웨덴) 청소년들의 지역 정착 희망률은 모두 50% 미만에 머물렀는데 이들 국가는 생활기회나 문화환경 등의 측면에서 도시와 지방의 격차가 현격하여 인구이동이 많은 나라이다.

표 5-34: 지역사회 영주의사 - 한국 연도별

(단위: %)

	1983	1988	1993	1998
계속 살고 싶다	33.9	36.9	41.4	39.4
이주하고 싶다	47.3	47.2	35.0	33.5
어느쪽이든 상관없다	17.5	14.9	23.6	25.8

사회에 대한 만족도

현재 청소년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국가의 사회현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을 느끼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불만”에서 “만족”에 이르는 단계별 5점척도를 제시하고 응답하게 하였다.

한국 청소년들의 응답결과를 보면 “약간 불만”이라는 응답이 48.8%로서 가장 다수를 차지하였고 “불만”이라는 응답도 24.9%로서 불만족을 느끼는 청소년의 비율이 73.7%에 달한 반면 만족한다는 응답은 1/4 수준(25.7%)에 불과하였다. 다른 나라의 응답결과와 비교하면 사회현실에 대해서 만족한다는 응답률에서 발전도상형 사회 청소년들이 7할 이상으로서 가장 높은 수준이었고 선진시장형 사회의 3개국(미국, 영국, 스웨덴)이 6할 수준으로서 그 다음이었으며, 한국은 러시아(24.9%)와 더불어 최하위권에 속하였다.

표 5-35: 자국 사회현실 만족도 - 국제비교

(단위: %)

	한국	일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팔레스타인	태국	브라질	러시아
만족	25.7	45.2	67.8	63.4	40.0	40.4	68.7	72.7	76.0	41.5	24.9
만족	2.5	5.8	20.6	21.8	4.2	6.2	8.3	26.9	40.3	2.1	5.0
약간	23.2	39.4	47.2	41.6	35.8	34.2	60.4	45.8	35.7	39.4	19.9
불만	73.7	58.3	30.4	34.2	58.1	58.3	28.1	27.4	24.0	56.7	66.3
약간	48.8	38.4	19.2	22.9	32.9	43.4	20.3	14.4	21.5	48.7	41.6
불만	24.9	19.9	11.2	11.3	25.2	14.9	7.8	13.0	2.5	8.0	24.7

대체로 “경제우선형”, “이행형” 국가에서 사회에 대해 불만을 느끼는 청소년들이 가장 많으며 그 다음이 “선진시장형” 사회이며, “발전도상형” 사회 청소년들이 상대적으로 사회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은 수준에 있다. 이와 같은 자국사회에 대한 만족도의 차이는 각국의 사회·경제의 발전 속도 및 전통적인 가족·지역공동체의 해체수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즉, “경제우선형”(한국·일본)과 독일은 전쟁을 통해 사회·경제적 기반이 와해된 상황에서 급속한 경제발전을 통해 단기간에 선진국 또는 이에

상응하는 수준의 발전을 성취하였다. 이 과정에서 전통적으로 사회성원들간의 인간적인 유대감과 심리적인 안정을 부여해 온 가족·지역 공동체가 그 영향력을 상실한 반면, 경제적 풍요에 대한 심리적 기대수준과 변화 적응과정에서의 개인간의 격차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이 증폭되었고 이로 인하여 사회에 대한 높은 불만을 갖게 된 것이다.

“이행형” 사회의 경우, 급격한 사회체제의 재편과정에서 경제·사회적 기반과 전통적인 공동체가 와해되면서 성원들의 심리적 아노미 현상이 확산된 것이 사회에 대한 불만으로 연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에 경제·사회발전의 속도가 상대적으로 지체된 “발전도상형” 사회의 경우 농경사회의 특징인 가족·지역사회의 높은 결속력으로 인하여 성원들간의 동질의식과 심리적인 유대감이 강하고 이로 인하여 낙후된 생활수준에도 불구하고 사회에 대한 만족도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선진시장형” 사회의 청소년들은 “경제우선형” 사회와 동일하게 가족·지역공동체의 결속력은 약화되었지만, 자본제적 경쟁 및 시장의 원리가 사회생활의 제반 영역에서 확산되어 개인의 노력과 능력에 따라 자신의 성공여부가 결정된다는 의식을 갖게 됨으로써 “경제우선형”·“이행형” 국가의 청소년들보다는 자국사회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같은 질문에 대한 한국 청소년들의 응답결과를 시계열적으로 비교하면, 1983년에 만족한다는 응답률이 5할 이상에 달하였다가 그 이후로는 계속 2할 정도의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36: 자국 사회현실 만족도- 한국 연도별

(단위: %)

	1983	1988	1993	1998
만 족	12.5	2.7	2.6	2.5
약간 만족	40.5	14.5	16.4	23.2
약간 불만	27.2	45.2	48.1	48.8
불 만	15.5	34.1	31.5	24.9

자국사회의 문제점

다음으로 청소년들이 어떤 것들을 자국사회의 문제점으로 파악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사회의 구조적인 측면(신분·집안, 성별 차별, 인종차별, 학력 차별, 빈부격차)과 상황적인 측면(치안문란, 풍속문란, 정치 불안정, 취직·실업), 복지적인 측면(사회복지 불충분, 환경파괴)에 대한 항목들을 제시하고 그에 대하여 무제한 복수응답하게 하였다.

응답결과를 보면 먼저 구조적인 측면에 있어서 인종차별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 있어서 한국청소년들의 응답률이 가장 높은 수준에 있음이 주목된다. “신분·집안이 중시된다”와 성별 차별에 대한 응답 비율 5할 내외로서 조사대상 11개국 중 각각 1위, 2위이고, 학력차별을 지적한 응답률이 7할로서 다른 나라와는 현저한 격차를 두고 1위이며 빈부격차 역시 6할로서 1위를 점하고 있다. 유일하게 인종에 따른 차별이 조사대상국가 중 가장 낮은 응답률을 기록하였는데 이것은 우리나라가 단일민족 국가이며 다른 나라에 비해 국제화의 수준이 낮은 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사회의 상황적 측면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치안 문란, 풍속 문란의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인 반면, 정치, 취직·실업에 대한 응답비율은 모두 조사대상 국가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정치적인 갈등과 외채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에 놓여있는 조사시점(1998) 당시의 우리나라의 사회적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복지적인 측면의 두 항목은 다분히 선진국형의 문제관심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응답결과도 우리나라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낸 점이 주목된다.

각 항목들에 대해 문제라고 느끼는 응답비율이 높다는 것이 곧 그 사회가 실제로 해당 부문에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같은 “경제우선형” 사회로 분류되지만 일본 청소년들의 각 항목별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고 미국, 영국과 같은 “선진시장형” 사회 청소년들이 우리나라 청소년과 더불어 가장 많은 항목에 대해 높은 불만을 나타낸 점, 또한 가장 많은 사회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러시아 청소년들이 각 항목별 응답률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데서도 확인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자국 사회의 문제점으로서 각 항목에 대하여 높은 응답률을 나타낸 것은 “학력차별” “성차별”의 문제와 같이 사회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측면도 있지만 “사회복지의 불충분” “환경 파괴에 대한 무관심”과 같은 선진국형 항목들에 대한 높은 응답률에서도 엿볼 수 있듯이 사회에 대한 높은 기대수준과 비판의식을 갖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자국사회의 자랑할 만한 것

다음으로 청소년들이 자국사회의 어떤 측면에 대해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모두 15개 항목을 제시한 뒤 해당되는 것을 모두 선택하게 하였다.

표 5-37: 자국사회에서 자랑할만한 것 - 국제비교

(단위: %)

	한국	일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일본	태국	브라질	러시아
역사·문화유산	75.2	47.3	60.7	47.7	31.7	64.2	50.3	62.6	60.0	21.0	65.8
자연·천연자원	25.1	17.9	46.6	24.3	13.5	34.4	75.0	67.5	47.1	23.8	47.0
문화·예술	33.2	28.7	43.6	27.3	38.9	55.4	32.0	55.0	52.3	17.1	52.7
종교	7.6	3.0	34.7	6.1	3.8	5.8	7.5	47.0	54.9	22.5	18.7
스포츠	23.8	15.9	56.6	41.1	46.1	29.8	64.3	43.6	24.5	44.2	43.5
과학·기술	9.5	28.4	59.8	25.9	51.1	34.4	42.6	25.4	12.9	4.9	35.2
교육수준	25.0	20.6	37.9	30.2	28.6	31.3	55.4	38.8	17.0	8.1	18.4
장래 발전가능성	28.6	5.6	39.9	21.0	13.3	11.3	33.8	22.8	5.7	9.2	11.1
생활수준	2.6	30.0	47.7	39.1	48.8	30.2	64.0	12.3	9.0	5.1	0.5
사회복지	1.8	6.5	20.8	13.6	31.5	16.8	46.3	13.6	13.8	2.9	0.6
사회의 안정성	1.4	8.5	23.8	14.0	15.0	7.7	30.8	15.6	22.7	1.5	0.3
국민의 일체감	28.4	2.4	36.3	28.1	10.0	4.6	10.0	20.8	12.8	10.6	5.1
치안상태	0.8	34.9	31.2	27.3	9.8	10.1	24.0	14.1	30.7	3.2	0.9
자유·평화사회	10.0	18.7	37.7	21.6	18.2	25.3	47.7	24.4	8.9	6.6	2.8
국제적인 발언력	1.1	1.3	41.3	18.9	18.3	16.1	15.1	8.6	1.0	1.9	4.1

전체적으로 보면 한국과 일본, 브라질이 4할 이상의 응답항목이 하나로

서 가장 적었으며, 반면 미국과 스웨덴이 각각 7개, 8개로서 가장 많은 편에 속하였다. 이와 같은 응답결과는 한국 청소년들이 우리나라의 과거의 역사와 문화유산에 대해서는 높은 자부심을 느끼지만 우리사회의 다양한 측면의 현실에 대해서는 강한 불만을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긍정적인 사실은 국민적 일체감과 장래의 발전가능성에 대해 높은 긍지감을 갖고 있다는 것으로서 이것은 기성세대가 이뤄놓은 사회현실에 대해서는 만족하지 못하지만 자신들이 이끌어갈 앞으로의 우리사회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 국가의 국민이 자국에 대해서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는 것은 크게 다음의 세가지 요인이 작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첫째, 긍지를 느낄 만한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하는가의 여부(제1요인), 둘째, 그와 같은 객관적인 사실 또는 강한 민족주의로 인해 정책적으로 조장된 사실이 학교교육, 매스컴 등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내면화되었는가의 여부(제2요인), 마지막으로 자국의 특성과 실정을 외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파악하는 자세와 시각이 형성되었는가의 여부(제3요인)이다. 예컨대 미국과 독일이 “스포츠”와 “과학·기술” 항목에서 높은 응답률을 나타낸 것은 객관적으로 입증가능한 것으로서 제1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다. 반면, “사회복지” 항목에 대한 응답률에서 필리핀·태국이 한국·일본을 크게 상회하고 있는 것은 객관적 사실이라기 보다는 자국에 대한 민족주의적 감정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제2요인). 따라서 한국과 일본이 대부분의 항목에서 낮은 응답률을 기록했다는 것이 곧 양국 사회가 다른나라에 비해 해당 부문이 낮은 수준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자국사회를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상대적·객관적인 안목으로 파악하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자국인의 이미지

청소년들이 자국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성격 특성을 나타내는 11가지의 응답항목을 제시하고 해당되는 것을 모두 선택하게 하였다. 한국 청소년들의 응답결과를 보면 “허영심이 많다”를 선

택한 응답률이 66.5%로서 가장 다수였고, 이밖에 “근면하다”(61.1%)와 “예의바르다”(52.5%)의 응답률이 과반수에 달하는 반면, “지적이다”(13.2%)와 “진보적이다”(12.6%)는 1할대의 낮은 응답률을 나타내었다.

각 국가별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낸 항목을 보면 “근면하다”가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필리핀, 태국, 브라질 등 7개국으로서 가장 많았으며, “지적이다”(미국), “실제적이다”(스웨덴), “용감하다”(러시아), “허영심이 많다”(한국)은 각각 1개국가에서만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하였다.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청소년들만이 부정적인 성격특성에 대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낸 점이 주목할 만한 점이다.

표 5-38: 자국민의 이미지 - 국제비교

(단위: %)

	한국	일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필리핀	태국	브라질	러시아
근면하다	61.1	60.0	29.4	62.0	71.0	39.0	42.1	59.5	47.4	49.3	30.2
지적이다	13.2	9.2	55.2	17.9	28.4	23.3	34.5	59.5	23.0	5.7	33.3
실제적이다	29.4	5.5	40.7	43.9	51.3	16.7	45.3	49.9	12.8	17.3	18.4
관대하다	23.1	2.3	32.8	31.4	15.9	20.4	16.3	31.5	40.9	26.8	38.5
용감하다	21.6	0.8	37.6	19.7	26.1	17.3	11.2	43.0	27.0	33.5	41.1
예의바르다	52.5	30.8	25.2	35.6	21.0	21.4	40.5	52.2	32.7	16.8	3.8
진보적이다	12.6	6.0	46.0	29.2	52.0	36.8	30.1	18.1	35.8	12.1	8.1
평화애호적	28.1	18.6	30.3	13.3	30.5	25.9	36.3	31.3	38.0	18.7	37.6
허영심 많다	66.5	48.0	46.8	23.9	27.7	29.6	33.7	20.6	31.7	22.2	7.8
거만하다	26.4	9.1	40.5	33.0	32.7	29.3	23.8	11.7	9.5	20.7	7.2
신뢰불가능	13.4	11.6	24.9	15.7	8.1	20.0	14.2	6.8	13.7	25.8	16.7

정치에 대한 관심도

청소년들이 자국 사회의 현실 정치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전혀 관심이 없다”에서 “매우 관심이 있다”에 이르는 단계별 4점척도를 제시하고 응답하게 하였다.

한국 청소년의 경우 “대체로 관심이 있다”가 52.4%로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내었고, 다음이 “그다지 관심이 없다”(22.2%), “매우 관심이 있

다”(18.8%)의 순이었으며 “전혀 관심이 없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6.4%에 불과했다. 전체적으로 관심이 있다는 응답률이 71.2%로서 관심이 없다는 응답률(28.6%)을 월등하게 상회하였다.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관심이 있다는 응답률에서 한국은 태국(77.0%), 필리핀(74.5%)에 이어서 3번째로서 이들 3개국과 미국이 관심집단이 다수를 점하고 있음에 비해, 미국을 제외한 선진시장형 사회, 이행형 사회와 일본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무관심집단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39: 정치에 대한 관심도 - 국제비교

(단위: %)

	한국	일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필리핀	태국	브라질	러시아
관심 집단	71.2	37.2	59.5	35.7	40.5	41.1	31.8	74.5	77.0	32.0	45.7
매 우	18.8	5.3	14.2	4.9	6.8	9.6	5.8	26.9	13.4	11.9	6.0
대체로	52.4	31.9	45.3	30.8	33.7	31.5	26.0	47.6	63.6	20.1	39.7
무관심집단	28.6	61.5	39.5	64.2	58.2	58.8	67.3	25.6	22.8	67.6	52.7
그다지	22.2	39.6	25.7	33.0	38.7	32.1	38.7	14.9	15.6	15.1	32.8
전 혀	6.4	21.9	13.8	31.2	19.5	26.7	28.6	10.7	7.2	52.5	19.9

국가와 자신과의 관계

자신의 국가에 대해서 청소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자국민으로서 긍지를 갖고 있다”와 “자국을 위하여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다”는 설문항목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그렇다”와 “아니다”로 응답하게 하였다.

표 5-40: 국가와 자신과의 관계 - 국제비교

(단위: %)

	한국	일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필리핀	태국	브라질	러시아
긍지를 갖고 있다	84.2	77.1	91.7	95.5	52.1	77.4	96.2	99.4	99.8	91.9	68.4
도움되는 일을 하고싶다	82.9	49.3	53.3	66.5	28.3	61.8	70.8	96.9	98.7	94.1	66.1

먼저 자국민으로서의 긍지에 대한 응답결과(표 5-40)를 보면 한국의 경우 “그렇다”는 응답률이 84.2%로서 7번째였고, 국가에 기여할 의사가 있다는 응답률은 4번째였다. 대체로 아시아의 발전도상형 사회와 브라질 청소년들이 두 항목 모두에 걸쳐 높은 응답률을 기록한 한편 서구 선진시장형 사회 청소년들의 응답률은 국가별로 편차가 심한 편이었다. 한국은 자국민으로서의 긍지는 낮은 수준이지만, 국가에 대한 기여의사의 응답률은 상위권에 속하는 점이 특이한 사항이라 할 수 있다.

표 5-41: 국가와 자신과의 관계 - 한국 연도별

(단위: %)

	1983	1988	1993	1998
자국민으로서 긍지를 갖고 있다	81.4	86.0	87.3	84.2
자국을 위하여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다	88.4	87.4	83.2	82.9

표 5-42: 전체적인 행복감 - 국제비교

(단위: %)

	한국	일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핀란드	태국	브라질	아시아
행복하다	88.3	92.9	95.0	97.4	90.8	96.8	96.4	96.3	94.8	96.7	73.1
불행하다	5.5	4.3	2.4	5.3	2.6	3.4	3.7	5.2	3.3	16.7	52.7

여 백

참고문헌

- 구상득(1996). “지역사회의 특성과 청소년의 의식실태.” 경상대 최고관리자과정 논문집, 10호, pp. 37-45.
- 권이중(1992). 청소년의 이해: 변화하는 세계속의 청소년. 서울: 체육청소년부.
- 권이중·김문조·임희섭·전병재(1993). 한국 10대 청소년의 의식구조. 서울: 삼성복지재단.
- 권이중외 8인(1995). 서울시 중·고등학생의 생활세계에 관한 연구: 가치관 및 생활양식 분석. 서울: 천주교 서울대교구 가톨릭중등교육자회.
- 김동규(1989). “남북한 청소년의식 분석비교.” 통일, 제95권, pp. 34-40.
- 김문조·권이중·김선업(1994). 한국 10대 청소년의 의식구조: 생활세계적 접근. 서울: 삼성복지재단.
- 김복숙(1993). 한국 중학생(청년전기)들의 가치관 분석: 6대 도시를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도종수·천정웅·구정화(1993). 경기지역 청소년의식 및 생활실태 조사분석과 청소년시책 활성화방안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문용린(1986). 신세대의 이해-그들의 의식과 유형-.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연구소.
- 서울 청소년지도육성회편(1988). 청소년의 생활태도와 의식에 관한 연구. 서울: 청소년지도육성회.
- 서울시 청소년종합상담실(1998). 98 서울시 청소년 의식조사. 서울: 서울특별시 청소년종합상담실.
- 신재흡(1991). 중·고등학생들의 가치관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안부근·이영미·유영일(1991). 91 MBC 청소년백서. 서울: 문화방송.
- 양만우(1980). “청소년 의식조사.” 천주교대논문집. 제16호, pp. 65-80.
- 영동지역발전문제연구소편(1992). 영동 청소년들의 생각과 삶 : 영동지역 청소년 의식조사 결과. 서울: 영동지역발전문제연구소.

- 오영태·강상욱(1995). “한·중 초등학교 학생의 가치관 비교.” 인천교대 논문집, 제29집 1호, pp. 256-258.
- 유진(1985). “청소년의식의 현실.” 문예진흥, 제98호, pp. 38-42.
- 윤석규(1992). “청소년의 의식구조와 현실문제 그리고 그 지도방향.” 교육관리 기술, 제 263호, pp. 88-92.
- 이영호(1981). “한국인의 의식구조.” 현대사회, 제3권.
- 이용원(1995). “성남시 청소년의 의식구조에 관한 실태.” 새교육, 494호, pp. 104-107.
- 이종명(1989). 고등학교 학생들의 가치관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종원(1993·1994). 한국의 청소년지표.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이종원(1994). “청소년의식의 국제비교; 제5회 세계청년의식조사 결과.” 한국 청소년연구, 제19호, pp.183-218.
- 이종원·김혁진(1997). 청소년정보화 실태조사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이춘화(1995). 청소년의 폭력에 관한 의식 및 실태 조사연구. 서울: 한국 청소년개발원.
- 임희섭(1994). 한국의 사회변동과 가치관. 서울: 나남출판사.
- 정원식외(1985). 청소년 의식구조 조사연구. 서울: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정희욱·전경숙·권오실(1997). 한·중·일 청소년의식 비교연구. 서울: 한국 청소년개발원.
- 진주시 청소년상담실편(1998). 진주지역 중·고등학생의 직업의식조사. 진주: 진주시 청소년상담실.
- 차경수(1989). “청소년의 의식구조와 가치관.” 민족지성, 제39호, pp. 34-41.
- 채근섭(1993). 청소년의 의식과 태도에 관한 조사연구. 원광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청소년선교회편(1997). 10대 청소년의 의식과 삶에 관한 보고서. 서울: 한국 기독교청소년선교회.
- 최일섭(1982). “청소년의식과 가정.” 청소년, 제18호, pp. 18-22.
- 최혜경(1987). 청소년의 가치관 연구: 일반 청소년과 비행 청소년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한국갤럽조사연구소편(1991). 한국과 세계청소년의 의식. 서울: 한국갤럽조사
연구소.

한국교육개발원편(1993). 청소년 의식구조 및 형성배경.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홍생표·이광호·김미영·박창남(1998). 학생생활·의식실태조사. 서울: 한국
교원단체총연합회.

青少年對策本部(1995). 第5回世界青年意識調査細部分析報告書. 東京: 總務廳
青少年對策本部.

青少年對策本部(1996). 日本の青少年の生活と意識. 東京: 總務廳 青少年對策本
部.

青少年對策本部(1999). 第6回世界青年意識調査報告書. 東京: 總務廳 青少年對
策本部.

여 백

부 록: 조사표의 구성

1. 대상유형별 조사항목 구분

유 형 번 호	조사대상 구분	중·고등 학 생	대 학 생	취 업 청 소 년	무 직 청 소 년
A	전체 공통항목	O	O	O	O
B	학생청소년 공통항목	O	O	-	-
C	비학생청소년 공통항목	-	-	O	O
D	연장청소년 공통항목	-	O	O	O
E	중·고등학생용 항목	O	-	-	-
F	대학생용 항목	-	O	-	-
G	취업청소년용 항목	-	-	O	-
H	무직청소년용 항목	-	-	-	O

* 초등학생(4~6학년)은 중·고등학생용 설문지를 사용함

2. 영역별 조사항목 구분

유 형 번 호	조 사 영 역	조사대상
0	배경변인	A, B, D, E, G, H
1	가정생활	A
2	학교생활	A, B, C, F,
3	직장생활	A, G
4	지역사회	A
5	사회·국가	A
6	여가·생활일반	A, F, G
7	개인·자아관	A

유형	조 사 항 목	응 답 항 목
A0	당신의 성별은 ?	1. 남 자 2. 여 자
A0	당신의 나이는 만으로 몇살입니까 ?	만 () 살
A0	현재 살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	1. 서 울 2. 부 산 3. 대 구 4. 대 전 5. 인 천 6. 광 주 7. 울 산 8. 경기도 9. 강원도 10. 충청도 11. 전라도 12. 경상도 13. 제주도
A0	당신이 살고 있는 집의 형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	1. 단독주택 2. 아파트 3. 연립·다세대 주택 4. 상가주택(상점에 딸린 주택) 5. 기 타
A0	부모님은 모두 생존해 계십니까 ?	1. 두 분 모두 계시다 2. 아버님만 계시다 3. 어머님만 계시다 4. 두 분 모두 안 계시다
A0	당신의 가족은 친가 또는 외가쪽 할아버지·할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습니까 ? 다음 중 자기 가족에 해당되는 응답항목을 골라 주십시오.	1. 친가쪽 할아버지·할머니(또는 두분중 한분)와 함께 살고 있다 2. 외가쪽 할아버지·할머니(또는 두분중 한분)와 함께 살고 있다 3. 할아버지·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지 않다
A0	우리나라 국민들의 일반적인 생활수준에 비추어 볼 때 자기가정의 경제수준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못 사는 편 2. 중간보다 못 사는 편 3. 중간 수준이다 4. 중간보다 잘 사는 편 5. 매우 잘 사는 편

유형	조 사 항 목	응 답 항 목
A0	당신은 형제 또는 자매가 있습니까 ? 있다면 전체 형제 또는 자매 중에서 자신은 다음중 어디에 해당 됩니까 ?	1. 형제(자매)가 없는 “외동아들(또는 외동딸)”이다 2. 형제(자매)가 있고, 그중에서 “만 이(첫째)”이다 3. 형제(자매)가 있고, 그중에서 “막 내”이다 4. 형제(자매)가 있고, 그중에서 만 이도 막내도 아니다
A0	부모님의 최종학력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 부모님 각각에 대하여 응답해 주십시오(단, 중퇴도 졸업으로 간주함. 예: 고등학교 중퇴 > “고등학교 졸업”으로). 1) 아버지 2) 어머니	1. 초등학교 졸업 2. 중학교 졸업 3. 고등학교 졸업 4. 전문대학 졸업 5. 대학교 졸업 6. 대학원 졸업
A0	부모님은 현재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 아래의 보기에서 해당되는 직업을 골라서 부모님 각각에 대하여 응답해 주십시오(해당되는 직업이 없으면 가장 비슷한 직업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1) 아버지 2) 어머니	1. 경영·관리직: 회사·관청·단체의 임원, 관리직 등 2. 사무·행정직: 회사·관청·단체의 중간간부, 사무직원 등 3. 교육자: 유치원, 초·중·고교 교사, 대학교수, 학원 강사 등 4. 전문직: 법률가, 성직자, 예술가, 의사, 대학교수, 연구원, 회계사 등 5. 기술직: 엔지니어, 프로그래머, 건축가, 조종사 등 6. 자영업: 슈퍼마켓, 대리점, 정비소, 주유소, 식당 등 경영자 7. 서비스직: 요리사, 이발사, 미용사, 웨이터 등 8. 판매·영업직: 세일즈맨, 외판원, 상점 점원 등 9. 생산·기능직: 공장 근로자, 건설 작업자, 운전기사, 경비원 등 10. 농·임·어업 11. 가정주부 12. 직업이 없다

유형	조 사 항 목	응 답 항 목
A0	당신은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까 ? 있다면 다음 중 어떤 종교입니까 ?	1. 종교가 없다 2. 기독교(신교 · 교회) 3. 가톨릭(구교 · 성당) 4. 불 교 5. 유 교 6. 기타 다른 종교
A1	당신은 평소에 집안일을 얼마나 돕고 있습니까 ? 다음의 각 집안일에 대하여 자신이 평소에 얼마나 하고 있는지 해당되는 응답항목을 골라 주십시오 1) 음식요리하기 2) 밥상차리기 3) 설거지하기 4) 세탁 · 빨래하기 5) 집안 청소하기 6) 쓰레기 치우기 7) 자기방 치우기 8) 부모님 심부름하기	1. 거의 하지 않는다 2. 별로 하지 않는다 3. 가끔 하고 있다 4. 자주 하고 있다
A1	현재 자신이 집안일을 돕고 있는 양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적은 편이다 2. 적은 편이다 3. 많은 편이다 4. 매우 많은 편이다
A1	당신은 일상생활에서 친가(아버지쪽 친척)와 외가(어머니쪽 친척) 중 어느 쪽과 더 자주 만나십니까 ?	1. 친 가 2. 외 가 3. 모두 같다
A1	당신은 부모님과 어느 정도 자주 대화를 나누십니까 ? 부모님 각각에 대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1) 아버지 2) 어머니	1. 거의 대화하지 않는다 2. 별로 대화하지 않는다 3. 가끔 대화한다 4. 자주 대화한다
A1	부모님은 당신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부모님 각각에 대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1) 아버지 2) 어머니	1. 거의 이해하지 못하신다 2. 별로 이해하지 못하신다 3. 약간 이해하신다 4. 많이 이해하신다

유형	조사 항목	응답 항목
A1	지난 1년 동안 부모님과 크게 의견이 대립되어 충돌을 한 적이 있습니까? 부모님 각각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1) 아버지 2) 어머니	1. 있 다 2. 없 다
A1	다음 중 어떤 유형의 아버지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가정생활보다 일을 더 중요시하는 아버지 2. 일보다 가정생활을 더 중요시하는 아버지
A1	다음 중 어떤 유형의 아버지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자식에게 엄격하게 대하는 아버지 2. 자식과 친구처럼 지내려고 하는 아버지
A1	다음 중 어떤 유형의 어머니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가사활동에만 전념하고 사회활동을 하지 않는 어머니 2. 가사활동과 더불어 사회활동을 하는 어머니
A1	다음 중 어떤 유형의 어머니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자식에게 엄격하게 대하는 어머니 2. 자식과 친구처럼 지내려고 하는 어머니
A1	당신은 앞으로 자신의 아버님(여자인 경우는 어머니)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1. 매우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그렇다 4. 매우 그렇다
A1	현재 자신의 가정생활을 전체적으로 평가한다면 당신은 얼마나 만족 또는 불만을 느끼십니까?	1. 매우 불만이다 2. 불만이다 3. 만족한다 4. 매우 만족한다
A1	앞으로 2~3년 뒤의 당신의 가정생활을 전망할 때 어떻게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1. 지금보다 훨씬 나빠질 것이다 2. 지금보다 나빠질 것이다 3. 지금과 다름이 없을 것이다 4. 지금보다 좋아질 것이다 5. 지금보다 훨씬 좋아질 것이다

유형	조 사 항 목	응 답 항 목
A1	나이드신 부모님을 어떻게 모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 다음 중 자신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항목을 골라 주십시오.	1.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부모님을 돌봐드리겠다 2. 경제적으로 힘이 닿는 한도 내에서 부모님을 돌봐드리겠다 3. 되도록이면 부모님 자신의 힘이나 사회보장제도에 맡기는 것이 좋겠다 4. 전적으로 부모님 자신의 힘이나 사회보장제도에 맡기는 것이 좋겠다
A1	다음과 같은 생각에 대하여 당신은 어느 정도 찬성 또는 반대하십니까 ? 1) 반드시 결혼을 해야할 필요는 없다 2) 부부간에 애정이 없으면 이혼할 수도 있다 3) 집안에는 아들이 있어야 한다 4) 자녀가 없는 집은 불행한 가정이다 5) 부모님의 의견에는 순종해야 한다 6) 자녀는 부모로부터 일찍 독립해야 한다 7) 할아버지, 할머니와 한 집에 사는 것이 좋다 8) 부모님은 장남이 모셔야 한다 9) 남자·여자는 선천적으로 타고난 능력의 차이가 있다 10) 남자는 밖에서 일하고 여자는 가정을 지켜야 한다	1. 매우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그렇다 4. 매우 그렇다
A1	구체적으로 가정생활의 다음과 같은 측면들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 또는 불만을 느끼십니까 ? 1) 부모님과 자신과의 관계 2) 가족의 경제적인 형편 3) 부모님의 직업 4) 살고 있는 집(주택) 5) 아버지·어머니 두분사이의 관계 6) 형제·자매와 자신과의 관계	1. 매우 불만이다 2. 불만이다 3. 만족한다 4. 매우 만족한다

유형	조 사 항 목	응 답 항 목
A2	[중·고등학생] 당신이 대학에 진학을 하게 될 경우, 이른바 “좋은 대학”과 “자기 적성에 맞는 전공(과)”중에서 어떤 것을 더 중요한 선택기준으로 삼으시겠습니까 ? [대학생·취업청소년·무직청소년] 만약 동생이 대학에 진학을 하게 될 경우, 어떤 쪽을 선택하라고 권유하시겠습니까	[중·고등학생] 1. 전공보다는 좋은 학교에 들어가는 것을 선택하겠다 2. 학교보다는 자기 적성에 맞는 전공(과)을 선택하겠다 [대학생·취업청소년·무직청소년] 1. 전공보다는 좋은 학교에 들어가도록 권유하겠다 2. 학교보다는 자기 적성에 맞는 전공(과)을 선택하도록 권유하겠다
A2	[중·고등학생] 다음과 같은 생각에 대하여 당신은 어느 정도 찬성 또는 반대하십니까 ? 1) 과외를 안해도 학교수업만 열심히 하면 원하는 학교에 진학할 수 있다 2) 잘사는 집 아이가 못사는 집 아이보다 공부도 더 잘한다 3) 공부를 잘 할려면 부모님의 뒷받침이 중요하다 4) 사회에서 졸업장을 중시하지 않는다면 학교에 다니지 않겠다 5) 우리사회는 명문대학을 나와야만 출세할 수 있다 6) 학교에서의 우등생은 사회에서도 성공하기 마련이다 [대학생·취업청소년·무직청소년] 우리사회의 중·고등학교의 현실을 감안할 때 당신은 다음과 같은 생각에 대하여	1. 매우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그렇다 4. 매우 그렇다

유형	조사 항목	응답 항목
A2	[중·고등학생] 당신은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이 자신에게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의 각 설명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응답 항목을 골라 주십시오. 1)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입시준비에 도움이 된다 2) 올바른 인격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3) 자신의 적성과 소질의 계발하는 데 도움이 된다 4) 올바른 생활습관을 익히는 데 도움이 된다 5) 우리사회의 현실을 아는 데 도움이 된다 [대학생·취업청소년·무직청소년] 당신은 중·고등학교때 학교에서 배웠던 내용이 자신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그렇다 4. 매우 그렇다
A3	사람들이 일을 하는 주된 목적은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돈을 벌기 위해 2.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3. 자기자신의 발전을 위해
A3	일을 않고도 편히 살만한 돈이 있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 일하지 않고도 편히 살만한 돈이 있다면, 나는 일하지 않을 것이다 2. 일하지 않고도 편히 살만한 돈이 있어도, 나는 계속 일을 할 것이다
A3	일과 여가생활에 관한 당신의 생각은 다음 중 어느쪽과 더 가깝습니까?	1. 일에 다소 지장이 있더라도 여가생활을 즐겨야 한다 2. 여가생활을 다소 희생하더라도 일을 열심히 해야 한다
A3	다음 두가지 직장 중에서 당신이라면 어떤 직장을 선택하시겠습니까?	1. 일은 고되고 바쁘나, 권한과 책임을 위임해 주는 직장 2. 책임과 권한은 없으나, 일이 힘들지 않고 바쁘지 않은 직장

유형	조 사 항 목	응 답 항 목
A4	당신은 현재 살고 있는 지역(시·군)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거주하셨습니다 ? 다음 중 가장 적합한 응답항목을 골라 주십시오	1. 나는 다른 곳에서 산 경험이 없고 이 지역에서만 살았다 2. 다른 시·군에서 산 경험이 있지만, 이 지역에서 가장 오래 살았다 3. 이 지역보다는 다른 시·군에서 더 오래 살았다
A4	현재 당신은 동네 사람들이 함께 하는 일이나 행사(마을청소, 이웃돕기 행사 등)에 어느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까?	1. 거의 참여하지 않는다 2. 별로 참여하지 않는다 3. 가끔 참여하고 있다 4. 자주 참여하고 있다
A4	당신은 동네에서 이웃어른들과 어느 정도 자주 대화를 나누십니까 ?	1. 거의 대화하지 않는다 2. 별로 대화하지 않는다 3. 가끔 대화한다 4. 자주 대화한다
A4	한 동네에 살고 있는 이웃어른 중에 자신이 앞으로 꼭 그분처럼 되고 싶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	1. 있 다 2. 없 다
A4	당신은 앞으로도 지금 있는 동네에서 계속 살고 싶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이 동네에서 계속 살고 싶다 2. 다른 곳으로 이사하고 싶다 3. 잘 모르겠다
A4	당신은 지금 살고 있는 동네를 얼마나 좋아하십니까 ?	1. 매우 싫어한다 2. 싫어한다 3. 좋아한다 4. 매우 좋아한다
A4	앞으로 2~3년 뒤에 당신이 살고 있는 동네는 어떻게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	1. 지금보다 훨씬 살기 어려운 좋은 동네가 될 것이다 2. 지금보다 살기 어려운 동네가 될 것이다 3. 지금과 다름이 없을 것이다 4. 지금보다 살기 좋은 동네가 될 것이다 5. 지금보다 훨씬 살기 좋은 동네가 될 것이다

유형	조 사 항 목	응 답 항 목
A4	다음은 당신이 살고 있는 동네(마을)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의 각 설명을 읽고 자신에게 해당되는 응답항목을 골라 주십시오 1) 우리동네 사람들은 이웃집에 누가 사는지 서로 잘 알고 지낸다 2) 우리동네는 주민들이 함께 하는 모임이나 행사가 자주 있다 3) 우리동네 사람들은 좋은 일이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돕고 지낸다 4) 우리동네 어른들은 다른 집 아이들이라도 잘못된 일이 있으면 꾸짖는다	1. 매우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그렇다 4. 매우 그렇다
A5	당신은 우리사회 현실에 대한 다음과 같은 설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성별에 따른 차별이 심하다 2) 잘 살고 못사는 사람간의 격차가 심하다 3) 출신지역에 따른 차별이 심하다 4) 학력에 따른 차별이 심하다 5) 사람들간에 서로를 믿지 못한다 6) 일부 사람들만 혜택을 받고 있다 7) 집안이나 뒷배경이 중시된다 8) 올바른 일이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9) 성실한 사람이 제대로 대접을 못 받는다 10) 젊은 사람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	1. 매우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그렇다 4. 매우 그렇다
A5	우리나라의 통일문제에 대한 다음과 같은 의견중에서 당신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은 어떤 것입니까 ?	1. 다소 부작용이 있더라도 빨리 통일이 되어야 한다 2. 늦어지더라도 사회적인 혼란이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3. 통일이 되기보다는 현상태로 있는 것이 더 낫다

유형	조 사 항 목	응 답 항 목
A5	현재 우리사회의 현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 또는 불만을 느끼십니까 ?	1. 매우 불만이다 2. 불만이다 3. 만족한다 4. 매우 만족한다
A5	앞으로 2~3년 뒤의 우리사회를 전망한다면 어떻게 되리라고 생각합니까 ?	1. 지금보다 훨씬 살기 어려운 사회가 될 것이다 2. 지금보다 살기 어려운 사회가 될 것이다 3. 지금과 다름이 없을 것이다 4. 지금보다 살기 좋은 사회가 될 것이다 5. 지금보다 훨씬 살기 좋은 사회가 될 것이다
A5	당신은 우리나라의 현실에 대한 다음과 같은 생각에 얼마나 찬성 또는 반대하십니까 ? 1) 경제적으로 풍요롭다 2)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다 3) 국민들의 문화·예술수준이 높다 4) 과학·기술이 발달되어 있다 5) 범죄가 적고 치안이 잘 유지되고 있다 6) 국민들의 교육수준이 높다 7) 사회복지제도가 잘 갖춰져 있다 8) 공중도덕이 잘 지켜지고 있다 9)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다	1. 매우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그렇다 4. 매우 그렇다
A5	당신은 자신이 한국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 또는 불만을 느끼십니까 ?	1. 매우 불만이다 2. 불만이다 3. 만족한다 4. 매우 만족한다
A6	일주일 중 집에서 가족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 날은 대략 며칠 정도나 됩니까 ?	약()일
A6	일주일중 아침식사(우유·주스 등만 마시는 것은 제외)를 거르는 날은 대략 며칠 정도나 됩니까 ?	약()일

유형	조 사 항 목	응 답 항 목
A6	다음은 당신의 일상적인 생활시간에 관한 질문입니다. 토·일요일을 제외한 평일날 당신은 다음과 같은 일을 하는 데 대략 어느 정도의 시간을 보내십니까? 1) 잠을 자는 시간 2) TV를 보는 시간 3) 여가시간(자신이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시간)	약()시간()분
A6	평소에 가장 즐겨드는 음식은 다음 중 어떤 것입니까	1. 패스트푸드류(햄버거, 치킨, 피자 등) 2. 한식류(갈비, 삼계탕, 비빔밥 등) 3. 분식류(떡볶이, 칼국수, 김밥, 만두 등) 4. 중식류(짜장면, 짬뽕, 탕수육 등) 5. 일식류(우동, 돈까스, 회덮밥, 초밥 등) 6. 서양식류(스테이크, 스파게티 등)
A6	당신은 지금까지 아르바이트를 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1. 한번도 없다 2. 전에 해 본 적이 있다 3. 지금 하고 있다
A6	[중·고등학생] 당신의 한달 평균 용돈은 대략 어느 정도입니까? (용돈: 학용품, 교통비 등을 제외하고 자신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 [취업청소년·무직청소년] 식대, 교통비 등을 제외하고 자신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	약()만()천원
A6	당신은 지난 1년 동안 자원봉사활동을 한 경험이 있습니까?	1. 있 다 2. 없 다
A6	당신은 공휴일 등 쉬는 날에 주로 누구와 함께 어디서 시간을 보내십니까?	1. 혼자 집에서 시간을 보낸다 2. 가족과 어울려 집에서 지낸다 3. 혼자 외출을 한다 4. 가족과 함께 외출을 한다 5. 밖에서 친구·동료들과 시간을 보낸다

유형	조 사 항 목	응 답 항 목
A6	당신이 취미·여가생활을 즐기는데 가장 큰 장애요인은 다음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시간이 부족하다 2. 비용이 부담된다 3. 공부에 방해가 된다 4. 함께 할 사람이 없다 5. 부모님이 반대하신다 6. 적당한 장소·시설이 없다
A6	현재 자신의 여가생활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 또는 불만을 느끼십니까 ?	1. 매우 불만이다 2. 불만이다 3. 만족한다 4. 매우 만족한다
A6	당신은 평소에 주로 어떤 취미활동을 즐기고 있으며,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싶다고 생각하십니까 ? 다음의 <보기>에서 각각 해당되는 항목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1) 현재 주로 하고 있는 활동 2) 앞으로 하고 싶은 활동	1. TV시청, 라디오 청취 2. 신문·잡지 읽기 3. 전자오락·컴퓨터 게임 4. 컴퓨터활용, PC통신·인터넷 검색 5. 독서활동·글쓰기 6. 만화읽기·만화그리기 7. 영화·비디오 관람 8. 대중음악(가요, 팝송) 감상 9. 클래식 음악·국악 감상 10. 노래부르기·악기연주 11. 춤추기·무용 관람 12. 미술 감상·그림그리기 13. 수예품제작, 모형조립, 수놓기 등 14. 실내오락(트럼프, 바둑, 장기 등) 15. 쇼핑하기·백화점·시장 구경 16. 야외활동(등산, 낚시, 산책 등) 17. 여행 18. 스포츠 활동(야구, 축구, 수영 등) 19. 운동경기 관람 20. 이중에는 없다 21. 특별한 취미가 없다
A6	당신은 현재 가깝게 지내는 친구가 있습니까 ? 있다면 그 친구(들)은 동성입니까 아니면 이성입니까 ? (동성: 자신이 남자인 경우 남자친구, 이성: 자신이 남자인 경우 여자친구)	1. 동성의 친구만 있다 2. 이성의 친구만 있다 3. 남자, 여자 친구가 모두 있다 4. 가깝게 지내는 친구가 한명도 없다

유형	조 사 항 목	응 답 항 목
A6	친구들은 당신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1. 거의 이해하지 못하신다 2. 별로 이해하지 못하신다 3. 약간 이해하고 있다 4. 많이 이해하고 있다
A6	현재 자신의 친구와의 관계를 전체적으로 평가한다면 얼마나 만족 또는 불만을 느끼십니까	1. 매우 불만이다 2. 불만이다 3. 만족한다 4. 매우 만족한다
A6	당신의 집에는 컴퓨터가 있습니까 ? 있다면 그 컴퓨터는 누가 주로 사용합니까 ?	1. 없 다 2. 컴퓨터가 있고, 내가 주로 사용한다 3. 컴퓨터가 있고, 부모님이 주로 사용한다 4. 컴퓨터가 있고, 형제·자매가 주로 사용한다
A6	당신은 컴퓨터를 어느 정도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까 ?	1.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다 2. 한달에 1~2일 정도 사용하고 있다 3. 일주일에 1~2일 정도 사용하고 있다 4. 일주일에 3~4일 정도 사용하고 있다 5. 거의 매일같이 사용하고 있다
A6	당신은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 이용하고 있다면 얼마나 자주 이용하십니까 ?	1. 거의 이용하지 않고 있다 2. 한달에 1~2일 정도 이용하고 있다 3. 일주일에 1~2일 정도 이용하고 있다 4. 일주일에 3~4일 정도 이용하고 있다 5. 거의 매일같이 이용하고 있다
A6	컴퓨터·인터넷이 없다면 당신의 생활은 어떻게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	1. 거의 변화가 없을 것이다 2. 별로 변화가 없을 것이다 3. 약간 불편할 것이다 4. 매우 불편할 것이다

유형	조 사 항 목	응 답 항 목
A7	다음은 당신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아래의 설명을 읽고 자신에게 해당되는 응답항목을 골라 주십시오 1) 나는 내 자신이 마음에 안 든다 2) 나에게는 자랑할만 것이 별로 없다 3) 나는 친구들과 잘 어울리는 편이다 4) 나는 때때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5) 미래의 나는 지금보다 나아질 것이다 6) 나는 다른 사람보다 우월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7) 나는 미래에 대한 꿈과 야망을 가지고 있다 8) 장래의 성공은 지금 얼마나 노력하는가에 달려있다 9) 내가 노력만 한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이다	1. 매우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그렇다 4. 매우 그렇다
A7	현재 당신은 고민이나 걱정거리가 있습니까 ? 있다면 어떤 것인지 가장 대표적인 것 한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중·고·대학생] 1. 돈·경제적인 문제 2. 진로문제 3. 공부·학업문제 4. 이성문제 5. 자신의 성격 6. 진로문제 7. 친구와의 관계 8. 건강문제 9. 자신의 외모 10. 종교·인생관 문제 11. 가정문제 12. 고민·걱정거리가 없다 [취업청소년] 3. 직장문제(대체) [무직청소년] (삭제):

유형	조 사 항 목	응 답 항 목
A7	당신은 자신의 고민이나 걱정거리를 주로 누구와 상의하십니까 ?	1. 아버지 2. 어머니 3. 형제·자매 4. <u>학교선생님</u> 5. 친구나 선·후배 6. 이중에는 없다 7. 아무하고도 상의하지 않는다 [대학생] 4. <u>학교교수님</u> [취업청소년] 4. <u>직장상사</u> [무직청소년] 4. (삭제)
A7	현재의 생활을 전체적으로 고려해 볼 때 당신은 얼마나 행복하다고 느끼십니까 ?	1. 매우 행복하지 않다 2. 행복하지 않다 3. 행복하다 4. 매우 행복하다
B2	현재 몇학년입니까 ?	()학년
B2	[중·고등학생] 당신은 <u>학과수업 시간 이외에 선생</u> <u>님과 어느 정도 자주 대화를 나누시</u> <u>니까 ?</u> [대학생] <u>학과 강의시간 이외에 교수님과</u>	1. 거의 대화하지 않는다 2. 별로 대화하지 않는다 3. 가끔 대화한다 4. 자주 대화한다
B2	[중·고등학생] <u>학교 선생님들은</u> 학생들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 십니까 ? [대학생] <u>학교 교수님들은</u>	1. 거의 이해하지 못하신다 2. 별로 이해하지 못하신다 3. 약간 이해하신다 4. 많이 이해하신다
B2	[중·고등학생] <u>지난 1년 동안 학교 선생님과 크게</u> <u>의견이 대립되어 반항을 하거나 충</u> <u>돌한 적이 있습니까 ?</u> [대학생] <u>지난 1년 동안 학교 교수님과</u>	1. 있 다 2. 없 다

유형	조 사 항 목	응 답 항 목
B2	[중·고등학생] 당신은 평소 <u>학급친구들에 대해서</u> 경쟁의식을 느끼고 있습니까? [대학생] <u>같은 과 친구들에 대해서</u>	1. 거의 느끼지 않고 있다 2. 별로 느끼지 않고 있다 3. 약간 느끼고 있다 4. 많이 느끼고 있다
B2	[중·고등학생] 다음 중 <u>어떤 선생님이</u>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학생] <u>어떤 교수님이</u>	1. 수업시간에 알기쉽게 잘 지도해 주시는 선생님 2. 학생들의 생활·진로지도를 잘해 주시는 선생님
B2	[중·고등학생] 구체적으로 학교생활의 다음과 같은 측면들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 또는 불만을 느끼십니까? 1) <u>학교선생님과 자신과의 관계</u> 2) <u>학교선생님의 수업 지도방식</u> 3) <u>학교에서의 특별활동</u> 4) <u>학교 수업시간의 양</u> 5) <u>자신의 학교성적</u> 6) <u>학교의 규칙·규율</u> 7) <u>학교의 시설·설비</u> [대학생] 1),2) <u>학교 교수님</u> 3) <u>학교에서의 서클·동아리활동</u>	1. 매우 불만이다 2. 불만이다 3. 만족한다 4. 매우 만족한다
B2	[중·고등학생] 다음 중 <u>어떤 선생님이</u>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학생] <u>어떤 교수님이</u>	1. 학생들을 엄격하게 지도하는 선 생님 2. 학생들과 친구처럼 지내려고 하 는 선생님
B2	[중·고등학생]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의 <u>선생님 중</u> <u>에 자신이 어른이 되면 꼭 그분처럼</u> <u>되고 싶다고</u>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 까? [대학생] <u>교수님 중에서 자신이 앞으로 본받</u> <u>고 싶다고</u>	1. 있 다 2. 없 다

유형	조 사 항 목	응 답 항 목
B2	현재 자신의 학교생활을 전체적으로 평가한다면 얼마나 만족 또는 불만을 느끼십니까 ?	1. 매우 불만이다 2. 불만이다 3. 만족한다 4. 매우 만족한다
B2	앞으로의 1년 뒤의 당신의 학교생활을 전망한다면 어떻게 되리라고 생각합니까 ?	1. 지금보다 훨씬 나빠질 것이다 2. 지금보다 나빠질 것이다 3. 지금과 다름없을 것이다 4. 지금보다 좋아질 것이다 5. 지금보다 훨씬 좋아질 것이다
B3	당신은 앞으로 어떤 직업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 또한 부모님은 당신이 어떤 직업을 갖기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 다음의 <보기>에 제시된 직업 중에서 자신이 원하는 직업과 부모님이 기대하시는 직업을 선택하여 주십시오.(<보기>에 해당되는 직업이 없으면 가장 가까운 직업 선택) 1) 자신이 원하는 직업 2) 부모님이 기대하시는 직업	1. 법조인(판사, 검사, 변호사 등) 2. 고위공직자(대통령, 장·차관 등) 3. 일반 공무원 4. 군인·경찰관 5. 정치인(국회의원, 정당활동 등) 6. 의사·약사 7. 간호사 8. 사회복지관계자(사회복지단체 등) 9. 언론인(기자, 아나운서, PD 등) 10. 직업 운동선수(야구, 축구 등) 11. 예술가(음악가, 화가, 사진작가, 소설가 등) 12. 연예인(배우, 가수, 개그맨, 모델, 댄서 등) 13. 전문기술자(파일러트, 엔지니어, 건축사 등) 14. 컴퓨터 전문직(프로그래머, 게이머 등) 15. 학자(교수, 연구원, 과학자 등) 16. 교사(초·중·고등학교) 17. 회사경영자 18. 회사원 19. 자영업(상점, 슈퍼마켓, 음식점 경영 등) 20. 가정주부 21. 농업·어업·임업 등 22. 잘 모르겠다

유형	조 사 항 목	응 답 항 목
B6	친구를 학교친구(학교에서 사귀 친구)와 동네친구(한 동네에 살면서 알게 된 친구)로 구분할 때 당신은 학교수업이 끝난 후에 어느 쪽 친구와 더 자주 어울리십니까 ?	1. 대부분 학교친구들하고만 어울린다 2. 학교친구들하고 어울리는 경우가 더 많다 3. 동네친구들하고 어울리는 경우가 더 많다 4. 대부분 동네친구들하고만 어울린다
B6	당신은 학교수업이 끝난 후에 친구들과 어느 정도 자주 어울려 시간을 보내십니까 ?	1. 한달에 1~2일 정도 2. 일주일에 1~2일 정도 3. 일주일에 3~4일 정도 4. 거의 매일
C0	당신의 최종학력은 다음 중 어떻게 됩니까 ?	1. 초등학교 중퇴 2. 초등학교 졸업 3. 중학교 중퇴 4. 중학교 졸업 5. 인문계 고등학교 중퇴 6. 인문계 고등학교 졸업 7. 실업계 고등학교 중퇴 8.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 9. 대학교 중퇴 10. 대학교 휴학중
D0	현재 누구와 함께 살고 있습니까 ?	1. 부모님(또는 두분 중 한분)과 함께 살고 있다 2. 부모님과 떨어져서 친척·친지집 또는 형제들과 살고 있다 3. 가족과 떨어져서 혼자 살고 있다 (기숙사, 하숙, 자취 등)
E0	현재 재학중인 학교는 ?	1. 중학교 2. 인문계 고등학교 3. 실업계 고등학교
E2	현재 재학중인 학교는 남녀공학입니까 ? 남녀공학인 경우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	1. 남녀공학이 아니다 2. 남녀공학이고, 남·녀가 한 반에서 공부하고 있다 3. 남녀공학이지만, 남·녀가 다른 반으로 나뉘어 있다

유형	조 사 항 목	응 답 항 목
E2	당신의 학교성적은 다음중 어디에 해당되니까 ?	1. 매우 잘 하는 편 2. 중간보다 잘 하는 편 3. 중간 수준 4. 중간보다 못 하는 편 5. 매우 못 하는 편
E2	당신은 학교수업 이외에 정기적으로 학원(체육관·문화센터 등 포함)에 다니거나 배우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 다음의 각 사항에 대하여 “그렇다” “아니다”로 응답해 주십시오. 1) 학과공부 보충을 위해 학원에 다니고 있다 2) 취미·여가생활을 위해 학원에 다니고 있다 3) 학과공부 보충을 개인 또는 그룹 지도를 받고 있다 4) 취미·여가생활을 위해 개인 또는 그룹지도를 받고 있다 5) 취미·여가생활을 위해 혼자서 배우고 있는 것이 있다 6) 집에서 학습지(온라인 학습지 포함)를 받아보고 있다	1. 그렇다 2. 아니다
E2	현재 자신이 하고 있는 공부의 양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적은 편이다 2. 적은 편이다 3. 많은 편이다 4. 매우 많은 편이다
E2	학교의 특별활동 이외에 교내 또는 교외 서클이나 동아리에 가입하여 활동한 경험이 있습니까 ?	1. 전혀 가입한 경험이 없다 2. 과거에 가입한 경험이 있다 3. 현재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E2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는 대학에 진학할 생각입니까 ? 아니면 취업할 생각입니까 ?	1. 반드시 대학에 진학할 생각이다 2. 가능하다면 대학에 진학할 생각이다 3. 가능하다면 취업할 생각이다 4. 반드시 취업할 생각이다 5.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E6	지난 1년 동안 청소년 수련시설을 이용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	1. 있 다 2. 없 다

유형	조 사 항 목	응 답 항 목
E6	다음은 당신의 일상적인 생활시간에 관한 질문입니다. 토·일요일을 제외한 평일날 당신은 다음과 같은 일을 하는 데 대략 어느 정도의 시간을 보내십니까? 1) 학교에서 공부하는 시간 2) 집 또는 학원에서 공부하는 시간	약()시간()분
F0	현재 재학중인 학교는 ?	1. 전문대학교(2년제) 2. 대학교(4년제)
F2	현재 자신이 하고 있는 공부(전공·취업준비 등)의 양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적은 편이다 2. 적은 편이다 3. 많은 편이다 4. 매우 많은 편이다
F2	대학에 들어와서 교내 또는 교외 서클이나 동아리에 가입하여 활동한 경험이 있습니까 ?	1. 전혀 가입한 경험이 없다 2. 과거에 가입한 경험이 있다 3. 현재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G0	현재 당신은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	1. 사무·행정직: 회사·관공서·단체의 사무·행정 직원(업무보조 포함) 2. 영업·판매직: 세일즈맨, 외판원, 슈퍼마켓·백화점 점원 등 3. 서비스직: 배달원, 요리사, 이·미용사, 웨이터, 식당 종업원 등 4. 생산·기능직: 공장 근로자, 건설 작업자, 운전기사, 경비원 등 5. 농·임·어업 6. 기타
G0	현재의 직장(또는 직업)에서 근무하신지 얼마나 됩니까 ?	약()년()개월
G3	현재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업무의 양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적은 편이다 2. 적은 편이다 3. 많은 편이다 4. 매우 많은 편이다
G3	당신은 일·업무관계 이외에 직장상사와 어느 정도 자주 대화를 나누십니까 ?	1. 거의 대화하지 않는다 2. 별로 대화하지 않는다 3. 가끔 대화한다 4. 자주 대화한다

유형	조 사 항 목	응 답 항 목
G3	당신의 직장상사는 부하직원들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1. 거의 이해하지 못한다 2. 별로 이해하지 못한다 3. 약간 이해하고 있다 4. 많이 이해하고 있다
G3	지난 1년동안 직장상사와 크게 의견이 대립되어 반항을 하거나 충돌한 적이 있습니까 ?	1. 있 다 2. 없 다
G3	당신은 평소 직장동료들에 대해서 경쟁의식을 느끼고 있습니까 ?	1. 거의 느끼지 않고 있다 2. 별로 느끼지 않고 있다 3. 약간 느끼고 있다 4. 많이 느끼고 있다
G3	다음 중 어떤 직장상사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일·업무 처리 능력이 뛰어난 사람 2. 부하직원들을 잘 이해해 주는 사람
G3	다음 중 어떤 직장상사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부하직원들에게 엄격하게 대하는 사람 2. 부하직원들과 친구처럼 지내려고 하는 사람
G3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자신이 앞으로 꼭 그분처럼 되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	1. 있 다 2. 없 다
G3	현재 자신의 직장생활을 전체적으로 평가한다면 얼마나 만족 또는 불만을 느끼십니까 ?	1. 매우 불만이다 2. 불만이다 3. 만족한다 4. 매우 만족한다
G3	구체적으로 직장생활의 다음과 같은 측면들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 또는 불만을 느끼십니까 ? 1) 직장상사와 자신과의 관계 2) 직장동료와 자신과의 관계 3) 직원 복지·후생제도 4) 자신이 하고 있는 업무의 양 5) 자신의 업무 수행 능력 6) 직장의 규칙·규율 7) 직장의 시설·설비	1. 매우 불만이다 2. 불만이다 3. 만족한다 4. 매우 만족한다

유형	조 사 항 목	응 답 항 목
G3	앞으로의 1년 뒤의 당신의 직장생활을 전망한다면 어떻게 되리라고 생각합니까 ?	1. 지금보다 훨씬 나빠질 것이다 2. 지금보다 나빠질 것이다 3. 지금과 다름없을 것이다 4. 지금보다 좋아질 것이다 5. 지금보다 훨씬 좋아질 것이다
G3	당신은 앞으로도 계속 현재의 직장에서 일하기를 원하십니까 ?	1. 반드시 다른 직장으로 옮기고 싶다 2. 가능하면 다른 직장으로 옮기고 싶다 3. 오랜 동안 현재의 직장에서 일하고 싶다 4. 현재의 직장에서 평생 근무하고 싶다
G6	다음은 당신의 일상적인 생활시간에 관한 질문입니다. 평일날 당신은 다음과 같은 일을 하는 데 대략 어느 정도의 시간을 보내십니까 ? 1) 직장에서 일하는 시간	약()시간()분
G6	친구를 직장친구(직장에서 사귄 친구)와 동네친구(한 동네에 살면서 알게 된 친구)로 구분할 때 당신은 직장밖에서 주로 어느 쪽 친구와 더 자주 어울리십니까 ?	1. 대부분 직장친구들하고만 어울린다 2. 직장친구들하고 어울리는 경우가 더 많다 3. 동네친구들하고 어울리는 경우가 더 많다 4. 대부분 동네친구들하고만 어울린다
G6	당신은 직장에서의 업무가 끝난 후에 친구들과 어느 정도 자주 어울려 시간을 보내십니까 ?	1. 한달에 1~2일 정도 2. 일주일에 1~2일 정도 3. 일주일에 3~4일 정도 4. 거의 매일
H0	현재 당신은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	1. 학교에 진학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2. 취직을 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3. 별다른 일을 하고 있지 않다 4. 기 타
H0	당신은 지금까지 직장생활을 하거나 직업을 가져 본 경험이 있습니까 ?	1. 있 다 2. 없 다

연구에 도움주신 분들

김 원 동 (강원대학교 사회학과 · 교수)

안 병 철 (한양대학교 정보사회학과 · 교수)

이 광 원 (경남대학교 교육학과 · 교수)

이 동 원 (광주대학교 경찰행정학과 · 교수)

이 순 래 (원광대학교 경찰행정학과 · 교수)

조 대 엽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 교수)

조 용 하 (부산대학교 교육학과 · 교수)

* 가나다 순

2000년도 한국청소년개발원 간행물 안내

【정책 연구 보고서】

- 00-R01 전국 청소년 생활실태 조사 연구(이종원 · 주동범 · 서정아)
- 00-R02 지역갈등에 대한 청소년의식 조사 연구(주동범 · 이동원)
- 00-R03 권리에 대한 청소년의식 조사 연구(정희욱 · 길은배 · 김정래)
- 00-R04 청소년의 효과적인 진로탐색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방안 연구(이광호 · 맹영임 · 임성택)
- 00-R05 청소년단체의 운영실태 및 협력체계 구축방안 연구(임성택 · 김영한 · 장동현)
- 00-R06 청소년 문화감수성 함양을 위한 정책적 대안 연구(최원기 · 김창남 · 전경숙)
- 00-R07 청소년국제교류사업 실태와 평가방안 연구(윤철경 · 이상오 · 김경준)
- 00-R08 21세기 농촌청소년 문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김성수 · 김경준 · 전경숙)
- 00-R09 청소년 파트타임 고용실태와 제도적 지원방안 연구-중 · 고등학생의 아르바이트를 중심으로-(이철위 · 박창남 · 정혜영)
- 00-R10 청소년의 신체적 자아상에 관한 연구(한준상 · 이춘화 · 윤옥경)
- 00-R11 현안 청소년문제 분석 연구-청소년 사이버일탈과 비행이론의 적용-(천정웅 · 한상철 · 임지연)
- 00-R12 청소년의 유해업소 접촉실태와 대책 연구(김문조 · 윤옥경 · 이춘화)
- 00-R13 청소년공부방 운영모델 연구(이용교 · 이해연 · 박영균)
- 00-R14 장애청소년 이해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박영균 · 김정렬 · 이해연)
- 00-R15 청소년 봉사활동 참여실태 조사 연구(김정배 · 정익재)

- 00-R16 저소득층 청소년문화의 실태와 문화적 권리신장 방안 연구
(조은 · 김영지 · 김희진)
- 00-R17 사회적 지지망에 대한 지각과 회상된 부모의 자녀양육 방식
간의 관계 : 비교문화연구 (장미경)
- 00-R18 학교실패 현상에 대한 문화론적 연구(김민)
- 00-R19 가상현실의 형성과 N세대의 사회문화적 특징(정용교)
- 00-R20 인터넷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및 대안 연구-인터넷 미
디어교육 시안제시를 중심으로- (김기태)
- 00-R21 청소년계층 내부의 정보격차 실태 연구(황진구)
- 00-R22 청소년의 웹진(Webzine)활용의 실태와 의미에 관한 연구(김
영지)
- 00-R23 소도시 청소년의 사회계층의식의 이해 유형에 대한 탐구-경
제적 불평등 개념을 중심으로- (김경모)
- 00-R24 청소년 문제행동의 예방을 위한 자녀지도의 기본원리(김성일)
- 00-R25 청소년육구를 중심으로 본 청소년 지도방법 연구 (김문섭)
- 00-R26 제2차청소년기본계획 수립 방향 연구 (함병수 · 이종원 · 길
은배 · 주동범 · 서정아)
- 00-R27 새천년 청소년의식의 국제비교-한국 · 미국 · 일본 · 프랑스
청소년의 비교-(윤철경 · 전경숙 · 최원기 · 김경준 · 주동범)
- 00-R28 한국청소년중앙공원 운영 방안 연구(함병수 · 주동범 · 최원
기 · 김혁진 · 권이중 · 이철위 · 정재희 · 전동익)
- 00-R29 한국청소년중앙공원과 독립기념관 연계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방안(권이중)
- 00-R30 한국청소년중앙공원 청소년교류프로그램개발 및 네트워크
구축방안(이철위)
- 00-R31 한국청소년중앙공원 시설안전 및 환경위생관리 지침(정재
희 · 전동익)
- 00-R32 한국청소년중앙공원 홍보용 홈페이지 개발

- 00-R33 우수 청소년수련시설 선정 및 인센티브 부여방안 연구(이광호 · 김영한 · 임성택 · 맹영임 · 전명기)
- 00-R34 청소년수련시설 안전확보 제도 연구(김영한 · 이광호 · 맹영임 · 강영모)
- 00-R35 청소년수련시설 안전관리지침서(김영한 · 이광호 · 맹영임 · 강영모)
- 00-R36 비행청소년의 사회재적응 훈련 프로그램 개발 연구(이백철, 김현중, 송성자)
- 00-R37 일탈 청소년의 해외체험 프로그램 개발 연구(김경준 · 전경숙 · 천정웅 · 이춘화 · 윤옥경)
- 00-R38 청소년해외체험 프로그램(김경준 · 전경숙 · 천정웅 · 이춘화 · 윤옥경)
- 00-R39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전산운영 프로그램 개발 연구(박창남 · 김진호 · 정혜영 · 이경주)
- 00-R40 청소년기관 정보화 실태와 DB · 네트워크 구축 방안 연구(황진구 · 이현수 · 김성희)
- 00-R41 21세기 한국형 청소년자원봉사모델 및 프로그램 개발(김정배 · 정익재 · 함병수)
- 00-R42 청소년자원봉사 전문인력 양성(김정배 · 정익재 · 조미영)
- 00-R43 청소년자원봉사 리더 양성 · 활용(김정배 · 정익재 · 조미영)
- 00-R44 청소년직업체험활동보고서(김정배 · 정익재 · 조미영)
- 00-R45 청소년정책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길은배 · 서정아 · 김희진)
- 00-R46 제주도 청소년육성 기본계획 연구 -청소년비전 2005-(박영균 · 김정주 · 김영지 · 김희진)
- 00-R47 제주도 청소년육성 기본계획 연구-요약-(박영균 · 김정주 · 김영지 · 김희진)
- 00-R48 인천광역시 청소년문화zone조성방안 연구(함병수 외)

- 00-R49 인천광역시 청소년문화zone조성방안 연구-요약-(함병수 외)
- 00-R50 인천광역시 청소년문화zone지역실태 및 환경조사 연구 (노대명 · 김은경)
- 00-R51 인천광역시 청소년들의 문화환경에 대한 의식 및 욕구 조사 (이종원 외)
- 00-R52 인천광역시청소년문화zone 프로그램 운영 계획 (김혁진 · 김진호 외)
- 00-R53 비정부(NGO)기구를 통한 남북한 청소년 교류 협력 방안 연구 (함병수 · 길은배 · 이종원 · 최원기)
- 00-R54 학생교육원 수련교육 활성화방안 연구 (김영지 · 임지연 · 김정주 · 김성식 · 선형기 · 장경선)
- 00-R55 청소년기본법 정비방안 연구 (허종렬)
- 00-R56 UN/ESCAP 등 주요 국제기구 청소년분야 사업분석 및 한국 참여 확대 방안 (김승목)
- 00-R57 일본의 청소년교류 정책의 실태 (양관수)
- 00-R58 청소년지도자의 철학적 태도와 지도양식에 관한 연구 (권두승)
- 00-R59 청소년지도사 양성제도 변화의 차별적 특성과 향후 양성방향에 관한 연구 (이광호)
- 00-R60 청소년의 스포츠 참가와 의사소통 및 또래관계에 관한 연구 (구창모)
- 00-R61 한국형 청소년 미디어교육 추진모델 개발 연구 (최창섭)
- 00-R62 학교 자율 규율 제정 방안 연구 (천세영)
- 00-R63 비행청소년을 위한 범죄피해자-가해자 중재 프로그램 가능성과 운영 방향 (배임호)
- 00-R64 성매매 청소년문제 실태와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신미식)
- 00-R65 청소년의 성에 대한 태도유형과 교육적 시사점 (조아미)
- 00-R66 한국의 장애학생 통합교육을 위한 정책방안 탐구 (박영균 · 주동범)

【수련 프로그램 개발】

- 00-R67 사진체험 수련활동(김혁진 · 이해연 · 김영지 · 김희진 · 김정주)
- 00-R68 천체관측 수련활동(김혁진 · 이해연 · 김영지 · 김희진 · 김정주)
- 00-R69 과학공작 수련활동(김혁진 · 이해연 · 김영지 · 김희진 · 김정주)
- 00-R70 경로봉사 수련활동(김혁진 · 이해연 · 김영지 · 김희진 · 김정주)
- 00-R71 진로의사결정 수련활동(김혁진 · 이해연 · 김영지 · 김희진 · 김정주)
- 00-R72 청소년기업인 수련활동(김혁진 · 이해연 · 김영지 · 김희진 · 김정주)
- 00-R73 통일준비 수련활동(김혁진 · 이해연 · 김영지 · 김희진 · 김정주)

【세미나 · 토론회 자료집】

- 00-S01 전국청소년수련활동 관계자 워크샵(2000.1.워크샵 자료집)
- 00-S02 전국학생교육원협의회자료집(2000.2.10.워크샵 자료집)
- 00-S03 10대가 말하는 우리의 삶, 청소년의 권리(2000.5.28. 청소년 토론회 자료집)
- 00-S04 인터넷 문화:청소년참여와 사이버 일탈(2000.7.26. 워크샵 자료집)
- 00-S05 제주도 청소년육성 현황과 정책과제(2000.8.29.워크샵자료집)
- 00-S06 인천광역시 청소년문화활성화를 위한 토론회(2000.10.16, 인천광역시토론회자료집)
- 00-S07 새로운 밀레니엄 시대의 사회변화와 청소년육성 정책수립의 과제(2000.10.10.국제심포지움 자료집)
- 00-S08 중고등학생 두발제한 반대운동 대책 수립을 위한 전문가 정책토론회(2000.11.8, 정책토론회 자료집)
- 00-S09 글로벌시대:청소년전통예절과 에티켓(2000.12.6.워크샵자료집)
- 00-S10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직원직무연수교재(2000. 7.연수교재)
- 00-S11 청소년지도사연수교재(2000.11. 연수교재)
- 00-S12 전국공공청소년수련시설 담당공무원 연수회(2000.12.12~14. 연수교재)

【학술논문집】

- 『 한국청소년연구』 2000년 제 11권 제1호 통권 제31호(2000.6)
- 『 한국청소년연구』 2000년 제 11권 제2호 통권 제32호(2000.12)

연구보고 00-R 01

전국 청소년 생활실태 조사 연구

인	쇄	2000년 12월 27일
발	행	2000년 12월 30일
발	행	인 최 충 욱
발	행	처 한국청소년개발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142, 137-715
등	록	1993. 10. 23 제21-500호
인	쇄	처 계 문 사
		전화 (02) 725-5216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2-2188-8844(총무부)

ISBN 89-7816-304-1(93330)